

1999년도

사업보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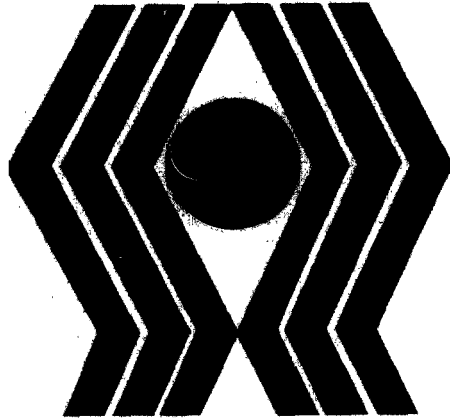
1999년도

사 업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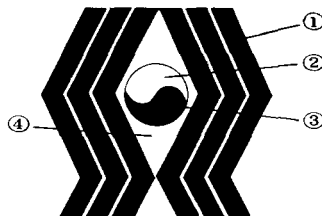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조연맹기에 대한 설명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됨으로써 금속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조선, 비철금속의 업종별, 분과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한국의 금속노동조합을 뜻함.
 3. 원 : 뜻과 목적과 공존공영의 번영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를 나타내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⑤의 바탕은 남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속노련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고 힘차게)



떠 오 르 는 태 -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땀 기 림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용 - 광 로 흐 른 용 액 불 꽃 튀 기 듯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몽 친 우 리 - 들
하 - 늘 과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우 - 리 의 핏 줄 속 은 불 고 뜨 거 - 워



거 - 칠 은 가 시 밭 길 꺾 어 넓 히 며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맥 박 이 뿔 다
잘 - 사 는 평 생 터 전 우 리 손 으 로



나 가 자 금 속 깃 발 강 - 철 의 대 오
" " " "



손 모 - 은 여 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 하 며 교 류 하 는 국 제 유 대 로
뜻 모 - 은 투 혼 속 에 내 일 은 밝 다



정 의 의 사 회 퍼 갈 금 속 노 — — — 련
인 류 의 평 화 지 킬 금 속 노 — — — 련
복 지 를 다 저 가 금 속 노 — — — 련

목 차

1. 화보	5
2. 머리말	19
3. 선언 · 강령	21
4. 연혁	23
5. 총론	37
6. 기획연구활동	51
7. 총무활동	71
8. 조직활동	87
9. 국제활동	145
10. 노사대책법규활동	165
11. 조사통계활동	209
12. 산업안전보건활동	257
13. 교육선전활동	273
14. 홍보활동	301
15. 여성 · 문화활동	365
16. 정치활동	389

임원



위원장 유재섭

지도위원



정학균



최웅길(상임)



강영섭

부위원장



정창영(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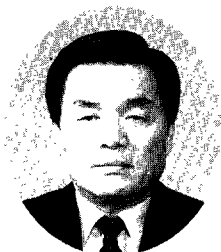
김만재



문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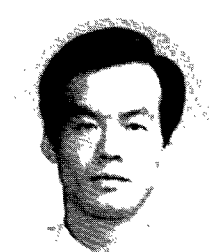
김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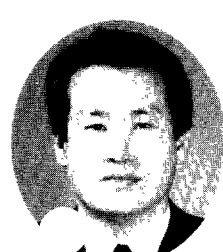
정기춘



김경조



김영철



하영일



강익화



강창영



백종부



황창배



김복천



김무호



강한우



강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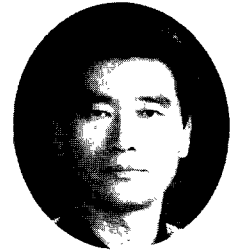
김상수



지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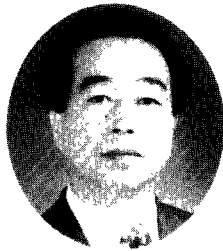
이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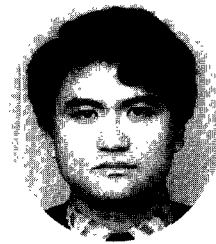
박병웅



김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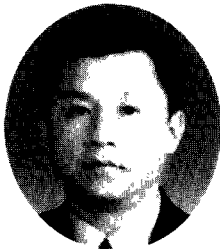
김두형



신성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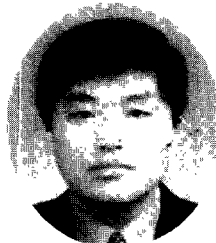
박병도



장석준



허원



도정복



신항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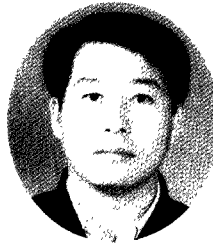


강영철



변재환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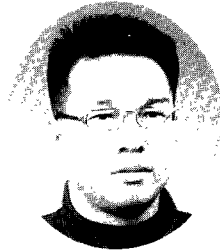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이 병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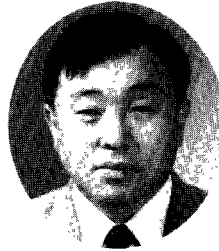
회계감사



최 해 경



김 응 표



이 병 옥



왕 용 호



배 동 한



강 학 중

김 우 배

'99연맹, 시진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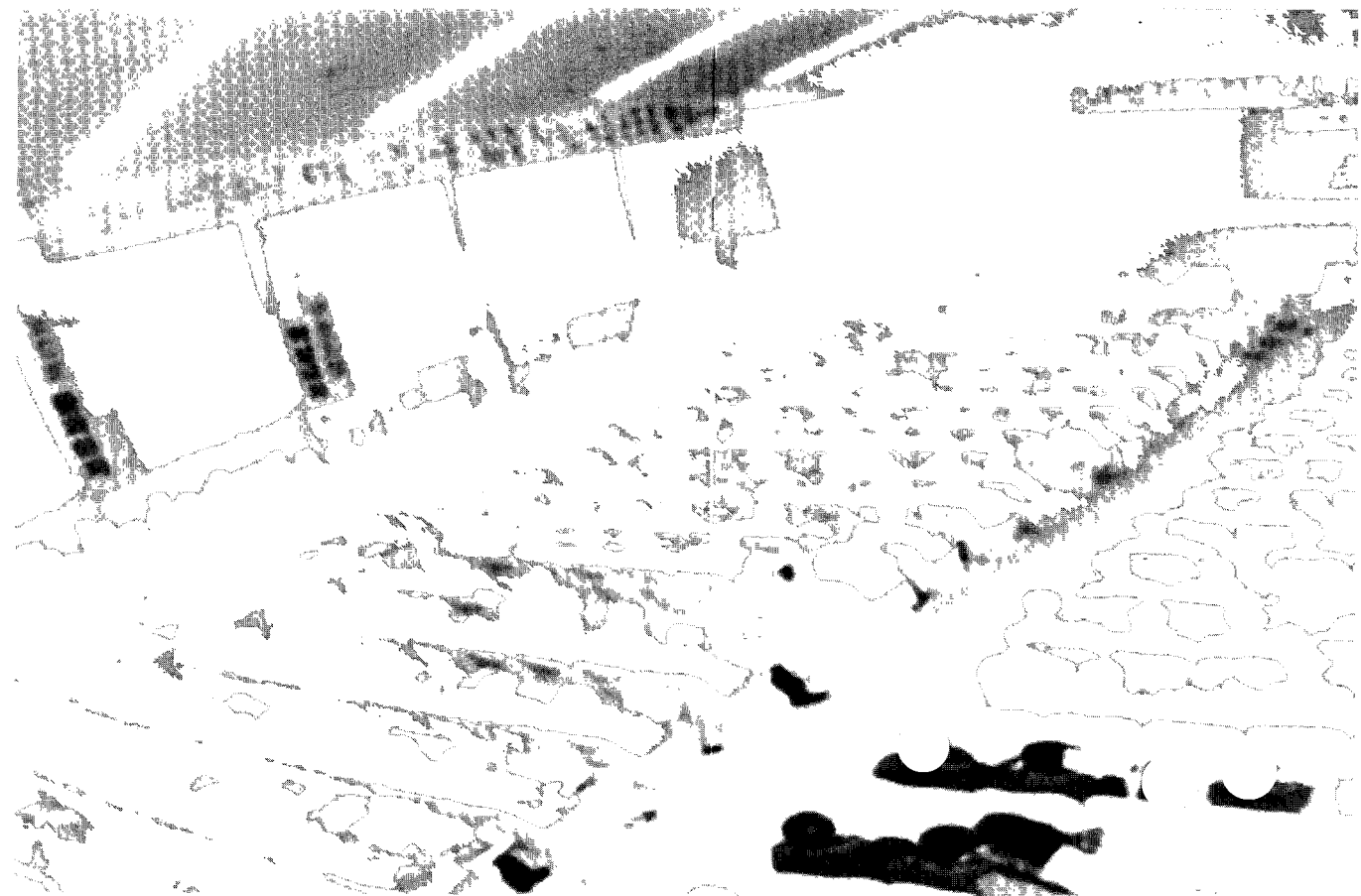
조직확대, 산별건설을!!

희망과 도전 ! 21세기를 위한 전국대표자대회가 연맹주최로 2000년 2월 18일 구미시민복지회관에서 500여 단위노조대표자들과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급속의 단결력과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날 대회는 연맹이 '노동운동의 위기 =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란 판단아래 조직확대강화로써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앞서 연맹은 3가지 핵심과제를 내걸고 현장토론을 거쳐 연맹의 2천년대 운동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3대 핵심과제는 '조직강화 및 확대, 산별노조건설, 공동임단투'이다. 이를 위해 연맹은 각 지역본부별로 진행된 토론에 적극 결합하였고 이날 그 내용들을 모아 발표함으로써 연맹의 2천년대 운동방향은 자연스럽게 확정되었다.

오늘, 21세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다



보다 따뜻하고 더욱 인간적인



지역별로 총단결의지를 밝히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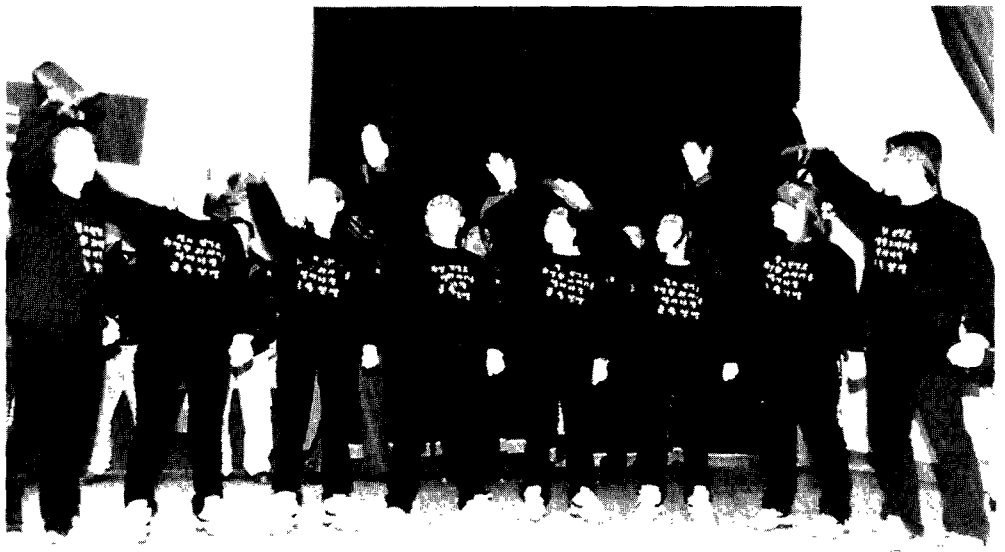


숙연한 분위기속에서 투쟁의지를 다지며

삶을 위한 노동운동을 향하여



노동자 하나되는 단결의식을



희망을 주는 힘찬 노동운동을 기원하며

'99 총파업투쟁을 되돌아보다

99년 겨울, 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노총역사상 세 번째이다. 노총은 97년 겨울 노총사상 처음으로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16일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두 번째 총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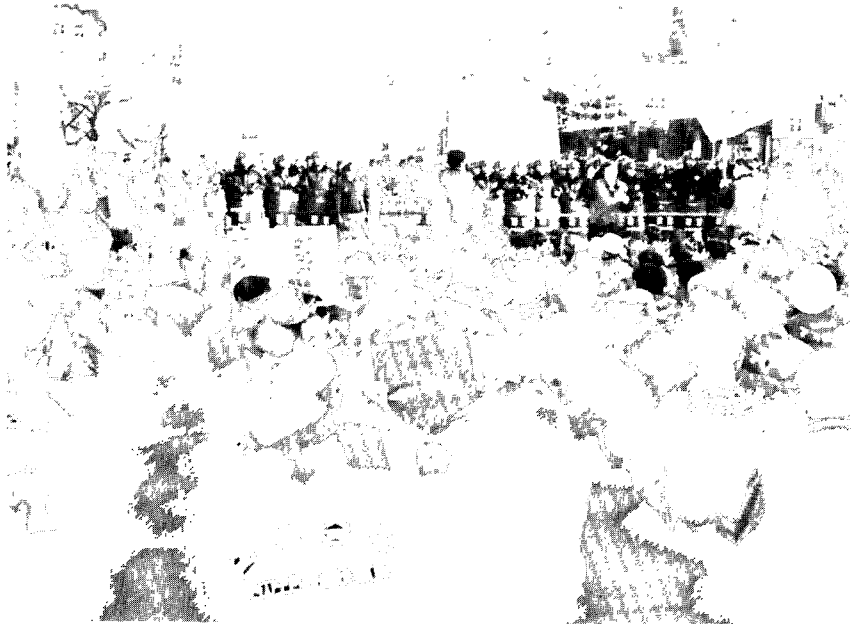
이때 연맹집행부에서는 특히 지난 겨울투쟁을 시작할 때 노총의 지침에 따라 연맹회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 바 있고 유재섭위원장은 당시 노총 박인상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들과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또한 산하조직의 투쟁을 적극조이고 조직적으로 지도하면서 각종 집회에 적극 참석토록 독려함으로써 역시 금속이라는 대내외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11/21 보라매공원에서는
3만여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악법 철폐, 노
동시간 단축, 일방적인 구
조조정 저지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2월초부터 국회의 당사
앞에서 계속해서 열렸던
'노동자 서민 배신자 김대
중 정권 규탄대회'.



12/8 연맹에서는 임원, 지
역본부의장 긴급 연석회의
를 소집해 노총의 총파업
투쟁 지침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향후 방
향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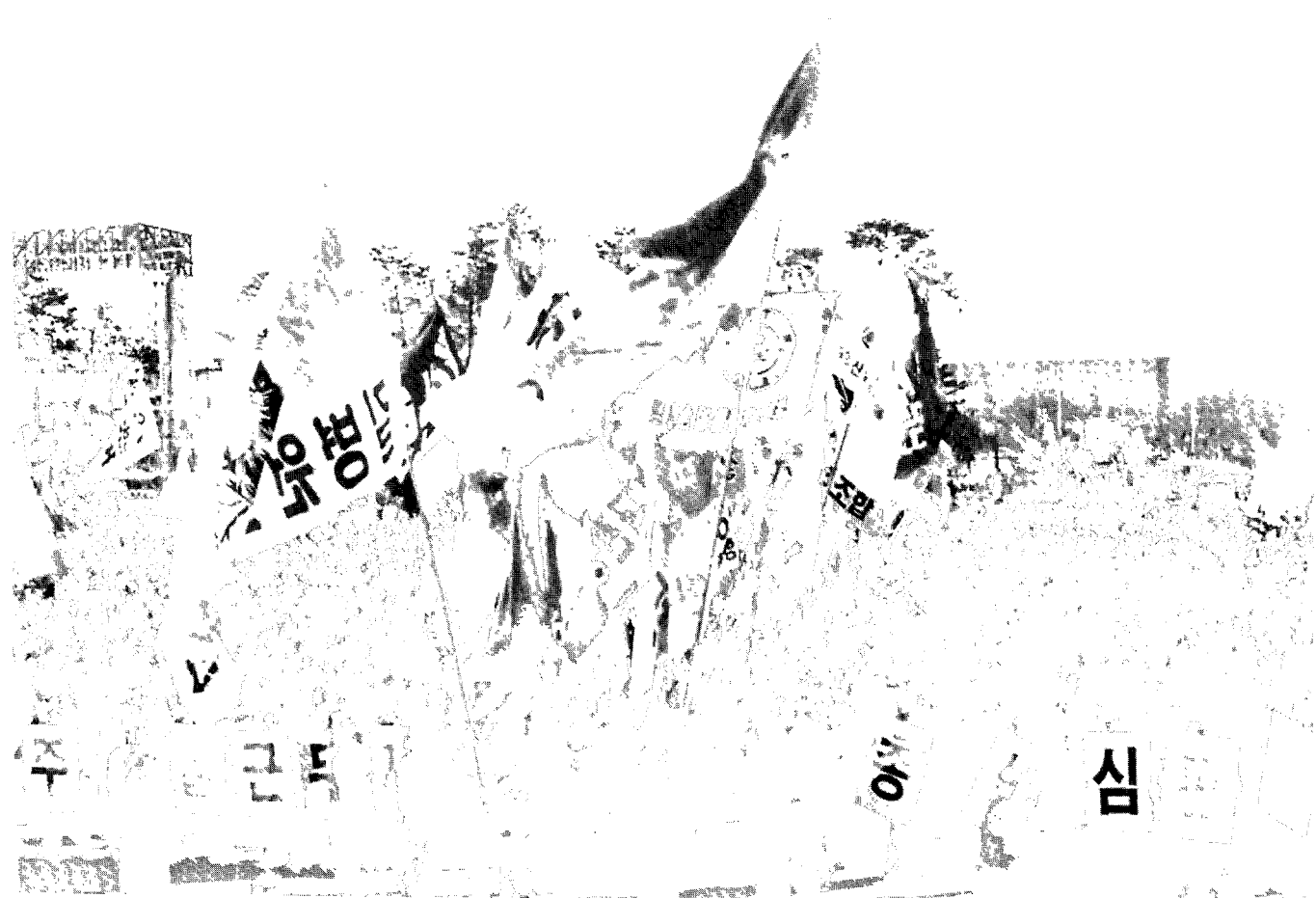
12/13 당시 노총 박
인상위원장은 국민회
의 당사에서 특별기
자회견을 열고 "현정
권과 맺었던 정책연
합을 파기한다"고 선
언하였다.



12/16 쟁의행위 신고
와 함께 시한부총파
업결단식이 있었다.



12/23 2차 총파업투
쟁실천대회 후 참석
자들은 서울역에서 명
동까지 가두행진을 벌
였다.



12/17 노동조합의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투쟁실천대회(여의도)

12/23 2차 총파업투쟁 실천대회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현장성

99년 5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연맹에서는 각종 회의활동은 물론 지역본부와의 간담회 등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199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강화를 위하여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연석회의



홍보선전담당자 회의



중앙위원회



대우그룹 워크아웃 사업장 대책회의

노동자의식강화, 살길은 이것뿐!!

정부와 자본이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세계화로 노동진영을 공격해오면서 노동자들의 개별화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에 수년전부터 제기돼온 노동운동의 위기론은 수그러들지도 않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머리띠 둘러매고 투쟁만 외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다윗이 골리앗을 지혜로 이겼듯이 노동자도 정부와 자본에 슬기와 지혜로 맞서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 의식강화와 이로 인한 연대의식 제고는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다. 연맹이 각종 교육사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이외에도 외자기업노조간담회(99.10.22), 단위노조임원교육(99.10.27-29) 등이 실시됐다.



99년 고위지도자 세미나(99. 7.8-9)



산별노조 건설, 임단투 전략수립 토론회(2000.1.27)



단위노조상집간부교육(99.11.24-26)



정보통신교육(99.10.5)



홍보선전교육(2000.3.22-24)



홍보담당자 워크숍(2000.1.19-20)



노동문화지도자양성교육(99.12.2-3)



산업안전보건법일꾼교육(99.8.31-99.9.1)



여성간부교육(99.9.15)



임단투를 주제로 한 좌담회(99.10.13)



수도권 지역소토론회(99.12.7)

머 리 말

지난 97년말 IMF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온통 세상은 국가부도니 경제파탄이니 혹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니 하는 용어와 함께 구조조정, 재벌개혁, 고통분담이라는 말들로 가득차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자들은 우리 노동자들처럼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고통분담'의 차원을 넘어선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너무하다고 혹은 뭔가 부당하다고 항의할라치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웬 욕심이나, 웬 집단이기주의냐라고 전부 매도해버리는 통에 기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히며 결심했습니다. 그 래, 두고 보자.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도 노동자 근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는데 IMF 이 정도야 금방 끝장내고 말지' 하며 신발끈을 다시 꼭 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암울한 IMF터널 저 끝에 있는 서광의 빛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임단협 분위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는 거의 모든 임단협사업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을 죄었던 임금동결이니 삭감이니, 정리해고니 명예 퇴직이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단협을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나타난 임금요구율은 두자리 숫자입니다. 연맹에서도 13.6%를 임금요구율로 내놨습니다. 타결률 또한 두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타결되는 사업장들이 많음을 고려할 때 숨통이 트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주변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이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며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 등은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 우선 논리에 저만치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경기여건이 전보다 좀 호전되었다고 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것이 우리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낮은 조직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증 등으로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 건설을 필두로 한 조직확대, 강화 사업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연유에서입니다.

연맹에서도 지난 2·18 전국대표자대회를 통해 조직확대강화와 산별노조건설 등을 2천년대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현장에 계신 여러 동지들의 관심과 채찍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비판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과거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선봉에 서서 노동운동을 이끌어왔던 금속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IMF극복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사업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맹산하의 60여개 사업장은 화의나 법정관리, 부도사업장입니다. 이중 얼마전 부천의 한 사업장이 파산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업장들이 퇴출될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뜨거운 동지애로 이 혼란스러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결, 또 단결합시다.

2000년 5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 재 섭

선 언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깃발아래 굳게 뭉쳤다.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룬 금속산업발전을 두 어깨에 메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일사불란한 운동체제아래 노동자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드높이기 위하여 전진 또는 전진하련다.

우리 노동자는 확고한 단결력과 피끓는 동지애로써 민주주의 제원칙하에 노사평등의 산업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국가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근로대중의 복지사회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이 나라 국민의 주시와 관심속에 사회정의실현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의 실천을 기하고 산업평화의 지속적인 유지로 자손만대의 영광스러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강 령

1.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 조국의 번영과 민주적 평화통일의 선봉이 된다.
2. 우리는 자유, 정의, 평등의 운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참여, 민주노동운동의 항구적 발전을 기한다.
3. 우리는 확고한 단결로써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기한다.
4. 우리는 건전한 노동정신으로써 조합원의 총의와 역량을 집중하여 노동권존중의 산업민주화를 기한다.
5. 우리는 노동자의 교육훈련과 문화향상에 강력한 실현을 기한다.
6. 우리는 민주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연 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중 서기 1960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 2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제는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3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3일 공포된 법률 제 672 호에 의하여 단일산업별 체제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 일람표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 무 처 (국) 장	당시조합 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59. 3.	유 익 배	한승환, 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60. 10	임 한 식		김 사 옥	
전국철강노동조합	60. 10.		준비위원회: 임한식 준비부위원회:송영준,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 성 대 회 제 2차대의원대회	61.8.25 62.7. 2	지 연 일 (인 천 중공업)	김재범(대한중기),이수영(삼 양산업),이령(금천철공)	박 종 현 (삼성기계)	609
제3차 대의원대회 (임시대회)	63.4.12	박 종 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이수 영(삼양산업),권종오(한국기 계)	김 득 성 (기아산업)	5,034
제4차 대의원대회	64. 4.30		유귀형(한국전력기계), 박세 천(한국기계)	“	8,455
제5차 대의원대회	65. 4.30		최종구(금성사),이명구(인천 강업)	이 건 성 (인천중공업)	9,110
제6차 대의원대회	66. 1. 8	박 세 천 (한국기계)	최종구(금성사),김병용(기아 산업),박종선(한국공업)	허 만 성 (인천중공업)	9,984
제7차 대의원대회	67. 4.27		최종구(금성사),김병용(기아 산업),이의용(인천중공업)	홍 순 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 대의원대회	68. 4.30		“	“	15,223
임시대의원대회	68. 9.20	김 병 용 (기아산업)	최종구(금성사),이성학(조선 기업),문익모(이천전기),이규 운(봉신주철),강준석(한국베 아링)	이 택 용 (인천중공업)	17,947
제 9차대의원대회	69. 4.29	“	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 신주철),강준모(한국베아링), 허재엽(조선공사)(보선),강 기태(금성사)보선	이 현 구 (한국기계) - 보선	23,960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10차대의원대회	70. 4.30	김 병 용 (기아산업)	강기태(금성사),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이우년(한국기계)	최 종 규 (금성사)	25,217
제11차대의원대회	71. 4.16	“	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문익모(이천전기)(보선)	최 종 규 (금성사)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 4.28	“	“	“	“
제13차대의원대회	73. 4.25	김 병 용 (기아산업)	문익모(이천전기),강준석(한국베아링),정부경(금성사),한달수(대한전선),팽종출(조선공사),김정배(대한중기)	최 종 규 (금성사)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30	“	“	“	43,856
제15차대의원대회	75. 4.23	“	“	“	53,293
제16차대의원대회	76. 4.21	“	강준석(한국베아링),정부경(금성사),하준(승리기계),한달수(대한전선)	“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27	“	“	“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20	“	“	“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	79. 5.11	김 병 용 (기아산업)	하준(경북지부),정남수(부산지부),이현구(대우중공업),팽종출(조선공사),이중석(남서울지부),정낙균(금성전선)	최 종 규 (금성사)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17	“	“	“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결성 임시 대의원대회,정기대 의원대회 같음)	81. 2.23	팽 종 출 (조선공사) -보선	최종규(금성사),민정식(금성사),박인상(조기),이준(화천),한창석(인천제철),김장선(대한전선),이상숙(금성통신),권수태(대림자동차)	김 성 문 (대한전선)	108,846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제22차대의원대회 (1983,1984년 은 중앙위원회로 갈 음)	82. 5. 7	팽 중 출 (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민정식(금성사),김장선(대우전자),한창석(인천제철), 조태식(효성중공업),최정원(대선조선),이성균(새한자동차 ,허성원(금성전선)	김 성 문 (대한전선)	99,594
제23차대의원대회	85. 5.30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김세민(기아산업),김장 선(대우전자),최경환(금성알 프스),강창령(동부제강),최규 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 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크랏 치)	한 창 석 (인천제철)	119,636
제24차대의원대회	86. 5.23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 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 알프스), 강창령(동부제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 (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 크랏치)	한 창 석 (인천제철)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22	“	“	“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	88. 5.27	박 인 상 (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 우전자),유철규(평화크랏치) 강영섭(금성사),임창기(대한 중기),박기식(연합철강),정기 춘(화천),이영복(현대자동차), 이금수(크라운전자),양동생(대우조선),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26	“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 철강),정기춘(화천),이영복(현 대자동차),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	356,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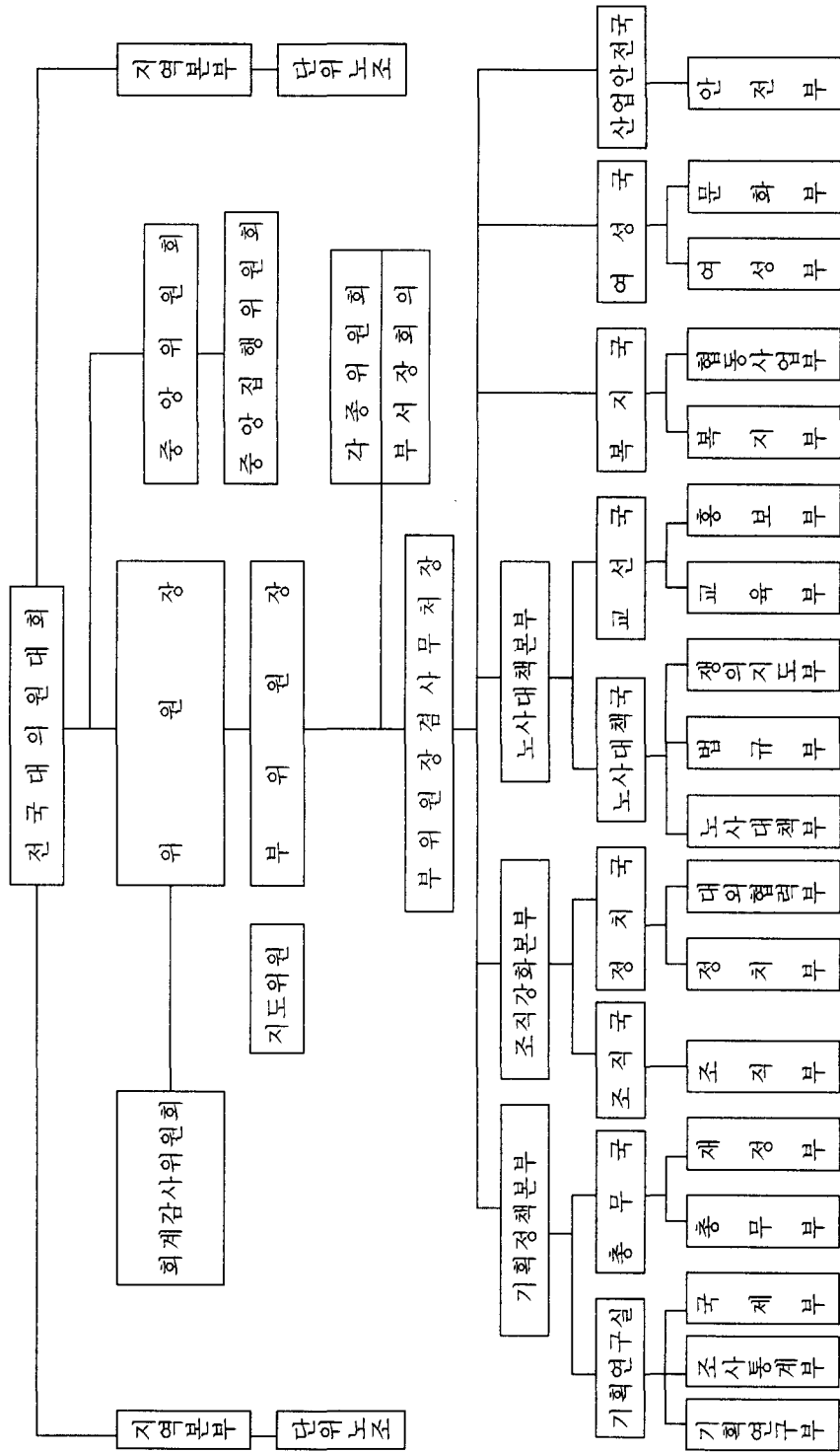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제28차대의원대회	90. 5.11	박 인 상 (조 기)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389,060
제29차대의원대회	91. 5.15	“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선),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피희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	최 용 길 (동양강철)	272,078
제30차대의원대회	92. 5.13	“	“	“	262,078
제31차대의원대회	93. 5.20	박 인 상 (조 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선),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피희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김영철(현대전자),김관태(기아자동차)	정 창 영 (금성전선)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32차대의원대회	94. 5.17	박 인 상 (조 기)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서비스),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	정 창 영 (금성전선)	243,271
제33차대의원대회	95. 5.12	박 인 상 (조 기)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서비스),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 창 영 (금성전선)	183,200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34차대의원대회	96. 5.15	유 재 섭 (LG전자) -보선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최응길(동양강철) 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 제강)김영철(현대전자),정기춘 (화천),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LG 전선),김경조(쌍용중공업),김운 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 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 창 영 (LG전선)	160,327
제35차대의원대회	97. 5.16	유 재 섭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김경조(쌍용중공 업),나찬경(LG전자),김영철(현 대전자),하영일(LG전선),강익 화(대한전선),강창영(동부제강 ,백종부(세아제강),황창배(대 우전자),김복천(정일공업),강석 수(창원공업),김무호(한국파워 트레인),강한우(삼신),김윤주(범양냉방,강진호(연합철강),김 상수(동아건설),지수식(삼영전 자),이정석(기아특수강),박영구 (LG금속)	이 병 균 (대우전자)	169,628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36차대의원대회	98. 5.20	유 재 섭 (LG전자)	상임: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김경조(쌍용중공업),김영철(현대전자),하영일(LG전선),강익화(대한전선),강창영(동부제강),백종부(세아제강),황창배(대우전자),김복천(정일공업),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강한우(삼신),강진호(연합철강),김상수(동아건설),지수식(삼영전자),이정석(기아특수강),김만자(현대전자),이병균(대우전자),박병용(대창단조),김수도(대우전자)	이 병 균 (대우전자)	138,858
제37차대의원대회	99. 5.20	유 재 섭 (LG전자)	상임: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보선-강석춘(LG전자),허원(칩팩코리아),도정복(LG전선),김두형(대성공업),신성균(한화구로),박병도(LG정밀),신향철(대한전선),문광주(세진전자),강영철(현대반도체),변재한(LG필립스)	이 병 균 (대우전자)	124,09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직기구표



● 임 원

직 책	성 명	소 속 조합명	직 책	성 명	소 속 조합명
위 원 장	유 재 섭	L G 전 자	부위원장	지 수 식	삼 영 전 자
부위원장	정 창 영	L G 전 선	"	김 수 도	대 우 전 자
"	김 순 호	삼 양 중 기	"	김 만 재	현 대 전 자
"	정 기 춘	화 천	"	이 정 석	기아특수강
"	김 경 조	쌍용중공업	"	장 석 춘	L G 전 자
"	김 영 철	현 대 전 자	"	도 정 복	L G 전 선
"	강 의 화	대 한 전 선	"	허 원	칩팩코리아
"	강 창 영	동 부 제 강	"	김 두 형	대 성 공 업
"	백 종 부	세 아 제 강	"	신 성 균	한화 / 구로
"	황 창 배	대 우 전 자	"	박 병 도	L G 정 밀
"	하 영 일	L G 전 선	"	신 향 철	대 한 전 선
"	김 무 호	한국파워트레인	"	변 재 환	LG필립스LCD
"	강 한 우	삼 신	"	문 광 주	세 진 전 자
"	강 진 호	연 합 철 강	"	강 영 철	현대반도체
"	김 상 수	동 아 건 설	사무처장	이 병 균	대 우 전 자
"	박 병 용	대 창 단 조			

● 지도위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상임지도위원	최 웅 길	본 노 련	정 학 균	L G 전 자	강 영 섭

● 회계감사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 병 옥	태 양 금 속	김 우 배	덕 양 산 업	배 동 한	한 국 철 강
최 해 경	한 국 중 천	강 학 중	그 린 산 업		
김 응 표	L G 정 밀	왕 용 호	한 국 야 금		

지역본부 의장

지 역 본 부	의 장	지 역 본 부	의 장
서 울 안산 . 시흥 대 전 충 북 울 산 대구 . 경북 구 미 전 북	서 갑 순 이 병 옥 김 두 형 왕 용 호 김 우 배 김 무 호 노 승 표 이 정 석	경 기 인 천 충 남 부 산 경 남 포 향 전남 . 광주	하 영 일 손 종 홍 강 한 우 강 진 호 배 동 한 강 학 중 김 응 표

중앙위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한국시그네텍스	유 은 주	삼 양 중 기	이 성 수	뉴 맥 스	임 상 학
L G 전 자	정 한 식	대 경 화 성	정 근 화	신 동 방	박 회 국
L G 전 자	박 노 원	두 원 정 공	정 춘 식	두원 중공업	정 진 용
대 우 전 자	김 정 근	서 울 차 체	이 쌍 봉	삼성라디에타	박 한 봉
LG 오티스	최 경 호	세광 알미늄	엄 중 국	FAG한화베어링	장 준 영
풍 성 전 기	이 대 영	신 일 산 업	신 철	풍성전기 창원	박 종 화
한 국 음 향	김 종 화	오양 공조기	조 재 천	한 일 제 관	이 동 호
현대에너지셀	강 장 규	한 샘	한 승 인	대 동 기 어	전 종 환
대광다이케스트	김 수 룡	대 우 통 신	김 영 국	경 창 산 업	장 지 태
희 성 전 선	김 영 기	대 한 제 당	백 동 선	동 해 전 장	정 한 근
두산포장제관	이 성 찬	한 영 알미늄	한 상 환	삼 립 산 업	이 복 교
현 대 전 자	박 영 춘	신 호 스 텔	박 창 옥	아세아종합기계	윤 태 길
태광에로이카	윤 선 옥	대 동 시스템	양 승 종	평화 발레오	서 윤 배
성 신	유 진 하	LG산전장항	설 광 섭	평 화 산 업	신 석 곤
현대엘리베이터	성 용 주	수 산 정 밀	김 관 태	삼 성 제 침	주 태 화
신 한 주 철	윤 무 영	한국쌍신전기	유 재 순	화 신	윤 승 오
신한일 전기	박 영 집	삼 화 전 기	이 철 주	평화 오일셀	유 길 호
대 선 조 선	황 대 선	LG-NIKKO동제련	신 택 기	그 린 산 업	안 진 수
부 산 주 공	서 영 택	고 려 아 연	조 한 제	세 아 제 강	권 택 봉
오리엔탈정공	권 동 재	풍 산	정 명 수	성 우 정 공	강 진 유
적 고	이 승 우	동 회 산 업	장 수 길	한국알프스	강 대 선
조 기	강 영 일	알 칸 대 한	박 풍 우	화 천 기 공	송 웅 규
한국 주철관	차 윤 환	LG정보통신	이 규 성	쌍용동해산기	김 영 옥
한보부산제강소	최 창 대	태평양 금속	김 교 훈	한 일 전 기	윤 용 민
일 성 기 계	김 장 수				

중앙 집행 위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L G 전 자	김 인 배	포스코 홀스	이 승 재	속 초 지 역	신 종 찬
L G 전 자	이 영 호	에 넥 스	정 운 석	한국오르강침	정 운 국
한 국 채 인	최 상 봉	한국 씨티즌	최 정 호	홍 화 공 업	장 세 종
반 도 기 계	오 광 수	미 주 금 속	김 춘 종	화 성 기 업	김 우 석
대 덕 산 업	김 광 호	강 남	문 정 도	현대종합금속	김 도 론
성 신	이 종 진	KISWEL	김 회 근		
도 투 락	김 현 섭	로케트전기	남 규 현		

● 실. 국장

직 책	성 명	소 속 조합명	직 책	성 명	소 속 조합명
정책기획본부장	윤창열	본 노 련	조 직 국 장	김 정 완	본 노 련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	교육선전국장	정 문 주	"
노사대책본부장	김홍룡	"	정 치 국 장	나 용 길	신 원 공 업
기획연구실장	정일진	L G 전 자	복 지 국 장	권 석 정	한 샘
총 무 국 장	신용석	L G 정 밀			

● 부서부장. 직원

직 책	성 명	소 속 조합명	직 책	성 명	소 속 조합명
재 정 부 장	김 종 화	한 국 음 향	국 제 부 장	김 만 용	대우전자인천
조사통계부장	김 순 창	평 화 정 공	법 규 부 장	강 영 석	경 방 기 계
노사대책부장	이 재 섭	부산지역본부	교 육 부 장	강 진 유	성 우 정 공
쟁 의 부 장	배 승 천	대 원 전 선	복 지 부 장	강 용 석	진 로 산 업
대외협력부장	나 영 섭	일 지 테 크	여 성 부 장	조 정 기	적 고 김 해
홍 보 부 장	박 현 미	본 노 련	총 무 차 장	김 영 미	본 노 련
협동사업부장	김 형 식	대한전선시흥	직 원	한 동 균	본 노 련
문 화 부 장	유 은 주	한국시그네틱스	직 원	박 선 자	본 노 련

총 론

'99년도 국내외 정세

1. 99년 국내 정치,경제,사회 회고
2. 99년 세계경제 상황
3. 99년 금속산업 경기 결과

99년도 국내외 정세

1. 99년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회고

1) 정치상황 - 지배권력에 대한 국민불신 극에 달함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정치개혁입법의 지연, 의원정수 축소 미진, 세비 14.3% 인상 등)이러한 정치권의 작태는 옷로비사건과 파업유도사건, 방탄국회등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해 대국민 불신도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중적인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되었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결과를 낳았다.

2) 경제상황 - 높은 성장과 경기확산 그러나 고용이 없는 성장시대

IMF이후 높은 성장률과 경기확산을 보였던 99년도는 성장률이 90년대초반이래 최대치인10%대(10.3%)에 이르고 물가는 1%미만(0.8%)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80~90년대 중반처럼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는 못하여(일반적으로 과거 1% 성장마다 15만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여전히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99년도 주요경제지표 추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산업생산률
10.3%	0.8%	6.3%	22.1%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고용동향』, 각호

3) 노동자생활 변화 -

80:20의사회 도래 (80의 빈곤한 대중과 20의 부를 누리는 소수계층)

경제지표의 비교

(조원)

	'95	'96	'97	'98	'99
1인당국민소득	10,823달러	11,380달러	10,307달러	6,823달러	8,433달러
민 간 소 비	206	221	228	206	226
고 정 투 자	138	148	145	115	119
건 설	82	87	89	80	72
설 비	56	61	56	35	47

경제성장률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 투자의 절대규모는 94~9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소득은 97년 수준에도 미달되어 IMF이후 구조조정의 결과가 대다수 노동자 서민대중의 삶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로 이중 구조화되어 20대80(20%의 부를 누리는 계층과 80%의 빈곤한 절대다수의 계층)의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도시노동자가구의 소득과 소비추이

(전년동기비, %)

	1996	1997	1998	1999		
				1/4	2/4	3/4
가계소득	12.6	6.3	-6.7	-0.5	0.4	8.5
가계소비	13.4	4.2	-8.4	8.9	13.4	17.9

그러나 국내 소비추이를 보면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대수의 서민계층의 소득감소와 감소한 반면 20%의 가진 자들은 부 증식이 용이해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20%소유계층의 소비심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4) 실업문제

① 실업률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여전

99년 2월 8.6%로 치솟았던 실업률이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10월에는 4.6%(실업자 102만명)로 하락했으나 불안정 고용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중 1년 이

상 장기실업자가 15만3천명으로 실업자의 15.0%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실업문제에 대한 대책과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② 고용구조의 불안정성: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률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이 여전한 것인 상용노동자수가 감소하는 등 취업구조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이 상용고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대체고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99년도 5월(비정규직 차지비중 52%)을 기점으로 전체노동자중 절대을 넘어섰고 10월에는 52.7%에 이르러 683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2000년도 경기활성화에 따라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자본가단체(경총 등)들은 교섭지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체고용을 주된 요구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2000년 3월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지비중이 54%대로 증가하고 있고, 80년대부터 꾸준히 구조조정을 진행한 서구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차지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구조 변화 추이

(전년동월비 증가율, 만명,%)

		'97. 10	'98. 10	'99. 10
취업시간대별	36시간 미만	102(0.9)	164(60.3)	183(11.6)
	36시간 이상	2,031(0.3)	1,844(-9.2)	1,918(4.0)
종사자지위별	상용노동자	689(-5.3)	623(-10.8)	612(-1.7)
	임시노동자	434(10.9)	401(-7.6)	435(8.5)
	일용노동자	196(2.2)	195(-0.7)	249(27.8)

③ 정부의 영터리 실업통계

우리나라의 정부 실업통계 기준은 1주일 동안에 1시간이상의 노동력을 투여한 경우는

실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혼 여성노동자가 실업을 한 경우 전업주부로 간주되어 통계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IMF체제 이후 실망실업자의 증가와 일용직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통계 대상에서 역시 제외되고 있다.

즉, 정부 실업통계가 실제의 고용상황과는 다른 괴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에 따라 취업포기자가 14만명에 이르고,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구제된 일용직노동자가 5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실업자수는 최소한 17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실업률과 체감실업률(99년10월)

(만명,%)

	현행통계기준	구직포기자 포함	일용노동자 감안	합계
경제활동인구	2,217.6	2,231.9	2,217.6	2,231.9
실업자수	102.1	116.4	159.4	173.6
실업률	4.6	5.2	7.2	7.8

2. 세계경제 상황

1) 경기상황

2000년도 세계경제는 99년 아시아 경제 회복을 필두로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함에 따라 세계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99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둔화되면서 그동안의 과열기미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경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9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스보사태로 회복세가 멈췄던 유럽 역시 Big4(독일,프랑스,이태리,스페인)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본격적 회복세로 재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역시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를 탈출하고 있다.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

기관명	1998	1999	2000
세계경제성장률	2.0	2.5	3.1
세 계 교 역	3.8	3.5	6.0

세계교역도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계경제는 99년중 2.5% 성장률을 달성하고 2000년중에는 3.1%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아시아 경제개혁 지연, 취약한 남미 및 러시아의 향방, 미국의 연착륙 실패 가능성 등 불안요인은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경제의 연착륙 실패시 세계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유가가 급등세로 반전되고, 알루미늄, 동 등 공업용 원자재, 국제곡물가격도 급등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원유가격은 고가상태가 지속되고 곡물가격은 이상기후,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로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환경이 불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WTO가입으로 자유무역체제가 형성되는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도 득세할 것으로 판되기 때문이다.

2) 환율 및 금리

미국의 달러화는 향후 미국의 성장률 둔화, 대규모 무역수지적자 누적, 일본 및 EU의 경기회복에 따른 성장률 격차 축소 등으로 약세기조가 예상된다. 한편 국제금리는 미국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회복으로 99년 저금리(연평균 기준)추세가 200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요국 금리전망

	1999	2000	2001
런던은행간 금리	5.3	5.5	5.5
미국 (CD)	5.2	5.6	5.6
일본 (CD)	0.2	0.6	1.9
독일 (FIBOR)	2.7	3.2	4.1

주: 기간은 3개월물 기준임

자료: WEFA, 4/4 1999

3) 통상환경

① 신라운드 난항

▲ 뉴라운드(밀레니엄 라운드)가 출범하여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난항

99년 11월말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렸으나 결렬되어 신라운드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의제는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등 기설정외제(BIA) 외에 공산품 관세인하 등 새로운 통상 이슈가 되었다.

▲ BIA 및 공산품 관세인하 등에서 다소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 과제는 연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기설정외제와 공산품 관세인하 및 무역원활화 등 일부분은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개도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 후속개방, 환경,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에서 개도국이 반발하여 대부분의 과제는 연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NGO 시위 및 세계지성의 비판

99년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NGO대회에서는 WTO체제에 대한 반대가 주요 의제였다. 당시 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NGO들은 WTO체제의 진입이 개도국을 비롯한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WTO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벌어진 대구라운드, IMF제소투쟁, 양노총의 신자유주의 총파업투쟁, 교황을 비롯한 세계 지성의 IMF비판 등이 이어져 새로운 통상환경과 일대격돌을 빚고 있다.

② 동아시아 위기 이후 WTO내에서도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 독주에 반발이 가시화

미국 자체도 쌍무적 무역압력에 치중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의욕도 낮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투자, 경쟁정책 등은 추후과제로 계속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③ 통상환경 불안 지속

▲ 전통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등 개도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시도는 지속

신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주요 국가들간의 이해대립이 계속되고, 반덤핑 등 통상압력은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 통상환경은 WTO의 교역질서 규율기능이 약화되면서 지역블록화 현상이 오히려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분쟁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여 분쟁의 성격이 질적으로 전환

전통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관세, 서비스시장의 개방 등이 통상마찰의 핵심사안이었다. 그러나 과거 선진국·개도국 중심의 마찰에서 다차원의 마찰 현상 확산되고 있다.

즉, 갈등의 고리가 국제경제의 통합화와 함께 유전자조작, 호르몬처리 식품 등 국내문제였던 영역이 새로운 국제 분쟁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99년 한해동안에 부각되었던 미국과 유럽의 쇠고기 분쟁은 식품안전, 환경보호 등 국내의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분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금속산업 경기결과

1) 개관

① 99년에 이어 IT산업이 국내산업 성장 견인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등의 활성화에 따른 IT산업의 급성장이 국내 산업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반도체, TFT LCD, 모니터 등 IT산업 관련 핵심부품의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IT산업의 범위 》

IT산업에는 정보통신기기·부품, 반도체, 방송기기·부품 등 기기분야와 통신·방송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이 포함

업종별 기상도 및 주요사항

해당업종	1999년	2000년	주요 사항
정보통신	☀ 내수13.9 수출62.9	☀ 내수18.0 수출30.0	IMT 2000사업에 따른 업체간 제휴 인터넷PC 보급확산 통신업체 설비투자 증가
반도체	☀ 생산15.7 수출14.3	☀ 생산15.1 수출15.1	2002년까지 세계 반도체시장 고성장 예상 세계 DRAM시장 4강 체제 구축
자동차	☀ 내수60.0 수출12.0	☀ 내수12.6 수출 7.5	RV시장 확대 지속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지연
기계	☀ 수출 4.4 수입28.6	☀ 수출10.4 수입34.3	경제성장에 따른 투자촉진으로 수주 증가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국내 시장잠식 가속
조선	☀ 수주-5.1 건조15.8	☀ 수주 5.3 건조10.0	세계 1위 조선국의 입지 구축 고부가가치 비중 증가
철강	☀ 내수34.3 수출-17.1	☀ 내수13.6 수출-6.4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통상마찰 심화 업계내 구조조정 본격화

②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내수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소득증가로 고가·고기능 중심의 소비재 대체수요가 되살아나면서 내수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됨

또한, 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시설투자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관련업종 및 산업인 기계, 국내 건설 등의 회복세가 가속될 것으
로 예상됨

③ 수출시장여건의 호전으로 대부분 업종에서의 수출호조가 지속될 전망

동남아지역 경기회복, 유가인상에 따른 중동국 경기 활성화 등으로 수출여건 개선되고 있
음. 또한, 엔화강세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 조선 등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
는 업종의 수출 경쟁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 업종별 결과

(1) 정보통신

1999년 : IMF 침체에서 완전 탈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및 내수확대로 정보통신은 IMF 체제 2년만인 99년에 침체에서 완전 탈출

-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인터넷 수요의 증가 등으로 99년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비 1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수입은 수입선다변화 해제,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비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98년 대폭적인 수입감소(46%)에 대한 기술적 반동도 높은 성장률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CDMA단말기 및 PC 수출증가로 수출은 전년동기비 63% 상승할 것으로 추정
- 98년에는 CDMA단말기, 컴퓨터 주변기기 등 일부 품목이 성장을 주도했으나 99년에는 PC, 인터넷기기 등 좀 더 다양한 제품이 성장주도군에 합류

(2) 반도체

1999년 : 가격강세에 따라 수출은 증가세로 반전

세계적인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상승으로 생산 및 수출은 두자리수 증가

- 2/4분기 일시적인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확대가 지속되면서 생산 및 수출은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99년 반도체 수출은 95년 이후 4년만에 처음 플러스 성장

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한계로 가격급등

- PC 메모리 용량 급증, 저가격 PC 보급 확대 등 반도체 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능력은 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 7월초 4달러선이었던 64M 현물시장 가격은 연말 10달러 이상 상승
- 9월말 대만 지진사태에 의한 생산차질로 가격은 한때 21달러선까지 폭등

(3) 자동차

99년 : 급속한 내수회복

국내 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기대이상으로 내수가 증가

- 내수는 98년 대비 60% 증가의 급속한 회복세를 시현
- 엔고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과 신차투입 및 보증기간연장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출도 150만대를 넘는 호조세를 기록
- 내수와 수출호조로 생산이 41.8% 증가하여 총생산대수가 277만대를 상회
- 98년의 47.5%였던 가동률이 67.3%(생산능력 412만대 기준)로 상승

(4) 일반기계

99년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수요산업의 경기회복에 따라 98년 이후의 축소 및 연기되었던 투자가 재개되어 일반기계 수요 증가

- 국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기계수요 증가
- 98년의 극심했던 침체(전년동기비 -28.9%)를 감안하면 여전히 미진
- 10월 공작기계 수주액은 1,17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1% 증가

동남아국가의 경기회복 가속화, 중국의 성장세 회복으로 침체되었던 동남아 수출시장 회복

- 99년 1~10월까지 수출은 2.1% 증가하여 96년 이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
- 최대 수출시장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전환되었으나 99년 이후 다시 중국이 최대시장으로 부상

(5) 조선

99년 : 하반기부터 수주 회복세로 반전

상반기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던 수주는 하반기부터 급속히 회복되고 있으며, 건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 선가하락에 따른 선주들의 발주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 물동량 감소 등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신조선 시황이 부진
 - 상반기 기준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한 282만GT에 불과
- 하반기 이후 선가바닥의 인식 확산, 해운시황 개선 움직임과 함께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수주 증가세 가속
 - 99년 6월 61만GT, 7월 102만GT에서 10월에는 월간 수주량이 218만GT에 이름
- 건조는 풍부한 수주물량 확보 및 생산효율 향상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인 1,000만GT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

(6) 철강

99년 : 내수는 회복세로 반전했으나 수출은 부진

내수는 자동차, 기계류, 산업용 전기·전자 등 수요산업의 호전으로 전년 대비 34.4% 증가 예상

-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되어 1~9월간 내수판매는 2,495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4.2% 증가
 - 품목별로는 열연강판(121.8%), 냉연강판(95.0%) 등 판재류가 50.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내수회복을 주도

수출은 미국과 EU의 수입규제 강화, 동남아 국가의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1% 감소

- 1~10월간 수출액은 56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0% 감소
 - 국가별로는 미국(-27.9%), EU(-56.9%) 등 선진국과 대만(-22.9%), 태국(-13.5%)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
 - 품목별로는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압연강재 감소가 주 원인

생산은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급속한 회복으로 14.1% 증가

- 1~9월간 생산은 3,264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

기획연구활동

○ 평가와 개선방향

실업극복사업 활동

- '99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평가 및 개선방향

99년은 한 해동안에 실업극복운동에 매달려야만 하였다. 이는 그만큼 IMF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금속노동자들이 실직상태에 몰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연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99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사업의 성과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연맹이 표방하고 있는 국민대중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모토를 현실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즉 공장과 노동조합내부만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그 외연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와 국민대중의 신망 속에서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일보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과거 우리 연맹의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많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맹과 지역본부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속에서 일체감을 확보하고, 향후 새로운 전국적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선하여야 할 점은 사업집행상의 곤란으로 인하여 6월 사업집행계획이 축소되어 진행되었고 따라서 실업극복운동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반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그리고 사전에 철저히 계산되어진 사업집행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실업극복사업 활동 - '99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실업극복국민운동 제 3차 제안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1. 대상자 선정 원칙 및 절차

1) 대상자 선정 원칙 세부사항

가. 기 제안서 원칙

- . 금속노련 조합원으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직된 자.
(전 소속 노동조합 현 위원장의 추천서와 본인 확인서 첨부)
- . 현재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실업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노동관련 유관 부서의 실직상태증명서 첨부)
- . 만약 기존 소속 조합이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청산된 상태라면 금속노련 지역본부 책임자의 추천에 의거함.

나. 첨가 및 변경 사항

○. 지원대상자의 실직시기와 관련하여 1998년 이전 실직자라도 현재까지 장기실직된 자를 포함함. 또한 금속노련 조합원 출신이 아니나 사각지대에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금속산업 출신 실직자의 경우 중앙추진주체와 지역본부의 엄밀한 조사 및 선정과정을 거쳐 신중히 지원함. 이를 위해 이미 수행된 1,2차 지원사업주체와의 협조를 얻음.

○. 필요 및 증빙서류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로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직상태를 증명하는 과정을 중앙추진주체에서 일괄하는 방안과 실직상태증명원을 제출받는 방안을 동시에 인정기로 함. 이와 함께 전 소속 노동조합위원장의 추천서는 선정 중 참고기로 하며 지역본부에서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를 수거하여 중앙추진주체에 송부하며 중앙추진주체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기로 함.

○. 실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는 지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자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함. (가구당 월소득 23만원이하, 혹은 재산 4,400만원 이하기준)

- . 우선적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연령이 높은 자를 지원함.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 . 타 실업자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실업급여 미수령자로 한함.
(지원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고 중앙추진주체에서 타 지원사업주체 및 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확인함)
- . 실직시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배제함. 이를 위해 명예퇴직금수령 등의 유무를 사전에 조사하여 선정함
- . 모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금속연맹 추진주체는 선정과정과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함.
- . 다음과 같이 개월별 지원자선정을 차별화함.
4월 :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출신 실직자 우선지원
5월 : 500인 이하 중규모 사업장 출신 실직자 포괄
6월 :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출신 실직자 포괄

2) 대상자 지원절차 세부사항

가. 기 제안서 원칙

- . 전 지원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지원함.
- . 1단계는 추진사무소설치 및 협조기관 및 업체 선정, 지원실무절차 확인.
- . 2단계는 4월부터 3개월간 개월별로 지원받아 실제 집행
- . 3단계는 모든지원자를 총집계하고 결산하는 동시에 표본조사와 평가작업을 수행함.

나. 참가 및 변경사항

- . 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구매 및 관련업무는 금속연맹 중앙 추진주체에서 총괄함.
- . 실제 지원대상자에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원되기 위한 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이를 통해 본인수령여부를 확실하게 증빙함. 실무적인 이유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최대한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강구함.
- . 매월 10일까지 지원자접수를 완료하고 20일까지 지원자 선정 및 실사를 통해 확정하며 30일까지 지원자 본인에게 배달함.

실업극복 국민운동
제안사업 월별 예산 집행계획서

1. 사업명 : '99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2. 총괄내역 (총사업기간 : 3개월)

(단위 : 천원)

계	4월분	5월분	6월분
1,606,000천원	642,000천원	482,000천원	482,000천원

3. 월별예산내역

4월분	(금액단위: 천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세부내용
실직자 직접지원비	640,000천원	○ 실직자 직접지원 4천명 x 16만원 = 6억4천만원
인턴요원인건비	1,500천원	○ 인턴요원 인건비 3인 x 50만원 = 1백5십만원
통신비	100천원	○ 전화세, PC통신이용요금 등 개괄추산
비품비	100천원	○ PC대여, 집기대여비용 및 영선비용 개괄추산
홍보보조비	200천원	○ 2회 홍보예정 1회당 10만원 보조추산
출장보조비	100천원	○ 4회 출장예정 1회당 2만5천원 보조 추산
계	642,000천원	

5월분		
지출항목	금액	산출세부내용
실직자 직접지원비	480,000천원	○. 실직자 직접지원 3천명x 16만원 = 4억8천만원
인턴요원인건비	1,500천원	○. 인턴요원 인건비 3인x 50만원 = 1백5십만원
통신비	100천원	○. 전화세, PC통신이용요금 등 개괄추산
비품비	100천원	○. PC대여, 집기대여비용 및 영선비용 개괄추산
홍보보조비	200천원	○. 2회 홍보예정 1회당 10만원 보조추산
출장보조비	100천원	○. 4회 출장예정 1회당 2만5천원 보조 추산
계	482,000천원	

6월분		
지출항목	금액	산출세부내용
실직자 직접지원비	480,000천원	○. 실직자 직접지원 3천명x 16만원 = 4억8천만원
인턴요원인건비	1,500천원	○. 인턴요원 인건비 3인x 50만원 = 1백5십만원
통신비	100천원	○. 전화세, PC통신이용요금 등 개괄추산
비품비	100천원	○. PC대여, 집기대여비용 및 영선비용 개괄추산
홍보보조비	200천원	○. 2회 홍보예정 1회당 10만원 보조추산
출장보조비	100천원	○. 4회 출장예정 1회당 2만5천원 보조 추산
계	482,000천원	

4.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999. 3. 25.

신청단체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인)

대표자 : 유재섭 (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귀중

위 임 장

수 임 자 : 이 병균

주민등록번호 : 590821-1802923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3-1

위 사람에게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실업극복사업 약정식과 이에 필요한 제반 과정에 본 단체의 대표를 대신하여 일체의 권한행사를 위임함.

1999. 3. 26.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유 재 섭

실업극복국민운동 제 3차 제안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99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대상자 선정원칙 및 절차 >

1. 대상자 선정 세부원칙

1) 최우선순위자 선정 원칙

- . 금속노련 전 조합원으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직 중인 자.
- . 실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는 자여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자기준에 합당한 자.
(가구당 월소득 23만원 이하, 혹은 재산 4,400만원 이하인 자)
- . 부양가족이 많고 연령이 높은 자.
- . 전 소속 사업장 규모별 분류에 의한 최우선 선정원칙
4월 :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출신 실직자
5월 : 500인 이하 중규모 사업장 출신 실직자 포괄
6월 :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출신 실직자 포괄

2) 우선 순위자 선정 원칙

- . 금속노련 전 조합원으로서 현재 실직중인 자.
- . 실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는 자.
- . 전 소속 노동조합 현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후 순위자 선정 원칙

- . 금속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현재 실직중인 자.

4) 선정에서 배제되는 자

- . 현재 실업급여, 공공근로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자.
- . 실직시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받은 자.
- . 타 실업자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의 '겨울나기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다만 전국여성단체연합의 '실직여성가장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후순위자로 편성함)

5) 선정시 특기사항

- . 전 소속 현 조합위원장이거나 지역본부의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는 자는 선정과정에서 우선 고려함.
- . 실직상태를 확인하는 제 증명(유관 기관의 확인서)을 첨부하는 자는 우선 고려함.
- .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제 증명
(의료보험료납부증 사본이나 세금관련 납부증명서 등)을 첨부하는자는 우선 고려함.

2. 대상자 선정 절차

1) 매월 1일- 10일

- . 지역본부에서 신청자를 접수함. (신청서건본은 후첨했으며 별도 발송예정)
11일이후 접수자는 기 접수자 순위다음으로 심사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 심사.
- . 10일까지 연맹 추진사무소로 송부함. (10일자 소인 유효)
- . 반드시 필요한 기본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전 직장재직 확인 서류 1부 (전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카드사본, 직장의료보험가입확인서, 직장명이 기재된 기능공자격증사본, 직장명이 기재된 갑근세납부증명서, 직장명이 기재된 전산용 월급명세서 등과 같이 전 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기타 서류 : 전술한 대로 추천서, 실직증명원, 의료보험료 납부증 사본이나 세금면제확인등의 재산관련 증명원 제출희망자는 위 서류에 첨부하여 송부.

2). 매월 11일- 20일

- . 연맹 추진사무소에서 신청자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 노동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및 실업극복국민운동사무국의 협조로 이중, 중복지원여부를 판정함.
- . 대상자 최종 지원 확정시 본인에게 직접 개별 통지함.

3). 매월 21일- 31일

- .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물서비스 (쌀 80Kg상당)를 제공함.
- . 방식은 택배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연맹 추진사무소에서 보냄.
- . 본인수령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접수시 신청자가 가져가는 수령증을 회수함.
(수령증 해당란에 날인)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 접수번호 및 사업명**

제안접수번호	3069	사업명	'99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	------	-----	-----------------

*** 반납내역**

(단위: 원)

구 분	지원받은 성금액	성금사용액	반 납 액		
			계	잔 액	이자발생액
	6억4천 2백만원	4억8천5백2 십만원	1억5천6백8십 만원	1억5천6백8십 만원	
		* 내용은 별첨			
반납금 참고사항	가. 4-5월 사업집행상 여러 사유로 반납액 발생 나. 6월 사업집행계획의 축소진행				
반납계좌번호	국민은행 014-01-0856-580 예금주) 실업극복국민운동				
입금일	99. 6. 22.	입금자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첨부서류	성금사용액 내역		연락처	02- 864-2901	

실업극복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함에 따라 위와 같이 반납내역을 제출합니다.
1999. 6. 22.

단체명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인)

대표자 : 유 재 섭 (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귀중

* 별첨

제목 : 성금사용액 내역

4-5월 1차 집행액

- 1995명 x 16만원 : 3억 1천 9백 2십만원
- 경비 : 2백만원

6월 2차 집행예정액

- 1000명 x 16만원 : 1억 6천만원
- 경비 : 2백만원

7월 3차 경비 예정액 : 2백만원

계 : 4억 8천 5백 2십만원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지원금결산서

제안번호	3069		사업명	'99 금속노동자희망나누기	
사업기간	1999. 4 -1999. 7. (4개월)		약정금액(예산총액)	1,606,000천 원	
지원받은 예산총액	968,000천원		지원금집행총액	935,200천 원	
결산기간	1999,8 (1개월)		결산기간중예산액	없음.	
결산기간 중집행액	없음(기 지원금중 미집행분 312,600천원집행)		지원예산잔액	32,800천 원	
단체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인)		대표자	유 재 섭 (인)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화	(02)864-2901	팩스	(02) 864-0457	통신ID	FKMTU

* 첨부서류

1. 사업개요서
2. 총괄결산내역
3. 수입예산내역
4. 사업계획대 실적
5.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6. 기타사업별 특기사항
7. 예산지출관련 증빙서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귀중

1. 사업개요서

가. 사업목적 : IMF사태이후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금속관련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함.

나. 사업실시현황 : 승인된 실직자 1인당 75Kg의 양곡을 1회 지원함.

다. 사업실적

1) 실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실적

사업 또는 예산항목명	사업 지역	사업유형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99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전국	실업자생 계지원	1. 선정기준 * 과거 금속노련 조합원이었거나 금속관련 사업장에 재직했거나 금속관련 직종을 직업으로 영위했으나 현재 실업중인 자로 * 현재 생활상의 곤란을 겪는 자이어야 하며 이의 기준으로는 1개월당 의료보험료납부 5만원이하(4월에는 3만원이하 선기준적용)이거나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이하 혹은 1년간 재산관련 세액합계가 15만원이하이어야 하며 * 생계비보조와 같은 정부지원이나 다른 민간 실업자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금속관련사업장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라인에 근무하거나 지원부서중 금속관련 직종으로 해석되는 노동자를 지원하며 건설 현장근무의 경우에는 용접, 철골, 배관설비등의 금속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함. 2. 선정 방법 * 전국 30여개 지역접수처에서 접수하며 신청서류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확인서류 1부, 재산관련 확인서류 1부를 받고 1차 선별함 * 중앙추진사무소에 집합된 지원신청자에 대해 위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선정함.

사업또는 예산항목명	단 위	계 획				실 적			
'99 금속노동 자희망나누기	명	인원	1회지 원액/ 원	지원 횟수	지원금품 의 종류	인 원	1회지원 액/원	지원 횟수	지원금품의 종류
		1만명	16만 원	1회	쌀	5795명	16만원	1회	쌀

2) 사업계획변경내용

가. 원 계획상 3개월간 1만명의 실직자를 지원키로 하였으나 경기회복으로 인한 실업자 감소 등의 요인으로 3개월간 6천명의 실직자를 지원키로 결정, 승인되어 4월 지급된 예산중 156,800,000원을 6월 22일 반납함.

나. 원 계획상 본 사업이 3개월에 걸쳐 시행,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진행상 무리라고 판단되어 1개월 연장과 진행경비지원을 6월 29일 신청하여 승인됨.

라. 사업효과

-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 고통을 감소시키고 자활의 의지를 북돋으며 민간차원의 실업극복운동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킴.

마. 결산 참고사항

- 인턴요원을 3인(연인원은 4인) 활용하였으며 1인은 전산실무를, 2인은 전화상담 및 실사등을 담당하여 대단히 뛰어난 활동을 함.

2. 결산내역총괄

(금액단위: 원)

총 관		실업성금지원예산		자체 예산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971,000,000원	938,700,000원	968,000,000원	935,200,000원	3,000,000원	3,500,000원
실업성금집행잔액	32,800,000원	이자발생액	1,842,828원	잔액계	34,642,828원

3. 수입예산내역

(금액단위: 원)

항 목 별	항목별 예산액	주 요 내 역
계	971,000,000원	
실업성금지원금	968,000,000원	실업자직접지원비 : 960,000,000원 운영경비 지원비 : 8,000,000원
자체수입금	3,000,000원	임대비 발생분 : 1,500,000원 운영경비 지원비 : 1,500,000원

4. 사업계획대 실적 (지원집계표와 명단은 별첨)

(금액단위: 원)

사업 및 항목별		계 획		실 적		세부집행내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971,000,000		938,700,000	
지 원 예 산	소 계		968,000,000		935,200,000	
	실업자 직접지원비	6천명	960,000,000	5795명	927,200,000	*1인당 16만원상당의 양 곡서비스제공 5795X160,000원 = 927,200,000원
	운영경비 지원비		8,000,000		8,000,000	*인건비 1인당 1개월 50만원 3인X4개월X50만원 = 600만원 *기타 경비지원 1개월당 50만원 4개월X50만원 =2백만원
자 체 예 산	소 계		3,000,000		3,500,000	
	임대비 발생분		1,500,000		2,000,000	4개월 X 50만원 = 2백만원
	운영경비 지원비		1,500,000		1,500,000	각종 회의 및 교육비, 출 장비, 통신비등 제 경비지 원내용이며 회계연도확정 후 예산인관계로 일반회 계에 편입처리됨.

5.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가. 지원예산

- 실업자직접지원집행내역은 통장사본으로 대체함.
- 운영경비지원내역은 회계장부 및 영수증철로 대체함.

나. 자체예산

- 임대비발생분은 금속노동회관 1층 복지사업본부의 공간 약 10평을 사용한 것으로 관악구 신림동 평균 빌딩임대가격으로 추정하여 산출함.

- 기타 운영경비지원내역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회계연도 개시후 별도 예산편성이 불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우편 발송료, 홍보지원비, 통신비지원과 장비, 시설 이용비등이 포함됨. 기타 각 지역본부 사용경비는 지역본부별로 집계되어 회계처리됨.

6. 기타 사업별 특기사항

- 없음

7. 붙임 : 성금예산 지출관련 증빙서류

사업비(실업성금)집행잔액반납

* 사업명

3069 '99 금속노동자 희망나누기

*반납내역

(단위: 원)

구 분 (단위사업 및 항목별)	지원받은 성금액 (A)	성금사용액 (B)	반 납 액		
			계 (C-D)	잔 액 (C=A-B)	이자발생액 (D)
계	968,000,000	935,200,000	34,642,828	32,800,000	1,842,828
반납금 참고 사항	*상세내역은 결산서에 첨부함. 성금사용액은 5795명지원분 (5795X16만원=927,200,000원과 경상경비지원비 8,000,000원을 합 산한 금액임.				
반납계좌번호	국민은행 014-01-0856-580 예금주)실업극복국민운동				
반납일자	99. 9. 6.		입금자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첨부서류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실업극복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함에 따라 위와 같이 반납내역을 제출합니다.

1999. 9. 6.

단체명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인)

대표자 : 유 재 섭 (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귀중

<참고자료>

희망나누기 지원현황

지역	신청건수	1차통과	2차통과	3차통과	4차통과	5차통과	합계
본부	1166	56	347	86	318	26	833
서울	106	21	34	34	4		93
강원도	3	3	0				3
경기도	623	18	130	77	234	13	472
경남	115	59	15	11	4	3	92
대구경북	445	61	114	67	148	6	396
전남광주	212	85	58	21	29		193
구미	49	4	2	1	0	21	28
대전	57	2	12	37	3		54
안산시흥	248	40	57	39	37		173
울산	2529	17	380	195	1296	20	1908
인천	30	8	2	14	3	1	28
충남	52	28	4	8	5		45
충북	10		3	5		1	9
포항	93	36	23	9	11		79
부천	138	14	69	17	11		111
경동	551		44	84	156		284
부산	780		235	144	256	31	666
경주	217			137	54	5	196
목포	129		14	55	14		83
전주(전북)	3				2	1	3
화학연맹	53			31	15		46
합계	7609	452	1543	1072	2600	128	5795
중복자		20	73	90	58	1	242

총 무 활 동

목 차

1. 회의활동

- 1) 1999 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 중앙 위원회 개최
- 3) 기타회의

2 . 기타활동

- 1) 노총 장학금 배정지급

1. 회 의 활 동

1) 99 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가. 개최일시 : 1999 년 5 월 20 일(목) 10시

나. 개최장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다. 참석자 : 재적 324 명중 258 명 참석

라. 결의사항

안 건	결의사항
1. 98년도 사업보고	원안통과
2. 98년도 결산보고	원안통과
3. 규약개정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총투표자 228표, 찬성 193표, 반대기권 35표로 원안대로 개정결의하다.
4. 임원보선, 중앙위원보선 노총과견대의원 선출	집행부안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총투표자 232 표, 찬성 213표 반대기권 19 표로 선출하다 (명단 - 첨부)
5. 99년도 사업계획수립	원안통과
6. 99년도 예산수립	원안통과
7. 맹비인상안	2000년 4월 1일자로 노련맹비를 100원인상(500원→600원)하기로 투표로 결의하다. 총투표자 227 표, 찬성 148표 반대기권 79
8. 기타토의	6월 16일까지 노총의 6대요구사항 및 99임단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한국노총의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다.
9. 결의문 채택	별도 유인물로 배부한 결의문을 낭독채택하다.

부위원장 보선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L G 전 자	장 석 춘	칩팩코리아	허 원
L G 전 선	도 정 복	대전지역본부	김 두 형
서울지역본부	신 성 균	구미지역본부	박 병 도
대 한 전 선	신 향 철	세 진 전 자	문 광 주
L G 반도체	강 영 철	LG 엘씨디	변 재 환

회계감사보선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울산지역본부	김 우 배	충북지역본부	왕 용 호
경남지역본부	배 동 한	포항지역본부	강 학 중

중앙위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풍 성 전 기	이 대 영	한 국 음 향	김 종 화
LG전자 평택	박 노 원	L G 산 전	최 경 호
두 원 정 공	정 춘 식	대 립 통 상	이 은 물
대 한 제 당	백 동 선	대 기 시 트	김 갑 성
풍 산	정 명 수	대한전선영주	박 풍 우
L G 정 밀	이 상 민	그 린 산 업	안 진 수
한국알프스	강 대 선	한 일 전 기	윤 용 민

노총파견대의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본 노 련	유 재 섭	본 노 련	정 창 영
본 노 련	김 순 호	본 노 련	이 병 균
본 노 련	문 광 주	한 화 구 로	신 성 균
L G 전 자	강 영 섭	L G 전 자	장 석 춘
L G 전 자	김 영 준	L G 전 자	권 종 안
L G 전 자	김 권 하	대 한 전 선	신 향 철
동 부 제 강	강 창 영	동 아 건 설	김 상 수
풍 성 전 기	이 대 영	대 우 전 자	김 수 도
대 우 전 자	강 창 석	대 우 전 자	황 창 배
로옴코리아	양 명 연	롯데알미늄	이 국 만
한국시그네틱스	유 은 주	한국특수공구	서 갑 순
L G 산 전	최 경 호	한 국 음 향	김 종 화
L G 전 선	하 영 일	L G 전 선	도 정 복
현 대 전 자	김 만 재	현 대 전 자	이 식 재
현 대 전 자	장 경 재	현 대 전 자	박 영 춘
삼 영 전 자	지 수 식	대광다이캐스트	김 수 룡
현대엘리베이터	성 용 주	회 성 전 선	김 영 기
성 신	유 진 화	신 한 주 철	윤 무 영
삼 화 전 자	김 유 섭	한 샘	권 석 정
이화다이아몬드	서 성 원	성 신	이 종 진
경 원 산 업	강 장 규	두 원 정 공	정 춘 식
칩팩코리아	허 원	동 아 정 기	조 동 진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두산포장제관	이 성 찬	신 한 일	박 영 집
대 우 통 신	김 영 국	한 국 샤 프	박 재 혁
한영알미늄	한 상 환	신 호 스 틸	박 창 옥
희 성 금 속	허 규 선	대 림 통 상	이 은 물
삼 신	강 한 우	수 산 정 밀	김 관 태
L G 금 속	설 광 섭	쌍 신 전 기	유 재 순
포스코홀스	이 승 재	대 성 공 업	김 두 형
한 국 야 금	왕 용 호	국제종합기계	조 준 기
삼 화 전 기	이 철 주	뉴 맥 스	임 상 학
에 벡 스	정 운 석	연 합 철 강	강 진 호
대 창 단 조	박 병 용	한국주철관	차 윤 환
대 선 조 선	황 대 선	한보부산제강소	최 창 대
오리엔탈정공	권 동 재	KISWEL	김 희 근
조 기	강 영 일	강 남	문 정 도
한 국 철 강	배 동 한	한 국 중 천	최 해 경
대 동 기 어	전 종 환	한 일 제 관	이 동 호
세 방 전 지	이 종 철	두원중공업	정 진 용
삼성라디에타	박 한 봉	세 신	이 유 정
FAG한화베어링	장 준 영	풍성전기창원	박 종 화
덕 양 산 업	김 우 배	동 회 산 업	장 수 길
고 려 아 연	조 한 제	L G 금 속	신 택 기
대한알미늄	남 송 희	진 도	조 동 형
풍 산	정 명 수	한국파워트레인	김 무 호
쌍용중공업대구	김 경 조	경 창 산 업	장 지 태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삼 성 제 침	주 태 화	화 신	윤 승 오
삼 립 산 업	이 복 교	평 화 산 업	신 석 곤
평화발레오	서 윤 배	동 해 전 장	정 한 근
아세아종합기계	윤 태 길	정 일 공 업	김 복 천
L G 정 밀	박 병 도	L G 반도체	강 영 철
태평양금속	김 교 훈	일 성 기 계	김 장 수
LG 엘씨디	변 재 환	포 첼 로 재	신 갑 식
세 아 제 강	백 종 부	일 성 기 계	김 장 수
세 아 제 강	권 택 봉	그 린 산 업	강 학 중
현 대 금 속	김 도 론	그 린 산 업	안 진 수
화 천	정 기 춘	L G 씨앤디	김 응 표
L G 씨앤디	차 성 탁	기아특수강	이 정 석
화 천 기 공	송 응 규	한 일 전 기	윤 용 민
태 양 금 속	이 병 욱	일 진	최 진 하
대 경 화 성	정 근 화	서 울 차 체	이 쌍 봉
세광알미늄	엄 종 국	대 덕 산 업	김 광 호
대 덕 전 자	박 광 원	오양공조기	조 재 천

규약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 23 조(대의원배정비율) ② 조합원 250명미만 노조는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하여 제 1 항에 의거 배정하되 이의 선출은 지역본부 최고결기관 대의원중 250명미만 노조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의 결의로 정한 배정순에 의한다.	② 조합원 250명 미만 노조는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하여 조합원 200명당 1명 단수 101명에 대해 추가 1명을 배정하되 이의 선출은 지역본부 최고결기관 대의원중 250명미만 노조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의 결의로 정한 배정순에 의한다.
<u>개정이유</u> 250명이상 단위조직에서는 형평성문제로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보지만 소규모 단위조직의 참여폭을 넓히므로써 조직대표자의 소외부분을 해소하고 현장여론 수렴을 용이케하여 민주성을 제고시킬뿐만 아니라 금속노련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조직활성화에 일조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결 의 문

지금 정부와 사용자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이유로 모든 고통을 우리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적 고통의 강도는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실업대란의 홍수는 여전하고 경제회복의 미명하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은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우리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대의원 일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파괴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해 강력한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단결된 의지와 강력한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확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노동운동 말살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를 위해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경영참가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1. 정부여당은 산업현장의 모든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1. 정부는 임박한 철강산업 구조조정시 노조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1. 정부와 정치권은 저효율, 비능률의 정치구조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위기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강도높은 재벌 개혁을 적극 추진하라!

1. 우리는 다가오는 2000년 총선에서 노동자후보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1. 우리는 노동조합 재정자립을 위한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1. 우리는 현장중심의 실질적 운동방침을 확립하고 고용불안에 맞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1. 우리는 노총의 6대요구사항 관철과 99임단투 승리를 위하여 6월 총파업투쟁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1. 정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채 사회통합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1999 년 5 월 20 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1) 제 125 차 중앙위원회

가. 일 시 : 99년 5월 19일 (15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34명 참석

라. 결의사항

㉔ 9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 1) 9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 2) 규약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 3)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 4) 노련맹비 100원(500원→600원)인상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 5) 결의문안 내용일부를 수정하여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㉕ 99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참석대의원을 324명으로 확정하다.

㉖ 복지사업 진행결과를 보고하다.

㉗ 한국노총 6월 총파업 결의지시에 대하여 우리노련도 적극참여할 것을 대회에서 결의하기로 하다.

(2) 제 126 차 중앙위원회

가. 일 시 : 2000년 2월 8일 (15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46명 참석

라. 결의사항

㉔ 2000년도 임금정책은 기본급 13.6% 인상 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사업장의 규모, 임금수준, 경영상태에 따라 조정기로 한다.

㉕ 전국대표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모든 조직이 참석할 것을 결의하다.

㉖ 예산항목 전용 및 2000년도 가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결의하다.

- ㉔ 노충 박인상위원장의 정계진출에 대해 찬반의견을 개진하고 노충 중앙정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하다.
- ㉕ 4 월의 16대 총선에 김경조(대구), 김영철(이천) 부위원장이 출마 할수 있도록 노충 중앙정치 위원회에 추천키로 결의하다.
- ㉖ 기타토의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정규직 중 미조직 근로자를 조직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 워크아웃 사업장이 임투에 어려움이 많으니 적극지원 바란다.

3) 연석회의

○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99년 5월 7일 (14:00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19 명 참석

라. 결의사항

- ㉔. 99년도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통과한다.
- ㉕. 99년도 예산안은 산출내역의 표현을 변경하여 통과한다.
- ㉖. 2000년도에 맹비 200원 인상안을 수정하여 100원 인상안을 중앙위 및 대회에 상정한다.
- ㉗. 규약내용중 대의원 배정을 지역본부의 경우 현행 250명 1명에서 200명당 1명 단수 101명에 1명 추가배정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가맹노조의 활동내용을 금속연대를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역본부 실무직원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 ㉘. 기타토의
 - 1) 사무처와 지역본부에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는 방안을 세워 주기바란다.
 - 2) 대구지역의 장학금 배정을 지역본부로 일괄배정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지역내 대표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매년 장학생 배정시 자체의 결의가 있다면 통합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다.
 - 3) 매년 단위조합의 임금결정시 타조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의시기를 조정해 주기 바란다.

○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99년 6월 11일 (14:00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15 명 참석

라. 결의사항

- ㉔. 99년도 입단투 승리 및 6대 정책 관철을 위한 총파업 투쟁 내용을 적극지지 하며 6월 16일 13시에 개최하는 서울역 광장 집회에 최대한의 인원이 참석 하도록 독려한다.
- ㉕. 사무처의 인사발령안을 검토승인한다.

○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99년 10월 6일 (14:00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23 명 참석

라. 결의사항

- ㉔ 각 부서별로 집행된 업무를 보고하다.
- ㉕ 복지사업 수익금중 300만원을 산재조합원 돕기에 집행하며 방법은 지역본부의 추천에 의해 심의 결정한다.
- ㉖ 홍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의결한다.
- ㉗ 기타토의
 - 연합철강주주가 상법상의 증자 요건 규정을 악용하여 증자가 실현되지 않아 상장폐지의 위기에 있어 노동조합이 투쟁하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어 증자가 실현되도록 정책건의 바란다.
 - 기업의 워크아웃, 소사장제 도입으로 인한 노조의 조직력 약화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제공해 주기 바라며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소사장제의 인원규모가 법으로 명시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활동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
 - 의료보험, 국민연금 통합문제에 대하여 양노총의 시각차이로 현장이나 일반국민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빠른시간내 한가지 의견으로 정리되면 좋겠다.

- . 근로자 주택자금에 대한 과세로 무주택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등 정책결정기구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99년 12월 8일 (14:00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17 명 참석

라. 결의사항

㉠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사수 투쟁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의하고

- . 노총의 투쟁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행동에 옮기기에는 과거의 예를 보아 신뢰에 다소 의문이 있으나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총의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 . 산별, 노총시도본부, 지부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철야 농성하고 있는 것은 노총 산하조직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노총산하 전 조직의 상근자가 노총강당에 모여 함께 철야농성하는 방안을 노총지도부에 건의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의하기로 결의하다.
- . 노총 중요정책결정은 지금까지 노총대표자회의에 위임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대표자회의 위임을 최소화 하도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의결의한다.
- . 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노총 의장단의 삭발등의 방법 강구를 건의키로 한다.

㉡ 전국대표자대회 개최의 건은 사무처에서 작성한 계획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개최시기를 2000년 2월중으로 변경한다.

㉢ 노련의 각종집회 및 분규발생 단위노조 지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차량 한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가맹노조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고 금액의 배정기준 및 모금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하다.

○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2000년 2월 8일 (13:00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25 명 참석

라. 결의사항

- ㉠ 2000년도 임금정책 수립은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 ㉡ 전국대표자대회 개최의 건은 가맹노조 모두가 적극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 ㉢ 예산항목 전용 및 가예산안은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 ㉣ 노총 박인상위원장의 정계진출에 대해 찬반의견을 개진하고 노총 중앙정치위원회에 전달키로 한다.
- ㉤ 현대전자 김만재 전위원장(연맹부위원장)이 연맹에 상근하기로 결의하다.

4) 회계감사 수검

○ 9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가. 일 시 : 99년 11월 2일 (14:00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내 용 : 99회계년도 상반기(99. 4. 1 - 9.30)회계 처리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다.

○ 99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검

가. 일 시 : 2000년 4월 27일 (14:00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내 용 : 99회계년도 하반기(99. 10. 1 - 2000. 3. 31)회계 처리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다.

2. 기타활동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우리노련에 배정된 99학년도 장학금 160,48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노조의 맹비 납부 실적에 따라 배정하였다.

년도별 장학금 수혜내역

년도별	중	고	전문대	대	계	지 급 금 액
77 년	16	12			28	1,520,000
78	91	68			159	9,765,000
79	118	86			204	13,960,000
80	165	120			285	21,525,000
81	130	42			172	30,980,000
82	127	49			176	37,980,000
83	140	37		2	179	41,680,000
84	68	9			77	16,480,000
85	84	8			92	19,000,000
86	84	8			92	19,000,000
87	71	12			83	19,650,000
88	149	64			213	60,990,000
89	128	58		1	187	59,210,000
90	199	51		1	251	80,900,000
91	261	47		1	309	114,770,000
92	231	58	1	3	292	116,960,000
93	165	72		2	240	117,860,000
94	61	87	기 타) 1	1	150	96,390,000
95	56	103	기 타) 1		160	115,910,000
96	61	104			165	133,990,000
97	57	99	4		160	138,460,000
98	97	107	3	1	208	169,340,000
99	56	118	5	1	180	160,480,000
계	2,607	1,424	15	13	4,059	1,550,340,000

조 직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지역본부 임원명단
 - 단위노동조합 현황
2. 지부현황
3. 신규조직현황
4.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5. 해산 및 이탈노동조합 현황
6. 년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7. 지역별 조합원 월별 현황
8. 기타 활동

평가및 개선방안

21세기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시대이다. 글로벌 자본주의 독무대 시대가 열리고 있고, 현재도 미래가 공존할 만큼 광속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혁명시대, 지식혁명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노.사관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가 경제를 지배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지식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으로 국경과 공간이 무너진 세계 시장에서의 생존법칙을 터득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노동조합입장도 누구나 할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도태되고 전문화된 노동자만이 평생직장을 보장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노조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월 18일 전국대표자대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침체요인과 조직률하락 그리고 노조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가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바 있다.

침체요인으로서는 첫째,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휴폐업 사업장의 증가, 노동자의 의식변화 조직확대 사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였고 둘째, 기업별 노조의 한계로 인한 상급단체의 권한 부실과 조합원 감소로 인한 재정구조의 취약성, 임단투에만 매몰된 소극적인 노조활동, 각급 조직간의 연대성 결여는 정보교류가 순조롭지 못하여 지역조직 자체가 협의체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해 광활하고 방대한 조직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데 현실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률제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하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노조의 힘을 하나로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야하며

둘째, 노총의 5대요구사항 관철을 위해서는 지역과 산별을 초월한 연대성 강화,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현장중심의 활동과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역량강화가 절대 필요하며

셋째, 분과주의와 이념적 갈등을 타파하고 힘있는 노동조합으로 거듭태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공감대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미조직 사업장의 실태조사와 신규결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특히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임시직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의 개발, 조합원의식제고를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활기찬 저항과 투쟁의식으로 조직강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낸바 있다.

특히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반노동자적 정책에 맞선 99년 동투에 각 지역 본부가 칼바람속에서도 가열찬 투쟁의 대오를 정비하고 집회에 참석하므로써 그 어느 산별보다 조직력과 대응력에서 최고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켜냈으며 임.단투에서도 승리를 이끌어 낼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사분란한 내부조직의 결속된 힘에서 바탕된 것이라 판단된다.

신규조직 사업도 각 지역본부에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23개 사업장노조를 신규조직으로 확대할수 있었고 합병과 분할등 민감한 조직문제 역시 성숙된 모습으로 처리해 낼수 있었다. 2000년에는 현장조직의 교섭력 및 투쟁력을 강화시켜 악성분규 사업장에서 조속한 협상타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직력을 강화해 내고 금속노련이 결정하면 반드시 실천한다는 인식을 시켜내어 향후 조직안정과 확대, 노사관계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9. 12. 28.
 ②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57
 ③ 전화 번호 : 676 - 4823 FAX : 676 - 4824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서 갑 순	한국특수공구	2000. 3. 2.
지도위원	강 창 영	동 부 제 강	96. 12. 23.
부 의 장	김 형 식	대한전선 시흥지부	96. 12. 23.
부 의 장	문 광 주	세 진 전 자	96. 12. 23.
부 의 장	이 병 원	KEP전자	96. 12. 21.
회계감사	김 영 배	대한전선 시흥지부	96. 12. 23.
회계감사	이 대 영	풍 성 전 기	96. 12. 23.
정책실장	김 진 태	교세라엘코코리아	96. 12. 23.
사무국장	김 중 화	한 국 음 향	99. 12. 21.

⑤ 서울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오티스엘리베이터노동조합	991119	최 경 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1
LG전자노동조합	630530	장 석 춘	영등포구 문래동 6 가 36 LG강서빌딩
경보전기노동조합	910412	송 제 관	서울시 성동구 성수 2 가 284 - 5
남성텔레콤노동조합	770212	김 명 란	서울시 금천구 가리봉동 345 - 30
대우전자노동조합	830402	김 수 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노총회관 409
대우전자서비스노동조합	981229	오 태 곤	송파구 방이동 64-6 경진빌딩 402
대한전선노동조합	720615	신 향 철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104
동부제강노동조합	660429	강 창 영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23
동아건설노동조합	740629	김 상 수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 - 23
롯데알미늄노동조합	760407	서 학 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
샤프전자노동조합	900508	박 보 근	강서구 등촌3동 661-10 샤프빌딩 4 층
세진전자노동조합	770123	문 광 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 - 19

엘코코리아노동조합	940417	김 진 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44
풍성전기노동조합	670228	이 대 영	서울시 성동구 성수 1 가 656 - 335
한국TDK노동조합	960225	도 대 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70 번지
한국시그네틱스노동조합	670908	유 은 주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
한국음향노동조합	850425	김 종 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 41
한국코트렐노동조합	990609	윤 정 한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1 옥도빌딩
한국특수공구노동조합	620331	서 갑 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1
한화/구로노동조합	880201	신 성 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 1

2) 경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2. 9. 27.
 ②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 8 동 377
 ③ 전화 번호 : (0343) 442 - 3666 FAX : (0343) 445 - 2816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하 영 일	L G 전 선	97. 11. 24.
부 의 장	이 종 진	성 신	97. 11. 24.
부 의 장	박 노 원	L G 전 자	97. 11. 24.
부 의 장	신 향 철	대 한 전 선	97. 11. 24.
부 의 장	도 정 복	L G 전 선	97. 11. 24.
부 의 장	박 정 화	동 아 정 기	97. 11. 24.
부 의 장	윤 무 영	신 한 주 철	97. 11. 24.
부 의 장	김 유 섭	삼 화 전 자	97. 11. 24.
부 의 장	허 원	칩팩 코리아	98. 11. 16.
회계감사	조 병 철	대한전선(지부)	99. 11. 15.
회계감사	김 정 학	도 루 코	97. 11. 24.
사무국장	장 현 국	퍼시픽컨트롤즈	99. 11. 15.

⑤ 경기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SE코리아노동조합	881219	곽 노 용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달리 477

LG전선노동조합	670512	도 정 복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
경동산업노동조합	881213	조 병 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509
국제전기노동조합	880919	김 종 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 - 1
남일전지노동조합	771204	강 용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99-4
대광다이캐스트노동조합	880307	김 수 룡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25
대신기계노동조합	880517	강 호 석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쾌량리 480 - 1
대원전선노동조합	870731	배 승 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38-77
도루코노동조합	750526	김 정 학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266
동광전자노동조합	991227	이 수 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6
동신중공업노동조합	900604	박 용 일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백봉리 산 66
동신타강노동조합	881226	김 상 옥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833 - 7
동아정기노동조합	870817	김 상 용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36-9
동일제강노동조합	850614	김 원 환	안성시	미양제2지방산업단지	2B 1L	
동화계량기노동조합	870814	이 봉 기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능리 126-10
두산테크텍노동조합	880418	이 성 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8 - 1
두원정공노동조합	870827	정 춘 식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80
반도기계노동조합	870820	오 광 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9-3
범양냉방노동조합	770703	최 윤 철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 - 4
보원무역노동조합	870814	하 병 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6
부천지역금속노동조합	980818	김 경 협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7-11
사이스열병합발전노동조합	990920	노 태 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1-1
삼아알미늄노동조합	890217	이 민 우	경기도	안양시	박달2동	111 - 2
삼양중기노동조합	840708	이 성 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4
삼영전자노동조합	880828	지 수 식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0 - 1
삼원기업노동조합	981105	박 병 철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유암리 653-5
삼원산업노동조합	860603	김 영 숙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봉암리 234
삼한노동조합	870723	양 신 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 - 5
삼화전자노동조합	941121	김 유 섭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211-1
삼화제관노동조합	880816	유 규 상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94-1
서울차량노동조합	671003	백 정 훈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72
서진산업노동조합	760226	조 영 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5
성문전자노동조합	901230	김 정 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1-6
성신노동조합	870728	유 진 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6 - 5
수산서비스노동조합	970702	정 수 동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송리 457
신라엔지니어링노동조합	880516	김 수 영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128

신원공업노동조합	990401	이 호 혁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023-2
신한일전기노동조합	740518	박 영 집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
신한주철노동조합	740720	윤 무 영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 동	135
아세아조인트노동조합	890108	김 광 민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262
우진전자노동조합	870902	전 경 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4 - 5
이티아이노동조합	880718	김 선 영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 - 20
이화다이야몬드노동조합	880312	최 진 용	경기도	오산시	원동	520 - 2
일진전기노동조합	870816	전 덕 동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12-83
정문정보노동조합	970118	홍 전 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122-5
진우노동조합	910710	서 경 호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7 - 6
칩팩코리아노동조합	980701	허 원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캐리어-LG노동조합	000214	김 경 래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36
태광에로리카노동조합	921019	윤 선 옥	경기도	안양시	안양 7 동	191-4
파카진영기전노동조합	880302	백 용 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37 - 4
퍼시픽콘트롤즈노동조합	910206	장 현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288
풍정산업노동조합	871112	안 재 식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6 - 1
필코전자노동조합	870826	이 회 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81
한국FCI노동조합	931112	한 광 수	경기도	이천군	신탄면	수하리 345-4
한국가구노동조합	680904	이 정 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8 - 1
한국번디노동조합	870719	주 진 선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신리 206 - 1
한국스파이로노동조합	981201	김 정 덕	경기도	용인시	구서면	상하리 472
한국열교환기노동조합	870831	최 용 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6리 517
한국일측노동조합	930517	김 충 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3
한국체인노동조합	870826	최 상 봉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77
한국키스톤발브노동조합	880709	주 객 근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록리 270-4
한신정공노동조합	870820	김 금 수	경기도	화성군	팔달면	창곡리 1030-2
해태전자노동조합	870919	김 만 근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 461
현대ENERCELL노동조합	870824	강 장 규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34 - 3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870814	성 용 주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현대오토넷노동조합	000401	이 승 현	경기도	이천시	아미리 산	136-1
현대전자노동조합	870814	장 경 재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희성전선노동조합	680503	김 영 기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66

3) 안산.시흥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7. 12. 16.

② 소재지 : 안산시 시화공단 4 라 601 노동복지회관

③ 전화 번호 : (0345) 499 - 8601 FAX : (0345) 497 - 1049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이 병 욱	태 양 금 속	97. 12. 16.
지도위원	엄 종 국	세 광 알미늄	"
지도위원	권 석 정	한 샘	"
부 의 장	이 쌍 봉	서 울 차 른	"
부 의 장	김 광 호	대 덕 산 업	"
부 의 장	정 근 화	대 경 화 성	"
부 의 장	조 재 천	오양 공조기	"
부 의 장	신 철	신 일 산 업	"
부 의 장	강 영 석	경 방 기 계	2000.1.27
부 의 장	김 영 규	대 룡 전 선	"
회계감사	박 상 목	이 지 텍	"
회계감사	송 두 영	경 용 기 계	"
회계감사	김 윤 식	한 영알미늄	"
사무국장	조 재 천	오양 공조기	97. 12. 16

⑤ 안산.시흥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EZ테크노동조합	880411	박 상 목	안산시 원시동 779 - 5
T.R.W 노동조합	950817	정 상 모	안산시 원시동 780-3
경방기계노동조합	880629	강 영 석	안산시 성곡동 644 - 2
경용기계노동조합	840527	송 두 영	안산시 성곡동 646 - 5 반월공단 B 602- 7
광명전기노동조합	870815	이 명 구	안산시 목내동 389번지 28-15
기린산업노동조합	900714	차 상 목	안산시 목내동 403 번지 16 B
남성기계노동조합	890410	이 철 수	안산시 신길동 1054-1
남양공업노동조합	950327	류 승 택	안산시 목내동 390
대경화성노동조합	890113	정 근 화	안산시 성곡동 636-2

대기산업노동조합	890224	민 한 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
대덕산업노동조합	871211	김 광 호	안산시	목내동	475	
대덕전자노동조합	871228	이 선 오	안산시	목내동	390 - 1	
대륙전선노동조합	871202	김 영 규	안산시	원시동	731 - 9, B 4 - 10	
도루코엔지니어링노동조합	970320	신 종 윤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62-3
동서기공노동조합	890424	김 종 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2 - 5
동양사노동조합	961025	이 장 옥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86-5
동희산기노동조합	910523	설 한 수	시흥시	정왕동	1279 번지 3나 301호	
두레에어메탈노동조합	880622	김 석	안산시	목내동	393-1	
명화공업노동조합	970228	서 문 수	안산시	원시동	720-2 1-56B	
배명금속노동조합	981202	강 우 남	안산시	목내동	397-2	
삼기기공노동조합	781013	박 완 식	안산시	원시동	726- 4	
삼목강업노동조합	880418	박 용 국	안산시	초지동	654 - 3 반월공단 9-71-2	
삼영기공노동조합	890328	구 인 수	안산시	성곡동	B 602 - 18	
삼한콘트롤스노동조합	991230	김 태 식	시흥시	정왕동	1268-7 시화공단 2나 408호	
서울차륜노동조합	671013	이 쌍 봉	안산시	신길동	1125 13-14BL	
서진클러치노동조합	910125	박 승 룡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0 - 9
성안기계노동조합	890515	최 관 섭	안산시	성곡동	646 - 4 (602B)	
성진산업노동조합	870822	임 병 우	안산시	원시동	731 - 8 (4B,9L)	
세광노동조합	900423	이 성 호	안산시	성곡동	638 - 4	
세광알미늄노동조합	860831	장 영 기	안산시	초지동	9 B 651	
신명전기노동조합	850522	공 민 석	안산시	원시동	835-4(반월공단 9B-1L)	
신아전기노동조합	800326	최 원 학	안산시	원시동	779 - 10	
신일산업노동조합	770425	신 철	안산시	사사동	119	
신일정밀노동조합	890916	박 정 호	안산시	사사동	123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노동조합	870822	김 영 윤	안산시	목내동	398 - 14	
오양공조기노동조합	870817	조 재 천	안산시	원시동	817, B 1 - 89	
우진공업노동조합	890512	김 영 철	안산시	원시동	770 - 1, 11 B 17 L	
위스코노동조합	920510	이 홍 복	시흥시	시화공단	3나 706B	
일진노동조합	870822	한 명 송	안산시	목내동	472 - 1	
제원전자노동조합	890407	서 문 숙	안산시	성곡동	646-6 반월공단 602-9B	
태양금속노동조합	760526	이 병 옥	안산시	성곡동	595	
한국캠브리지필터노동조합	900216	최 성 돈	안산시	원시동	781 - 5	
한샘노동조합	800401	한 승 인	안산시	성곡동	665 시화공단 5라 201	
흥진정공노동조합	881119	이 정 한	안산시	원시동	780 - 1, 10 - 8 B	

4) 인천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1. 2.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1089 - 3 근로자복지회관 3 층
 ③ 전화 번호 : (032) 437 - 8505 FAX : (032) 437 - 8504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손 종 홍	대 한 제 당	99. 6. 29
지도위원	나 용 길	신 원 공 업	98. 5
지도위원	전 병 순	대 우 통 신	"
부 의 장	한 상 환	한영알미늄	"
부 의 장	정 길 환	삼 성 정 밀	"
부 의 장	이 준 선	영 품 산 업	"
부 의 장	김 재 업	동 국 제 강	"
부 의 장	박 창 옥	신 호 스 틸	"
부 의 장	김 정 근	대우전자/주안	"
부 의 장	정 평 원	우 일 정 밀	99. 1. 28
부 의 장	안 경 봉	서울엔지니어링	"
회계감사	황 종 환	한 국 차 량	98. 5
회계감사	최 영 진	부 국 철 강	"
회계감사	양 승 종	대동시스템	"
정책기획실장	오 인 상	삼 성 공 업	99. 6. 29
사무국장	김 현 섭	도투락인천	"

⑤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금영실업노동조합	870706	김 병 국	남동구 고잔동 639-1 남동공단2단지 70B-2L
대동시스템노동조합	890711	양 승 종	남동구 남촌동 607-2 남동공단 3B3L
대림통상노동조합	870812	이 영 득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4 - 4
대우통신노동조합	810302	김 영 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 - 1
대한제당노동조합	690602	백 동 선	인천시 중구 북성동 1 가 6 - 14
도투락 인천공장노동조합	880705	김 현 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7 - 3
동국제강노동조합	890220	김 재 업	인천시 동구 송현3동 1
동보노동조합	870910	최 화 영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06 - 1 2B-2L
로얄동도노동조합	870725	이 원 식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414-3
린나이코리아노동조합	890317	한 기 성	인천시 북구 심정동 560 - 2

미주제강노동조합	870809	손 창 두	인천시 남구 도화동 696
부국철강노동조합	880208	최 영 진	인천시 남구 도화3동 686
삼성공업노동조합	870810	오 인 상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4B 1L
삼성정밀노동조합	890414	정 길 환	남동구 남촌동 629-3 남동공단 42B 4L
삼흥차량노동조합		이 학 만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73
신원공업노동조합	871019	나 용 길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3B 1L
신호스틸노동조합	800508	박 창 옥	인천시 남구 학익동 468
쌍용정공노동조합	870818	양 영 호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4
영풍산업인천공장노동조합	870820	이 준 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57 - 3
우일정밀노동조합	870824	정 평 원	인천시 남구 도화동 694 - 1
진도노동조합	850131	박 진 현	인천시 남구 도화동 765-1
청우공업노동조합	880510	유 제 봉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2-14
한국샤프노동조합	880601	현 용 섭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18
한국차량노동조합	870623	황 종 환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 - 67
한영알미늄노동조합	761027	한 상 환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 - 4
한일튜브공업노동조합	930515	김 응 섭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9 - 3
화신공업노동조합	980715	이 정 우	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250
후지테크코리아노동조합	870827	김 영 철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2-2 98B 3L
희성금속노동조합	870823	유 태 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8 - 1

5) 대전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30.
- ②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4 번지
- ③ 전 화 번 호 : (042) 488 - 9057 FAX : (042) 488 - 9058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김 두 형	대 성 공 업	97. 4. 28.
회계감사	윤 익 병	남 선 기 공	“
회계감사	김 진 순	대 성 공 업	“
사무국장	김 희 종	동 양 금 속	“

⑤ 대전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남선기공노동조합	740221	윤 익 병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50 - 10
대성공업노동조합	781015	김 진 순	대전시 동구 성남 1 동 180 (7/5)
대성노동조합	790112	정 칠 석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1-14
동양강철노동조합	670306	오 기 순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75-2 3공장
동양금속노동조합	780807	김 회 종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 - 55
로움코리아노동조합	960920	최 희 섭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42-2
세아중기노동조합	870101	김 순 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8-1
신동방의료노동조합	890126	박 회 국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02 - 128
중앙공업노동조합	730127	김 병 구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90 - 7
한국중기노동조합	880522	라 정 만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43 - 2

6) 충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6. 5. 10.
 ②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0 - 1 중앙빌딩 4층
 ③ 전 화 번 호 : (0418) 541 - 6970 FAX : (0417) 541 - 6970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강 한 우	삼 신	98. 7. 13.
수석부의장	설 광 섭	LG산전장항	“
부 의 장	김 관 태	수 산 정 밀	“
회계감사	심 수 경	FKL 동 화	2000. 3. 23
회계감사	최 황 호	동일알루미늄	2000. 3. 23
사무국장	최 중 석	화 승 공 조	99. 10.27

⑤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산전장항노동조합	990317	설 광 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
구암노동조합	991006	송 주 헌	충남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624
대기시트노동조합	950925	홍 광 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 58-3
대양강관노동조합	990521	장 범 석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224-1
대흥노동조합	850618	오 수 영	충남 천안시 두정동 488
동국엔지니어링노동조합	990409	장 찬 선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천흥공단 3-2
동양철관노동조합	870825	박 태 보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판리 57
동원금속노동조합	970409	김 영 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23
동원정공노동조합	970409	이 종 선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23
동일알루미늄노동조합	950727	최 화 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78-1
두원공조노동조합	901217	김 호 영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산 16 - 1
삼신노동조합	870729	강 한 우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 - 6
새론오토모티브노동조합	951017	백 중 형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6-1
서봉산업노동조합	990428	박 종 윤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50-8
수산정공노동조합	990118	송 은 수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467
수산정밀노동조합	930709	김 관 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산 94
수산특장노동조합	950508	김 성 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산3-1
신우전자노동조합	981029	임 은 숙	충남 천안시 성정동 159-12
에스아이디노동조합	980910	최 경 호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 77-1
에프케이엘동화노동조합	900206	심 수 경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338 - 13
진로산업노동조합	870826	방 응 식	충남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569
포스코홀스노동조합	960329	이 승 재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
한국F.M노동조합	710513	이 흥 배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산 666 - 8
한국쌍신전기노동조합	760426	유 재 순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 - 1
한국하니웰노동조합	890601	김 태 상	충남 천안시 차암동 56 천안 제 2 공단
한성실업노동조합	870818	안 성 환	예산군 웅봉면 지성리 웅봉농공단지 6BL
해인노동조합	980520	송 기 정	천안시 차암동 55 번지 2 공단 2-1B
화승공조노동조합	950821	최 종 석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5
환영철강노동조합	950117	홍 성 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7

7) 충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8. 12. 31.
 ②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 - 15 번지
 ③ 전화 번호 : (0431) 267 - 1418 FAX : (0431) 266 - 5088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왕 용 호	한 국 야 금	99. 2. 23
부위원장	정 운 석	에 넥 스	00. 1. 28
부위원장	이 철 주	삼 화 전 기	"
부위원장	권 중 안	L G 전 자	98. 1. 1
사무국장	전 병 준	삼 화 전 기	99. 2. 23
회계감사	김 영 기	엔 텍	99. 2. 23
회계감사	김 준 수	현대반도체	00. 1. 28
조직부장	김 한 성	대 성 쉘 틱	"
노사대책부장	이 관 회	대농중공업	"
교육홍보부장	최 경 천	대 성 전 선	"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산전노동조합	870727	윤 중 남	충북 청주시 봉명동 450
국제종합기계노동조합	740201	김 선 중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 - 1
극동전선노동조합	870822	정 석 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16-1
뉴맥스노동조합	880427	임 상 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 - 15
다우정밀노동조합	991203	이 형 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95-1
대농중공업노동조합	941231	이 관 회	충북 청주시 송정동 27-5
대성셀틱노동조합	890419	김 한 성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3 - 69
대성전선노동조합	780219	최 경 천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산 68
동성금속노동조합	910309	권 순 광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
동신오미야법랑노동조합	891116	안 승 회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60 - 1
동유물산노동조합	850218	손 관 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572-1
맥슨전자노동조합	820511	최 종 철	충북 청주시 송정동 70-55
삼화전기노동조합	900131	이 철 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2
선일기계노동조합	880611	이 원 섭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767-3

에넥스노동조합	870810	정 윤 석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55
엔텍노동조합	890412	김 영 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02 - 2
한국알미늄노동조합	900826	강 하 석	충북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457
한국야금노동조합	910204	왕 용 호	충북 청주시 송정동 53 - 16
한국트랜스노동조합	991005	안 춘 희	충북 충주시 금농동 187-8

8) 부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29.
 ②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 - 240
 ③ 전화 번호 : (051) 644 - 4613 FAX : (051) 647 - 8770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지도위원	강 영 일	조 기	99. 1. 29
지도위원	박 병 용	대 창 단 조	"
의 장	강 진 호	연 합 철 강	"
부 의 장	최 창 대	부산한보제강소	"
"	차 윤 환	한국 주철관	"
"	김 희 근	KISWEL	"
"	정 윤 국	한국오루강침	"
"	권 동 재	오리엔탈정공	"
"	변 진 섭	대 성 사	"
"	황 대 선	대 선 조 선	"
"	문 정 도	강 남	"
사무국장	이 재 섭	부 산 주 공	"
회계감사	서 영 택	부 산 주 공	"
회계감사	김 병 옥	부 산 링 구	"

⑤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KISWEL노동조합	840617	김 희 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1 - 3
강남노동조합	780319	문 정 도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

고성산업노동조합	870806	양 종 숙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2
대선조선노동조합	681203	황 대 선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 가	12
대성사노동조합	760330	변 진 섭	부산시 동래구 안락 2 동	107 - 16
대창단조노동조합	750510	박 병 용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952 - 3
대창중기노동조합	900410	이 규 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8-5
대한제강노동조합	890420	윤 각 열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6
동승기업노동조합	870901	추 진 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1 동	791 - 1
동아금속노동조합	871017	정 현 규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9 - 7
동영공업노동조합	871018	지 재 훈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48 - 9
부산링구노동조합	780430	김 병 옥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3-1
부산수리조선노동조합	870620	홍 영 태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부산정기노동조합	790301	정 현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21 - 3
부산조선노동조합	780703	홍 신 택	부산시 영도구 청학 1 동	330
부산주공노동조합	880420	서 영 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5
삼공사노동조합	870213	류 국 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2
삼천리열처리노동조합	870824	서 종 율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53 - 5
성광밴드노동조합	751119	조 용 석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20
세진아키텍트노동조합	890202	양 윤 석	부산시 영도구 청학1동	379
신동방노동조합	751109	문 춘 희	부산시 연제구 연산 1 동	581 - 4
연합철강노동조합	770212	강 진 호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 - 1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	900217	권 동 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8
유니크부산공장노동조합	880712	이 승 우	부산시 사하구 감천 1 동	702
제일전기노동조합	770319	서 종 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31
조기노동조합	671217	강 영 일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99
조선선재노동조합	880726	김 용 호	부산시 남구 우암 1 동	39
태광밴드노동조합	760206	신 병 탁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4
태양금속노동조합	960523	변 성 진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	1089-5
태양사노동조합	870811	이 형 연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267 - 1
한국선재노동조합	890508	강 대 후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34
한국오루강침노동조합	890406	정 운 국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60 - 1
한국주철관노동조합	800419	차 윤 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9
한보부산제강소노동조합	800226	최 창 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90
형진공업노동조합	890716	김 기 철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8 - 6

9) 경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9.
 ②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번지
 ③ 전화 번호 : (0551) 284 - 4021 FAX : (0551) 287 - 5052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배 동 한	한 국 철 강	99. 2. 23.
부 의 장	정 한 식	LG전자 창원1지부	"
부 의 장	김 영 준	LG전자 창원2지부	"
부 의 장	장 준 영	FAG 한화베어링	"
부 의 장	박 한 봉	삼 성 라디에타	"
부 의 장	최 정 호	한 국 씨 티 즈	"
부 의 장	이 동 호	한 일 제 관	"
부 의 장	이 진 희	세 신	99. 2. 10.
부 의 장	김 성 천	한 국 스 핀 들	99. 2. 23.
부 의 장	김 권 하	LG전자 김해지부	2000. 2. 10.
부 의 장	전 종 환	대 동 기 어	"
부 의 장	차 성 탁	L G 정 밀	99.2. 23.
회계감사	박 재 원	동 호 전 기	"
회계감사	이 문 호	효 성 기 계	"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FAG한화베어링노동조합	630225 장 준 영	경남 창원시 내동 452-9
고려상사노동조합	870321 임 춘 한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31 - 1
대동기어노동조합	760526 전 종 환	경남 사천군 사남면 유천리 71
대동정비노동조합	891004 백 운 효	경남 진주시 상대 2 동 33 - 121
대명공업노동조합	881124 유 준 규	경남 창원시 팔룡동 24 - 1
대신금속노동조합	961126 이 덕 세	경남 창원시 팔룡동 24 - 11
동호전기노동조합	880530 박 재 원	경남 진양군 지수면 송내리 산 58-1
두원중공업노동조합	800114 정 진 용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650

삼성라디에터노동조합	850404	박 한 봉	경남 창원시 내동 456 - 4
삼송노동조합	880128	김 호 규	경남 창원시 성주동 52 - 3
삼우금속노동조합	800610	최 경 호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17
삼원금속노동조합	770502	김 유 규	경남 김해시 안동 430 - 5
삼천리자전거노동조합	601024	고 선 일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89
삼한노동조합	870813	윤 삼 원	경남 창원시 웅남동 40 - 2
상농기업노동조합	780828	문 열 주	경남 양산시 유산동 476 - 68
세방전지노동조합	760728	이 종 철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 - 9
세신노동조합	751120	이 진 희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4-14
세원중공업노동조합	881102	최 강 근	경남 창원시 신촌동 72
세일공업노동조합	880414	조 경 옥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 - 50
우신흥산노동조합	890817	최 귀 자	경남 양산군 양산읍 하북정리 291-6
유니크김해노동조합	980826	조 정 기	경남 김해군 진영읍 죽곡리 10-1
유성금속노동조합	800403	손 성 국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389
적고정밀노동조합	960430	이 명 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 - 4
창원공업노동조합	870907	이 동 수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4
창원특수강노동조합	990730	박 철 규	경남 창원시 신촌동 65
충무연합조선노동조합	860503	조 경 옥	경남 통영시 봉평동 162 - 4
태양코팅노동조합	890902	석 민 호	경남 창원시 성산동 43
태주실업노동조합	880909	박 성 호	경남 창원시 성주동 48 - 5
태화기계노동조합	790706	최 종 룰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5
풍성전기창원노동조합	890308	박 종 화	경남 창원시 성산동 47
풍성정밀노동조합	800515	박 해 동	경남 창원시 외동 853 - 11
한국NOK이글노동조합	960325	장 원 혁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방 산업단지 4-5
한국동양유전노동조합	870820	김 종 산	경남 통영시 도남동 468
한국산본노동조합	880425	이 행 철	경남 마산시 봉암동 654 - 3
한국삼미노동조합	920207	구 향 주	경남 진해시 이동 1
한국스핀들노동조합	880718	김 성 천	경남 김해시 안동 161 - 12
한국시티즌노동조합	871210	최 정 호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한국일선노동조합	880705	조 덕 용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4-17
한국정상화성노동조합	880704	심 문 보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한국중천노동조합	870811	최 해 경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 - 17
한국지엠비노동조합	881115	윤 종 오	경남 창원시 성산동 48
한국철강노동조합	870810	배 동 한	경남 창원시 신촌동 70

한국카시오노동조합	890203	이 선 중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 - 4
한덕산업노동조합	881014	전 영 섭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8 - 10
한일제관노동조합	870817	이 동 호	경남 양산시 유산동 211
해태중공업노동조합	860531	김 철 식	경남 창원시 양곡동 192-5
효성기계노동조합	830326	이 문 호	경남 창원시 성산동 77

10) 울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9. 9. 1.
 ②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 - 7
 ③ 전 화 번 호 : (052) 276 - 5880 FAX : (052) 274 - 9631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우 배	덕 양 산 업	98. 1. 15.
부 의 장	조 한 제	고 려 아 연	“
회계감사	장 수 길	동 회 산 업	“
회계감사	문 성 일	삼 주 기 계	“

⑤ 울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LG-Nikko동제련노동조합	830321	신 택 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
고려아연노동조합	771009	조 한 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505
금강공업노동조합	900811	김 종 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40-25
대일공업노동조합	850607	허 문 근	울주군 두서면 전음리 두서농공단지 302
덕양산업노동조합	870810	김 금 식	울산시 북구 연암동 945
동국실업노동조합	960628	문 부 근	울산시 중구 연암동 728
동회산업노동조합	870811	장 수 길	울산시 남구 개운동 218
삼주기계노동조합	881216	문 성 일	울산시 북구 효문동 750 - 1
풍산노동조합	870725	정 명 수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611

11) 대구.경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10.
 ②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4 - 73
 ③ 전화 번호 : (053) 564 - 0128 FAX : (053) 564 - 0127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지도위원	장 지 태	경 창 산 업	99. 2. 5.
지도위원	윤 태 길	아세아종합기계	“
의 장	김 무 호	한국파워트레인	“
수석부의장	김 춘 종	미 주 금 속	“
부 의 장	권 태 훈	영 진	“
“	이 복 교	삼 립 산 업	“
“	주 태 화	삼 성 제 침	“
“	전 봉 진	성 산	“
“	박 인 환	대 원 기 계	“
사무국장	서 윤 배	평 화 발 레 오	“
기획실장	이 중 환	삼 익 공 업	“
조직국장	신 석 곤	평 화 산 업	“
교선국장	황 성 원	대 철	2000. 2. 28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경창산업노동조합	850720	장 지 태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72
경창와이퍼시스템노동조합	880907	김 재 준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86
경창정공노동조합	880909	김 기 표	대구시 달서구 장동 306-56
금융기계노동조합	900324	이 상 만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666 - 1
남선알미늄노동조합	680825	정 광 식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13
남양금속노동조합	881109	김 종 오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대동금속노동조합	880216	이 강 진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18
대리정밀노동조합	880714	임 중 춘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1-121

대성정기노동조합	900410	이 규 열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32
대원기계공업노동조합	881010	박 인 환	대구시 서구 이현동 44 - 26
대철노동조합	700226	황 성 원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788-6
대한소결금속노동조합	881021	이 영 우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10
동남주물노동조합	880319	김 봉 용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66 - 1
동원파이프노동조합	900201	이 상 수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6
동해전장노동조합	890227	정 훈 근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 - 3
미주금속노동조합	780816	김 춘 중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39
삼립산업노동조합	680618	이 복 교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36 - 3
삼립전기노동조합	910410	박 원 하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4
삼익공업노동조합	870818	이 중 환	대구시 북구 침산동 750
삼익정공노동조합	890816	김 서 홍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25-2 42 B-3L
삼협산업노동조합	870328	박 하 성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080 - 3
서구산업노동조합	870824	박 진 수	대구시 서구 이현동 45 - 55
성산노동조합	890309	전 봉 진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43 B 4 L
신생공업노동조합	720601	이 영 용	대구시 북구 침산 3 동 260 - 1
쌍용텍스텍노동조합	750410	김 시 중	달서구 성서 2차단지 1지구 18B 2L
아세아산업노동조합	800301	권 영 동	달서구 월성동 1788 성서2단지 2지구 34L1
아세아종합기계노동조합	870621	윤 태 길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168
영남주물노동조합	711001	백 운 학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34
영진노동조합	851115	권 태 훈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 - 52
이수전자노동조합	890420	유 광 선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54
창원기화기노동조합	871021	조 성 칠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95 - 11
평화발레오노동조합	890128	서 윤 배	대구시 달서구 장동 306 - 70
평화산업노동조합	750410	신 석 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17
평화오일셀노동조합	781014	유 길 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88
평화정공노동조합	880920	김 순 창	대구시 북구 노원3가 214
한국브레트노동조합	920610	김 석 진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103-21
한국파워트레인노동조합	731130	김 연 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597-10
화신테크노동조합	880429	이 회 찬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4 B - 2 L
효림산업노동조합	990409	김 선 호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11
경신공업노동조합	931104	성 대 석	경북 경주시 황성동 42
대부기공노동조합	890518	홍 정 표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 - 2
삼립정공노동조합	920618	황 재 순	경북 경산시 진량면 당곡리 산 22-1
삼성제침노동조합	910527	주 태 화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2

세명기업노동조합	750619	오 재 학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10
세왕금속노동조합	870827	정 용 목	경북 영천시 망정동	390
세원물산노동조합	870828	손 광 회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6
신성산업노동조합	000127	김 윤 길	경북 영천시 화산면 당곡리	50-2
신영금속노동조합	841026	이 수 연	경북 영천시 본촌동	440
영신정공노동조합	890520	장 복 이	경북 경주군 천북면 오야리	408
유진전장노동조합	930712	강 환 영	경산시 진량면 선상리	1210-2
일지테크노동조합	890201	나 영 섭	경북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1210 - 3
전우개발노동조합	881208	민 경 선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360
정일공업노동조합	870912	김 영 회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20-4
한국에이.엠.피노동조합	891101	윤 정 일	경북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1191
화신노동조합	880504	윤 승 오	경북 영천시 언하동	412

12) 구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3. 2. 10.
 ② 소 재 지 : 구미시 공단동 262 - 2 번지
 ③ 전화 번호 : (0546) 464 - 3643 FAX : (0546) 464 - 3643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노 승 표	LG 마이크론	99.11.23
지도위원	박 병 도	L G 정 밀	"
부 의 장	장 해 도	대 우 전 자	"
부 의 장	김 인 배	LG전자 구미1지부	"
부 의 장	강 영 철	현대반도체	"
부 의 장	김 교 훈	태평양금속	"
사무국장	김 철 수	오리온금속	99.11.26
조직국장	손 주 현	한국신영	2000. 1. 14
회계감사	한 기 훈	고려전기	"
회계감사	박 주 성	클레스트라하우저만	"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LG마이크론노동조합	870814 김 동 의	구미시 구포동 624
LG실트론노동조합	890105 조 성 룬	구미시 임수동 274
LG정보통신노동조합	830705 이 규 성	구미시 공단동 299
LG필립스노동조합	990101 변 재 환	구미시 임수동 161
고려전기노동조합	901126 한 기 훈	구미시 공단동 171
대영정공노동조합	810331 허 용 인	경북 김천시 신읍동 79 - 1
두산전자노동조합	870820 김 진 점	구미시 구포동 644
알칸대한노동조합	950714 박 풍 우	경북 영주시 적서동 250
오리온금속노동조합	880818 김 철 수	구미시 공단동 158
일성기계노동조합	820903 김 장 수	구미시 공단동 194
정화노동조합	740611 김 상 일	구미시 공단동 169
진영종합기계노동조합	810314 한 재 원	경북 김천시 대광동 1000 - 28
클레스트라하우저만노동조합	890224 박 주 성	구미시 황상동 502 - 4
태평양금속노동조합	880728 김 교 훈	구미시 공단동 298
한국텔코전지노동조합	870819 김 경 구	구미시 황상동 495
한국신영노동조합	870818 손 주 현	구미시 공단동 162
현대반도체노동조합	900209 강 영 철	구미시 임수동 171

13) 포항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1. 11. 23.
- ②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 - 11
- ③ 전화 번호 : (0562) 283 - 3728 FAX : (0562) 283 - 3729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강 학 중	그 린 산 업	99. 10. 21
부 의 장	권 택 봉	세 아 제 강	"
부 의 장	김 도 론	현대종합금속	"
회계감사	김 병 수	세아 특수강	"
회계감사	김 형 종	포 철 산 기	99. 12. 16
사무국장	양 성 용	동 성 철 강	99. 3. 24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그린산업노동조합	880701	안 진 수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4-67
동성철강노동조합	900506	양 성 용	포항시 장흥동 1866
동일기업노동조합	880704	장 문 식	포항시 남구 해도 1동 432-1
동일산업봉강사업부노동조합	971227	김 상 표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3
범아엔지니어링노동조합	881214	강 호 광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5
삼정강업노동조합	890208	정 연 택	포항시 남구 괴동동 967
성우정공노동조합	890610	강 진 유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세아제강노동조합	740311	권 택 봉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1
세아특수강노동조합	890321	김 병 수	포항시 남구 장흥동 747
제일테크노스노동조합	890807	김 성 운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
조선선재노동조합	881210	이 창 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865
코스틸노동조합	880424	김 용 수	포항시 남구 호동 286
포철로재정비부문노동조합	880629	송 만 현	포항시 남구 호동 611
포철산기노동조합	880629	김 형 종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 - 4
한금노동조합	901205	이 경 룰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4
현대종합금속노동조합	870819	김 도 론	포항시 장흥동 90 - 5
화성기업노동조합	890324	김 우 석	포항시 남구 해도1동 8-8
홍화공업노동조합	870825	장 세 종	포항시 남구 괴동 117

14) 광주·전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30.
- ② 소 재 지 : 전남광역시 북구 유동 40 번지
- ③ 전 화 번 호 : (062) 524 - 8581 FAX : (062) 528 - 8671
-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응 표	L G 정 밀	99. 3. 3.
부 의 장	박 기 출	하 남 전 자	“
부 의 장	김 동 인	부 국 산 업	“
사무국장	조 희 권	세 방 전 지	“
회계감사	고 주 선	한 국 번 디	“
회계감사	유 영 수	한국신평전자	“
회계감사	김 형 곤	서 울 차 체	“
상임지도위원	정 기 춘	화 천 기 공	“
정책기획실장	신 용 석	L G 정 밀	“

⑤ 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LG정밀노동조합	741007 최 병 배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1 - 1
금동조명노동조합	991122 김 선 진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1-2
남선선반노동조합	780719 조 성 덕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273 - 6
로케트전기노동조합	760213 남 규 현	광주시 북구 일곡동 758
부국산업노동조합	881101 김 동 인	전남 광양시 금호동 644
서울차체노동조합	671013 국 동 현	광주시 서구 내방동 643
서진산업노동조합	990728 문 성 동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35-1
아룡기공노동조합	870811 정 홍 원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81 - 1
천기제강노동조합	850617 이 은 정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291
태성기공노동조합	881224 김 상 곤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720
하남전자노동조합	850317 박 기 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5 - 1
한국신평전자노동조합	891126 유 영 수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35
한국알프스노동조합	890516 강 대 선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0 - 1
화천기공노동조합	770328 송 웅 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6 - 1
화천기어노동조합	990708 김 수 복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38-5

15) 전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6. 4. 10.
 ②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북동 3601-3
 ③ 전화 번호 : (0654) 465-4875 FAX : (0654) 465-4876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이 정 석	기아특수강	99. 3. 30.
부 의 장	양 남 용	동 양 기 업	99. 3. 30.
회계감사	유 창 석	대 봉 전 선	99. 3. 30.
회계감사	김 성 완	FAG한화베어링	99. 3. 30.
사무국장	정 한 수	희 성 전 선	99. 3. 30.
사무차장	윤 송 이	지 역 본 부	2000. 3. 2

⑤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기아특수강노동조합	660506	이 정 석	전북 군산시 소룡동 1 - 6
대봉전선노동조합	890305	유 창 석	전북 익산시 팔봉동 839 - 1
대우전자부품노동조합		이 중 찬	전북 정읍시 망제동 19번지
동양기업노동조합	880428	양 남 용	전북 군산시 경암동 486 - 7

16) 강원지역산하 단위노조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주 소
대우국민차춘천정비노동조합	930712	정 대 교	춘천시 근화동 786-1
속초지역노동조합	700126	신 중 찬	속초시 금호동 482-5 근로복지회관
쌍용동해산업기계노동조합	980702	김 영 옥	동해시 삼화동 200
이수세라믹노동조합	930714	정 규 문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2
한일전기노동조합	751021	윤 용 민	원주시 우산동 공업단지 10 브릭

2. 지부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오티스노동조합서울지부	870701	김 성 수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90 한중상호금고 5F
로움코리아노동조합 서울지부	780627	양 명 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 11
대한전선노동조합 시흥지부	760615	김 형 식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6
LG정보통신노동조합 서울지부	980123	강 성 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9
LG-NiKKO동계련노동조합장항지부		김 광 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5
동아건설노동조합 천안지부	740629	나 형 모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15 - 4
진로산업노동조합목천부장	910701	강 태 근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소사리 242-2
LG산전노동조합 천안지부	870727	차 순 복	충남 천안군 목천면 삼성리 181
동아건설노동조합기계사업소지부	880611	정 세 영	충남 아산시 실옥동 250
경신공업노동조합 아산지부	890713	강 홍 진	충남 아산군 음봉면 덕지리 463-5
칩팩코리아노동조합 청주지부	980701	윤 동 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7-21
LG전자노동조합 청주지부	630530	권 중 안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0
LG정보통신노동조합 청주지부	980701	최 원 달	충북 청주시 향정동 73
LG산전노동조합 청주지부	740319	김 영 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
현대반도체노동조합 청주지부	990528	김 준 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1번지
두산전자노동조합 증평지부	881015	고 형 옥	충북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산 661
삼화전기노동조합 .충주지부	960201	박 철	충북 충주시 목행동 240-4
동양철관노동조합 충주지부	910126	이 대 형	충북 충주시 용탄동 168
대우전자노동조합 인천지부	830328	김 만 용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04
LG오티스노동조합 인천지부	870725	안 효 균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5 - 1
풍산노동조합 부평지부	870725	고 상 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24-6
태평양금속노동조합부평지부	870817	신 춘 승	인천시 북구 갈산동 14-3
동부제강노동조합 인천지부	660429	백 승 탁	인천시 서구 가좌동 590 - 1
대림통상노동조합 인천지부	860901	김 정 남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9 - 2
대우전자노동조합 주안지부	830328	김 정 근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41 - 5
경신공업노동조합 인천지부	880810	전 재 한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38 - 3
대림통상노동조합 김포지부	870813	김 효 중	인천시 서구 금곡동 158 - 6
대우통신노동조합 소래지부	810302	강 인 호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60 - 3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대한전선노동조합 안산지부	870808	정 교 태	안산시 성곡동 603번지 20B
롯데알미늄노동조합 반월지부	760408	이 제 성	안산시 원시동 822
한영알미늄노동조합 안산지부	761024	김 윤 식	안산시 원시동 833 - 2
서구산업노동조합 안산지부	880324	김 삼 두	안산시 성곡동 605 - 9
대경화성노동조합제2공장지부	930331	김 성 기	안산시 성곡동 638
반도기계노동조합반월지부	890703	박 태 영	안산시 신길동 1058 - 7
대한전선노동조합 안양지부	760615	조 병 철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785
LG전선노동조합 안양지부	670512	송 석 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
LG전선노동조합 군포지부	870924	이 우 창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00
한일제관노동조합 수원지부	870817	신 재 경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12
일진노동조합 통신지부	870822	황 인 환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 2 리 산 7
LG전자노동조합 오산지부	710514	김 만 경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79
세진전자노동조합 오산지부	770123	유 재 열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57
LG전자노동조합 평택지부	630530	박 노 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산 19-1
정일공업노동조합 평택지부	870921	정 기 열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율포리 28 - 5
동아건설노동조합 미사리지부	740629	백 락 재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 - 5
세방전지노동조합 광주지부	891216	조 회 권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0 - 4
대우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	830402	최 정 열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1 - 1
한국번디노동조합 광주지부	960401	고 주 선	광주시 안창동 738-7(3단지)
한국노총 동광양지역지부		장 귀 성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6-6
포철로재정비부문노조광양지부	880723	황 부 성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2
삼정강업노동조합 광양지부	890805	서 은 석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5 - 1
희성전선노동조합 전주지부	890124	정 한 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 가 408
FAG한화베어링노동조합 전주지부	890320	김 성 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2
한국열교환기노동조합 정읍지부		정 병 택	정읍시 하북동 이공단 3블럭 825번지
풍산노동조합 동래지부	870725	박 이 결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1 동 52
동아건설노동조합구덕분회	941108	전 민 수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산 61
LG전자노동조합 김해지부	791009	김 권 하	경남 김해시 안동 259 - 1
LG전자노동조합 창원1지부	630505	정 한 식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 - 2
두레에어메탈노동조합 창원지부	880622	김 제 곤	경남 창원시 성주동 54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세아제강노동조합 창원지부	740311 윤 종 삼	경남 창원시 웅남동 50
서울차체노동조합 창원지부	671013 조 현 봉	경남 창원시 팔용동 20 - 3 브룩
LG전자노동조합 창원2지부	880122 김 영 준	경남 창원시 성산동 76
LG오티스노동조합 창원지부	870701 심 만 재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대한제당노동조합 울산지부	900213 조 근 형	울산시 남구 용잠동 480
명화공업노동조합 울산지부	991115 손 상 곤	울산시 남구 부곡동 273
진도노동조합 언양지부	870919 손 영 호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길천리 1 - 26
진도노동조합 울산지부	850131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길천리 1 - 26
대일공업노동조합 언양지부	850605 김 용 환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양등리 216
풍산노동조합 온산지부	870725 이 상 협	울산군 온산면 대정리 611
대우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	830328 장 해 도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
LG전자노동조합 구미1지부	630505 김 인 배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4
LG전선노동조합 구미지부	670512 서 정 규	구미시 공단동 190
LG정밀노동조합 구미지부	870817 원 종 도	구미시 공단동 133
LG전자노동조합 구미2지부	920124 이 화 철	경북 구미시 진평동 642
화신노동조합봉동지부	880504 이 석 기	경북 영천시 봉동 646
경신공업노동조합 경주지부	931104 황 상 현	경북 경주시 황성동 42
풍산노동조합 안강지부	870725 이 찬 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22-2
경신공업노동조합 강동지부	871001 송 경 하	경북 경주군 강동면 오금리 산 11
동국제강노동조합 포항지부	870901 김 정 영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67
동부제강노동조합 포항지부	880720 한 규 호	경북 포항시 괴동동 792 - 1
한국주철관노동조합 포항지부	890117 손 병 만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 - 138

3. 신규조직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설립일자	소 재 지	주 생산품
신원공업	이호혁	99.4.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023-2	밸브
동국엔지니어링	장창선	99.4.9	성거읍 천흥리 천흥공단 3-2	기계제작
효림산업	김선호	99.4.3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11	자동차부품
서봉산업	박종윤	99.4.28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50-8	자동차부품
대양강관	장범석	99.5.21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224-1	스텐파이프
화신공업	이정우	99.6.28	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250	문구제품
한국코트렐	윤정환	99.6.8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1	집진기
화천기어	김수복	99.7.8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38-5	기어
동양기전	정호창	99.9.15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16-4	자동차부품
사이스이천열병합	노태현	99.9.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1-1	발전기
구암	송주현	99.10.6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624	의료기기
현대텔레텍	전종원	99.10.27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이동전화설비
LG오티스엘리베이터	최경호	99.11.19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1	엘리베이터
금동조명	김선진	99.12.2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1-2	조명기기
다우정밀	이형일	99.12.3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95-1	전자부품
한국트랜스	안춘희	99.10.5	충주시 금능동 187-8	트랜스
동광전자	이수원	99.12.27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6	전기전자
삼한콘트롤스	김태식	99.12.30	시흥시 정왕동 1268-7	
신성산업	김윤길	2000.1.17	경북 영천시 당곡동 50-2	자동차부품
캐리어-LG	김영래	99.12.10	오산시 오산동 736	자판기
삼화실업	남종현	2000.2.10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	캔제조
부원산업	박익화	2000.2.19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737-6	
경신전선	강홍진	2000.3.6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463-5	전선

4.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대표자)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서울지역				
샤프전자	박 봉 근	이 승 영	99.	정기대회
롯데알미늄	서 학 수	이 국 만	99.12.24	총회
한국TDK	도 대 곤	주 영 관	00.2.17	"
로움코리아	최 회 섭	양 명 연	99.6.10	"
경기지역				
동화계량기	이 선 용	박 귀 배	99.	정기총회
삼화제관	유 규 상	박 인 환		"
동아정기	김 상 용	조 동 진	99. 8. 28	"
한국버그전자	김 연 호	한 광 수	2000.1.4	"
동신중공업	박 용 일	이 규 산	99. 6	"
한국번디	양 봉 광	주 진 선	99. 7. 19	"
경동산업	조 병 삼	박 영 규		"
해태전자	김 만 근	한 길 수	99. 8	"
한신정공	김 금 수	조 병 균	2000.3.25	"
이화다이아몬드	최 진 용	서 성 원	2000.1.21	
인천지역				
대립통상	이 영 득	이 은 물	99.8.31	정기대회
대우전자/인천	김 만 용	전 용 구	99.4.20	"
미주제강	손 창 두	김 영 수	99.8.1	"
로알동도	이 원 식	한 종 윤	99.8.17	"
우일정밀	정 평 원	홍 현 주	99. 7	"
한국샤프	현 용 섭	박 재 혁	2000.1	"
희성금속	유 태 경	허 규 선	99.7	"
루 보	이 원 근	문 봉 인	99.12	"
대전지역				
세아중기	김 순 환	윤 인 수	2000.1.7	임시총회
신동방의료양행	이 상 인	박 회 구	2000.2.18	"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충남지역				
진로산업	방 용 식	강 용 석	99. 8. 1	정기대회
환영철강	최 대 식	홍 성 태	2000. 4. 4	"
대기시트	홍 광 기	김 갑 성	99. 11.16	임시총회
동원정공	전 재 용	이 종 선	2000.3.16	정기대회
동원금속	김 영 호	권 서 용	2000.1.1	"
충북지역				
국제종합기계	김 선 종	조 준 기	99.10.11	정기대회
극동전선	정 석 채	안 승 필	99.8.23	정기총회
부산지역				
성광밴드	조 용 석	김 동 한	99.11.27	정기총회
태광밴드	신 병 탁	양 재 권	2000.1.1	"
태양사	김 근 박	이 형 연	99.10.1	"
동아금속	정 현 규	장 진 용	99.7.2	"
한국선재	강 대 후	최 승 진	2000.4.1	"
부산선박목의장	김 용 주	강 종 철	2000.1.1	"
경남지역				
세 신	이 진 회	이 유 정	99.8.17	정기총회
태양코팅	석 민 호	곽 행 자	99.8.28	"
세원중공업	최 강 근	허 영 환	99.9.20	임시총회
대동정비 철	백 운 효	권 오 경	99.9.4	"
태주실업	박 성 호	임 종 호	99.10.23	"
한국 G.M.B	윤 종 오	김 은 점	99.10.29	정기총회
대명공업	유 준 규	이 신 호	99.11.9	"
울산지역				
금강공업	김 종 수	박 재 남	99.7.10	
대일공업	허 문 근	오 세 영	2000.3.10	
덕양산업	김 금 식	김 우 배	99.10.27	
대한제당/울산	조 근 형	최 병 우	99.8.24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대구.경북지역				
대동금속	이 강 진	김 형 호	2000.3.1	정기총회
삼협산업	박 하 성	박 성 조	99.8.26	"
서구산업	박 진 수	이 인 철	99.8.10	"
아세아산업	권 영 동	문 성 원	99.7.3	"
영남주물	백 운 학	박 민 식	99.9.1	"
화신테크	이 회 찬	손 민 호	99.11.1	"
세왕금속	정 용 목	이 동 구	99.9.1	"
신영금속	이 수 연	손 순 석	99.10.1	"
영신정공	장 복 이	황 현 원	99.	임시총회
포항지역				
한 금	이 경 룰	오 정 희	99.10.19	임시총회
포철로재정비	송 만 현	신 갑 식	99.12.3	"
삼정강업	정 연 택	이 근 수	99.12.14	"
구미지역				
LG마이크론	김 동 의	노 승 표	99.	정기총회
LG실트론	조 성 윤	이 시 우	99.	임시총회
광주.전남지역				
서울차체	국 동 현	김 형 곤		정기총회
아룡기공	정 홍 원	김 경 범		"
LG정밀	최 병 배	김 응 표		"
세방전지/광주	기 원 서	조 회 권		"
포철로재/광양	황 부 성	천 용 택		"
안산.시흥지역				
대덕전자	이 선 오	박 광 원	99.12.1	정기총회
대한전선	정 교 태	이 향 래	2000.2.15	"
삼기기공	박 완 식	장 인 권	99.10.13	"
서구산업	김 삼 두	오 세 광	99.8.14	"
신한전선	김 순 영	민 한 기	99.9.3	"
위 스 코	이 홍 복	유 대 종	99.10.26	"
신명전기	공 민 식	이 명 재	2000.3.17	"
일 진	한 명 송	최 진 하	99.9.17	"
신아전기	최 원 학	신 은 철	99.	"
진영공업	김 중 환	김 종 성	2000.3.25	"

5. 해산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해산일자	조합원수	해산사유
서울지역				
신한전기	범 상 철	99.	14	폐업
제일정공	선 기 노	99.	60	"
현대통신산업	강 성 구	99.12	15	기능마비
경기지역				
철도콘테이너	임 승 재	99.10	60	소사장제
기경실업	이 금 호	200.2.18	95	해산
남 북	신 달 훈		40	기능마비
인천지역				
삼흥차량공업	이 학 만	2000.3.1	45	부도
부산지역				
연합조선공	이 창 만	99.	99	해 산
대명공업	송 중 환	99.	25	해 산
선일철강	손 영 재	99.	44	기능마비
경남지역				
대신공업	윤 영 진	99.9.1	50	부도
동진전기	정 영 현	99.8.30	60	이전
대구경북지역				
신삼익	진 판 근	99.3.30	35	기능마비
광주.전남지역				
부국철강	박 석 모	99.4.9	40	회사폐업
안산.시흥지역				
태일정밀	송 기 선	99.	60	회사이전

5-1. 이탈조직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탈퇴일자	이 탈 사 유	조합원수
마이크로세라믹	권 춘 례	99. 4.	규약변경(민노총)-총회	40
롯데전자	김 동 욱	99. 9.	규약변경 - 총회	110
대한알루미늄	김 명 하	99.12.20	규약변경(민노총)-총회	400

5-2. 조직변경 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소 재 지	조합원수	비고
대우전자서비스	오태곤	송파구 잠실본동184	500	민노총에서
한국산본	이행철	마산시 봉암동 654-3	115	외기노련에서
범아엔지니어링	강호광	포항시 남구 동촌동 5	16	
서진산업	문성동	광산구 안천동 735-1	50	
동양강철	오기순	대덕구 대화동 275-2	260	민노총에서
대우전자부품	이중찬	전북 정읍시 망재동 19	200	"
우일정밀	정평원	인천시 남구 도화동 694-1	50	"

6. 년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1999. 12월말 현재)

년도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조직체수		895	817	700	641	603	541	524	509	512
조합원수	남	234,523	197,120	177,038	213,808	143,488	123,628	101,181	93,161	88,638
	여	78,027	64,958	55,436	59,463	52,124	45,875	37,677	31,391	28,555
	계	312,550	262,078	232,474	273,474	195,612	169,628	138,858	124,552	117,193
조합원증감		-76,510	-50,472	-29,604	+40,797	-77,659	-25,984	-30,770	-14,306	-7,359
조직체증감		-400	-78	-117	-59	-38	-62	-17	-15	4

7. 지역별 월별 조합원 현황

지역	월별	99. 4												2000.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서울	남	23613	23613	23613	21974	21766	21752	21752	21752	21752	22027	23770	23770	23770	22583	17609
	여	8050	8050	8050	7369	7074	7074	7074	7074	7074	7024	7024	7024	7024	6340	5151
경기	남	18255	18255	18255	15240	15240	15240	15240	15240	15216	15276	15222	15492	15544	15756	13429
	여	8324	8324	8324	7786	7786	7786	7786	7786	7780	7780	7774	7774	7816	7824	8110
안산	남	4267	4267	4267	3055	4096	4096	4096	4096	4096	4096	4096	4096	4616	4666	4187
	여	1266	1266	1266	1026	966	966	966	966	966	966	966	1030	1066	1066	976
인천	남	2621	2621	2621	3055	3120	3663	3663	3663	3831	4009	4009	4347	4347	4347	4349
	여	1401	1401	1401	1026	1026	1030	1030	1030	1030	1030	1030	976	976	976	997
대전	남	351	351	351	280	655	655	655	655	655	881	881	881	881	881	871
	여	135	135	135	135	430	430	430	430	430	455	455	455	455	455	418
충남	남	2600	2600	2600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2513	2513	2513	2513	2513	2543
	여	585	585	585	569	569	569	569	569	569	582	582	582	582	582	582
충북	남	1734	1734	1734	1483	1483	1483	1483	1483	1483	1483	1563	1656	1656	2763	2669
	여	1345	1345	1345	856	856	856	856	856	856	856	856	1078	1078	1757	1441
부산	남	6942	6942	6942	6075	6038	5327	5327	5327	5346	5346	5309	5309	5269	5244	4915
	여	666	666	666	596	596	592	592	592	592	592	592	592	552	552	508
경남	남	6370	6370	6370	5522	5522	5522	5522	5522	5526	5531	5516	5516	5516	5516	5225
	여	2059	2059	2059	1924	1924	1924	1924	1924	1940	1940	1925	1925	1925	1925	1865
울산	남	7177	7177	7177	5867	5867	5867	5867	5867	5920	5920	5920	5550	4943	4943	4032
	여	396	396	396	366	366	366	366	366	366	366	366	336	300	300	287
대구	남	6869	6869	6869	6085	6085	6085	6085	6085	6085	6085	6446	6446	6646	6663	6710
	여	2456	2456	2456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2421	2421	3102	3102	2441
경북	남	3662	3662	3662	3257	7257	7257	7257	7257	7257	7257	7094	7094	7094	5974	5963
	여	2080	2080	2080	1881	1881	1881	1881	1881	1881	1881	1794	1794	1794	2213	2213
포항	남	2992	2992	2992	2825	3009	3009	3009	3009	2841	2841	2841	2841	2841	2841	2588
	여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전남	남	1538	1538	1538	1268	1268	1288	1288	1288	1308	1308	1535	1775	1775	1775	1775
	여	2374	2374	2374	2174	2174	2174	2174	2174	2174	2174	2261	2261	2261	2261	2261
광주	남	1576	1576	1576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353
	여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전북	남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여	239	239	239	239	239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강원	남	90853	90853	90853	79941	85361	85199	85199	85199	85271	86012	88154	88638	88850	87904	78504
	여	31451	31451	31451	27715	27655	27655	27655	27655	27665	27653	28353	28555	28569	28991	27557
계	계	122304	122304	122304	107656	113016	112854	112854	112936	112936	113665	116508	117193	117419	116895	106061

8. 기타활동

- 1) 한국노총 제 9차 중앙위원회
 - 일 시 : 1999 년 4 월 9 일(14:00)
 - 장 소 : 노총 8층강당
 - 안 건 : - 노사정위원회에 관한사항
 - 규정개정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2) 노동자 말살조직 경총해체 촉구대회
 - 일 시 : 1999 년 4 월 8 일 (14:00)
 - 장 소 : 경총회관 앞
 - 참석자 노총. 산별간부 200여명
- 3) 산별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9 년 4 월 13 일(11:00)
 -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 99년도 5.1 노동절에 관한사항
 - 현안문제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4) 철강구조조정관련 철강노동조합 대표자회의
 - 일 시 : 1999 년 4 월 13 일(13:00)
 -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 안 건 : - 철강산업 구조조정 관련사항
 - 기타토의
- 5) 경총해체 촉구 및 항의집회
 - 일 시 : 1999 년 4 월 21 일 (14:00)
 - 장 소 : 경총회관 앞
 - 참석자 노총. 산별. 경인지역간부 500여명
- 6) 산별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9 년 4 월 21 일(11:00)
 -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 99년도 노동절 준비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7) 정치개혁 촉구 범국민대회
 - 일 시 : 1999 년 5 월 7 일 (12:00)
 - 장 소 : 국회 앞

- 8) 불법지침철폐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
 - 일 시 : 1999 년 5 월 9 일 (14:00)
 - 장 소 : 서울역앞
- 9) 한국교원노동조합 창립 및 보고대회
 - 일 시 : 1999 년 5 월 16일 (14:00)
 - 장 소 : 노총 8 층 강당
 - 참 석 : 500 여명
- 10) 체신노조 인력감축 철회 및 생존권사수 쟁취대회
 - 일 시 : 1999 년 5 월 30일 (14:00)
 - 장 소 : 여의도 문화마당
- 11) '99 임단투승리 및 6대 정책관철을 위한 노동자결의대회
 - 일 시 : 1999 년 6 월 3 일 (11:00)
 - 장 소 : 국민회의 당사 앞
- 12) 1999년도 한국노총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
 - 일 시 : 1999 년 6 월 11 일 (14:00)
 - 장 소 : 노총 8 층 강당
 - 내 용 : - 총파업 투쟁에 관한 건
- 사회보험개혁 투쟁에 관한 건
- 기타토의사항
- 13) 일방적 구조조정 규탄노동자 대회
 - 일 시 : 1999 년 6 월 7 일 (14:00)
 -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앞
- 14) 산별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9 년 6 월 9 일 (14:00)
 - 장 소 : 노총 6 층 회의실
 - 안 건 : - '99 임단투 승리 및 6대정책 관철을 위한 총파업투쟁
실천대회에 관한사항
- 임시전국대의원 대회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15) '99년 임단투승리 및 6대정책 관철을 위한 총파업투쟁 실천대회
 - 일 시 : 1999 년 6 월 16 일 (13:00)
 - 장 소 : 서울역광장
- 16) 조직담당자 세미나 참석
 - 일 시 : 1999 년 7 월 15 - 7. 16
 - 장 소 : 노총중앙 교육원
 - 내 용 : - 조직력 강화 특강 - 윤진호 교수

- 조직사업 사례소개
- 분임토의(신규조직, 산별노조 건설등)
- 17) 노동탄압 구조조정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노동자 대회
 - 일 시 : 1999 년 6 월 14 (14:00)
 - 장 소 : 국회앞(한나라당)
- 18) 파업공작 규탄 및 일방적 구조조정 무효선언 노동자 대회
 - 일 시 : 1999 년 6 월 22 (14:00)
 - 장 소 : 국회앞(장기신용은행)
- 19) 전국노조 대표자대회
 - 일 시 : 1999 년 6 월 24 (14:00)
 - 장 소 : KBS 88체육관
- 20) 전력산업 구조개편 분쇄 전력인 결의대회
 - 일 시 : 1999 년 7 월 1 (13:30)
 - 장 소 : 서울역
- 21)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 촉구대회
 - 일 시 : 1999 년 8 월 7 (13:30)
 - 장 소 : 여의도 국민회의 앞
- 22) 파행국회 규탄 및 국민연금.의료보험 개혁촉구대회
 - 일 시 : 1999 년 7 월 23 (15:00)
 - 장 소 : 국회앞
- 23) 산별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9 년 8 월 10 (11:00)
 - 장 소 : 노총 6 층 회의실
 - 안 건 : - 거래 손잡기 대회 참가 인원동원 및 행사준비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24) '99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거래 손잡기 대회
 - 일 시 : 1999 년 8 월 15 (14:30)
 - 장 소 : 삼송초등학교
- 25) 인천지역본부 대표자 간담회
 - 일 시 : 1999 년 8 월 16 (16:30)
 - 장 소 : 인천지역본부 강당
 - 참석인원 : 28 명
- 26) 경기지역본부 대표자 간담회
 - 일 시 : 1999 년 9 월 13 (15:00)
 - 장 소 : 경기본부 회의실

- 27) 대우그룹 계열사 워크아웃사업장 대표자 회의
- 일 시 : 1999 년 9 월 14 (11:00)
 -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 안 건 : - 구조조정 관련사항 및 대책수립
 - 기타토의
- 28) 대우그룹 계열사 워크아웃사업장 2차 대책회의
- 일 시 : 1999 년 9 월 29 (13:00)
 - 장 소 : 노총 6 층 회의실
 - 안 건 : - 대우그룹계열사 노조들의 향후 대응방향 및 방안모색
 - 연맹 및 노총의 지원대응 방향 및 방안모색
 - 기타사항
- 29) 아파트연맹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 일 시 : 1999 년 9 월 9 (14:00)
 - 장 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 30) 산별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9 년 9 월 16 (14:00)
 - 장 소 : 노총 6층회의실
 - 안 건 : - 하반기 조직사업에 관한 건
 - 기타토의사항
- 31) 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거부 5백만 함성전달식
- 일 시 : 1999 년 9 월 27 (14:00)
 - 장 소 : 한나라당사 앞
- 32) 동아건설 소사장제 및 연봉계약직 철폐 투쟁지원 및 노동부 고발
- 33) 선일철강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김태원회장 구속촉구 결의대회 지원 및 고발
- 34) 창원특수강 부당노동행위 대책수립 및 고발행위(국감, 노동부)
- 35) 조직담당자 세미나
- 일 시 : 1999 년 10.5 - 10. 6(1박 2일)
 - 장 소 : 여주 중앙교육원
 - 주 제 : - 신규조직사업 경험 및 계획공유
 - 하반기 조직사업방향 집중토론
- 36) 전력산업 구조개악 범국민 규탄대회
- 일 시 : 1999 년 10 월 3일 (13:30)
 - 장 소 : 서울역앞 광장
- 37) 의료보험, 국민연금 개혁 촉구대회
- 일 시 : 1999 년 10 월 13일 (14:00)
 - 장 소 :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

- 38) 전력산업 분할매각 규탄대회
 ○ 일 시 : 1999 년 11 월 1일 (14:00)
 ○ 장 소 : 국회 앞 (장은은행 건물 앞)
- 39)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9 년 11월 1일 (15:00)
 ○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 '노동악법 철폐, 노동시간단축 및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40) 노동악법철폐, 노동시간단축 및 구조조정저지 전국노동자대회
 ○ 일 시 : 1999 년 11 월 21일 (13:00)
 ○ 장 소 : 보라매공원
- 41) 노총임시대의원대회
 ○ 일 시 : 1999 년 12월 10일 (14:00)
 ○ 장 소 : 노총 8층 대강당
 ○ 안 건 : - 6. 25 노정합의관철 및 생존권 사수 투쟁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42) 노동자, 서민배신자 김대중 정권 규탄 노동자대회
 ○ 일 시 : - 1 차 : 1999 년 12 월 7일 (14:00)
 - 2 차 : 1999 년 12 월 9일 (14:00)
 ○ 장 소 :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 43) 노정합의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총파업투쟁 실천대회
 ○ 일 시 : 1999 년 12 월 17일 (13:30)
 ○ 장 소 : 여의도 문화마당
- 44)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9 년 12월 20일 (11:00)
 ○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 12월 23일 집회에 관한 사항
 - 기타토의사항
- 45) 5대요구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2차총파업 투쟁 실천대회
 ○ 일 시 : 1999 년 12 월 23일 (13:30)
 ○ 장 소 : 서울역광장
- 46) 5대요구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노동자대회
 ○ 일 시 : 1999 년 12 월 28일 (08:30)
 ○ 장 소 : 정부세종로 청사 후문
- 47) 통일염원 노조간부 전적지 견학

- 일 시 : 2000 년 1 월 12일 - 1월 13일
- 장 소 : 임진간 → 제3땅굴 → 판문점 → 강화전적지

48) 제10차 중앙위원회

- 일 시 : 2000 년 1월 17일 (14:00)
- 장 소 : 노충 8층 대강당
- 안 건 : - 3단계 투쟁에 관한 사항
 - 임금과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총선투쟁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49)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0 년 1월 25일 (14:00)
- 장 소 : 노충 6층 회의실
- 안 건 : - 2000년 대의원대회 준비에 관한 건
 - 대법원 판례에 관한 건
 - 기타토의 사항

50) 2000년 전국대의원대회 각 분과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0 년 1월 31일 (14:00)
- 장 소 : 한국노총
- 안 건 : - 규약 및 자격심사 위원회
 - 의안심사 및 의사운영위원회
 - 재정위원회
 - 조직 및 노사대책 위원회
 - 대외협력 및 연대사업 위원회

51)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2000 년 2월 24일 (15:00)
- 장 소 : 노충 6층 회의실
- 안 건 : - 철도노조 관련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토의 사항

52) 한국노총 2000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 일 시 : 2000 년 2월 1일 (10:00)
- 장 소 : 영등포 구민회관 대강당
- 안 건 : - 1999년도 사업, 결산보고
 - 중앙위원 선출
 - 2000년도 사업계획, 예산 심의
 - 규약개정 심의

- 노총위원장 표창 : 대우통신 위원장 김영국
- 53)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 사수 2단계 총파업투쟁 모범조합 표창
 - 일 시 : 2000 년 1월 7일 (11:30)
 -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모범조직 : 기아특수강, 신한주철, 경원산업노동조합
- 54) 1999년도 5.1 노동절 기념대회
 - 일 시 : 1999 년 5월 1일 (11:00)
 - 장 소 : 88 새마을 체육관
 - 모범조합원표창
 - 노총위원장상 : 칩팩코리아 위원장 허원
 - 정부포상 : 본노련 김순호부위원장(철탑산업훈장)
 - 본노련 김정완 조직국장(노동부장관)

55) 2000년도 노총 중앙위원 선출

- 일 시 : 2000 년 2월 1일
- 위 원 : 당연직 3명 선출직 8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금속노련	위원장	유 재 섭	당 연 직
노총인천지역본부	의 장	황 창 배	
노총대구지역본부	의 장	김 경 조	
금속노련	사무처장	이 병 균	선 출 직
LG전자	위원장	장 석 춘	
현대전자	"	김 만 재	
동부제강	"	강 창 영	
한국중천	"	최 해 경	
경기도본부	의 장	하 영 일	
부산지역본부	"	강 진 호	
대구, 경북본부	"	김 무 호	

집회신고 절차와 집회 불허시 대응지침

1. 집회, 시위란?

옥외 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을 보이는 행위를 말한다(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 행사를 위한 집회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주요 도로에서의 금지나 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13조).

2. 집회의 보호

1)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군인, 검사, 경찰관이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집시법 제3조).

2) 시위방법의 종류(시행령 2조) : 차량·확성기·입간판·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이용 가능(2호), 구호제창 가능(3호), 차도·보도·교차로의통행 모두 가능(6호),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 가능(7호)

3) 경찰관의 출입 : 옥외집회의 경우는 주최자에게 통보한 후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옥내집회는 위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7조).

3. 집회, 시위의 금지 사유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5조).

2) 일몰 후, 일출전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질서유지인을 미리두고 신고하면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의 조건을붙여 허용할 수 있다(10조).

3)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외국공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외국인 사절숙소 근처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금지된다.

4)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시간,장소가 경합되고 집회목적이 상반되어 방해되는 경우

6)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시위 :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12조 1항). 그러나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주요도로라 하여 집회,시위를 금할 수 없다(12조 2항).

4. 집회신고

1) 신고서 기재사항(제6조 1항)

- ① 목적
- ② 일시(소요시간)
- ③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
- ④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 ⑤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 ⑥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 포함)

2) 신고기한 : 48시간 이전

3) 신고기관 : 관할 경찰서, 2개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행진을 할 경우)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4) 접수증의 교부 :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6조2항).

※ 신고서에 기재 안 된 단체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가예정 단체는 모두 기록해야 한다

5) 집회신고의 처리

① 신고서의 보완 : 경찰은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교부한 지8시간 내에 12시간의 시간을 주어 보완하도록 한다(제7조 1항).

② 금지통고 : 법에 정한 금지사유에 해당될 때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금지통고는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8조 3항).

[작성례]

<집회 신고서>

제 호 옥외 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집회명칭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 대회		
개최목적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조정		
개최일시	2000.5.30		
개최장소	고수부지		
주최자	주 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전화번호(782-3884)	
	성 명(단체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관자	주 소	상동	
	성 명(단체명)	상동	
주 대 최 표 단 자 체	주 소	서울 ○○ ○○동 ○번지 전화번호()	
	성 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주민등록번호
			직업
			노동운동가
연책 임 락자	주소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성 명	한국노총노사대책국장 ○○○	주민등록번호
			직업
			노동운동가
질서유지인	○○○외 60명 (명단:별첨)		

연 사	주 소			
	성 명		연 령	
			직 업	
	연 제			
참가예정 단체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 지역본부		
참가예정 인원		1,000명		
시위(행진)방법		인도를 따라 4열종대로 행진		
시위(행진)진로		집회장소-영등포교-신한국당사 앞→종로		
참고 사항				
2000년 5월 30일 신고인 ○○○○ (인) 영등포경찰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작성례]

<집회신고서 첨부서류 : 집회계획서>

집회내용

1. 진행순서

12 : 00 식전행사(노래, 율동)
12 : 40 개회선언
12 : 50 국민의례
13 : 00 대회사
13 : 20 투쟁경과보고
14 : 00 규탄사
14 : 50 행진
15 : 30 국회도착
15 : 40 규탄대회
16 : 50 투쟁결의문 낭독
17 : 00 폐회 및 해산

2. 준비물

1) 플래카드 2개

- ① 규격 : 1m x 10m 내용 : 생존권사수노동자대회
- ② 규격 : 1m x 10m 내용 : 일방적구조조정 반대

2) 피켓 100개 : 규격 : 30cm x 50 cm 내용 : 생존권사수등100개

3) 머리띠 1,000개 일방적구조조정철회 생존권사수

4) 확성기, 연단, 앰프, 방송차

5) 풍물, 노조깃발 100개, 만장 50개

- * 신고서에 기재 안 된 준비물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상 가능한 준비물은 모두 기록한다.
- *. 집회시간은 반려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일몰시간 전에 끝나도록 해야 한다.

[작성례]

<집회신고서 첨부서류 : 각서>

각 서

2000.5.30, 14:00~18:00 4시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집회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불법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하여 불상사가 발생할 시는 어떠한 법의 감수하겠습니다.

-- 아 래 --

- 가. 행사는 신고된 장소 내에서 평화적으로 하고 과격 또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 다. 위험한 물건(화염병·돌·각목 등)은 소지, 반입하지 않겠으며 만약 소지, 반입자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회수, 신고하겠습니다.
- 라. 국회 등 시위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불법시위나 차도점거 등 불법행위는 않겠으며,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법을 준수하고, 신고된 시간이 끝나면 즉각 해산하겠습니다.

2000. 5 . 30

각서인 : ○○○ (인)

영등포경찰서장 귀하

*. 관할경찰서에 따라서는 각서에 추가내용을 첨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작성례] <집회신고서 첨부서류 : 질서유지인 명단>

질 서 유 지 인				
				총 명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1				
2				
3				

*.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질서유지인이 다수일 때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작성례] <집회신고서 첨부서류 : 위임장>

위 임 장 위임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성 명 : 위원장 주민등록번호 : 수임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성 명 : ○○○(한국노총 ○○국장) 주민등록번호 : 위 위임자는 2000.5.30(일) 14:00 - 18:00(4시간)에 한국노총 주최로 개최하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 대회> 집회 신고를 상 기 ○○○에게 위임합니다. 2000.5.25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000(인)

*. 대부분 위임장은 필요없으나 일부경찰서에서는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5. 집회불허에 대한 대응지침

① 이의신청

-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 자치단체장(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9조 1항). 이의신청을 받은 광역 자치단체장은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경찰관서의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는다(9조 2항).

- 금지통고로 인해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 24시간 전에 신고하여 집회를 할 수 있다(9조 3항).

②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할 때는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9조 3항, 4항).

[작성례]

<집회신고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782-3884)
위원장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신청내용 : 집회 및 시위의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함.

신청사유

1) 신청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으로서 200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대회 집회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은 2000년 5월 27일자로 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2) (중략)

3)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명백히 잘못된 법해석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바, 피신청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대회 집회신고서 사본 1통
옥외집회 금지통보서 사본 1통. 끝.

2000. 5.27

신청인 : 0 0 0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전문개정 1989.03.29 법률 제4095호
2. 개정 1991.05.31 법률 제4369호
3. 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 1)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2)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3)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1)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 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1)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 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경우에는주최지를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1.5.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제7조 【신고서의 보완등】**

1)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이내에 주최자에게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1)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 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 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 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 게 통고할 수 있다.

2)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 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집회 또는 시위 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3)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신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 사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 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 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그 효력을 잃는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 력을 잃 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 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4)제2항의 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는 당해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3월이내 에 재 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 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 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 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1)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또는 시위에 대 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2)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 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1)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2)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 게 하 기 위하여 18세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4)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는 행위

5) 옥내 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등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등】**

1)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 참가자등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1)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1)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 집회 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1)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제19조 【벌칙】**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그 정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0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제22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 활동

○ 평가와 개선방향

1. 국제회의 파견

2. 해외노조 간부 초청·방문 및 기타인사 방문

3. 제4회 IMF 동아시아 지역회의 개최

IMF 산업안전보건 국제세미나 개최

평가 및 개선방향

세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매우 광폭해 지고 있는 실정이며 전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에 상응하여 노동 역시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자리매김하길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노동유연화의 정교함과 속도에 비해 아직은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함은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99년의 시애틀 WTO 회담 반대투쟁 및 올 초의 다보스 포럼에 대한 반대투쟁에서 보여주었던 전 세계 NGO,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 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은 광폭한 자본의 흐름을 제어할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99년 올 한해동안 12개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였으며, 8차례에 걸쳐 약 100여명의 해외노조간부 및 중요인사의 행사 참여 및 방문이 있었다.

아직 우리 연맹의 국제연대활동은 정보교류 및 친선 등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제급속노조연합에서 주목하는 흐름들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종·성·국경을 초월하는 연대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국제노동형제간의 단결을 향하여 매진할 것이다.

1. 국제회의 파견

1) 중국노총 주관 세미나

- (1) 일시 : 1999. 5.17 - 5.22
- (2) 장소 : 중국 북경
- (3) 참석자 : 본노련 노사대책본부장 김홍룡
- (4) 활동사항 : "외국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세미나 참석

2) ICFTU 세계여성대회

- (1) 일시 : 1999. 5.17 - 5.24
- (2) 장소 : 브라질
- (3) 참석자 : 본노련 부위원장 문광주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3) IMF 조선회의

- (1) 일시 : 1999. 5.17 - 5.19
- (2) 장소 : 일본
- (3) 참석자 : 본노련 기획부장 최종은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4) 제87차 ILO 총회

- (1) 일시 : 1999. 6.6 - 6.16
- (2) 장소 : 스위스 제네바
- (3) 참석자 : 본노련 홍보부장 박현미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5) IMF 중앙위원회

- (1) 일시 : 1999. 6.23 - 6.24
- (2) 장소 : 헬싱키 핀란드 마리나 대회센터
-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유재섭
본노련 기획부장 최중은
- (4) 활동사항 : IMF 중앙위원회참석
영국전기전자노동조합연맹(AEEU) 방문 및 최근 현안 논의

6) IMF-JC 대회

- (1) 일시 : 1999. 8.31 - 9.2
- (2) 장소 : 일본
-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유재섭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7) 제 19회 독일 금속노조 대회

- (1) 일시 : 1999. 10.3 - 10. 9
- (2) 장소 : 독일 함부르크 CCH 대회당
- (3) 참석자 : 본노련 부위원장 김순호
- (4) 활동사항 : 대회 및 관련 세미나 참석
자동차공장 견학, 국제사면위원회 자선음악회 참석

8) 제 27회 IMF-ROCC 대회

- (1) 일시 : 1999. 11.5
- (2) 장소 : 마츠시타 전자회사
- (3) 참석자 : 본노련 사무처장 이병균, 강창영, 이정석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대회축사

9) 제9회 한일금속교류회의

- (1) 일시 : 1999. 12.13
- (2) 장소 : 일본
- (3) 참석자 : 본노련 지도위원 최웅길
본노련 사무처장 이병균
본노련 기획부장 최종은
대구경북본부 의장 김무호
안산시흥본부 의장 이병욱
LG전선 노조위원장 도정복
- (4) 활동사항 : 회의참석
한국의 정치, 경제, 노동환경에 관한 발표 및 토론

10) 제2회 한일철강회의

- (1) 일시 : 1999. 12.14
- (2) 장소 : 일본 교토
- (3) 참석자 : 본노련 지도위원 최웅길
본노련 기획부장 최종은
동국제강노조 위원장 김재업
한국 주철관노조 위원장 차윤환
한보부산제강소 노조 위원장 최창대
환영철강 노조위원장 홍성태
- (4) 활동사항 : 회의참석
현장방문

11) ICFTU 대회

- (1) 일시 : 2000. 4.3 - 4.7
- (2) 장소 :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유재섭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12) IMF 동아시아 지역회의

- (1) 일시 : 2000. 4.6 - 4.7
- (2) 장소 : 일본 고베
- (3) 참석자 : 본노련 부위원장 김만재
본노련 안산·시흥지역본부의장 이병욱
- (4) 활동사항 : 회의참석

2. 해외 노조간부 초청·방문 및 기타인사 방문

1) 싱가포르노총 대표단 방문

- (1) 일시 : 1999. 4.14
- (2) 방문자 : 싱가포르노총 본부 중앙위원 성한통 외 27명
- (3) 활동 : LG전자 평택공장 노조 방문 및 현장견학

2) 일본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노동조합 연수단 방문

- (1) 일시 : 1999. 5.24
- (2) 방문자 : 무라우치 미쓰지 노조집행위원장 외 9명
- (3) 활동 : 강남조선 노동조합 및 공장 방문

3) 중화전국총공회 대표단 방문

- (1) 일시 : 1999. 8.26 - 9.2
- (2) 방문자 : 쉬 시청 부주석 외 6명
- (3) 활동 : LG 전자 평택공장 및 노동조합 방문

4) 일본 야마구치 노동조합 한국연수단 방문

- (1) 일시 : 1999. 9.17
- (2) 방문자 : 노부유키 이시다 산텐운수노조 위원장 외 26명
- (3) 활동 : LG 전자 창원 2공장 및 노동조합 방문

5) ILO 후원 중국 노사관계 시찰단 방문

- (1) 일시 : 1999. 11.6 - 11.10
- (2) 방문자 : 주 신후아 시쥬안 지역 노총 부위원장 외 7명
- (3) 활동 : LG전자 평택공장

6) 금속노련 교육참가

- (1) 일시 : 1999. 11.24 - 11.26
- (2) 장소 : 롯데 연수원
- (3) 초청자 : IMF 동아시아 사무소소장 하타
- (4) 활동 : IMF 활동소개와 국제연대에 관한 강연

7) IMF 사무총장 방문

- (1) 일시 : 2000. 1.21
- (2) 방문자 : IMF 사무총장 마르셀로 말렌타키
- (3) 활동 : 금속연맹과 금속산업연맹과의 회의 주관 및 참석

8) IMF 산업안전보건 국제세미나

- (1) 일시 : 2000. 3.29 - 3.31
- (2) 방문자 : IMF 국제국장 데이빗 셀렉슨, IMF 편집국장 스트그 요르스트롬
스웨덴 산업안전국장 앤 림름, 스웨덴 국제국장 제이콥 야콥슨
덴마크 산업안전국장 언스트 블레이스만
- (3) 활동 : 회의 참석 및 각국의 산업안전상황 발표 및 토론

제4회 IMF 동아시아 지역회의 개최

(1) 일시 : 1999년 4월 12일 ~ 13일.

(2) 장소 : 서울 타워호텔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 : 금속노련 - 유재섭, 정창영, 김순호, 이병균, 최종은
금속산업연맹 - 문성현, 오종쇄, 이석행, 전재환, 노재열

대만 : 황 이청 (IMF-ROCC, 중국철강노조 사무처장)
첸 티엔밍 (IMF-ROCC, 중국철강노조 집행위원)

홍콩 : 리 쿡쿵 (홍콩금속노조 위원장)
늑 웨이 위 (홍콩금속노조 사무총장)

일본 : 테루히토 토쿠모토 (IMF-JC 위원장, 지역회의의장)
요쿠 아지마 (IMF-JC 사무총장)

신야 이와이 (IMF-JC 국제국)

IMF 본부 : 칼라 콜레티 (조직 연대팀 소속 부장)

IMF 지역사무소 : 쯔네오 하타 소장

(4) 프로그램 :

4/12

09:00~09:45 개회 및 환영사 (칼라 콜레티, 토쿠모토, 유재섭, 문성현)

09:45~10:00 참가자 자기소개

10:00~10:10 의제 2 - 제안된 의제소개 (칼라 콜레티)

10:10~10:20 의제 3 - 제3회 지역회의 보고

10:20~10:40 의제 4 - 98년 10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보고(토쿠모토)

10:40~11:00 휴식 (coffee time)

11:00~12:30 의제 5 - 한국노동운동의 최근 현황 (금속노련 발표 후 토론)

12:30~14:00 중식

14:00~15:30 의제 6 - 조직, 연대, 노동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 국가와 IMF의 발표

15:30~15:50 휴식 (coffee time)

15:50~16:50 의제 7 - 동아시아지역 노조의 공동 행동에 관한 논의

(대만, 홍콩, 일본, 한국)

16:50~17:20 의제 8 - IMF 집행위원회의 99년 행동방침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
노조 활동평가 (하타)

17:20 종료

18:00 환영만찬 (일본측 주최)

4/13

09:00~10:30 의제 9 - 고용보험에 관한 발표 및 토론 (대만, 홍콩, 일본, 한국)

10:30~11:00 의제 10 - 차기 아시아 태평양지역위원회에 관한 보고 및 토론 (칼라)

11:00~11:20 의제 11 - 차기 지역회의 일정 및 장소 논의

11:20~12:00 의제 12 - 기타 현안 논의

12:00 종료 후 중식

IMF 산업안전보건 국제세미나 개최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

(1) 일시 : 2000년 3월 29일~31일.

(2)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3) 참석자 : 국제금속노련

- IMF 국제국장 데이빗 셀렉슨, IMF 편집국장 스트그 요르스트롬
- 스웨덴 산업안전국장 엔 림듬, 스웨덴 국제국장 제이콥 야콥슨
- 덴마크 산업안전국장 언스트 블레이스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본노련 산업안전국장 정문주, 연합철강 노동조합 산업안전보장 정삼봉,
현대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도영, 대우전자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고
재수, 대선조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하현준, LG오티스 노동조합 산업안전부
장 김성용, 새론오토모티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장재성, 화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운영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연맹 산업안전부장 조필순, 연맹 국제부장 김주희,
연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최은희, 대우정밀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정상래,

대우조선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차용철,
 대우조선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 신현호,
 한국중공업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김종일,
 만도기계 노동조합 경주지부 산업안전부장 정연재,
 센추리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구범희

(4) 프로그램 :

3/29 (수)

10:00~11:00 개회식 (각 조직 대표 연설 및 참가자 소개)
 11:00~11:30 발제1) 고용안정투쟁 집중시기에 노동자 건강권 확보투쟁 방안 (덴마크)
 11:30~12:30 질의응답
 12:30~14:00 점심식사
 14:00~14:30 발제2) 구조조정으로 작업장에서 위축되어 가는 산업안전보건 예방사업 강화를 위한 노조 전략 (스웨덴)
 14:30~15:30 질의응답
 15:30~16:00 휴식 (coffee time)
 16:00~16:30 발제3)
 구조조정과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와 자본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변화 (한국)
 16:30~17:30 질의응답
 18:00 환영만찬

3/30 (목)

09:00~12:00 종합토론1)
 작업장에서 위축되어 가는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노조 전략
 12:00~14:00 점심식사
 14:00~17:30 종합토론2)
 고용안정 투쟁 집중시기에 노동자 건강권 확보투쟁 방안
 18:00 송별만찬

3/31 (금)

10:00~11:00 공동결의문 채택과 기념촬영 (폐회)

<자료>

1999년도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개요

(1) 일시 : 1999년 6월 23일~24일.

(2) 장소 : 핀란드 헬싱키

(3) 프로그램 :

1. 개회사

2. 의제설정 및 98년도 독일 다름슈타트 회의 정리

3. 사무국 보고 : 98년도 예산 집행내역 및 99년도 예산추인

4. 신규조직 가맹 승인:

5. 중앙집행위원회 결원 선거 및 제철·금속과 비철금속부문의 새 위원장 선거:

 선출된 집행위원 : Giorgio Caprioli (이탈리아 FIM의 사무총장)

 Peter Dantjie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속노련의 사무총장)

 제철·금속과 비철금속부문의 새 위원장 : Michael Leahy (ISTC 사무총장)

6. 대의원 회의 2001 - 행동프로그램 활동

● IMF 구조에 관한 의안

"· 전략적 목표없이, 무계획적으로 각국노조들에게 지원되었던 연대활동의 구래의 방식을 지양한다.

· 예산은 각 가맹조직의 필요와 경험에 합치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 각국 또는 지역회의에 대한 보고서가 매년 제출되어야 하며, 노조들에게 자기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설정된 목표에 근거한 분명한 제안의 목적들이 몇몇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 각 지역에서 금속노조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토론들은 각 가맹노조들이 변화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보고서의 작성을 통해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정책들은 진행과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동프로그램 하에서의 전략적 목표달성에 있어서 각 노조들에게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 전지구화와 노조들의 활동

● 비조직화된 부문의 조직화

● 새로운 국제연대의 추동

● 연대에 관하여

- 초국적 연대와 IMF 총회/ 연대방식에 대한 논의/ 새로운 정보전략

●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하여

- 경제프로그램에의 대응/노동자의 권익보호/안정적인 경제발전의 확보

7. 인도네시아 문제에 관한 토론과 결의

8. 중앙위원회의 토론주제 - 세계경제, 산업 그리고 금속노동자에게 미치는 유로의 충격

9. 차기 중앙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 결정

10. 기타 현안

<자료>

제17차 ICFTU 세계총회 개요

(1) 일시 : 2000년 4월 3일~7일.

(2) 장소 : 남아공 더반

(3) 프로그램 :

4/3(월)

09:00~10:00 신임장 위원회와 기준적용 위원회 회의

10:00~13:00 개회식

의제 1 - 총회 개회

환영사 (ICFTU 사무총장)

의제 2 - ICFTU 위원장 연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환영사

13:00~14:30 점심

14:30~18:00 의제 3 & 4 - 신임장 위원회 와 기준적용 위원회의 비준

의제 5 & 6 - 활동보고 및 재정보고

18:00 회의휴정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맹주최 만찬

4/4(화)

09:00~10:30 본회의 속개

의제 7 - 총회주제 발표 "세계화되고 있는 사회정의: 21세기의 노동조합주의

제1장 토의 :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확장과 성숙"

(ILO 사무총장 Juan Somavia 연설풀함)

10:30~13:00 결의사항위원회와 본회의 동시진행

13:00~14:30 점심

14:30~16:00 제2장 토의: "세계경제에 있어서 직업과 정의"

16:00~17:00 프로그램 및 재정위원회와 본회의 동시진행

17:00~18:30 사회적 보호에 대한 패널토론

18:30 회의휴정

4/5(수)

09:00~10:30 본회의 속개

제3장 토의 "인권과 직업의 세계"

10:30~12:30 결의사항위원회와 본회의 동시진행

12:30~13:30 점심

13:30~14:30 2000년 여성의 세계행진

14:30~14:45 특별프로그램 - 근로여성

14:45~16:00 제4장 토의 : "작업장에서 차별철폐"

16:00~18:00 프로그램 및 재정위원회와 본회의 동시진행

18:00 회의휴정

ICFTU 주최 만찬

4/6(목)

09:00~10:30 회의속개

제5장 토의 : "국제연대 강화"

10:30~11:30 결의사항위원회와 본회의 동시진행

11:30~12:30 "새천년 개관" 패널 토의

12:30~14:30 점심

14:30~16:00 제6장 토의 : "21세기의 노동조합"과 "새 천년 개관"에 관한 배경문서

16:00~17:00 프로그램 및 재정위원회와 본회의 동시진행

17:00~17:15 특별 프로그램 - 젊은 일꾼들

17:15~18:30 제5장 및 새 천년 개관에 대한 토의 재개
18:30 회의휴정

4/7(금)

09:00~12:30 본회의 속개

의제 5 & 6에 관한 프로그램 및 재정위원회 보고

활동 및 재정보고서에 관한 보고,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사무총장의 답변
및 보고서 채택

의제 8 - 연맹의 미래 활동 제안(의사결정위원회 보고)

의제 9 - ICFTU 헌법 개정(기준적용 위원회, 프로그램 및 재정위원회 보고)

의제 10 - 이상 토의되었던 안건 이외의 결의 및 건의사항

의제 11 - 선거(신임장 위원회 보고)

의제 12 - 기타 사항

의제 13 - 총회 폐막

<자료>

한국의 현 정치, 경제, 노동 상황에 대한 보고

1. 정치 상황

○. 개혁정책의 표류

지난 97년 12월 대선을 통해 이루어진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엄청난 기대를 등에 업고 출발하였다. 비록 정당연합에 의한 기형적인 방식의 정권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주도권과 김대중대통령 개인의 진보적 퍼스낼러티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광범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 2년째가 되는 현재, 이러한 국민의 기대는 크게 손상되었다. 특히 정치분야에서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 한해 정치분야의 화두가 되다시피한 '정치개혁'의 과제는 크게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선거구제의 개혁, 정당제도개혁을 통한 고비용정치구조 타파, 지방자치제도의 보완등의 과제가, 내용적 측면에서는 계파중심의 정치구조 개혁, 정책과 이념을 축으로 한 정당정치로의 이행, 지역갈등현상을 극복할 정치적 대안등의 많은 과제들이 제출되었다. 불행히도 이러한 과제들은 올 한해 끊임없는 관심속에 무성하게 논의되었으나 정당들의 당리당략적 접근과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속에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

○. 총선정국으로의 급격한 전환

위와 같이 정치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국은 급속히 2000년 4월 총선을 위한 준비로 돌아오고 있다. 집권여당이 가칭 '새천년 민주신당'이라는 제하의 신당을 구축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야당은 '제 2창당'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집권여당의 신당건설은 그 정치적 지향성의 모호함과 다양한 구성원간의 편차등 많은 문제를 안고 진행되고 있으며, 야당의 '제 2창당'역시 추상적인 슬로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소선거구제'와 '중당명부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개혁에 여야의 이해가 맞물려 그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일각인 '자유민주연합'은 아직까지 '중선거구제'도입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치개혁과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개혁'이 과연 당리당략적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 전망

2000년 총선은 김대중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만약 김대중정부가 신당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집권 후반기 정국운영은 안정기조로 진행될 것이지만, 실패한다면 대단히 많은 변화와 파란의 연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옷로비사건'- 대한생명의 모그룹인 신동아그룹의 로비사건, '언론문건사건'-한 일간지 기자가 작성한 언론개혁과 관련된 문건사건등의 영향으로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의석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일각인 '자유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내각제개헌 요구와 차세대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다양한 합종연횡이 전망되고 있는 바, 바야흐로 급변하는 정치상황으로 진입할 국면으로 평가된다.

2. 경제상황

○. 불안한 경제상황

이른바 'IMF경제체제'가 구축된 지 2년이 조금 못된 지난 11월 19일 김대중대통령은 "1년 반만에 IMF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들은 IMF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졌던 경

제성장률은 올 상반기 7.3%로 반등했다. 3 4분기에는 12.3%로 뛰어올랐다. 작년에 7.5%나 급등했던 소비자물가는 올 10월까지 0.7%에 머물고 있다. 국제수지는 2년 연속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여 위기탈출에 기여하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2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또한 98년 2월 정부공식통계로 198만명에 달했던 실업자수는 지난 10월 1백 2만명으로 줄었다.

금융시장과 주식시장도 급속히 안정을 되찾았다. IMF구제금융 초기에 30%선까지 치솟았던 회사채금리는 현재 10%를 밑돌고 있으며 주가지수 역시 1,000 포인트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같은 금융 및 실물부문의 회복세에 힘입어 제 2의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도 가시고 있다. 97년 말 89억달러에 불과했던 가용외환보유고는 지난 2년간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힘입어 11월 15일 현재 6백 8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97년 말 6백 36억달러에 이르렀던 단기 외채규모도 올 9월 현재 3백 50억달러로 줄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 한국경제는 IMF체제이전의 경제규모를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 내연된 불안요소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회복세의 이면엔 위험과 불안이 잠복해 있다. 금융구조조정에만 이미 6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과정에서 국가 채무는 97년 말 63조 7천억원에서 올해말 1백 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연간 이자비용만 6조원이 넘는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도시가구 소득조사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득층은 IMF체제 이전에 비해 소득이 3.4% 늘어난 반면 중,하위층은 14.5%까지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 가구비중 97년 52.3%에서 지난해에는 45.8%로 떨어졌고 반면에 저소득층 가구비중은 38.7%에서 47%로 급증하여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97년 9월 14.6%에서 최근엔 20%로 대폭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적 구조는 크게 불안정해졌다. 한편 과거 사회문제로까지 여겨졌던 과소비가 재연될 조짐으로 보여 올 상반기 가계소비증가율은 7.7%를 기록해 2년전 소비수준의 96.1%를 회복했다. 여기에 급속한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불안등으로 물가안정기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대우사태

기업구조조정은 98년 6월 18일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없는 55개 기업이 퇴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뒤이어 워크아웃(Workout, 기업구조개선작업)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빠진 기업중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골라 부

채의 출자전환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5대 이하 그룹 계열사와 중견기업들이 주대상이 되어 16개 계열 38개 대기업등 모두 72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동시에 5대 그룹에 대해서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포함,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정유등 8개업종의 사업교환계획(빅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작업은 정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각 경제주체간의 이해 불일치로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다. 워크아웃작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간의 의견 불일치와 경영주 책임회피등으로 경영사정이 양호한 기업을 제외하면 현상유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업교환계획(빅딜)의 경우, 해당 기업간의 갈등과 고용문제 발생등으로 상당한 혼선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의 사업교환등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던지고 있는 대우사태가 발생하였다. IMF체제에서도 공격적 사업확장을 꾀하던 대우그룹은 재무구조의 치명적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8월 26일 채권단의 대우그룹 12개 핵심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작업실시로 인해 사실상 공중분해되었다. 현재 각 계열사의 채무확인과 향후 방안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지만 해외 채권단과의 마찰과 최소 60조에서 최대 100조를 상회하는 국내외 채무의 존재로 인해 그 미래를 쉽게 짐작할 수 없다. 대우조선, 대우전자, 대우자동차등의 핵심 기업들의 해외 매각 등이 추진중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빚어질 고용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놓여 있는 상황이다.

3. 노동정세

○. 무력화된 노사정위

98년 상반기에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경제분야를 비롯한 국가개혁의 견인차가 된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은 현재 거의 무력화되었다. 6월 25일 노정간 합의를 통해 현안문제를 다룰 노사관계제도 개선위를 설치하면서 재가동된 제 3기 노사정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격한 이견만을 확인한 채 활동정지되고 말았다.

이미 2기 노사정위원회부터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참여를 선언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는 한국노총 역시 전임자 임금문제등의 현안이 더 이상 노사정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노사정위원회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현재 전망으로는 정부가 전임자임금문제나 노동시간 단축, 단체협약실효성 확보등의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는 99년을 끝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 합법화된 민주노총과 변화하고 있는 한국노총

지난 95년 11월 11일 설립된 민주노총이 올해 11월 23일 합법화되었다. 이로써 한국에는 2개의 내셔널 센터가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노총은 엄연한 실체로서 인정받아 왔으며 이번 합법화는 다만 법적인 측면의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화는 민주노총의 활동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즉 정부정책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의 장이 열렸으며 과거 '불법과격단체'로 적대시해왔던 사용자들도 공식적 대화상대로서 민주노총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어 향후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해온 한국노총도 이러한 공식적인 '양대 노총시대'의 개막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총파업을 통해 노정간 합의의 이루어졌으며 최근 전력산업의 해외매각을 막기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폐지와 기타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월 17일 1차 시한부총파업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조직화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 가시화된 정치세력화

이러한 배경위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결성하여 이의 주력으로서 2000년 총선에서 독자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정당제휴전술로서 20석의 원내의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행위가 허용되어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유력한 방도로서 이용될 전망이다. 현장차원에서 노동자의식을 고양하고 투표블력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 양 노총 공히 진행중이다.

노사대책,범규활동

목 차

○ 평가와 개선방향

I. 99년도 투쟁지원현황

II.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사수 2단계투쟁현황

III. 질의회시

평가와 개선방향

99년 한해는 IMF 구제금융의 2년차로서 초기에는 경제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못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이 지속되었으나 중반 이후에 경제상황의 호전과 임단투, 한국노총의 6월 투쟁과 결합하면서 상여금 반납이나 삭감, 복지비용 축소등에 대한 원상회복 움직임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들의 투쟁력이 복원되고 자신감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할수 있으며 상당한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과정에서 한국노총의 6월 총파업투쟁전술은 단위사업장에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용자들은 IMF 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고통전담을 지속 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여기에 맞서 강고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안산 소재 성진산업의 39일에 이르는 파업투쟁, 안양소재 신원공업의 15일간 파업투쟁, 부천 소재 신한주철의 10일간 파업투쟁, 부천 소재 반도기계의 15일간 파업투쟁, 인천 소재 영풍산업의 위장폐업에 맞선 10일간의 파업투쟁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에서 김순호 부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사대책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쟁을 승리로 성공시킬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노총의 정책적인 지원도 많은 힘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투쟁의 결과로 단위조직의 조직력이 강화되었을뿐만 아니라 주변 단위조직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상급단체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외에도 동아건설, 칩팩 코리아, 기아특수강등의 투쟁이 지원되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노총등 상급단체의 위상을 드높인 한해로 평가한다.

99년도 노사대책활동에서 대미를 장식한 것은 12월 노동자 대투쟁이다. 한국노총의 투쟁지침에 의거 시작된 투쟁에서 혹독한 겨울 추위속에서 수십회의 각종집회 투쟁에 금속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금속의 위상을 높였으며 12월17일, 23일 두차례의 파업투쟁에서 금속노련의 사업장들이 가장많이 동참하므로서 노총의 투쟁동력을 고양시키는데 기여 했다고 평가한다. 금년 2000년은 새천년으로 경제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지난 2년동안 고통을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보상차원의 투쟁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효과적이고 밀착지원 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섭지원, 투쟁지원, 위임교섭등 대폭적으로 업무가 늘어날것으로 예측되는바 노사대책국의 인원충원이 절실함을 건의합니다.

I . 99년도 투쟁 지원 현황

1. 기아 특수강

1) 사업장 개요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
- 종업원수 ; 1,500명
- 주 생산품 ; 특수강, 자동차 부품
- 97년 당시 기아계열사로서 기아그룹 부도와 함께 부도처리되었으며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음. 따라서 법정관리 개시 및 인가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노조가 감내하였으며 특히 98년 상여금 700% 전액반납과 임금동결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2) 노동조합 개요

- 설립일 ; 66. 5. 6.
- 대표자 ; 이 정 석
- 조합원수 ; 1,000명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

3) 요구사항 및 주요 쟁점

- 상여금 반납분 700%중 400% 환원
- 전년도 임금동결 하였으므로 5% 인상 요구

4) 투쟁 과정

- 99. 4. 교섭 시작하였으나 법정관리 상태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노조의 절박한 요구가 묵살되었으며 노조는 더 이상 인내할수 없다는 판단으로 99. 5. 6. 08:00를 기하여 전면 파업에 돌입 하였음
- 이에 금속노련 김순호 부위원장, 김홍룡 노사대책국장, 한국노총 군산지부의장,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
- 파업시작 4 시간만에 요구조건을 사측에서 수용 투쟁 종결됨.

5) 투쟁 결과

- 상여금 400 %로 지급약속
- 99 임금인상 5% 인상

2. 칩팩 코리아

1) 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허 원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 설립 연월일 ; 98. 7. 1
- 종업원수 / 조합원수 ; 2,300 명 / 1,800 명

2) 회사 개요

- 대표자 ;
- 생산품목 ; 반도체 조립
- 연간 매출 규모 ;
- 설립년도 ; 98. 7. 1
 - * 당 회사는 원래 현대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정의 일부이었으나 기업 분할로 칩팩코리아로 설립되었음.
 - * 그러다가 99년 2월 미국 브리지스톤 투자회사에 매각 되었음

3) 요구 사항 및 주요 쟁점

- 고용승계 및 보장
- 98 연도 상여금 및 성과급 반납분 지급
- 98년도 임단협 동결로 미지급된 선물 반납분 소급적용 및 지급
(명절선물, 생일선물, 근속선물 등등)
- 현대그룹으로서의 각종D/C혜택에 관한 보상 (통상급 6개월분 지급)
- 칩팩의 부가가치를 일으킨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및 자산의 프리미엄
(통상급 12개월분 지급)
-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현대전자와 맺은 각종협약과 단체협약 유효 보장

4) 투쟁전개 과정

- 99.2월경부터 회사를 외국에 매각할 것 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하였음.
- 몇 차례의 교섭결과 매각 협상이 가닥이 잡히지않아 매각확정시 교섭기로함.
- 99.4월 매각 확정과 함께 교섭을 재개 하였으나 별 진전을 보지못하고 99.5.17 경기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함. 99. 5. 27 조정결과 조정대상 아님과 단체협약 부분은 성실교섭권고로 조정안 이 나옴.
- 99.5.27 정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8%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간부30명 전원삭발.

- 조정 이후에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을 보지못하고 최종적으로 99.6.3일 06:00을 기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준비에 들어감.
- 99. 6. 2일 계속된 교섭에서 마침내 23 시경 회사측의 최종안이 제시되어 99. 6. 3일 01시경 대의원 및 간부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됨.
- 5) 투쟁 결과
 - 고용승계 보장 및 위로금 780% 타결

3. 성진산업

1) 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임 병 우
- 주소 및 전화번호 : 안산시 원시동 731-8 / 0345-494-2414
- 설립년월일 : 97.8.22
- 종업원수/ 조합원수 : 60명 / 39명

2) 회 사

- 대표자 : 문 영신 , 신인복
- 생산품목 : 소형 굴삭기, 굴삭기 부품, 천공기
- 연간 매출규모 :
- 설립년도 : 1989년 부도 발생으로 법정관리중(수원 지방법원89파 676)

3) 요구사항 및 주요쟁점

- 부당징계 철회 및 원상회복
(정서진, 홍길홍, 마홍일, 신영재)
- 직제개편 취소 (99.5.13일자)
- 부당노동 행위자 (노조탈퇴 강요자) 김일광 과장 즉시 해고
- 파업원인 제공자 박점금, 김문기, 이정수, 신동천, 임무빈 해고
- 경영현황 분기별 노조 통보
- 상여금, 학자금 지급
- 향후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활동 방해 단체협약 미준수시 즉각 상부단체가입 및 즉각 파업
- * 궁극적으로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의도에 투쟁전개함.

4)투쟁 전개과정 및 현황

- . 99. 6.17 파업 찬반투표 ; 조합원 총 39명중 27명 참석, 24명 찬성 가결

- . 99. 6.21 13:00 파업돌입

* 금속노련 김순호 부위원장, 김홍룡 노사대책국장, 안산노총
엄종국 의장, 금속노련 이병욱 의장, 지역 대표자 50여명
참석하에 파업출정식 개최하고 철야 농성 파업에 돌입함.

- . 99. 6.21 파업돌입과 동시에 교섭권을 금속노련에 위임하였음.

- . 99. 6.22 금속노련 노사 제 152호로 단체교섭을 요청함

* 교섭위원

○ . 금속노련 부위원장 김 순 호

○ . 금속노련 노사대책국장 김 홍 룡

○ . 한국노총 안산 지부장 엄 종 국

○ .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사무처장 김영석

○ . 금속노련 안산지역본부 의장 이병욱

○ . 금속노련 안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조재천

- . 99.6.22 성진제 9906-55호로 99년3월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체
교섭을 수용할수없다는 통보

- . 99.6.22 금속노련 노사제 156호로 재차 단체교섭요청(상여금, 학자금 부분)함

- . 99.6.23 성진제 9906-56호로 기타결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교섭을 거부함.

- . 99.6.23 금속노련 노사제 157호로 기합의 되었다고 주장하는 별도협약의 제시
요구와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단체교섭거부로 간주 제반조치를 취할것임을 통보.

- . 99.6.24 성진제 9906-57호로 별도협약은 위원장과의 구두합의라고 통보해음

- . 99.6.24 금속노련 노사제 162호로 별도협약을 제시도 못하면서 신의성실원칙
위배 신뢰성 결여운운 하는 행위에대한 반박과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에 대한요건을 통보하고 도의적 법률적 책임 통보.

- . 99.6.28 성진제 9906-60호로 상여금, 학자금에 대하여 교섭을 하겠다라고 통보
하며 부당징계 철회건, 직제개편 취소건, 김일광 과장해고건, 파업원
인 제공자 해고건등에 대하여 교섭안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여금,
학자금건에 대해서만 교섭하겠다라는 통보.

- . 99.6.28 성진제 9906-61호로 업무방해 중지요청

- 99.6.28 성진산업 법정관리인실에서 교섭을 진행함
 - * 참석자 : 김순호 부위원장, 김홍룡 노사대책국장, 이병욱 의장, 엄종국 의장 문영신 관리인, 신휴승 총무부장
 - * 교섭결과 : 관리인이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함
- 99.6.29-7.28 구 사주인 신인복 경영간섭 배제 및 법정관리인 교체를 요구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및 방문.

가족동원 투쟁 전개, 안산지역 전대표자 및 간부연대 투쟁 전개, 전 조합원 및 김순호 부위원장, 노사대책국장, 노총 안산지부장, 금속 안산 본부 의장 39일간 철야농성 전개
- 99.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교체 하였음

5) 투쟁 결과

- 99.7.28 20:00부터 29일 13:00까지 교섭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39일간의 파업 투쟁을 종료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합의 하였음.

- 합의 사항 -

1. 99년도 상여금, 학자금 4-12월간 발생분 양보 대신 생계비 월 20만원 7-12월 간년 120만원 지급, 99년도 7월분부터 적용
2. 단체협약 제2조 (조합원 가입 탈퇴)

현장에서 일하는 사원 및 신규 채용자는 입사 3개월 후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할수 없으며 탈퇴자는 즉시 해고한다.
3. 조합 부위원장 징계해고 철회하고 21일간 임금지급토록 합의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등)
4. 쟁위부장 폭행사건 치료비 150만원 회사에서 지급토록 합의
5. 직, 반장 인사권 노조 위원장에게 인사권 부여 합의
6. 현재 단체교섭과 계류중인 진정 고발 고소건은 상호 취하하도록 하고 금번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7. 금번 파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처우를 하지 않는다.
8. 위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투쟁에 대한 평가

성진산업은 법정관리 사업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3년만에 부도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았고 97년 상여금 50% 반납, 98년 임금동결, 1주일간 년월차 사용 휴무실시, 학자금 전액 반납(중,고 2자녀 학비전액), 상여금 600%로중 483% 반납등으로 근속13년에 연봉기준 1,200만원 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99년도 상여금과 학자금 마저도 동결시키려는 의도와 노동조합을 해체시키려는 의도에 분노가 폭발하였음. 39일간의 철야농성 파업기간중 연맹 부위원장, 노사대책국장의 헌신적인 지도와 안산지역 노총의장, 지역본부의장도 함께 철야농성을 전개 하였으며 지역 대표자들도 철야조를 편성 철야농성을 전개해주므로써 소규모의 노동조합 이지만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와 일사불란한 단결력은 강고해졌고, 가족까지도 투쟁에 동참하게 되었음. 안산지역에서 이렇게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므로써 본노련 소속 단위노조들이 상급단체에 대한 신뢰와 단위노조들끼리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강화시킨 것은 성진산업 투쟁의 또 다른 큰 성과라고 평가함.

4. 신원공업

1) 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이 호 혁
- 주소 및 전화번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023-2
- 설립년월일 : 99. 4. 3
- 종업원수/조합원수 : 58명 / 17명

2) 회 사

- 대표자 : 최 윤 식
- 생산품목 : 고압 밸브
-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하청으로 처리

3) 요구사항 및 주요쟁점

- 노동조합 인정
-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철회
(부당해고 4명 이철영, 김정임, 김대진, 유응호)
(부당면직 1명 이호혁 위원장)
(부당징계 13명 견책, 정직 45일 2명)
- 임금인상 13.8% (기본급 일당 3,800원)

- 상여금 500% 요구(전년도 450% 반납)
- 단체협약 체결 /노조 134개항 요구, 호사 64개항 제시
- *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고 있음.

4) 투쟁전개 과정 및 현황

- 99. 7.1 15:30 파업 출정식 개최 (조합원 및 중부노총 남기명 의장, 금속 경기도본부 하영일 의장, 이종진 부의장, 김홍룡 노사대책국장, 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참석)
- 조합원 17명 전원이 이번투쟁에서 패배하면 사표를 쓰기로 약속 결의하고 이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였음.
- 파업 출정식과 함께 노사대책국장의 지도로 노동가 및 구호를 교육하고 풍물을 준비 교육에 들어감. 또한 철야농성을 위하여 텐트를 치고 숙식에 따른 준비를 진행.
- 쟁의기금거출, 집행부 1인당 20만원, 조합원 1인당 10만원 계 180만원을 거출함.
- 99.7.2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께 상황보고 및 도움요청.
- 99.7.3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강영섭 의장, 황윤진 사무처장 방문 격려
- 99.7.5 병역 특례자 2명 3일 정직, 해고예고
(사유: 근무태만, 상사지시 불이행, 묵시적 노조투쟁 동조)
- 99.7.5 과천 호프호텔 커피숍에서 연맹과 첫 교섭
 - * 참석자 : 신원공업 사장 최윤식, 상무이사
 - 연맹; 유재섭 위원장, 이진우 본부장, 김홍룡 노사대책국장.
 - * 교섭결과 : 결렬,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임대사업으로 돌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외주, 하청으로 돌리겠다.
- 99.7.6 이호혁 위원장 및 집행부 사발
- 노동부 안양 지방사무소 항의방문
- 99.7.6 이호혁 위원장 해고 철회 / 김정남 조합원 징계 45일에서 1일로 철회하고 44일에 해당하는 징계는 임금으로 보상 하겠다는 통보가 경기 지노위에서 음
- 99.7.7 향후 투쟁계획 발표
 - * 분당 사장집 앞 집회 농성
 - * 사장이 집사로 있는 교회앞 집회 및 농성.
 - * 노동부 안양 지방사무소 앞 집회
- 99. 7.8- 12일까지 사장 미국 업무차 갔다 오겠다고함. 잘 다녀오라고 함.
- 99. 7. 13일 사장 귀국후 교섭요청
- 99.7.13일 15:00부터 7.14일 05:00 까지 철야교섭 전개 극적 타결

4) 투쟁결과

- . 부당해고, 징계 철회
- . 노동조합 인정
- . 임금인상 기본일급 1,000원 인상
- . 상여금 400 % 원상회복
-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원만한 교섭 실시
- . 쟁의기간중 민형사상 책임 면제
- . 고소, 고발 취하
- . 부당노동행위 근절약속 및 사과

5) 투쟁에 대한 평가

- . 신원공업의 투쟁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보복과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려는 부당해고, 징계등 부당 노동행위와 인권무시 열악한 근무조건등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발생한 투쟁임. 신설 소규모 노조임에도 굳건한 단결력을 발휘할수 있었던 것은 이호혁 위원장이 직장 출신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회사의 비인도적 처사에 분노 앞장을 서므로서 조합원들의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 쟁의기금을 180만원이나 모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이것을 공증 해놓으므로서 끝까지 단결력을 유지할수 있었고 회사의 회유나 징계등 압박을 견뎌 낼수 있었음. 상급단체인 연맹에서도 노사대책국장, 정창영 부위원장의 헌신적인 지도와 한국노총차원의 압박 등이 주효했다라고 평가함.

5. 홍화 공업

1) 노동조합 개요

- . 대표자 : 장 세 중
- . 주소 및 전화번호 : 포항시 남구 괴동 117 번지 0562-274-2440
- . 설립년월일 : 87. 8. 25
- . 조합원수 : 200명 / 외주 300명

2) 회 사

- 대표자 : 양 승 인
- 생산품목 : 철골 구조물

3) 요구사항 및 주요 쟁점

- 기본급 36,000원 인상 (조정안 25,000원)에 사측은 동결하면 성과급 50%(35만원) 지급 하겠다.
- 단협사항
 - 상여금 지급기준을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변경 요구
 -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1 개월에 3명 한도)
 - 대학교 학자금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 월동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 가족수당 통상임금에 산입
 -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한국 노총으로

4) 투쟁 전개 과정 및 현황

- 99. 7.1 지노위 조정 완료
- 99. 7.5 파업찬반투표 95% 찬성으로 가결
- 99. 7.21 본사 상경투쟁 (위원장을 위시한 조합간부 11명, 포항노총 백종부 의장, 금속 포항본부 백종부 의장)
- 포항 노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거부중
- 외주가 많은 관계로 전면 파업은 곤란하여 장기적 투쟁전략으로 태업전술을 구사.
- 상경 투쟁중 교섭에서 노조 수정안 제시
 - 단협사항 포기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안 (25,000원) 만큼만 인상요구.
 - 25,000원 인상시 1억2천만원 소요, 회사가 월급직 때문에 기본급 인상이 곤란하다 하므로 성과급으로만 한다면 100만원 (150%) 지급을 요구함

5) 투쟁 결과

- 99. 7. 26 성과급 8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됨.

6. 동아건설

1) 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김 상 수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120-23 02- 3709-3790
- 설립년월일 : 74. 6. 29
- 조합원수 :

2) 회 사

- 대표자: 회장 고병우, 사장: 이창복
- 생산품목 : 철 구조물, 장비사업소, 레미콘
- 98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사업장으로 선정됨

3) 현 황

- 동아건설 노동조합은 92년부터 98년까지 수년에 걸쳐 건설 호황기에도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약1200여명의 조합원을 구조조정 하는데 적극 협조.

- IMF관리체제 전후하여 97년말부터 98년도에 임금동결, 상여금 100%와 각종 복지부분 반납. 특히 IMF로 인해 회사와의 고충분담 차원에서 "조합원을 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와 함께 98. 12. 17 특별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98, 99, 2000년 3년간의 임금동결 상여금 1600% 삭감과 희망퇴직 250여명 구조조정에 동의

- 뿐만아니라 99년 5월 부평시티백화점 매각과 조합원 구조조정에 동의했고 부산, 함안, 창원 공장을 매각하여 빚을 갚는단 계획에 따라 노조에서는 나머지 4개 공장사업소를 살리기 위해 이를 수용하고 3개 공장 전체 조합원을 사책채하고 일용직화에 동의 그러나 회사는 3개 공장을 매각치 않고 정규사원 구조조정→일용직(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성공.

※ 이는 회사의 비도덕적이고 기업 윤리를 벗어난 행태로서 노동조합을 기만하였음.

- 회사는 이계획이 회사의 뜻대로 성공하자 99년 6월 1일 천안, 미사리, 포항 3개 공장을 99년 7월 1일부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장에 전달

- 노조에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상기 계획을 철회한다는 약속을 얻어냄(문서화)

- 천안, 포항, 미사리 공장 폐쇄가 수포로 돌아가자 회산는 3개 공장사업소에 대해 소사장제 및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추진 하고있음.

- 99년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6차에 걸친 단체교섭결과 회산는 "소사장제 및 연봉계약직"주장에 변함이 없음.

- 이는 동아건설노동조합이 워크아웃기업임을 인식하여 3개 공장매각과 시티백화점 매각, 그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합의 특별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3년간 임금동결, 상여금반납, 복지축소등 양보할수 있는 모든부분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가 교육지책으로 체결한 특별단체 협약도 무시한채 전공장을 소사장제 및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노조를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있음.

4) 요구사항 및 주요쟁점

- 현재 회사가 요구하고있는 소사장제, 연봉 계약직 철회
-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경우 각 사업장의 간접비를 절감하여 운영하고 그래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그때가서 노조와 협의 요망
- * 방안 : ①미사리, 포항은 지입 및 불하 레미콘 퇴출
(현재 기름,타이어, 월 보조비 250,000원, 비수기때 생활 보조비 지급)
- ②천안 (철 구조물)은 하청물량 직영 처리
- 특별 단체협약 8의3항에 "당 협약의 합의내용 불이행시 합의내용 전체를 원천 무효화 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상기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특별 단체협약을 무효화 하고 원점에서 투쟁 할 수밖에 없음.

5) 투쟁 전개과정 및 현황

- 99. 6. 16일 노사협의회와 6.23일부터 8.13일 까지 7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요구인 소사장제 연봉 계약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폐업 하겠다는 주장만 반복함
- 이에따라 상급단체인 금속노련에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99. 8.16일부로 위임함
- 99.8.16 금속노련 노사 제184호로 위임 단체교섭 요청
 - * 교섭일시 및 장소 : 99.8.19. 14:00 금속노련 3층 회의실
 - * 본 노련측 교섭위원 :

금속노련	위원장	유	재	섭
	부위원장	정	창	영
	"	김	순	호
	지도위원	최	웅	길
	사무처장	이	병	균
	조직강화 본부장	이	진	우
	노사대책국장	김	홍	룡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장	남	일	삼
동아건설 노조	위원장	김	상	수
	부위원장	정	세	영
- 99.8.18 동건인사 199908-00774호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수 없다는 통보
- 99.8.18 동아건설 분쟁과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께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함.

- 99.8.19 금속노련 노사 제 187호로 단체교섭 재요청
 - * 일시 : 1999.8.24 14:00
 - * 장소 : 본 노련 3층 회의실
- 99.8.23 동건인사 제 199908-778호로 사업장 폐업에 해당하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에 응할수없음을 통보.
- 99.8.24 금속노련 노사제 192호로 단체교섭 재 요청
 - * 일시 : 1999.8.27 14:00
 - * 장소 : 본 노련 3층 회의실
- 99.8.25 동건인사 제 199908-00801호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음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
- 99.8.25 본 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함
- 99.8.28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 심의, 조정 대상에 대한 논란
- 99.9.08 금속노련 조직 제 205호로 노동부에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한 고발장접수
- 투쟁기간동안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을 위시한 금속노련 유재섭 위원장 다각도로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함

5) 투쟁결과

- 1999년 9월 동아건설 고병우 회장이 김상수 위원장을 불러서 회사가 제기한 소사장제 및 연봉계약직 철회를 공식 선언하여 투쟁종료함

6) 투쟁에 대한 평가

- 이번 동아건설 투쟁은 소사장제 및 연봉계약직 철회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투쟁동참 의지는 지역별로 사업장이 분산된 관계로 크게 높지 않았으나 한국노총을 위시한 금속노련의 정책적 투쟁에 성과로 판단됨.

7. 대창 단조

1) 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박병용
- 주소 및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952-3
- 설립 연 월일 :
- 조합원수 : 104명

2) 회사

- 대표자 : 문영식
- 생산품목 : 자동차 부품 단조

3) 요구 사항 및 주요 쟁점

- 99 임금인상 10%요구
- 1998년 삭감 상여금 200% 원상회복
- 개인 상해 보험금 보조(조합원 1인당 월 5만원 지급)
- 근무시간 주당 40시간으로 변경
- 봉림공장 소사장제 반대

4) 투쟁전개 과정 및 현황

- 99.5.6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6월 13일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99.6.15부로 본 노련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함
 - 99.6.15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99.6.17 금속노련 노사 제 145호 단체교섭 요청
 - * 일시 : 99.6.22 14:00
 - * 장소 : 본 노련 3층 회의실
 - * 교섭위원 : 금속노련 부위원장 정창영
부위원장 김순호
부위원장 문광주
부위원장 박병용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노사대책국장 김홍룡
 - 99.6.18 대창 제 99-090호로 단체 교섭 장소 변경요청
 - * 본 노련 회의실에서 대창단조 회의실로
 - 99.6.18 금속노련 노사 제 150호로 단체교섭장소 변경요청에 대하여 회사측 제안을 수용하여 대창단조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 99.6.22 금속노련 부위원장 정창영,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교섭대표로 부산에 내려감
- ## 5) 투쟁결과
- 소사장제를 철회하고 교섭이 타결됨.

8. 한국선재

1) 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최승진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 1동 148-1
- 설립 연월일 :
- 조합원수 : 128명

2) 회사

- 대표자 : 이명호
- 생산품목 :

3) 요구사항 및 주요쟁점

- 조합원 평균 기본급 10.6% 인상 요구(5%는 98년도 삭감분 원상회복)
- 상여금 200% 반납분 원상회복
- 주 5일 잔업 1시간 반납분 원상회복
- 주 48시간 근무 44시간으로 원상회복

4) 투쟁전개 과정 및 현황

- 1999.4.29부터 6.11까지 5차례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에서 4% 만 제시하고 교섭에 진전이 없었음
- 1999.6.23 본 노련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함

5) 투쟁결과

- 정창영 부위원장, 이진우 조직강화본부장 대창단조와의 교섭을 끝내고 한국선재도 방문하여 교섭을 지도하여 타결시킴

9. 형진공업

1) 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김기철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18-6
- 설립 연월일 :
- 조합원수 : 64명

2) 회사

- 대표자 :
- 생산품목 : 연강선재

3) 요구사항 및 주요쟁점

- 기본급 9% 인상요구(98년도 5% 삭감분 포함)
- 기타 수당 : 5000원 인상
- 06시 출근자 우유, 빵 제공

4) 투쟁전개 과정 및 현황

- 1999.7.07 본 노련에 교섭 권 및 체결권을 위임함

5) 투쟁결과

- 자체 교섭으로 타결됨

10. 세아중기

1)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윤인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제 4공단 11-2블럭
- 설립 연 월일 :
- 조합원 수 : 36명

2) 회사

- 대표자 : 이성태
- 생산품목 : 기계 설비 생산

3) 요구 사항 및 주요쟁점

- 기본급 기준 12.5% 인상(수정안 9.5%)
- 자녀 학자금 지급(98년 반납)
- 상여금 100%지급

4)투쟁전개 과정 및 현황

- 1999.8.20일부터 9.2까지 6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었음
- 1999.9.03 충남 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1999.9.03 본 노련에 단체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함
- 1999.9.07 금속노련 노사 제 201호로 단체 교섭 요청
 - * 일시 : 1999.9.10 14:00
 - * 장소 : 본 노련 3층 회의실

* 교섭위원 : 금속노련 부위원장 정창영

부위원장 김순호

사무처장 이병균

조직강화본부장 이진우

노사대책국장 김홍룡

- . 1999.9.10 본 노련에서 교섭 결과 진전이 없었음

- . 1999.9.13 조정 완료와 함께 쟁의 행위를 돌입키로 함

5) 투쟁결과

- . 1999.9.13 충남 지노위 조정 과정에서

* 기본급 3.5% 인상

* 추석에 상여금 75%

* 자녀 학자금(중,고)99년 4/4분기 지급

- .노사양측 조정안 수락으로 투쟁 종결됨

11. 삼양중기

1) 노동조합 개요

- . 대표자 : 이 성 수

- . 주소 및 전화번호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4번지

- . 설립년월일 : 1984. 7. 8

- . 종업원수/ 조합원수 : 181명 / 130명

2) 회 사

- . 대표자 : 이 정 희

- . 생산품목 : 산업기계 주물

- . 연간 매출 규모 : 300억원

- . 설립년도 : 1973년도

3) 요구사항 및 주요쟁점

- . 임금 7.7%(호봉 포함) 인상요구

- . 주 40시간 근무

- . 퇴직금 중간 정산

- . 하도급 노조 합의

- . 산업안전 작업중지권

- . 징계 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4) 투쟁 전개과정 및 현황

- 1999.6.2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 1999.6.13 조정안 제시 / 임금 3%(호봉제외) , 단체협약은 동결
- 1999.6.12 쟁의행위 찬반투표 74.5% 가결
- 1999.6.21 쟁의행위 돌입

5) 투쟁 결과

- 임금 6.4%(1,750원) 인상
- 주 42시간 근무
- 퇴직금 중간정산
- 하도급시 노조와 협의
- 6.21 파업 유급처리

6) 투쟁에대한 평가

- 파업 돌입 이전부터 금속노련과 긴밀하게 정보교환과 협의가 있었으며 파업돌입 시 김순호 부위원장을 파견 적극적인 지도와 집행부의 강고한 의지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었음

12. 신한주철

1) 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윤 무 영
- 주소 및 전화번호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동 135 032-346-9819
- 설립년월일 : 74. 7.20
- 종업원수/ 조합원수 : 380명 / 320명

2) 회사

- 대표자 : 손 태 호
- 생산품목 : 엘보, T, 유니온, CAP, 자동차 엔진 부품,
- 1983년 부도로 법정관리 업체로 법정관리인은 조흥은행임

3) 요구사항 및 주요쟁점

- 노동위원회 조정안대로
- 임금 2% 인상
- 상여금 600% 현행 유지
- 체력 단련비 30만원, 생산장려금 30만원 반납은 추후 노사협의하자
- *. 사측은 조정안 거부 및 상여금 300% 삭감, 99임금동결, 체력 단련비, 생산장려금 반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4) 투쟁전개 과정 및 현황

- 99.7. 23.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4%로 가결 및 쟁의행위 신고.
- 99.8.23 노사대책국장, 노동부 부천시방 사무소 중재노력 실패.
- 99.8.24 사내식당에서 파업출정식 거행
- 99.8.27 법정관리인 및 은행과전 중역진 출근 저지
- 99.8.28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방문 협조요청/ 노사대책국장, 윤무영 위원장
- 99.8.29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 방문 지원요청 및 금융노련위원장 협조요청
- 부천지역 금속사업장 대표자 연대 투쟁 선언.
- 99.9.1 철야교섭에서 타결 및 파업 종료

5) 투쟁결과

- 99. 3/4분기 상여금은 9월, 10월, 11월말에 각 50%로씩 3회 분할 지급한다.
- 회사는 회사가 제시한 안 중 상여금 300%, 체력 단련비, 생산 장려금 반납 요구안은 철회하며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노동조합은 99년 9월 2일부터 정상작업에 임한다에 합의하였음.

6) 투쟁에 대한 평가

- 신한주철은 83년 부도이후 법정관리 업체로 16년을 조흥은행관리로 운영되면서 300억원에 이르는 부채상환을 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은 일급 18,350원의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조건에서도 회사의회생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왔었음.
- 97,98년 임금 및 단협을 동결했고 잔업단축, 년차사용등 고통을 전담 하였건만 99년 상여금 300%반납, 체력단련비, 생산장려금 각30만원씩 반납 요구와 체불 등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워 법정관리라는 한계속에서 파업을 하면 파산을 시키겠다는 법원과 회사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감행 성공하였음. 이는 윤무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320여 조합원의 굳건한 단결력의 결과로 평가함.

13. 반도기계

1)노동조합 개요

- 대표자 : 오 광 수
- 주소 및 전화번호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9-3 032-654-8485
- 설립 연월일 : 87.8.20
- 조합원수 : 100명

2) 회 사

- 대표자 :
- 생산품목 : 산업용 호이스트, 콘베어
- 반도기계는 부천, 안산, 진천 3개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었으나 98. 3월 부도발생으로 화의 개시중인 상태임

3) 요구사항 및 주요쟁점

- 1,100%로에 이르는 체불임금 청산 요구
- 기발생 학자금, 경조금 지급

4) 투쟁전개 과정 및 현황

- 수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었음.
- 99. 9. 7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함.
- 연맹 김순호 부위원장 파견 파업지도
- 조합원은 출퇴근 투쟁, 상집 운영위원은 철야농성.
- 99. 9. 13 노동부 부천 사무소 항의 집회
- 99. 9. 14 서울 본사 항의 방문
- 99. 9. 15 사장집 항의방문
- 99. 9. 21 회사와의 철야 교섭에서 타결 파업 종료함

5) 투쟁결과

- 1999년 7월 이후 발생 정기상여금 700%중 600%는 반납하고 100%는 2000년부터 매년 12월말에 지급한다.
- 월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로 계산하여 기본급으로 전환 지급한다.(1999년 9월 1일부터 적용)
- 미지급 특별상여금은 전액 삭감하며 2000년도부터 귀향비로 정액 400,000씩 년 2회(구정, 추석) 지급한다.
단, 2002년부터 하기휴가에 대한 휴가보조비 지급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미지급 학자금중 98. 2/4분기는 년내에 지급하고 98. 3/4분기 부터는 전액 삭감한다.
단, 화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학자금에 대한 부분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재협의를 한다.
- 미지급 경조비(직계 존비속)는 전액 년내에 지급하며 1999년 9월1일 이후 발생 경조비는 조부모, 부모, 처부모, 처, 자에 해당하는 경조비만 지급한다.

- 회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매 회계연도 결산시 당기 순이익이 8억이상 발생시 통상임금의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8억초과 매5억 추가시마다 100%의 성과급을 추가한다. 성과급 지급일은 매년 6월 말일에 지급한다.
- 98년 3월 상여금은 금번 교섭 타결시 전액 지급한다.
- 98년 5월부터 99년 7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 1,000%중 800%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0%씩, 2006년,2007년은 각각 150%씩 매년 9월말에 지급하고 200%는 삭감 한다.

6) 투쟁에 대한 평가

- 반도기계는 잘되는 회사였으나 98년 3월 부도로 화의 개시 상태임. 부도이후 체불, 퇴직금 미지급등으로 계속 마찰이 있어왔음. 그러다 99. 9. 7 철차도 거치지 않은채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였음. 파업에돌입하자 김순호 부위원장, 김홍룡 국장이 파견 되어 파업을 지도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자포자기 현상으로 고민이 많았으나 확고한 지도로 평정을 되찾아 성공적으로 파업을 마무리할수 있었음.

14. 영풍산업 인천공장

1) 사업장 현황

- 1968년 설립
- 소재지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 본사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생산품 : 다이아공구류, 굴착장비
- 영풍그룹 계열사 : 99.7.1 영풍기계에서 영풍산업(광업, 건설, 공업)으로 합병.
- 연간매출액 : 110억(경쟁업체 이화, 신한은 각 1천억원임. 시장성 풍부)
- 회사대표자 : 회장 장철진, 사장 이용순
- 총인원수 : 인천공장 75명

2)노조현황

- 1987년 설립

- 조함원수 : 60명
- 1996년 인천산업평화 대상 수상
- 대표자 : 이준선

3)노사쟁점 및 투쟁 전개과정

- 99년 7월 1일 회사합병과 함께 공장전체 소사장제 실시요구
- 99년 9월 17일까지 6차교섭에서 소사장제 철회 합의
- * 노조에서 상여금 100% 반납, 잔업 30분 무급근로, 토요일격주근무, 노조 여사원 4시간씩 회사작업 지원, 생산성향상운동 전개 제의 - 회사측 거부
- 99년 9월 30일 경영분석에 대한 협의요청에서 99년 10월 31일부로 회사폐업선언 및 통보
- 99년 10월 1일 노동부 폐업신고
- 99년 10월 4일 위장폐업에 따른 교섭요청에서 정상가동요구
- 99년 9월 30일 폐업 선언과 동시 파업투쟁전개
- 99년 10월 1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영풍산업 본사 상경 투쟁 (전조합원 및 가족, 인천지역 대표자 다수)
- 99년 10월 3일 노총 박인상 위원장 보고 및 방문 협조 요청.
- 99년 10월 4일 인천 노동청장 방문 협조요청 및 북부 지방사무소장 방문
- 99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노숙 하며 투쟁전개
- 99년 10월 8일 최종교섭에서 타결

4) 투쟁 결과

- 폐업철회 하고 정상가동 하겠다. 소사장제 요구하지 않겠다.

5) 투쟁에 대한 평가

- 회사는 실제 폐업할 의도가 없으며 소사장제를 관철시키고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전략(영풍산업 중에 유일한 노조임)으로 분석됨. 위원장에게 계속 소사장을 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고로 위장폐업으로 규정함(영풍문고에서 노조를 말살시킨 전력이 있음)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이준선 위원장의 확고한 신념과 조합원들의 일치단결 특히 가족들까지도 투쟁에 적극 동참하므로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었으며 상급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함.

단위노조 상황파악 [금속노련]

99. 12. 16 현재

노동조합명	대표자	투쟁지침 시달여부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여부		투쟁기금 모금	중식행사	현수막 리본	비고	철야 동성	조합원수
			총회	소집일						
LG산전빌딩	최경호	○	대	8일				94% 찬성		1,760
세진전자	문광주	○	총	17일					○	200
대한전선	신항철	○								1,035
LG전자	장석춘	○	대	17일	남부			보고 및 규탄대회		12,000
구미 1 지부	김인배	○	대	17일						
구미 2 지부	이화철	○	대	17일						
김해지부	김관하	○	대	17일						
오산지부	김만경	○	대	17일						
창원 1 지부	정한석	○	대							
창원 2 지부	김영준	○	대	17일						
청주지부	관종안	○	대	17일						
평택지부	박노원	○	대	17일	남부					
동아건설	김상수	○	총	15일				95.2% 가결		359
엘코코리아	김진태	○	총	17일						
동양강철	오기순	○	총	15일				73.6% 가결		250
기아특수강	이정석	○	총	17일						1,000
희성전선 전주지부	정한수	○	운영위원	10일				17 일 부분파업		130
FAG한화베어링 전주지부	김순남	○	총	13일			○			300
경원산업	강장규	○	총	8일				92. 5% 가결		450
침팩코리아	허원	○	대	17일				보고 및 규탄대회		1900
남양공업	류승택	○	총	10일				67% 가결		50
성신	유진화	○	총	11일				100%가결		280
신한일전기	박영진	○	총	14일				89.6% 찬성		500
두산포장제관	이성찬	○	총	15일				92% 가결		120
신한주철	윤무영	○	총					17일 전면파업		450

노동조합명	대표자	투쟁지침 시달여부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여부	투쟁기간 모금	종식행사	현수막 리본	비고	철야 농성	조합원수
남양금속	김종오	○	총	8일			쟁의결의		160
경향산업	장지태	○	대	15일			보고 및 규탄대회		250
금용기계	이상민	○	총	14일			79.5% 가결		170
대동금속	김형호	○	총	14일			80% 가결		120
세왕금속	이동구	○	대	14일			쟁의발생결의		100
이수전자	유광선	○		10일			쟁의발생결의		300
남신일미분	정광석	○		13일			쟁의발생결의		240
평화산업	신석근	○	대	14일			쟁의발생결의		480
서구산업	박진수	○	총	15일			94.5% 가결		115
한국아금	왕용호	○	총	14, 15일	남부	○	97.2% 가결		100
엔텍	김영기	○	총	15일	남부	○	공고		40
맥스전자	최종철	○	총	14일	모금중	○	95% 가결		260
삼화전기	이철주	○			남부	○			570
대성전선	최건천	○	총	14일	남부	○	77.6% 가결		100
에넥스	정운석	○	총	16일	모금중	○	공고		240
한국엘미늄	강하석	○	총		남부	○	공고		80
대성펄텍	김한상	○	총	11일	남부	○	85.7% 가결		60
대일오지	권순광	○	총	16일	모금중		공고		50
동성금속	김신종	○	총				92.5% 찬성		60
국제종합기계	정석채	○	총				공고		400
극동전선	안춘희	○			남부	○			160
한국트랜스	이대형	○				○			
동양철관충주지부	손관수	○	총	13일		○	86.7% 찬성		59
동유물산	이관하	○	총	13일		○	89% 찬성		90
대웅공업	백기형	○	총	13일			쟁의결의		60
세일공업	백양호	○	총	13일			쟁의결의		50
대웅정비	정진영	○	총	17일					300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투쟁지침		총회 및 대의원대회		투쟁기금		중식행사	현수막		철야	조합원수
		시달여부	소집여부	소집일	모 금	리 본	비 고					
대동기어	진 중 환	○	총	17일								170
동호전기	박 재 원	○	총	17일								120
세아특수강	김 병 수	○	총	14일						94% 가결		90
동양철관	박 태 보	○	대	17일					○			115
수산정밀	김 관 태	○	대	14일					○	상급단체지침대로		60
수산특장	김 성 규	○	총	17일					○			90
동일알루미늄	최 황 호	○	총	13일					○	79% 쟁의결의		95
한국하니켈	김 태 성	○	확대간부	13일					○			80
FKL동화	심 수 경	○	총	17일					○			140
포스코홀스	이 승 재	○	대	9일					○	상급단체지침대로		320
동원금속	권 서 용	○	대	16일					○			120
혜인	고 서 혁	○	총	17일					○			75
구암	송 주 현	○	총	17일					○			30
한성실업	안 성 환	○	대	10일					○	98% 가결		100
두원공조	김 호 영	○	대	13일					○	상급단체지침대로		170
화승공조	최 종 석	○	대	17일					○			90
수산정밀	김 관 태	○	대	17일					○			60
삼신	강 한 우	○	총	17일					○			
운영	송 기 정	○	총	17일					○			
동원정공	이 종 신	○	대	15일					○			
진로산업	방 용 식	○	대	17일					○			
금영실업	김 병 국	○	총	11일				보고, 규탄대회		90% 가결		30
부국철강		○	확대간부회	14일				"	○	쟁의결의		100
도루라	김 현 신	○	확대간부회	15일				"				150
영풍산업	이 준 신	○	총	15일				"				70
후지테크코리아	김 영 철	○	대	15일				보고, 규탄대회				60
한일투프	김 응 선	○	대	13일				"		86% 가결		100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투쟁지침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여부	소집일	투쟁기금 모 금	종식행사	현수막 리 본	비 고	철야 농성	조합원수
삼성정밀	정길환	○	총	14일		"		쟁의결의		45
한영일미늄	한상환	○	총	14일		"		쟁의결의		100
화신공업	이정우	○	화대간부회	14일		"		쟁의결의		70
우일정밀		○	화대간부회	13일		"	○			50
미주제강	손창두	○	총	13일		"	○	100%기결		100
신호스틸	박창옥	○	대	17일	모금중		○	13일 보고대회		300
대한제당	배동선	○	화대간부회	15일						277
대우전자	김만용	○	화대간부회	15일						
삼성공업	오인상	○	화대간부회	16일						210
로알동도	이원식	○	화대간부회	16일						15
쌍용정공	양영호	○	화대간부회	16일						110
한국치량	황중환	○	총	16일						270
동화산업	장수길	○	대	14일			○	100% 찬성		154

[참고 자료]

금속노련 현재진행사항

현재 진행사항 접수 사업장 90개

총회 및 대회개최 사업장 수 78개

쟁의행위 결의 사업장수 : 32개

** 충남본부 35 개 사업장 총회개최키로 하고 현수막 진부 부착함.

** 인천본부 13일 국민회의 당사앞 집회개최

** 포항본부 13일 철야 및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

** 서울본부 13일부터 철야 농성 들어감.

** 충북지역본부 15개사업장 현수막 부착하고 15일까지 총회 마치고 함.

** 부산지역본부 14일 철야농성 돌입

Ⅱ.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사수 2단계투쟁현황

금속노련노사 제 286 호

1999 년 12 월 7 일

수 신 지역본부의장. 단위노조 위원장

제 목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사수 2단계 투쟁계획 시달

1. 노동운동의 일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동지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한국노총을
정점으로 2 단계 가열찬 투쟁이 선포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첨부계획서와 같이 투쟁이 전개되오니 전 조직은 본 지침에
따라 가열찬 투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투쟁역량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투쟁계획을 시달합니다.

첨 부 : 노정합의사항관철 및 생존권 사수 총력투쟁지침 1 부. 끝.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유 재 섭

노정합의사항관철 및 생존권사수 2단계 총력투쟁 지침

I. 근거

- 한국노총은 회원조합 노사대책담당자회의(12.26), 지역지부 지부장회의(12.29), 시·도지역본부 의장회의(12.30)를 거쳐 12월1일 제233차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 주 40시간노동제 쟁취 △ 노조전임자 임금자율성 보장 △ 공공·금융·운수·제조 등 전산업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등 5대요구사항 관철을위한 총파업투쟁을 전개기로 결의함
- 노정합의사항관철 및 생존권사수 2단계 총력투쟁계획(노총투쟁 제29호)

II. 투쟁목적

- ① 주40시간 노동제 쟁취
- ② 노조전임자임금 자율성 보장
- ③ 단체협약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④ 공공·금융·운수·제조등 전산업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⑤ 전력산업분할매각 분쇄

III. 투쟁지침

1. 투쟁상황실 설치

- ① 산별조직, 한국노총 지역본부 및 지부, 단위노조는 1999. 12. 6일까지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총파업투쟁을 위한 비상체제로 돌입함
- ② 투쟁상황실에는 상근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투쟁상황을 기록하고 상황변화에 대비함
- ③ 투쟁상황실에서는 상급단체의 투쟁지침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조합원의 투쟁분위기가 상급단체 투쟁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 ④ 상황실 근무자는 하오 8시 까지 근무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상급단체의 지침에 대비함.

2. 비상투쟁체제 돌입

- ① 각급 조직에서는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총파업투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비상투쟁체제로 돌입함
- ② 각급조직 대표자들은 12월6일 이후부터 2단계투쟁 종료시까지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참석 등 해외활동을 자제하고 투쟁을 지도함.
- ③ 산별, 시도지역본부, 지역지부, 단위노조는 긴급히 시달되는 투쟁지침에 대비해 항상 조직동원태세를 갖추

3. 투쟁결사대 비상대기

- 각 산별조직은 5명이상씩 투쟁결사대를 조직하여 비상대기시킴

4. 비상지도체제 구축

- ① 각급 조직은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도부 침탈에 대비 규약 및 결의기구의 결의를 통해 사전에 2차, 3차 지도부를 구성함
- ② 각급조직은 핵심간부와 중간간부 현장조합원을 연결하는 비상연락망(핸드폰, 삐삐 등 활용)을 구축하여 일사불란하게 투쟁을 지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함

5. 총파업투쟁 분위기 고조를 위한 활동

① 현수막부착

각급조직은 건물외벽 또는 조합원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노정합의사항관철 및 생존권사수 2단계총력투쟁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함. 내용은 현장의 정서에 맞게 다음중에서 택일함.

내용 : 해외 독점자본 앞잡이 김대중정권 각성하라!

6.25노정합의 총파업투쟁으로 관철하자!

반노동자적 사기정권 김대중정권 각성하라!

반노동자적 사기정권 총선에서 심판한다!

일방적 구조조정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총파업투쟁으로 생존권을 사수하자 !

② 리본패용

각급조직 간부 및 조합원은 리본을 제작하여 패용함. 내용은 다음중 택일

내용 : 현수막내용과 동일

③ 투쟁복 착용

각급조직 간부들은 투쟁복을 착용하여 근무함

④ 중식시간 노동조합 방송

각 단위노조는 투쟁기간동안 자체 엠프시설을 이용해 중식시간에 노동가를 틀어주고, 한국노총 2단계 총력투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멘트를 함으로써 현장의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킴

선전내용

- 지난 2년동안 공공, 금융, 운수, 제조등 전산업에 걸쳐 정부 및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으며, 노동자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욱 잘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더욱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부와 사용자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 일방적구조조정 저지, 근로시간단축, 전임자임금지급, 단체협약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모두 한국노총 깃발아래 굳게뭉쳐 2단계 총파업투쟁을 실천합시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노동자가 살아있음을 김대중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 줍시다.

- 김대중정권은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맡기겠다던 97년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선 공약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고 6.25노정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로 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이제 우리노동자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 12월17일 1단계 총파업투쟁에 적극 동참합시다. 반노동자적 사기정권, 기만정권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선전구호

- 한국노총 깃발아래 노동악법 박살내고 생존권을 사수하자!
- 반노동자적 사기정권 총선에서 심판하자!
- 일방적 구조조정 투쟁으로 박살내자!
- 주40시간 노동제로 일자리를 확대하라!
- 근로시간 단축하고 노동악법 철폐하라!
- 6.25노정합의 투쟁으로 관철하자!
- 노동악법분쇄하고 생존권을 사수하자!

6. 홍보선전활동 강화

- ① 산별조직, 지역본부, 지역지부는 한국노총의 투쟁계획과 지침을 산하조직에 신속히 전달할수 있도록 투쟁속보를 발간하고 통신에 컴퓨터통신에 게시함
- ② 투쟁속보는 산하조직의 투쟁내용과 상급단체의 투쟁지침을 중심으로 하여 각 급조직 간 상호신뢰와 투쟁의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함
- ③ 각급조직 홍보선전담당자는 각 조직의 투쟁상황을 상급단체 및 타 조직에도 알림으로써 투쟁의 열기를 확산시킴

7. 투쟁기금 모금활동

- 근 거 : 제23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10.26)
- 모금기간 : 투쟁종료시까지
- 모금용도 :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사수투쟁 관련비용
- 모금액 : 조합원 1인당 1,000원
- 한국노총 투쟁기금 개설통장
평화은행 : 002 - 01 - 0007 - 876
예 금 주 : 한국노총

8. 각종회의 개최

- 각 산별조직, 시도지역본부, 지역지부는 12월8일까지 별도 지침에 따라 결의기구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사수'를 위한 한국노총의 2단계총력투쟁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결의함
- 각급 조직은 회의결과를 한국노총 상황실에 보고함(02-780-6008)

9. 총파업찬반투표 개최

- 각 단위노조는 기 시달된 투쟁계획대로 1999년 12월9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파업투쟁을 결의함. 단, 이 기간동안 총회개최가 불가능한 조직은 12월15일 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후 소속연맹에 보고함

- . 임시총회 안건 : 노정합의사항관철 및 생존권사수 총파업투쟁에 관한 사항
- . 총파업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함

- . 조합원이 2개이상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투표형식의 찬반투표를 실시해도 무관함

10. 각종투쟁 적극적 참여

- 각 조직은 여당당사앞 집회 및 항의방문투쟁, 국회앞집회투쟁, 기타 긴급히 시달되는 각종 투쟁에 적극 참여함

11. 스티커 부착 및 머리띠 자동차 안테나부착 운행

-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는 스티커를 제작, 12월8일부터 투쟁종료시까지 차량에 부착해 운행함으로써 한국노총의 2단계 투쟁을 국민속에 널리 알리고 김대중정권의 기만성을 국민속에 폭로함
- 버스와 택시의 경우 투쟁머리띠를 차량 안테나에 부착해 운행함
- 스티커 및 머리띠 내용(아래중 택일)
 노동자·서민 피눈물나게하는 김대중정권 사기정권!
 노동자·서민 우리는 김대중 정권 총선에서 심판하자!
 말뿐인 김대중 정권에게 폭삭 속았습니다!

금속노련노사 제 288 호

1999 년 12 월 10일

수 신 지역본부의장. 단위노조 위원장

제 목 12. 17 총파업 투쟁지침 시달

1.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 사수 2단계 총파업 투쟁관련사항으로 첨부와 같이 12. 17 총파업투쟁지침을 시달하오니 반드시 실천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며

2. 아울러 기 시달된 투쟁지침에 의거 늦어도 12 월 15일까지 단위노조에서 총파업을 결의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급조직의 비상체제 돌입과 철야농성에 돌입해 줄 것을 시달합니다.

- 일 시 : 1999. 12. 10 - 12. 16까지

- 장 소 : 각급 조직 투쟁상황실

- 산 별 : 임원 및 상근간부
- 지역본부 : 임원 및 상근간부
- 단위노조 : 임원 및 간부(대의원) 및 조합원

첨 부 : 12. 17 총파업 투쟁지침 1 부. 끝.

12 · 17 총파업투쟁 지침

☐ 투쟁 원칙

- 1)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이 함께 하는 투쟁
- 2) 시한부 동시파업
- 3) 전국적 전산업적 투쟁

☐ 파업시간

1999년 12월17일 13시부터 17시 까지 4시간 시한부 파업

☐ 투쟁방식

- 시한부 경고파업
- 긴급총회 개최
- 조합원 교육

☐ 사전 총파업투쟁결의

-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은 기 시달된 지침대로 늦어도 12월15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상급단체에 보고함
- ※ 파업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함. (조합원이 300명인 경우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함)

□ 총파업투쟁 프로그램

- 총파업투쟁을 결의한 사업장은 1999년 12월17일 13시부터 17시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함
- 총파업투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부 - 집회(13:00~14:30)

제목 : 노동자·서민 기만 김대중정권 규탄 노동자대회

장소 : 사업장내(사정에 따라 장소변경 가능)

순서

- . 노동가 및 구호제창
- . 국민의례
- . 투쟁경과
- . 대회사
- . 규탄사
- . 향후투쟁 일정 소개
- . 결의문 채택
- . 구호제창
- . 노동가 제창

※ 기 시달된 낭독문 참조

2부 : 현안문제 찬반투표(14:30~16:00)

1호 안건 : 김대중정권 노동정책 지지 여부 찬반투표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에 찬성하면 0, 반대하면 ×표하도록 함)

2호 안건 : 한국노총 투쟁 지지여부 찬반투표
(한국노총의 투쟁을 찬성하면 0, 반대하면 ×표하도록 함)

※ 투표용지는 사전에 2종을 미리 준비함

3부 : 노동자·서민 배신정권 심판 서약식(16:00~17:00)

- 전체 조합원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함
- ※ 노조집행부에서는 조합원수에 맞게 조합원 서약서를 준비함
 - ※ 서약서는 집행부에서 수거하여 산별조직을 경유 한국노총 투쟁상황실로 보냄.

별첨 :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성 명 : 홍길동 (0000노동조합 조합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김대중 정부가 대선공약 및 노정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서민을 배신할 경우 한국노총의 총선방침에 따라 2000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서 약 자 홍 길 동 (날인)

☐ 총파업투쟁이 어려운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천함

가. 조합원 비상총회개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파업 투쟁이 어려운 사업장은 12월17일 오후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한국노총의 투쟁방침과 총파업투쟁지지를 결의함
- 긴급총회를 개최하는 사업장은 총파업투쟁프로그램중 2부 및 3부내용은 반드시 실천함

비상총회 순서

- . 국민의례
- . 대회사
- . 규탄사
- . 성원보고
- . 안 건
 - 김대중정권 노동정책 지지여부 찬반투표
 - 한국노총 투쟁 지지여부 찬반투표
 - 기타사항
- . 결의문채택
- . 노동가 제창
- . 폐회
- ※ 기 시달된 낭독문 참조함

해당조직 : 전산별조직

나. 조합원 교육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파업투쟁이 어려운 사업장은 파업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조합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총파업투쟁에 동참함
-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는 노조도 파업프로그램중 2부 및 3부를 반드시 실천함
해당조직 : 전산별조직

다. 경적시위

- 버스, 철도, 택시, 도시철도 기타 운수관련 사업장 조합원은 99년12월 17일 13시를 기해 일제히 1분간 경적을 울림

라. 사복착용 및 리본폐용 근무

- 공공부문, 은행, 기타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업장은 전조합원이 사복을 착용하고 12월17일 오후근무를 함
해당조직 : 금융, 공공, 기타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부문

마. 머리띠 안테나에 묶기

-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운행시 라디오 안테나에 총파업투쟁을 상징하는 투쟁머리띠를 묶어 운행함
해당조직 : 택시, 자동차

바. 스티커부착 운행

- 기 시달된 지침에 의거 한국노총의 5대요구사항과 현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제작,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
해당조직 : 택시, 자동차, 철도, 도시철도

III. 질의 회시

질의(포스코홀스 노동조합)

97년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의 구성을 『기본1+기본2+조정급』로 변경하였는데, 승급시에는 조정급이 소멸되어 동일급수내에서 임금상승 폭 보다 적은 상승이 발생하는바 이를 임금 저하를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시(금속노련법규 127호 / 1999. 5. 21)

귀 사업장에서 97년 12월에 기본급체계를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임금제도의 변경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이익과 불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는 불이익으로 간주)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 노조에서 질의한 내용상으로는 현행 기본급 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승급(승격)시 인상 폭이 동일급수내 인상보다 작아 노동자간의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과거 97년 12월이전의 기본급체계에서는 승격시 임금상승과 동일급수내 임금상승이 어떠한가를 비교해봐야 할 것이며,

만약 기본급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즉, 97년 12월 임금체계의 변경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수 있는바 당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97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차】위반으로 현행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질의(성진산업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방식이 입사 3개월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니온숍으로 규정되어 있고,

노조 가입대상이 생산기능직종 전원으로 한정되어 있을때,

또한, 조합 탈퇴요건이 단협상 임의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탈퇴를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한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직반장들이 회사의 사주를 받아 집단적으로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노조위원장인 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반장들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금속노련법규 160호 / 1999. 6. 24)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탈퇴 요건은 탈퇴서 제출과 노조위원장의 결재를 거친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탈퇴의사를 조합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단체협상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탈퇴의사만을 밝힌 자들을 임의로 탈퇴한 것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에 해당 조합비를 공제하여 제공하지 않았고, 더욱이 회사가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입니다.

금속노련법규 160호 / 1999. 6. 24

질의(포스코홀스 노동조합 1999. 6월)

노동조합 가입방식이 입사 3개월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니온숍으로 규정되어 있고,

노조 가입대상이 생산기능직종 전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

또한, 조합원 탈퇴요건이 단체협상에 임의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탈퇴를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한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직반장들이 회사의 사주를 받아 집단적으로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위원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의 탈퇴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해고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참조: 단체협약 내용

제2조 【조합원 가입·탈퇴】 현장에서 일하는 사원 및 현장직 신규채용자는 입사 3개월후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조합탈퇴를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하여 탈퇴할 수 있고 관리자로 승급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보직으로 전보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없이 임의 탈퇴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탈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회시(금속노련법규 1999.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중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거거능로 하는 단협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유니온숍 협정은 조합원인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노동조합원에게 유니온숍 협약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법 조항에 의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제 81조제2호 단서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조합원수가 전체 노동자의 2/3미만인 경우)에는 단협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현대통신 노동조합)

대의원중 경영관리부서의 원자재구매팀 소속 대의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여부

회시(금속노련법규 207호 / 1999. 9. 9)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의 정의는 노동조합법 제 5조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함. 즉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함. 예를 들어 임금, 근로조건,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 결자에 관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함. 단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나 조합원 자격유무는 구체적인 업무의 형태로 판단됨(노조 0154-2642). 통상 사용자의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운전기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시담당부서의 직원과 회사내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의 경우 이에 해당함, 즉, 원칙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임

질의(한국카시오 노동조합)

1. 입법예고된 수출자유무역지대 설치법안 내용
2. 한일, 한미 투자협정 내용
3. 노조활동 관련 법안 (외국인 투자기업)

회시(금속노련법규 1999. 10월)

상기 내용 법안을 회시함

질의(삼화전기 노동조합)

연금형 퇴직보험을 실시할 경우 퇴직금누진제를 양보한다는 임단협 요구서에 내용에 따라 연금형 보험제도가 확정되어 실시하는 시점에서 퇴직금누진제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는 억지주장으로 사측을 하고 있음

교섭석상의 어떠한 대화내용도 임단협 합의서의 확정내용을 앞설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회시를 요청함

회시(금속노련법규 281호 / 1999. 12. 1)

귀노조에서 제출한 임금교섭합의서와 임단협 요구서의 서류를 종합해 볼 때 임금협상시 최초 요구한 사항중 "3.연금형 퇴직보험 및 우리사주 식탁제도 도입"의 제기로 임금교섭 합의서 4항의 연금형 퇴직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기 퇴직금제도의 틀내에 있으며 만약 새로운 제도가 이를 대체한다면 기 퇴직금 누진제도는 그 실효를 의심받으며 특히 임단협 요구서사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노사 쌍방이 이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귀 노조의 조합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용자와 보험회사간에 맺은 계약협정서를 살펴본바 금부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갑(사용자)이 퇴직금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 동시에 이 규정은 임금교섭합의서 제 4항의 내용과 같이 세부안을 정부방침에 의거하여 재협의 하여야 함. 그러나 99년 12월 2일 정부방침은 첨부한 근로기준법 34조와 시행령 11조에 나와 있듯이 그 세부실행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본래 연금형 퇴직보험제도는 피보험자에게 퇴직금의 안정성 확보와 기업에게 일시금 口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때문에 퇴직금은 노동자 몫이며 적립금의 운용 여부에 따라 적정 퇴직금은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질의(삼화전기 노동조합)

1. 지부의 본조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회시(금속노련법규 21호 / 2000. 1.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근거 노동조합이 조합원은 규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 노조의 규약 제 19조(대의원선출)에 고나한 조문에서 "1. 대의원은 조합원 40명당 1명씩 선출하되,---" 등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하나의 조합내에 있는 상황에서 지부라 하여 본조와 다른 대의원선출기준을 가질수 없음

질의(LG실토론 노동조합)

1. 현 규약상 대의원 수가 16명으로 이중 9명이 무투표 당선되어 무자격 대의원으로 판명될 경우 나머지 7명의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가능한지 여부?
2. 규약상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영위원은 지난 (1년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었는데 임기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금속노련법규 30호 / 2000. 1. 27)

1의 회시)

임원의 해임-불신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노조 01254-17504, 87.11.4)는 내용에서 보듯 조합원 직접선거를 통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

2의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7조【대의원대회】"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에 의하여 선출되어야"하며, 단독출마의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노조 01254-4593, 87.3.21)에서 보듯, 무투표 당선자의 대의원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자격 대의원을 뺀 유자격 대의원만으로 회의구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만약 유자격자만으로 의사정족수를 넘기면 회의는 유효하나 반대의 경우, 무효함

조사통제활동

○ 평가와 개선방향

1. 임투지원 지역순회교육

2. 임투소식지 제작·배부

3. '99임투평가

1) 임투를 둘러싼 정세

2) 임투전개과정

3) 임투현황

4) 임투총괄평가

4. 2000임투준비

1) 2000임금 및 고용 실태조사

2) 2000임투지침서 발간

3) 임투전략수립 지역순회 및 대기업 토론회

5. 제반 조사 및 연구활동

1)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2) 외투기업 현황조사 및 간담회 개최

3) 연봉제 실태조사 및 연구

평가 및 개선방향

99년도는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던 시기로서 생존권 및 고용 불안이 노조의 최대현안 사안으로 불거졌다. 이시기 조사통계활동은 과거 임금인상투쟁 위주의 지원활동에서 고용, 전임자, 연봉제, 외국인투자기업 등 구조조정이후에 닥친 새로운 현안과제를 조사, 연구하는 활동으로 무게 중심과 그 범주가 이동하였다.

먼저, 지난 1년간 조사통계부에서는 임투지원활동으로 임투진행 현황을 집계하여 가맹노조에 소식지를 배부 전국적인 상황을 선전하였으며, 임단투 평가, 2000년도 임투 지침서 작성 및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등을 을 전개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및 연구활동으로서 노조전임자, 외투기업 현황조사 및 간담회 개최, 연봉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99년도 조사통계활동상에 있어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점은 조사통계활동의 범주가 시대상황에 따라 넓어지는 반면 물적 역량(집행력의 한계)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매시기마다 요구되는 조사,연구활동이 충족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조사에 대한 회수율 저조로 조사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해결되지않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간부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는 하지만 제출하지않는 이중성의 문제에 있으며 결국 기업별 노조의 조합이기주의 문화에 불요불식간에 젖고 있는 것이다. 설문 수거율의 문제에 따라 작년도 설문조사의 양을 줄이고 문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더불어 직접방문 방식의 조사를 취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앞서 제기했던 바와 같이 이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

I. 임투지원 지역순회교육

1. 시기 및 장소

일 자	일 시	대 상 지 역	장 소	인원
1999. 3.26(화)	11:00~17:00	서울, 인천, 강원	연맹 대강당	35
1999. 3.17(수)	11:00~17:00	대전,충남북, 전남, 전북	노총 대전본부 강당	38
1999. 3.18(목)	11:00~17:00	대구경북, 구미, 포항	대구경북본부 강당	71
1999. 3.22(금)	11:00~17:00	경기	노총 중부지부 강당	45
1999. 3.24(화)	11:00~17:00	경남	노총 경남본부 강당	63
1999. 3.25(수)	11:00~17:00	부산,울산	노총 부산본부 강당	56

2. 참석인원 : 170개 사업장에 410명

3. 강의내용 : ● 임단투를 둘러싼 정세 (정문주 교육선전국장)

● 연맹 임투지침 해설 (정문주 교육선전국장)

● 임금요구안 작성 및 전략전술 (김홍룡 노사대책본부장)

● 노동자가 알아야할 경영분석 (윤종훈 공인회계사)

(3) 목 적 : ● 단위 사업장의 임금교섭준비 실무지원

● 97년 임투의 통일적인 전술구사를 위한 계기마련

II. 임투소식지 제작·배부

1. 시 기: 임투진행기간중

(1호: 1999년 4월30일 / 2호: 5월 25일 /

/ 3호: 6월 23일 / 4호: 7월 18일)

2. 수록내용

1호

임투진행 현황 / 지역본부 임투준비 소식 / 연봉제 / 경제경향

2호

6월 총파업투쟁 추가지침 / 임단협 진행상황 / 노동쟁의절차(조정이란?)/

/노사정위원회법

3호

임단투진행현황 / 단체협약 요구현황

4호

임단투진행현황 / 최저임금 결정내용

3. 목적

- ① 전국적인 임단투 진행현황을 단위노조에 선전
- ② 단위노조 임단투 전개시 전국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지원
- ③ 정세상황에 대한 통일적인 인식과 대응을 위한 지원

Ⅲ. '99임투평가

1. 99 임투를 둘러싼 정세

1) 객관 정세

(1) 지배권력의 위기이데올로기 공세강화와 권위 실추

- ① 완만한 경기회복 그러나 요구심리는 위축

97년 11월 구제금융사태 발생이후 98년 -5.8%의 성장률(98년 11,12월 성장률 -5.3%)을 기록하고, 99년 완만한 경기회복(경제성장률이 99. 1/4분기 4.6%, 2/4분기 9.8%로 나타남)이 있었으나 대개 노동조합이 98양보교섭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을 제일 과제로 상정함. 이는 지배권력이 위기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한 것임

- ② 지배권력의 도덕성 훼손: 검찰 파업공작사건, 옷로비 사건, 손숙장관 위로금 등

(2) 지배권력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구조조정의 본격화

- ① 신자유주의 노선에 의한 구조조정의 본격화: 고용불안과 실질임금의 감소를 초래

▲재벌개혁: 대우그룹 해체, 현대전자 주가조작 수사, 보광·한진 세무 수사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워크아웃 선정

▲민간부문 빅딜추진: 자동차, 발전설비, 열차, 철강 등

▲공기업 민영화: 한전 분리매각, 포철 정부소유주식 매각 등

▲2차 금융구조조정 계획 (크린뱅크(Clean Bank))

② 대량실업 시대 돌입: 정부통계상으로도 170만명 돌파

③ 실업대책 부책: 고용보험에 의존한 소극적 실업대책,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간단축 등 일자리나누기는 뒷전

(3) 자본의 공세 강화

① 경총 단협지침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조장

② 고용유연화 전략 추진: 정규직 감소와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급증

③ 기업조직의 대변화: 분사·아웃소싱의 확산

④ 합리화 공세 강화: 임금과 고용중에서 선택강요,
임금체계 변화 확산(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4) 양온적 노동통제전략의 강화

직접적인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통제, 사이비 참여강제를 통한 통제가 혼합된 전략

① 2기 노사정위원회 활동 중단: 지배권력의 참여 노사관계를 통한 구조조정 전개와
1기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양노총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

② 대화중단이후 노조탄압 자행: 지하철 노조 파업현장 공권력 동원 해산,
민노총 지도부 구속 및 대(?)사면

③ 노사정위원회 재가동 및 화해유화책으로 구속노동자 대(?)사면

④ 공안검찰 파업유도 공작사건

⑤ 신노사문화 정책: 노사협조주의 강화

⑥ 노동위원회 행정지침에 따른 노동쟁의권 제한: '교섭권고 및 교섭대상 아님' 남발

⑦ 노동부 행정지침에 의한 연봉제, 성과급적 임금체계 전환 유도

2) 주체적인 조건

(1) 6월 총파업투쟁

①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4.9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위 탈퇴 결의이후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해

4.19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면서 정부는 공권력으로 진압함

5.11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5대 요구 관철과 99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결정

② 공공부문 중심, 제조업 임투와 결합된 투쟁: 총인원 3만여명이 파업에 돌입

- ③ 임단투 시기집중기로서 작용: 단위노조 임단투에 긍정적인 영향,
수세적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 등
- ④ 준비가 덜 된 투쟁: 결정과정상의 문제 (선언식-나를 따르라!),
전술채택의 문제 (공공부문 중심, 제조업 지원),
비민주성 (6.24 전국노조대표자대회-정책연합 파기)
- ⑤ 노동연대 결여: 4.19 서지파업, 5월 민노총 총파업, 한국노총 6월 총파업 등
99년 총파업투쟁은 양노총이 개별적으로 전개하여 투쟁전선을
이원화 시킴

(2) 실질임금의 감소와 고용불안 심화

- ① 공공요금의 주도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감소
- ② 단순 임금만을 비교할 때 99년 5월에 이르러서야 IMF이전 수준으로 진입
- ③ '98양보교섭결과 원상회복과 소폭의 임금상승
- ④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증대: 감량경영으로 비정규직으로 대체

(3) 조직률 감소와 기업별 교섭체제의 온존

- ① 조직률 감소: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정리해고, 희망퇴직자 급증으로 조직노동자 감소
- ② 기업별 교섭체제 한계 노정: 공동교섭 공동투쟁제안에 대해 실제로 2개 지역만
진행되고 기업단위의 고립분산된 투쟁이 계속됨

2 . 임투전개과정

1) 임단투에 대한 전략과 전술

(1) 연맹의 주요 요구사항

연맹은 99년도 한국노총 총력투쟁과 임단투에 대한 요구로서 3대과제 10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99 임단투 3대교제와 10대목표

노동자 권리확보 및 개선	노동자의식 고양	조직강화 및 확대
▲ 고용안정 쟁취 ▲ 98양보교섭 원상회복 ▲ 노조활동 보장 ▲ 노동시간 단축 ▲ 사기업 구조조정 특위구성 및 노동자 참여보장 ▲ 부당노동행위 척결	▲ 경영참가 보장 ▲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실효성 확보	▲ 중앙교섭의 실현을 통한 산별노조 토대구축 ▲ 공동요구, 공동투쟁 전개

또한, 99년도 임금인상률은 5.6~8.3%로 요구하고 '98양보교섭 결과 원상회복, 고용안정확보, 경영참가, 노동시간단축, 퇴직금의 안정성 확보 등을 단협요구사항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중앙교섭의 실현을 통해 산별노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능한 지역또는 업종단위를 조직하여 중앙교섭을 실현하고,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조직하며, 6월 중순에서 말까지를 임투집중기로 상정하였다.

(2) 임투관련 연맹의 주요 활동

① 지역단위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위한 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 개최

3.10 중앙위원회에서 임금정책 결정이후 공동교섭,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30 지역본부의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 개최를 개최함

② 단체교섭권 위임 전술 구사

각 단위노조에 '~~(가)~~사용자가 교섭회피 및 무성의하게 임할 때, ~~(나)~~임금동결, 상여금 삭감·반납, 복지성기금 지급유보를 주장할 때 ~~(다)~~연봉제를 주장할 때'는 교섭권을 위임

③ 쟁의사업장 방문 및 지원

④ 임금교섭에 필요한 자료지원 및 교육

3 . 임투현황

1) 요구내역

(1) 교섭기간 및 회수

교섭회수 및 기간은 평균 5.2회에 35.6일로 나타나 평균 7일에 한번꼴로 교섭이 진행된 셈인데 예년에 비하여 평균교섭회수는 한두차례 가량 줄고 기간은 열흘 정도 감소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23일에는 26.4일에 6.03회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금번 결과는 교섭회수는 줄고 기간은 늘어난 것이다.

(2) 요구수준

요구수준을 살펴보면 요구율이 기본급대비 7.65%(52,931원)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모두 7%대를 유지했으나 조선업종(7.97%, 66,083원)이 이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제금융사태이후 유독히 조선업종이 활황세를 유지하며 경기여건이 낫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균요구율이 7%대로 나타난 것은 지난해 IMF사태로 사실상 임단투가 정지되는데 비해 올해는 정상적인 임단투가 전개된 것을 의미하며, 연맹 제시한 기본급 5.6~8.3%(51,081원)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6월 총파업투쟁이 있으면서 노동 對 자본의 분명한 전선이 형성되어 임투의 집중점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개별사업장의 임단투가 유리하게 전개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규모별 임금 요구수준은 500~999인 사업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1.24%(73,774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 요구 및 타결 현황

(원,%)

업종	요구율	요구액	타결율	타결액
100인 미만	7.17	54,047	3.44	22,648
100~299인	7.76	51,736	4.42	25,120
300~499인	7.03	44,301	4.13	24,441
500~999인	9.03	62,046	5.13	27,059
1000명이상	7.33	63,646	1.30	4,457
전체평균	7.65	52,931	3.97	23,431

업종별 요구 및 타결현황

(원,%)

업종	요구율	요구액	타결율	타결액
전기전자	7.81	54,986	3.85	23,061
철 강	7.29	50,933	3.33	16,041
기계금속	7.63	55,997	4.25	27,170
비철금속	7.67	49,699	3.34	21,214
자동차	7.47	48,915	4.67	26,568
조선	7.97	66,083	1.6	11,667
기타	7.51	61,155	3.16	26,075
전체평균	7.65	52,931	3.97	23,431

지역별 요구 및 타결현황

지역	요구율	요구액	타결율	타결액
서울	8.01	59,448	3.36	17,023
경기	11.24	73,774	5.85	31,702
인천	5.55	37,718	4.33	26,890
안산시흥	6.19	52,849	3.25	22,084
충남	6.65	63,057	3.28	22,817
충북	8.19	51,000	-	-
대전	-	-	-	-
대구경북	8.50	56,907	5.99	42,920
구미	5.86	-	3.05	-
포항	5.38	40,638	1.85	7,396
부산	8.31	57,872	3.65	22,514
경남	8.11	51,216	4.09	22,737
울산	8.11	52,209	4.63	29,877
전남	6.48	36,209	3.83	23,662
전북	-	-	5.49	-
강원	9.9	55,000	3.8	-
전체평균	7.65	52,931	3.97	23,431

(원,%)

(3) 단체협약 요구

99임단투에 있어 단체협약 요구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①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고용불안이 심화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조의 자구책으로 고용안정 보장이 최우선 활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② 복리후생 및 제수당, 성과급 지급 등의 요구가 많다.

작년도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금속노동자의 임금수준은 IMF이전의 84%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98년 양보교섭 결과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되거나 삭감, 반납한 복리후생, 제수당 등의 조항에 대해 노조가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③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사업장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매년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중 한가지였다. 그러나 올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사업장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시간단축이 고용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④ 퇴직금의 안정성 및 중간정산 요구가 늘었다.

구제금융사태이후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부도,도산,폐업 등을 겪게 되었고 해당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속출하였다. 사업주들이 종업원 퇴직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퇴직금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법개정의 여파와 조합원들의 극심한 생활여건에 따라 중간정산의 요구가 늘어 퇴직금관련 조항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체협약 요구현황을 보면, 중소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 노동시간단축, 원상회복 등이 주를 이룬 반면에 대기업은 성과급 인상, 복리후생조항, 제수당인상 등이 주를 이루어 사업장 규모별 요구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연맹이 제시한 임금정책중 단협요구사항(고용안정 쟁취, 노조활동보장, 98양보교섭 원상회복, 경영참가 보장,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실효성 확보)과 직결되는데 연맹이 제시한 단협의 수용도가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 훨씬 더 충실했음을 확인케 하는 결과이다.

2) 타결내역

타결률은 기본급대비 3.97%(23,431원)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4.67%), 전기전자(3.85%), 비철금속(3.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도 교섭에서 양보(반납,삭

감)했던 사업장들의 대부분이 상여금과 복리후생조항에 대해 원상회복시키는 대신에 임금을 동결하고 있어 실제 임금인상은 20%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9년 5월에 진입하면서 임금수준이 IMF이전(97년 11월) 수준으로 집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

규모별 임금인상을 살펴보면 500~999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27,059원을 타결하였으며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4,457원을 인상시켜 가장 낮은 타결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사업장일수록 눈에 보이는 임금인상은 억제하는 반면에 실제 임금인상 내역인 성과급, 격려금을 지급해 임금인상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지역별 임금인상 수준을 보면 대구경북지역이 5.99%(42,920원) 제일 높고 경기 지역 5.85%(31,702원) 순으로 나타났다.

(3) 단체협약 타결내역

99임단투의 단체협약 타결내역 역시 요구수준과 비슷한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용안정 보장

한국TDK, 대한알미늄, 한성실업, 삼양중기, 한국샤프 한국일선, 한국GMB, 한국씨티즌 등

② 노동시간 단축

한성실업, 삼양중기, 한일제관 등

③ 퇴직금관련 조항

삼화전기, 한국일선, 한국NOK이글, 한성실업, 삼양중기, 풍성전기, 한국GMB, 신호스틸, 희성금속 등

3) 조정신청·쟁의행위·교섭권 위임

올해 임단투가 정상국면에 진입한 것처럼 파업 및 조정신청도 예년수준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양보교섭 결과를 공세적 교섭으로 돌파하기 위한 노조전략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돌입했던 사업장은 총 32개소였으며,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은 총 18개소였다. (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돌입사업장 총 36개 소)

한편, 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사업장은 미래산업, 성진산업, 신원산업, 대창단조, 한국선재, 형진공업, 대양장관, 세아중기 등 9개소이다.

조정신청 및 파업현황

지역	노동조합명	위원장	조합원수	조정신청	파업여부	타결여부
서울	한국시그네틱스	유은주	486	7.14		타결
경기	침팩코리아	허 원	1766	5.17		타결
	신한일전기	박영집	500	6.4	6.16부분파업	타결
	삼양중기	이성수	133	6.3	6.16부분, 6.21전면파업	타결
	신원산업	이효혁	17	○	7.1~15전면파업	타결
	신한주철	윤두영	300	6.9	8.24~9.1전면파업	타결
	한국버그전자	한광수	60	○		타결
	반도기계	오광수	345	×	9.7~ 9.22전면파업	타결
구미	대한전선영주	박풍우	300	6.28		타결
안산	성진산업	임병우	40	6.10	6.16부분, 6.21~7.29전면파업	타결
	삼목강업	박용국	70	6.	6.16부분파업	타결
인천	루보	이원근	40	6.9		타결
	영풍산업	이준선	65	×	10.1~9전면파업	타결
충남	두원공조	김호영	163	7.2		타결
	대양강관	이원열	18	6.21	7.6~22전면파업	타결
	미래산업	김영진	30	×	3월전면파업	타결
대전	세아중기	윤인수	35	9.4		타결
충북	상화전기	이철주	700	5.26		타결
대구	남양금속	김종오	165	6.8	6.25전면파업	타결
포항	화신	윤승오	667	7.6		타결
	세아제강	권택봉	400	5.29		타결
	흥화공업	장세종	202	6.22	7.5~28부분파업	타결
	현대중합금속	김도론	400	6.4		타결
	동일산업봉강	김상표	97	6.18		타결
부산	고성산업	양중숙	42	4.29		타결
	한국선재	최승진	92	6.22		타결
전북	기아특수강	이정석	1100	×	5.3부분파업, 5.6전면파업	타결
경남	태화기계	김중률	60	7.5	7.28타결	타결
	세원중공업	허영환	80	7.9		타결
	대주실업	임중호	110	6.28	7.13타결	타결
	삼한	윤삼원	100	6.28	7.7타결	타결
	풍성전기	박중화	751	7.16	7.27~7.29전면파업	타결
	한국GMB	김은겸	282	7.19		타결
	한국산본	이행철	140	7.30		타결
	스리스타	김덕관	48	6.17	6.30타결	타결
	고려상사	임춘한	113	6.10		타결

4. 임투 총괄 평가

1) 성과

99 임단투는 구조조정기에 놓인 노동조합이 불리한 조건내에서 최소한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98양보교섭결과를 원상회복하는가에 놓여 있었다.

(1) 국면전환에 기여

98년이후 수세적 위치에 몰린 노동운동이 99임단투를 통해 전선을 형성하면서 정상적인 임단투가 전개되었고 공세적 국면으로 전환시킴

- ▲ 교섭회수 및 기간 예년수준에 근접
- ▲ 쟁의돌입 사업장 예년수준 상회
- ▲ 실질적인 임금인상요구 및 쟁취가 이루어짐

(2) '98양보교섭결과 원상회복

'99 임금동결 사업장 55개 (실제 임금동결사업장 15개, 40개 노조는 원상회복) 즉, 임금인상을 쟁취하고 원상회복한 사업장을 포함할 때 대부분 사업장이 포함됨.

(3) 생활임금 확보와 시간단축

임금만을 볼 때 기본 3.97% (23,431원)가 인상되었으며 명목임금인상률이 5.56% (33,210원)로 나타남, 여기에 98년 양보분을 합산할 경우 실제 임금인상률은 두자리수를 넘기게 됨

또한, 노동시간단축 등 연맹에서 제시한 단협요구사항을 쟁취한 사업장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

(4) 부분적인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이 조직강화로 이어짐

충남지역본부에서 7개 사업장이 공동교섭을 전개한데 이어 안산시흥지역본부가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조직강화에 기여하여 향후 전국적 차원의 공동교섭 공동투쟁의 전망을 밝게 함

(5) 6월 총파업투쟁이 임투집중기로 작용

한국노총의 6월 총파업투쟁이 임단투의 시기집중기로 작용하여 단위노조 임단투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봄

국면전환의 계기로 작용(수세적 국면에 놓인 단위사업장에서 자신감 회복)

(6) 전국적인 임투지원체계 마련

지역본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맹의 임투관장력이 향상되어 단위사업장의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양적 확대로 이어짐

2) 한계와 오류

- (1) 개별적으로 진행된 총파업투쟁: 각개격파의 위험성, 노동연대의식 결여
- (2)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별 노조의 한계 노출:
 - ▲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부재,
 - ▲ 고용안정(고용유연화 전략 및 기업조직 변화)및 실업대책 부재,
 - ▲ 법정노동시간단축, 조직확대에 대응하지 못함
- (3) 공동교섭 공동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부족
- (4) 기업별의식 심화: 공동교섭 공동투쟁에 대한 거부감, 간판사업장 년초 임금결정, 총파업투쟁에 불참하는 등 인식 등
- (5) 기업별 노조의 조직이기주의: 제조업 조직대상 기능생산직과 정규직으로 한정
- (6) 단사 간부중심의 임단투 전개: 노조가 해결사로 전략, 조합원 참여 떨어짐, 현장토론 등 일상활동의 부재가 낳은 결과.

3) 향후과제

①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제시

99년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이 혼란스럽게 나타났던 한해였다. 철폐, 반대, 저지에서 인정하나 일방적 배제, 인원감축은 반대 등 그 개념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이제 노동운동 진영내에서도 구조조정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점의 확립, 기업·산업·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② 임단투 목표의 재설정

99년을 기점으로 경제여건 및 이에 대한 상황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른바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등식이 붕괴되고 고용이 없는 저성장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과거와 같이 고율요구 고율타결하는 시대가 사실상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현장조직력 강화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간부중심의 입단^트 관성이 여전히 지배적 경향이다. 조합원의 상태와 조직운영의 심층적 진단을 토대로 조합원 참여 적극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현장토론이 활성화, 그리고 현장간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교섭권 위임전술의 발전

그동안 교섭권위임은 문제사업장의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러나 개별적 어려움의 해결사업무가 아니라 산별노조 전환의 중요한 요건으로 재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적인 조건부 위임으로부터 전략적 조직적 위임으로 확대발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섭방식이 개발되고 지역 연맹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공동사업의 일상화

공동교섭 공동투쟁 시기집중은 기업별 노조의 벽을 뛰어 금속노동자간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업종별 공동사업 또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추진 실천하여 이를 활성화시킨다면 산별노조 전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⑥ 산별노조 전환 적극추진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21세기 노동정세는 노동대중의 계급적 연대와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을 넘어서고 시간단축, 고용안정 등 정책적 요구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산별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⑦ 총파업, 정치투쟁에 대한 대비

96, 97년 날치기 노동법 저지투쟁에서 드러났듯이 철저하게 현장에 기반하지 못하는 투쟁은 실패하게 된다. 위협용 내지 사안별 총파업전술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양대노총의 개별적 투쟁은 동력의 한계와 지배권력의 분할지배전략에 막힐 소지가 크다. 현장 대중토론을 통한 철저한 준비와 양대 노총의 연대와 동맹을 통한 전선통일은 총파업의 필요충분조건이다.

⑧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재점검

한국노총은 2000년 총선전략을 20석 확보를 위한 정당연대로 설정하고 2010년 이후를 완전한 독자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 20석의 의원을 만들더라도 노동자 진영의 이익을 그들이 대변하고 이후 독자정당 건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직접 정치구조에 뛰어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보수정치구조에 노동자를 중심으로한 진보정치가 개입, 변화시킴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IV. 2000임투준비

1. 2000임금 및 고용 실태조사 (1999년 12월말 현재현황)

- ▲ 시 기: 1999년 12월22일 ~ 2000년 1월21일
- ▲ 대 상: 가맹 전조직
- ▲ 수거부수: 111부(수거율: 조합대비 26.4%)

주노동시간, 근속, 평균연령, 가구규모 현황

	주노동시간	근속년수	평균연령	가구규모
1998년 12월말	49.4시간	-	-	-
1999년 12월말	52.7시간	8.38년	36.57세	3.126인

단위노조 조합원 평균인원 현황

(단위:명)

	조합원수			비조합원 ¹	비정규직 ²
	남	여	계		
IMF전(97.11월)	305	176	442.22	357.42(80.8%)	72.4(16.4%)
1998년 12월말	254	127	356.38	260.68(73.1%)	59.3(16.6%)
1999년 12월말	219	107	294.29	179.81(61.1%)	84.3(28.7%)

※ 1) IMF전과 98년 조사는 동일사업장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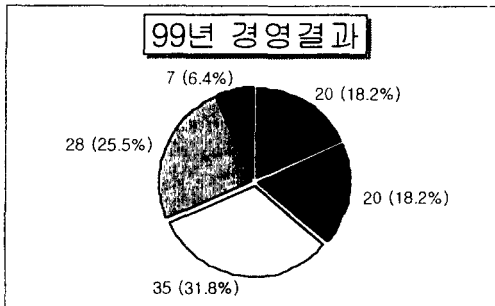
99년 조사결과는 대상 사업장이 다소 차이가 남

2) 비조합원¹ ()는 조합원에 대한 비조합원 비율,

비정규직² ()는 조합원에 대한 비정규직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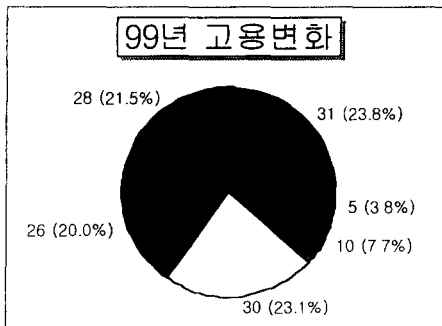
(i) IMF이전대비 현재의 임금수준: 84.7%(98년말), 98.7%(99년말)

(2) 99년도 귀사의 경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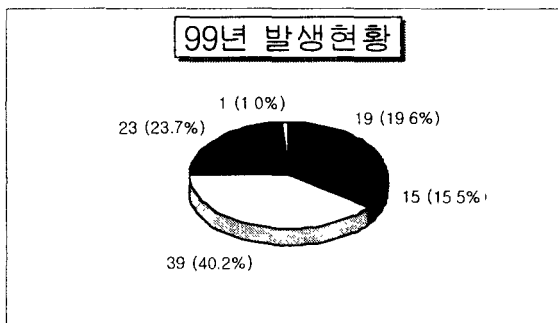
- 20: 매우 좋음
- 20: 좋음
- 35: 보통
- 28: 않좋음
- 7: 매우 않좋음

(3) 99년도 귀사의 고용변화



- 31: 정규직 새로 채용
- 28: 비정규직만 총원
- 26: 큰 변동없음
- 30: 자연감소
- 10: 희망퇴직 모집
- 5: 정리해고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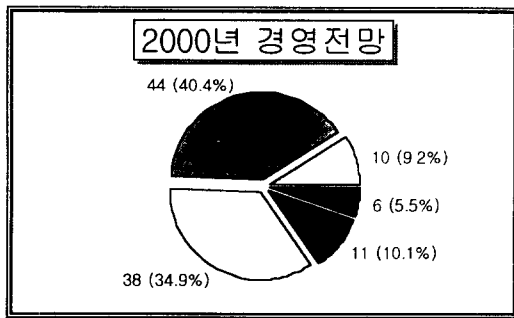
(4) 99년 귀사 발생 현황



- 19: 분사
- 15: 임금체불
- 39: 임금 상여 반납·지급중단(복지성)
- 23: 조업단축(휴업, 연월차소진, 시간단축)
- 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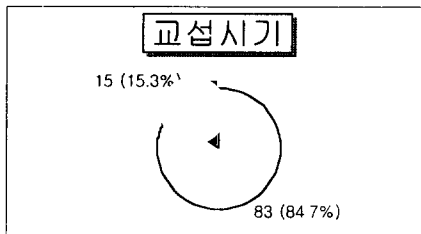
(5) 2000년도 귀사의 경영전망

- 10: 매우 좋을 것임
- 44: 좋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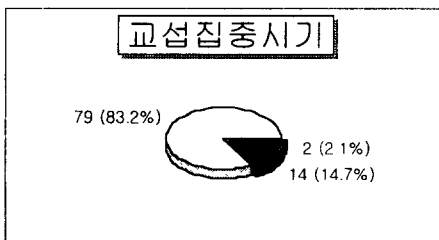
38: 보통
11: 않 좋을 것임
6: 매우 않좋은 것임

(6) 2000년 임단투 교섭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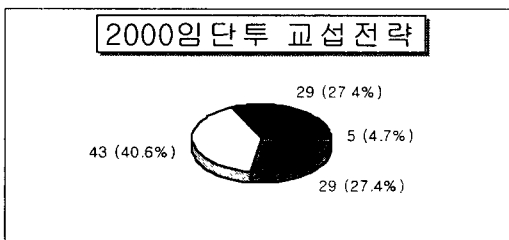
83: 교섭시기 통일 집중
15: 예년 마찬가지로 기업별로 분산되어 돌입

(7) 교섭시기 집중시 임단투 시기



79: 총선이전 교섭과 단체행동 집중
14: 총선이후 교섭 돌입
2: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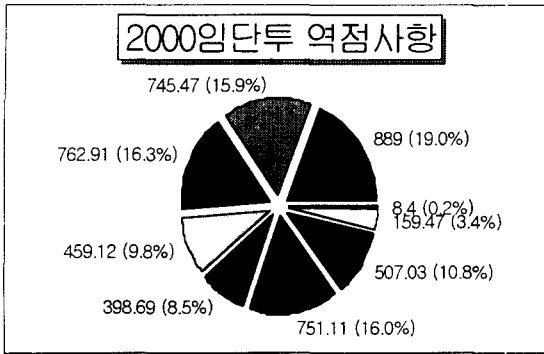
(8) 2000년 임단투 교섭전략



5: 전국적 차원의 중앙교섭
29: 지역단위 공동교섭, 투쟁
43: 업종단위 공동교섭, 투쟁
29: 기업별 개별교섭

(9) 2000년 임단투 역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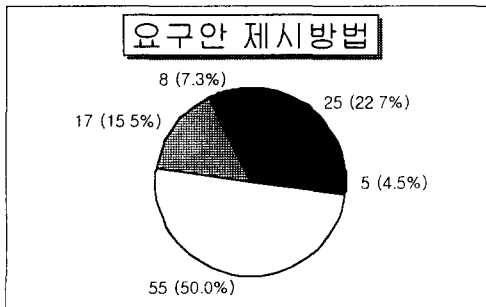
889: 임금·상여금인상



745.47: 노동시간 단축
 762.91: 고용안정 보장
 459.12: 재벌개혁 및 경영참가
 398.69: 산업안전보건
 751.11: 전임자임금 및 노조활동보장
 507.03: 복지향상(주택, 교육비 등)
 159.47: 기술교육, 훈련
 8.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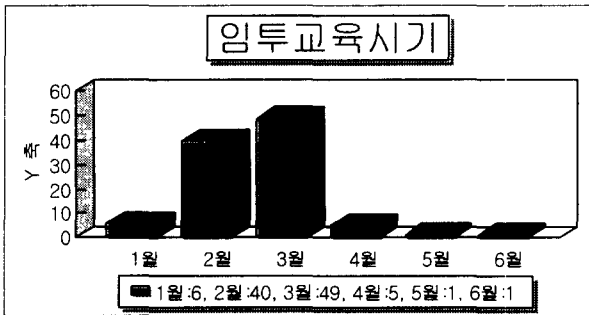
(10) 임금인상 요구율 및 액: 기본급 대비 11.2%, 90,596원

(11) 연맹의 2000년 임금인상 제시방안



25: 단일안
 5: 범위를
 55: 업종별
 17: 기업규모별
 8: 경영상태에 따라

(12) 연맹의 임단투 교육시기



임투교육시기는 3월이 가장 많았으며 3월중에서도 3월초 28%, 중순 13%으로 가장 높았음

(13) 임금실태: 임금통계는 연맹에서 실시한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용함

◆업종분과 분류표 (연맹 규정에 의함)

업종분과	관 련 내 용
기계금속	각종 기기공작 및 농기구 제작, 수리
자 동 차	자동차, 항공기 등 운송용 기계기구 제작, 정비 및 수리
전기전자	전자, 전선, 전기기구, 귀금속 및 건전지 제조 및 수리
철 강	제련, 제철, 제강, 주조 작업류
조 선	조선, 중기의 건조, 외장, 수리
비철금속	비철금속, 경금속의 제작, 수리 및 부대사업 또는 유사사업
기 타	기타 금속산업 관계업

금속 업종별 임금실태 (99년 12월말 현재)

업 종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임금총액(5)	평균대비
기계금속	706,980	78,483	46,912	352,575	1,079,523	90.8%
자 동 차	621,132	93,774	41,406	342,188	1,038,331	87.4%
전기전자	651,544	105,130	66,362	488,761	1,215,261	102.3%
철 강	664,083	89,200	212,308	392,716	1,185,849	99.8%
조 선	881,811	116,315	129,048	499,032	1,575,699	132.6%
비철금속	718,769	87,638	47,858	458,621	1,276,378	107.4%
기 타	840,679	39,629	56,676	567,448	1,504,433	126.6%
전체 평균	666,919	97,438	90,901	585,795	1,188,574	100.0%

자료: 연맹 임금 및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

주: (1),(2),(3),(4),(5)에 인원가중치를 주어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통상수당(2),기타수당(3),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남

금속 규모간 임금실태 (99년 12월말 현재)

규 모	기본급	통상수당	기타수당	상여월할	임금총합	평균대비
10 - 29인	705,493	76,755	68,707	226,808	963,423	81.1%
30 - 99인	689,979	75,424	62,488	305,368	955,446	80.4%
100 -299인	654,445	88,237	54,624	361,281	1,089,084	91.6%
300 -499인	652,733	127,342	239,198	419,605	1,205,022	101.4%
500인 이상	706,189	93,125	73,821	468,557	1,239,878	103.6%
평 균	666,919	97,438	90,901	585,795	1,188,574	100.0%

자료: 연맹 임금 및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

주: (1),(2),(3),(4),(5)에 인원가중치를 주어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통상수당(2),기타수당(3),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남

연도별 임금요구, 획득 추이

년도	요 구			타 결		최저임금 인상율
	금속	노총	경총	금속	노총	
1986		13.5	5.0			
1987		26~27	6~7			
1988		29.3	7.5~ 8.5			
1989		26.8	8.9~12.9		13.5	26.3
1990		17.3~20.5	7.0		17.5	15.0
1991	26.5	17.5	7.0	18.3	9.0	18.8
1992	22.0	15.0	4.7~ 6.7	12.5	10.5	12.8
1993	15.9	4.7~8.9		8.6	6.5	8.6
1994	15.1	5.0~8.7		9.6	5.2	8.0
1995	14.1	12.4	4.4~6.4	10.3	7.2	7.8
1996	14.0	12.2	4.8	9.9	9.0	9.8
1997	12.4	11.2±7.2	4%이내	5.6	7.4	6.1
1998	4.7~6.9	4.7	동결	-	-	2.7
1999	5.6~8.3	5.5	동결·삭감	5.56	5.6	4.9
2000	13.6	13.2	5.4			

경제임금 추이

	전산업 임금총액	임금 상승율	경제 성장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율
				물적	부가가치	
1985	324,283	9.2	7.0	4.6	8.0	2.5
1986	350,966	8.2	11.9	16.6	15.0	2.8
1987	386,536	10.1	12.3	11.7	10.7	3.0
1988	446,370	15.5	12.0	10.11	9.6	7.1
1989	540,611	21.1	6.9	7.5	7.9	5.7
1990	642,309	18.8	9.6	12.8	11.9	8.6
1991	754,673	17.5	9.1	13.8	12.6	9.3
1992	925,070	15.2	5.1	10.4	9.9	6.2
1993	1,031,608	12.2	5.8	8.1	9.1	4.8
1994	1,198,684	12.7	8.4	10.1	9.3	6.2
1995	1,301,337	11.2	8.7	10.5	9.1	4.5
1996	1,367,501	11.9	6.9	13.0	12.1	5.0
1997	1,463,300	9.0	5.5	15.6	13.2	6.6
1998	1,411,482	-8.1	-6.6	6.8	9.8	8.0
1999	1,427,201	2.1	10.1			0.8

주: '99년 임금인상율은 노동부 통계로서 교섭임금인상률임
'99년 임금총액은 10월 누계분 기준임.

2. 2000임투자침서 발간

① 발간일 : 2000년 2월 8일

② 인사말

2000 임금지침서를 발간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재섭

연맹에서는 지난 2월 8일 2000년도 임금정책을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결의한 결과 임금인상 요구를 기본 13.6% (90,597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올해 임단투의 방향으로서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단축, 노조활동보장 등 8대 목표를 상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자본의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자본의 초국화 국제화시대에 놓여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선진자본국이 후발자본국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2년전 IMF 위기를 겪으며 초국적 자본에게 그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국내 주요산업이 초국적 자본에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국내 진출한 해외투기자본은 IMF이후 2년간 금융증권시장에서 34조원의 이익을 챙겨갔으며, 주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매각대상에 올라있습니다. 또한 초국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잠식은 수많은 노동자를 실직과 저임금의 고통으로 몰아왔습니다.

IMF 2년 2개월! 구조조정을 앞세운 자본가들의 대대적인 공격에 의해 우리 노동자의 삶은 파멸화되어 고통의 나락위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수만 명의 우리 금속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그나마 사업장에 남아있는 조합원들도 임금 삭감, 휴업 등으로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 임단투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현재 자본진영은 여전히 구조조정과 노조활동 약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일방 파기, 연봉제 및 임금체계 유연화, 분사·소사장제 도입, 임금과 노동조건의 저하, 회사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등 올해 역시 과거보다도 더욱 악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또한 4월 총선을 기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노동자 희생을 몰고 올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속노동자는 2000임투를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통해 단결과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한국노총의 5대 요구 관철을 위한 3단계투쟁과 결합하여 5월초 전국적인 대규모 대중투쟁을 조직화해 나갑니다.

자! 이제 출정의 깃발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금속노동자는 고통받고 있는 4천5백만 국민을 대변해서 2000임단투에서 부패한 정치권을 바로잡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돌입합니다. 또한, 오늘 IMF를 이유로 벼랑까지 몰린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로 2000임단투 승리를 위하여 드팀없이 응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갑니다.

2000임투승리를 다짐하며 2000년 2월 관악산 아래에서

③ 목차

임금지침 요약

제1장 2000년 정세전망

1. 99년 한국을 되돌아 보자
2. 2000년 전망
3. 2000년 금속산업의 경기전망

제2장 2000년도 임단투 지침

1. 임금결정에 관한 동향
2. 임금실태
3. 연맹 임투의 방향과 목표

제3장 단체협약 요구세부지침

1. 고용안정협약
2. 시간단축
3. 노조활동 보장
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노동조건 보호 강화
5. 경영참가 보장
6. 산업안전보건활동 강화
7. 퇴직보험제 도입
8. 회사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제4장 자본논리비판

1. 금속연맹 연봉제 사례와 대응

제5장 참고자료

1. 한국노총 도시근로자 생계비
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개요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정부개정안

제6장 각종통계자료

1. 금속 업종별 월임금 실태
2. 성별(남·녀) 월임금 실태
3. 가맹노조 고용변화 현황
4. 금속산업내 업종별 임금실태 (노동부통계)

④ 임투지침서 요약내용

가. 2000년 정세 및 임투의 의미

ㄱ) 정세

지금 우리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자본의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자본의 초국화 국제화시대에 놓여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선진자본국이 후발자본국을 지배하게 된다. 한국경제는 이미 2년전 IMF 위기를 겪으며 초국적 자본에게 그 문을 열어 놓았다. 그 결과 국내 주요산업이 초국자본에 장악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초국자본은 IMF이후 2년간 금융증권시장에서 34조원의 투자이익을 보고 있으며, 주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외국 매각대상에 올라있다. 또한 초국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잠식은 수많은 노동자를 실직과 저임금의 고통으로 몰아왔다.

2000년도 역시 전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속되면서 초국적 자본의 세계경제 개입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양자간 투자협정(BIT),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등 세계경제의 자유화, 개방화가 전면화되고 이에 대항한 국제적 저항(99년 12월 시애틀 NGO대회 및 시위)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아시아 경제회복을 필두로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함에 따라 3%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경제는 7%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물가는 3%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하반기 들어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계속해서 초국적 자본의 국내진출이 거세질 것이며, 성장시대에 재진입한 반면에 고용창출이 뒤를 잇기는 어려워 고용불안이 지속될 것이다. 그 결과 고용창출이 있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대체고용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또한 자연감소, 전환배치 등의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실업문제는 100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단기취업자(일용계약직, 파트타임, 용역, 하청, 인턴사원, 공동근로취업자)의 증가로 여전히 불안할 것이다.

더불어 자본진영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일방 파기, 연봉제 및 임금체계 유연화, 분사·아웃소싱 및 소사장제 도입, 임금과 노동조건의 저하 등 구조조정과 노조활동 약화 기도는 더욱 악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총선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바뀐 선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으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정당운동에 대한 경험부족과 조직적 결합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를 띄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여전히 기존정당과의 제휴 등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역량 축적을 실행하지 못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비추어볼 때 16대 총선이 전국적차원에서 보수 수구세력에 대항한 진보 민주진영의 대결의 장이 되기는 어렵울 것이다.

다만, 총선투쟁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과제와 생존권 요구가 맞물리면서 자본과 지배권력에 대한 대국민 불신을 조직화하는 범국민적 운동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ㄴ) 2000 임단투가 갖는 의미

㉠ 한국노총 5대 요구관철 투쟁을 위한 3단계 투쟁

2000년 임단투는 99년말 한국노총의 전개한 5대 요구 관철투쟁(△노동시간단축 △단협 실효성 확보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일방적 구조조치 철폐 △전력, 가스산업 분할 매각 반대)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2단계 투쟁을 전개한 한국노총은 3단계 투쟁으로서 임단투와 총선을 연계한 대중투쟁을 결의한 바 있으며 임단투 투쟁전술로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 자본과 권력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응한 전선형성

IMF 2년동안 노동운동진영은 구조조정에 대해 철폐, 반대, 저지 등 혼선을 초래해 왔다.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관점이 확립되지 않은채 당면의 문제만을 쫓아다니며 투쟁을 한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입장정리와 대응은 개별기업 노조가 아닌 총노동차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0년도 임단투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성사시켜 총노동차원의 전선을 형성하여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응해야 한다.

㉢ 변화의 시기, 노동조직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련의 장

지배권력의 신자유주의, 21세기 노동정세는 노동대중의 계급적 연대와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자본과 권력은 경제위기이후 노동자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자기변화(구조조정)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노동은 여전히 과거의 질서와 체계와 머물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운동은 관료화되어 현실에서 도태되고 종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임단투는 노동조직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련의 장으로서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가 되는 공동교섭 투쟁을 통해 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 임투의 과제와 목표 - 2000임단투의 3대과제 8대목표

노동자 권리확보 및 개선	노동자 의식 함양	조직 강화 및 확대
▲고용안정 확보 ▲노동시간 단축 (주5일 노동쟁취) ▲노조활동 보장 ▲98,99양보교섭결과 원상회복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노동조건 보호강화 ▲경영참가 보장 ▲산업안전보건활동 강화	▲지역단위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통한 산별노조의 물질 토대 마련

(1) 노동자 권리 확보 및 개선

① 고용안정 확보	● 고용안정협약 체결, 정리해고의 노사합의 ● 정리해고의 요건 제한, 절차 강화, 성실한 해고회피노력의 구체화 ● 적정인력 확보 및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 재고용제(리콜제) 명문화 ● 임금제도 변경(연봉제, 능력급, 성과배분제 등)시 노사합의 ● 노사동시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고용안정기금 적립 및 노조관리
② 노동시간 단축	● 주 5일 근무 및 주40시간 노동제 요구 및 쟁취 ● 기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유지 ● 실노동시간의 단축 (기준 초과근로시간 마련, 교대제 개선) ● 구조조정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향 의무화
③ 노조활동 보장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와 일방해지 무력화 ● 조합활동기금 마련 및 조합활동시간 확보 ●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및 확대
④ 양보교섭 원상회복	● 98,99년도 양보교섭결과 손실을 본 임금 및 복지등을 원상회복 ●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보전 ● 노동소득분배율을 IMF이전으로 유지 개선

(나) 노동자 의식 고양

⑤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권, 노동조건 보호강화	● 비정규직노동자(임시,계약,일용 등) 법적보호 및 정규직 전환 ● 조합가입 자격범위 확대 (노조 규약 개정) ● 단협 취업규칙상 노동권, 노동조건 동일 적용 ● 비정규직 채용, 배치, 해고 관련 노사합의 ● 사내 하청노동자 차별 철폐
⑥산업안전보건 활동 강화	● 전사업장에 산업안전위원회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 및 명예감독관의 활동시간 보장
⑦ 경영참가 보장	● 단체교섭상 "경영 인사상"에 대한 규제철폐 ● 노동조합의 경영정보요구권(회계장부열람권) ● 노동조합의 사외이사·감사 선임권 ● 우리사주제 개선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등)

(c) 조직강화 및 확대

⑧지역단위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통한 산별노조의 물적 토대마련

다. 임투의 전략과 전술

ㄱ) 지역단위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교섭의 방법은 단위노조에서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해당 지역본부에 위임하여 요구안을 통일시키고 공동교섭, 투쟁을 전개하여 타결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마다 공동교섭단이 파견되는 **대각선 교섭**의 형태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업주가 교섭을 회피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 **교섭권위임→공동교섭단 구성→해당 사업주에게 단체교섭공문 발송**
각 지역본부는 의결기구를 열어 공동교섭을 결의한후 단위노조는 교섭권을 지역본부에 위임하고 위임한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하여 업종별 교섭위원단을 구성한후 공동요구안을 해당업종 사용자에게 발송 (교섭권 위임은 일반결의로, 사업주 통보, 지역본부 신고)

● **단체교섭의 주체: 공동교섭단, 해당사업장 교섭위원**
단체교섭은 공동교섭단과 단위노조 교섭위원이 함께하며 위임사업장간 단체행동을 조직하고 타결수준 결정은 공동교섭위원단과 위임노조 교섭위원이 결정한다.

● **교섭형태는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단(지역별 2~3명수준)과 해당사업장 교섭위원들이 개별사업주에 교섭을 요구함

● **단체행동 집중투쟁 전개**
단체행동은 가맹 전조직이 참여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며(상황에 따라 전국 또는 권역별로 전개) 먼저 타결된 노조들은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함

● **타결안 결정**
타결안은 사업장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공동교섭단과 위임노조 교섭위원이 결정함

공동교섭시 요구안 및 구체적인 상

- ▲ 집단, 공동교섭추진 가능 사업장은 원칙대로 요구전에 위임하며,
- ▲ 요구안은 통일 시킨다
(연맹 임금요구안을 기본으로 모범안을 작성함
추후 연맹에서 해당업종노조, 지역본부에 요구안 모범안을 작성하여 전달함)
모범안 작성은
요구의 정당성: 정세상황과 연맹, 업종·지역본부 투쟁방향, 단위사업장의 정당성

구체적인 요구안: 단위사업장 임금실정에 맞게하고 연맹 요구안 기본13.6%·90,597원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

결의안 첨부: 지역본부 차원의 공동투쟁 결의서와 모든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의 서명을 첨부함

ㄴ) 공동투쟁 전개과정

공동투쟁은 각 사업장별로 요구안을 작성하여 단체교섭을 전개하되 교섭 돌입과 단체행동, 타결 등의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으로써 단결의 수준을 높이고 행동통일을 이루는 교섭전술이다.

지역본부는 공동요구를 1차적으로 추진하되 공동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공동투쟁 전술을 채택하여 구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공동투쟁은 각기 다른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임단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최후 방안이므로 지역본부는 반드시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본부는 의결기구를 소집하여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교섭시기의 통일을 결의하고, 단위 노조는 임투요구안 확정시 대의원대회나 총회에서 공동투쟁을 결의하여야 한다.

● 지역본부 의결기구 공동투쟁 결의

공동요구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 공동투쟁을 결의함



● 단위노조 의결기구: 공동투쟁 결의

단위노조 임투요구안 확정시 대의원대회나 총회에서 지역내 공동투쟁을 결의하여 교섭시기(요구안제출:3월중순, 조정신청:4월중순, 4월말:쟁의행위결의, 단체행동 돌입: 5월초순, 타결:5월말)를 통일함

공동투쟁시 구체적인 상

▲ 교섭시기의 통일과 집중이 공동투쟁의 핵심이므로

▲ 각 시기는 요구안 제출:3월중순, 조정신청:4월중순, 쟁의행위 결의:4월말,
단체행동 돌입: 5월초, 타결: 5월말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 요구안 작성과 단체교섭은 각 사업장별로 전개하지만,

→ 이외에 교섭시기를 통일하는 전술로써

● 요구안 제출은 3월중순까지 하고,

● 단체협상 회수는 1주일에 2회씩(화, 금)갖으며,

● 단체행동이 요구될 경우 조정신청을 4월중순일 경에 접수하고,

쟁의행위 결의를 4월말에 하며

단체행동 돌입을 5월 초 중순에 한다.

● 만약, 5월초 이전에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임단협 합의서명을 5월말까지 미룬다.

라. 임투요구지침

ㄱ) 임금인상 요구

《임금인상 요구》 ⇒ 기본 13.6%

생활임금 확보와 IMF 경제위기로 인한 임금반납, 삭감 및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00년도 임금을 기본 13.6%(90,597원) 인상할 것을 요구함.
또한 업종별, 규모별 임금수준의 차이발생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요건표를 함께 제시함

• 요구안 작성 기초

- 금액과 율(%)로 작성하되 각 기업단위에서는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도록 함
- 각 업종(규모)별 임금 조건표를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업종(규모)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음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98년말 이후 반납 또는 삭감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되 현실조건을 감안하여 적정 임금인상액(임금실태조사 결과: 90,596원)을 적용함

• 생계비 산출

- 노총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함
- 가족규모는 금속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99년말을 기준으로 3.13인을 사용하였음
- 가구소득중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 자료 9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68.33%를 사용함
- 물가수준은 KDI, 한국은행, 정부평균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2000년 평균물가 산정을 위하여 6월까지의 물가상승률 1.54% ($182 / 366 / 3.1 = 1.54$)를 적용함

임금인상시 업종별 인상을 조건표

(단위: %)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타
13.6%인상시	15.0	15.5	13.3	13.6	10.3	12.7	12.1

임금인상시 규모별 인상을 조건표

(단위: %)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3.6% 인상시	16.8	16.9	14.8	13.4	13.1

ㄴ) 단체협약 갱신요구

① 고용안정협약체결	● 정리해고의 노사합의 ● 정리해고의 요건 제한, 절차 강화, 성실한 해고회피노력의 구체화 ● 적정인력 확보 및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 재고용제(리콜제) 명문화 ● 임금제도 변경(연봉제, 능력급, 성과배분제 등)시 노사합의 ● 노사동시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고용안정기금 적립 및 노조관리
② 시간 단축	● 주 5일 근무 및 주40시간 노동제 요구 및 쟁취 ● 기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유지 ● 실노동시간의 단축 (기준 초과근로시간 마련, 교대제 개선) ● 구조조정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의무화
③ 노조활동보장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와 일방해지 무력화 ● 조합활동기금 마련 및 조합활동시간 확보 ●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및 확대
④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노동조건 보호 강화	● 비정규직노동자(임시, 계약, 일용직 등)에 대한 법적보호 및 정규직 전환 ● 조합가입 자격범위 확대 (노조 규약 개정) ● 단협 취업규칙상 노동권, 노동조건 동일 적용 ● 비정규직 채용, 배치, 해고 관련 노사합의 ● 사내 하청노동자 차별 철폐
⑤ 경영참가 보장	● 단체교섭상 "경영 인사상"에 대한 규제철폐 ● 노동조합의 경영정보요구권(회계장부열람권) ● 노동조합의 사외이사·감사 선임권 ● 우리사주제 개선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등)
⑥ 산업안전보건활동 강화	● 전사업장에 산업안전위원회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 및 명예감독관의 활동시간 보장
⑦ 퇴직보험제 도입	
⑧ 회사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퇴직보험 가입 요구

ㄷ) 사회개혁 요구

- ① 주40시간 노동 법제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노동시간 40시간으로 단축
- ②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 ③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규정의 개정
- ④ 사회보장 확대
 - 적용범위 및 급여 확대
 - 정부의 재정기여
 -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 ⑤ 세제개혁
 - 근로소득세 경감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 폐지
 - 부가가치세 5%로 인하하고 간이과세제도 폐지
 - 주식거래 사세차익에 대한 과세
- ⑥ 재벌체제 개혁 (부실재벌과 부실경영인 재산환수 및 처벌)
- ⑦ 해외매각반대, 생존권 박탈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 ⑧ 각종 악법철폐(국가보안법 등) 및 부패방지법 제정

ㄹ) 임투추진 일정

2000년 임단투는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공동투쟁의 가장 큰 핵심사항은 시기집중에 있다. 각 단위노조는 아래 일정과 계획에 따라 단위의 투쟁일정을 설정하고 집중한다.

다만, 부도, 화의, 워크아웃 또는 기업여건상 임투시기를 집중하기 힘든 사업장은 지역단위의 임투지원체계에 결합하여 전체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파업사업장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 기		연맹활동	단위노조활동
준 비 기	12월~1월	단위노조 임금 및 고용 실태조사	조합원 임금 및 생활실태조사
	12월	임금관련 자료수집	
	1~2월초	임투자료 작성	
	2월 8일	중앙위원회(연맹 임금정책 결정)	
	1·2월		
	2월중	임투자침서 제작배부	
	2월말	임투특보 제작배부	
	3월7,8,9일	단사 교섭위원, 쟁의부장교육	
	2·3월초		
	2달		
	3월초		임금관련 자료수집 임투자료 작성 단사별 임단투 준비 마무리
교 섭 집 중 기	3월중	임투속보 제공, 임투사업장방문 임투 쟁의사업장 지원·방문	단체교섭 시작
	4월초 이후		임금교섭 본격화
	4월초~6월		
	4월중순	노동절 집회 전국적 총파업투쟁	조정신청접수 쟁의발생결의
	4월말		
	5월1일		
	5월초		단체행동집중 및 마무리
정 리 기	5달6초		단체교섭 마무리
	6달7초	임단투 평가	임단투 평가

3. 임투전략수립 지역순회 및 대기업 토론회

1) 목적

전국노조대표자대회 3대 핵심과제인 2000년 공동교섭,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각 지역단위로 토론회를 개최함

2) 준비과정 및 진행내용

- ▲ 99년 12월말 전국대표자대회 토론자료집을 전국 가맹조직에 사업장당 5부씩 배부
- ▲ 2000년 1월 지역본부별로 대표자급이상이 참석하는 토론회와
단위노조 상집간부,대의원급이상이 참석하는 토론회 전개 요구하여
- ▲ 2000년 2월 8일 임원 및 의장연석회의,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총화,정리하고
- ▲ 2.18 대표자대회에서 이를 대외공표하여
2000년 임단투 전략을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결의함

3) 일정 및 장소

1월7일 지역본부 사무국장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실시함

4) 참석대상

지역본부는 토론참석자를 단위노조 대표자(필히 참석할 것), 간부급이상으로 조직하며, 대기업 노조의 경우도 동일하게 조직함

5) 진행방법

- 10분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인사말
- 5분 참석자(연맹 참석자, 본부 및 단사 대표자)소개
- 40분 2000임단투 전략에 관한 제안 (발표: 노사대책본부장 또는 교육국장)
질의응답
- 10분 휴식
- 90분 토론
 - ▲지역 99임단투 평가
지역본부에서 먼저 99임투결과 및 평가내용을 발표한후
전체의견을 듣고 이를 정리함
 - ▲2000임투전략에 대한 입장
제안사항에 대한 각노조 및 지역입장 정리

지역 및 대기업노조 토론회 일정

해당월: 1월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11:00 안산		
10	11	12	13	14	15
	15:00 인천		11:00 충북	14:00 서울	
17	18	19	20	21	22
14:00 대전	14:00 경남	10:00 울산		14:00대구경북	
24	25	26	27		
	14:00 전남 14:00 충남	14:00 경기	14:00대기업		

※ 1) 장소는 각 지역본부 회의실

2) 대기업노조의 경우 조합원수 300인이상 사업장을 의미함

3) 포항은 2월2일, 전북은 2월15일, 부산은 2월15일, 구미는 2월10일 진행함

6) 기타

전체 토론회 사회: 연맹 사무처장

2000임단투 전략 제안: 노사대책본부장 또는 교육국장

토론회 일정 수립 및 조직: 교육장

V. 제반 조사 및 연구활동

1.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 1) 시 기: 1999. 7 23~ 9월중순
- 2) 대 상: 전체 가맹노조
- 3) 수거 및 분석부수: 252부
- 4) 분석내용 (기타자세한 사항은 연맹 조사통계부로 문의바람)

① 소재지 지역

지역	빈도수	Percent
1서울	19	7.55
2부산	21	8.33
3대구	24	9.52
4인천	15	5.95
5광주	3	1.19
6대전	6	2.38
7울산	9	3.57
8경기	66	26.1
9강원	4	1.58
10충북	10	3.96
11충남	19	7.53
12전북	4	1.58
13전남	4	1.58
14경북	23	9.12
15경남	24	9.52
16제주	0	0
무응답	1	0.39
합계	252	100

② 노조 일반사항 분석 결과

		집계	총합	평균	
종업원		244	158636	650.15	
조합원		248	86826	350.11	
조합원 1인당 전임자수		133.99명			
지부수		47	348	7.40	
분회수		5	23	4.60	
위원장수		243	246	1.01	
부-사무장		156	236	1.51	
지부장-임원		32	99	3.09	
부서장		23	98	4.26	
기타		56	66	1.18	
상급단체파견		21	24	1.14	
지원 상근자	전체	126	156	1.24	구성비(%)
	남자	38	70	1.84	44.87
	여자	63	92	1.46	58.97
노조 상근자	전체	19	36	1.89	구성비(%)
	남자	11	23	2.09	63.89
	여자	12	13	1.08	36.11
96년 전임자		235	634	2.70	
97년 전임자		237	630	2.66	
98년 전임자		241	618	2.56	
99년 전임자		248	626	2.52	

2. 외투기업 현황조사 및 간담회 개최

1) 취지

우리경제가 IMF환란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운동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준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외투기업 연구(김순희 연구위원)의 일환으로서 금속사업장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투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특히, IMF를 전후한 외투기업 현황과 임금·노동조건의 변화, 외국(투자)기업의 국가별 노사관계의 특징,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목표

- ① 외국인 투자기업체간의 연대의 장 마련을 통한 향후 상호교류 및 공동투쟁의 장 형성
- ② 외투기업 현황 파악 및 조사
- ③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조사(외국기업과 다국적 기업 분류)
- ④ 외국기업의 진출과 노동조건의 변화 조사

3) 일시: 1999년 10월 22일(금) 13시~19시

4) 장소: 한국노총 충남도본부 강당 (대전역 앞)

5) 참가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간부, 기타 외투기업에 관심있는 단위노조 대표자, 간부

6) 일정

13:00~13:30	접수
13:30~14:00	참가자 소개
14:00~15:00	<주제강의> IMF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양태와 금속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조합 대응방안
15:00~15:10	질의응답
15:10~15:20	휴식

15:20~16:00	노충연구원의 외투기업 연구에 대한 계획과 방향(김순희 위원)
16:00~16:20	참가조직별 현안 발표
16:20~16:50	향후 교류증진 방안 토의
16:50~17:00	설문지 작성 및 폐회
17:00	저녁식사

금속연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현황

회사명	회사대표자 성명 및 국적	투자국	투자비율		자본금	조합 원수	전화번호
			한국	외국			
(주)한국샤프	이기한(한국)	일본	50	50	14억	270	032)510-8140
후지테크코리아(주)	윤관숙(한국)	일본	1.2	98.8	99억2천만	91	032)817-7541
린나이코리아(주)	강성모(한국)	일본	51	49	24억	277	032)578-7019
FAG한화베어링	송재복, 윤풍(한국)	독일	30	70	2,555억원	856	0551)280-8622
침팩코리아	이수남(한국)	미국	10	90	2,000억	1,830	0336)639-8995
새론오토모티브	김광식(한국)	일본	33	67	200억	124	0417)560-4688
LG-nikko 동제련	정정원(한국)	일본	50	50	2,400억	500	052)238-3397
룸코리아	심장섭(한국)	일본	67	33	170억원	670	042)939-3437
롯데알미늄	전제덕(한국)	일본	15	85	33억	553	02.809-8117
한국음향	배성갑(한국)	일본	50	50	12억	80	02.864-4941
한국TDK	고도 구나야(일본)	일본		100	67억	160	02.3282-5177
한국키스톤발브	방 철(한국)	미국	10	90		17	0334.670-2545
신라엔지니어링	박헌정(한국)	일본	55	45	17억	40	0333.655-7083
삼화제관	강병준(한국)	일본	80	20	110억	100	0333.665-4088
알칸 대한	앤드류대솔츠(캐나다)	캐나다	44	56	830억	300	0572.630-7460
TRW	이흥표(한국)	미국	49	51	123억	150	0345.795-9775
로켓전기	영업권, 브랜드사용권 7년간 질레트(미)에 815억에 판매				420억	220	062)571-5951
신동방의료양행	추진 中	미국(BG시)				160	042.623-7533
한국중천	오일환(한국)	일본		100	88억	245	0551.294-9303
한국버그전자	홍철웅(한국)	프랑스		100	150억	45	0336.630-7756
사이스열병합발전		미국			억	60	0336.631-5106
신한일전기	김영우(일본)	일본		100	40억	500	032.667-4469
한일전기	김길웅(한국)	일본		100	억	315	0371.744-6658
한국산본	서길영(한국)	일본		100	45억	127	0551.294-7336

회사명	회사대표자 성명 및 국적	투자국	투자비율		자본금	조합 원수	전화번호
			한국	외국			
로알동도	박신규(한국)	일본	75	25	42억	210	032.528-5798
한국GMB	구운모(한국)	일본	51	49	20억7천	250	0551.281-5415
풍성정밀	황규삼(한국)	일본	50	50	19억3천6백	330	0551.278-9390
한국시티즌	오니티아끼노구(일본)	일본		100	40억	170	0551.296-5041
창원공업	정인섭(한국)	일본	70	30	30억	50	0551.280-1716
한국동양유전	천전공(한국)	일본	30	70	19억	105	0557.649-2728
한일제관	정호발(한국)	미국	60	40	59억7천	560	0523.370-6662
한국카시오	소리다(일본)	일본		100	35억	173	0551.296-4993
세방전지	남충일(한국)	일본	65	35	70억	900	0551.261-2182
한국상미	모리베이찌오(일본)	일본	10	90	50억	63	0553.545-1295
한국일선	김두영(한국)	일본		100	12억	58	0551.295-4430
평화발레오	김상태(한국) 아르노백(프랑스)	프랑스	50	50	300억	420	053.589-9170
평화오일셀	조치오(한국)	일본	60	40	3억6천	387	053.610-9179
부산정기	홍순명(한국)	일본	56	44	27억	15	051.265-2599
클레스트라하우저만	F. 보네(프랑스)	프랑스	25	75	94억	40	0546.472-7980
포스코홀스	홍상복(한국) 장승철(미국)	미국	67	33	870억	320	0417.550-4374
LG 필립스	구본준(한국), 란	네덜란드	50	50	2조5천억	1281	0546.470-5202
삼영전자	변동준(한국)	일본	70	30	100억	630	0342.740-2369
LG산전	추진중(11월초)	미국(오티스)				3400	02.3660-7251
대우전자	추진중	미국				5000	02.783-9373
엘코코리아		일본				120	02.854-3466
세진전자	이상영(한국)	일본	50	50	32억	150	02.854-8302
샤프전자	이기철(한국)	일본	50	50	40억	22	02.3663-1321
ASE코리아	짐 스티슨(미)	대만		100	1000억	30	0348.9400-394
대한알미늄	추진중(11.3)	미국				360	052.279-0656
아메리카스탠다드코리아	강웅식(한국)	미국		100	96억	80	0345.494-1876
한국캠브리지필터	김영대(한국)	일본	70	30	50억	27	0345.495-2165
한국 하니웰	권태웅(한국)	미국		100	100억	100	0417.559-4716

7) 회의자료 목차

- (1) 외국인 투자기업과 노동조합의 연대
- (2)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현황
- (3) 외국인 투자기업체 발표사례
- (4) 외국인 투자유치현황과 정책방향
- (5) 99년 9월중 외국인투자 동향
- (6) 99년 1~9월 외국인투자 동향
- (7) 99년 1~9월 외국인투자 통계

3. 연봉제 실태조사 및 연구

- 금속연맹 연봉제(성과배분제) 사례와 대응 (1999. 3월)-

1) 금속산업과 연봉제

① 금속사업장의 현실조건과 상황

금속사업장에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중반 일기 시작한 자본가들의 신인사제도에 따른 능력적 성과급주의가 제기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연봉제가 본격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IMF 환란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1년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의 한 가지로서 활용되었으며 더욱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용인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그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환란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1년동안 금속사업장은 광폭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그 결과 임금이 IMF직전인 97년 11월에 비해 평균 84%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조합당 인원이 85.8명이 감소하여 연맹 총조합원의 1/4에 가까운 3만 2천여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연봉제가 도입된 사업장의 대다수가 IMF이후인 작년도이후부터여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아직까지는 완전연봉제로서의 틀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이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직종에 한정되거나 그 유형이 차등성과급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금속연맹 가입 조합원의 절대다수가 생산기능직종의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방어와 현행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노동법상의 보호에 따른 것으로 완전연봉제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② 최근 연봉제 도입이 확산되는 배경과 자본가들의 목적

구제금융사태이후 기업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의 방안으로서 자본가들은 임금제도를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건비 억제(임금동결, 상여금반납·삭감, 고의 임금체불 등), 고용조정(정리해고, 희망퇴직), 기업조직의 변화(아웃소싱, 분사화)를 몰고 왔음.

그러나, 99년에도 같은 방식의 인건비 억제정책을 쓸 경우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자본가들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직까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연봉제를 새로운 공격형 무기로 들고 나옴.

또한, 외자유치를 이유로한 국가차원의 구조조정정책에 의해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가 연봉제 도입을 적극 권장(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자본가들에게 연봉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상태임.

2) 연봉제 도입현황

① 금속사업장에 도입된 연봉제 유형과 특성

금속연맹은 노동자들의 능력과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고자하는 임금체계의 변형이라면 이 모두를 광의의 '연봉제'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봉제 내에서도 그 유형과 내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연봉제와 차등 성과급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면적으로 전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사무관리, 영업직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와 생산기능직중 노동자는 대부분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지니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피해가기 위해서이다.

또다른 한가지 유형으로 차등성과급제를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전체 구성원 또는 평가가 용이한 부서 등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차등성과급제에 있어 전체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기존에 회사가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개별노동자의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형태가 있으며 연봉제 도입이 까다로운 생산기능직중중 개별노동자의 실적과 성과,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고 명확한 부서를 골라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등성과급제는 자본가들이 노동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임금체계를 변형하지 않고도 연봉제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완전한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② 실시 사업장

99년 4월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총 7개의 사업장이며 이중 한 곳(현대종합금속)을 제외한 6개 사업장은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직종(사무관리직 또는 영업직, 임시직 등)에 한하여 도입하고 있다.

- 현대종합금속: 98년 5월부터 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제를 일부부서(생산2부 근처부서: 용접봉 마지막 가공생산 공정)에 적용시켜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타부서까지 확대시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경보전기: 98년 5월부터 차장급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99년 2월 영업직까지 확대하여 도입하다 노조 반발로 철회함
- 칩팩코리아: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99년 2월 시행
- 현대전자: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99년 2월 시행
- 극동전선: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 한해서 99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완전연봉제로 전환할 계획
- 세진전자: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 98년부터 실시

③ 실시예정(예측되는) 사업장

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99년 임단투에 있어 역점사항으로 임금체계의 변경을 고용안정 확보(21.2%), '98양보교섭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14.8%), 노조 경영참가(11.9%)에 이어 우선순위 4번째(11.5%)로 들었는데 이는 현재 금속사업장에 있어 자본가들에 의한 연봉제를 비롯한 임금체계의 일방적 변경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래 기재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도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작년도 말부터 연봉제 도입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서 대개가 저지되고 철회되었다.

아래 기재한 사업장들은 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인 사업장 또는 자본가가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업장들을 정리한 것이다.

- 엘코코리아: 차등성과급제도로써 99년 3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기한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자 후퇴
- 선일철강: 99년 2월 회사 일방 제기에 대해 노조 반발하자 철회(?)

① 일반사항

- 인원: (전체인원:120명 / 조합원:48명)
- 위원장: 이병학
- 주생산품: 산업용 밸브
- 소재지: 부산 사상구
- 노조설립일: 97. 5. 12

② 도입시기: 1999년 2월

③ 제기과정: 99. 2월 사측 일방적으로 제기(전직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가 연봉제 도입 서명을 받음(서명자에 한해 사직서를 받고 재입사, 임금10%인상-상여금 500~600%을 일방적으로 삭감함)

④ 도입배경과 목적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무력화
- 인건비 억제, 삭감(상여금 전체를 삭감)
-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이행

⑤ 연봉제 유형:

- 적용범위: 조합원을 제외한 전사원
- 근로계약: 1년단위
- 연봉구조: 기본연봉(기본급+제수당)+퇴직금+변동수당(연월차수당 등)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 10%인상시켜 적용함
- 연봉결정: 개인별 차등
- 퇴직금: 99. 2월기준으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한후, 매월 정산하여 지급
- 상여금: 상여금 지급규정을 바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고침

⑥ 노조 대응활동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일방적 연봉제 도입은 노조탄압과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임을 피력, 사측 철회(?)—실제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연봉제 제기이후 사측 임금100%, 상여금100%를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삼아알미늄: 98년 단체교섭 결과 노사 각 2인씩 동수로 성과배분위원회가 구성되어 임금체계변경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시행하기로 함. 현재는 성과배분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상태!

●대한제당: 98년 5월 차장급이상 시행

99년 5월 과장급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

- 서진클러치: 독일 '룩'사와 합작 추진중이어서 외국기업체와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자유치가 결정되는 상반기 중에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
- 삼승: 노조조직률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여(전체 80명/조합원 24명) 사측 일방적으로 99년 3월말 각 부서별로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표 실시하여 취업규칙을 변경(내용: 99경총 임단협지침을 거의 그대로 적용함)하였으며 조합원을 제외한 전사원을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
- 창원공업: 99년부터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상정하지 않음) 과장급이상 사원에 한해서 실시할 계획
- 엘지전자: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전부서를 대상으로 99년중 실시할 계획
- 엘지LCD: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전부서를 대상으로 99년중 실시할 계획

3) 연봉제 실시사례

① 현대종합금속

가. 일반사항

- 인원: (전체인원:571명 / 조합원:401명)
- 위원장: 김도론
- 주생산품: 용접봉
- 소재지: 경북 포항시
- 노조설립일: 87. 8. 19

나. 도입시기: 1998년 5월 10일

다. 제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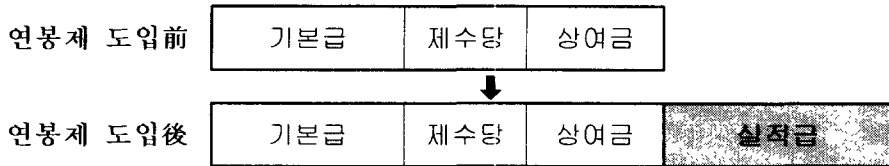
- 98. 5. 10 사측 실적성과급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함
- ※노조의 조직적 반발에도 사측 불이익한 임금체계의 변경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계속시행하고 있음

라. 도입배경과 목적

- 경쟁업체인 고려용접봉이 실적급체계를 도입하면서 생산량이 증대됨
-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의 이행

마. 연봉제 유형: 실적급(차등성과급제)

- 적용범위: 생산2부 근처부서(용접봉 마지막 가공생산 공정, 28명)에 적용시켜 실시하고 있으며, 시측은 생산3부까지 확대하여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기존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노동자가 생산한 물량분 만큼 차등을 두어 실적급을 지급함.



실적급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서인원이 감소(도입전:28명→도입후:20명/ 8명은 타부서 전환)하였으나 생산량은 오히려 도입전보다 증가함. 이에 따라 임금 또한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바는 없으며 (임금감소시 실적급제도에 대해 노동조합과 재차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않음

바. 노조 대응활동

- 홍보사전활동 전개: 실적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이를 이유로 회사가 노조 위원장, 사무국장을 유언비어 유포로 징계함)
- 설문조사: 해당부서 조합원 98%가 실적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함 (현재는 입장이 절반정도씩 각기 다르게 나타남: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속:반대, 단기근속: 찬성)

② 경보전기

가. 일반사항

- 인원: (전체인원:70명 / 조합원:38명)
- 위원장: 송제관
- 주생신품: 공업용 변압기, 메터, 차단기
- 소재지: 서울 성수동
- 노조설립일: 91. 4. 12
- 조합가입범위: 생산기능직, 대리까지 포함

나. 도입시기: 1998년 5월

다. 제기과정:

- 98. 5월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 임금삭감, 연봉제 실시를 주장함

-임금 총액대비 월급직 50%, 시급직:40% 삭감

(이로 인하여 50여명의 조합원 자연퇴사)

-연봉제는 전직원의 반대로 무산

- 98. 8월 차장급 이상의 관리자에 한해서 연봉제로 전환

- 99. 2월 영업직 대상으로 회사 일방시행함

※노조 반발로 영업직 시행은 철회된 상황이지만 완전철회가 아닌 일시적 후퇴에 지나지 않음

라. 도입배경과 목적

- 구조조정차원에서 임금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임금삭감과 함께 연봉제 제기됨)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마. 연봉제 유형:

- 적용범위: 차장급 이상
- 근로계약: 1년단위
- 연봉구조: 기본연봉(기본급+제수당+상여월할)+퇴직금+변동수당(연월차수당 등)
- 연봉결정: 개인별 차등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임의로 결정)
- 퇴직금: 97년말 기준으로 지급(중간정산)하고, 매월 정산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함

바. 노조 대응활동

영업직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 연봉제 도입(연봉제 도입하면서 임금 10%인상)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피력하면서 사측 이를 철회함. 그러나 연봉제를 완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면에 잠긴 것으로 판단됨.

③ 엘코코리아

가. 일반사항

- 인원: (전체인원:107명 / 조합원:54명)
- 위원장: 김진태
- 주생산품: 콘넥터(전자부품) ● 소재지: 서울 금천구 구로공단내
- 노조설립일: 94. 4. 17 ● 조합가입범위: 생산기능직, 대리까지 포함

나. 도입시기: 1999년 상반기중

다. 제기과정:

- 99. 3월초 조례시간 사장발표로 일방적 제기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98. 3월중 노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여 문제지적함

라. 도입배경과 목적

- 사측주장: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사고과 반영형태의 일환이지 임금체계의 변경이 아님
- 성과주의 임금체제로 이행
- 인건비 삭감, 관리(사실상 성과상여금의 소멸을 의미함)
- 인사고과 적용대상으로 작업장 통제강화

마. 연봉제 유형: 차등성과급제도

- 적용범위: 전사원
- 연봉구조: 매출이익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성과상여금을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함
- 성과급 결정: 개인별 차등을 두어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함

연봉제 도입전		연봉제 도입후
매출이익 발생에 따라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한도내에서 지급함	→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
		A: +40%
		B: +20%
		C: 0%
		D: -20%
		E: -40%

바. 노조 대응활동

사측 2~3년전부터 인사고과체계 변형을 거론하며 이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차등성과급제도를 인사고과 반영의 형태로 주장하고 있음(인사고과는 회사 고유권한이므로 노조와 합의할 필요가 없음)

이에 노동조합은 성과상여금이 단협에 기재되어 있고 매년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바 이를 은혜적 금품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노조와 사전에 합의없이 시행하는 차등성과급 제도는 무효임을 피력함. 사측의 차등성과급제도는 임금체계를 완전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

4) 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영향

① 노동조합 무력화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간의 단결에서 비롯된다. 연봉제는 노동자의 업적이나 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임금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를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어 얼마든지 자본가들의 편의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둘 수가 있다. 따라서 연봉제는 노동자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화시켜 작업장내 노동통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집단문화를 저해하게되어 중국적으로는 조합원간의 단결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

노동조합의 갖는 최대의 무기는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다. 연봉제는 개별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단체교섭권이 무력화 되면 파업권 또한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모두 상실한 사태에서 껌데기만 남게된다.

②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심화

완전연봉제나 차등성과급제도나 마찬가지로 연봉제는 인건비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다. 몇몇 기업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초기에 있을 수 있는 구성원들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임금총액규모를 인상하지만 차츰 이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결국, 연봉제는 인건비 전체규모를 동결 또는 삭감한 상태에서 개별화된 계약관계와 경쟁논리로 임금을 배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봉제는 그 평가기준인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임금이외에도 승진, 승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열등한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③ 초과수당의 미지급

연봉제가 정착되어가면서 연봉외 급여가 점차 연봉액으로 흡수되어지면 그만큼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짐.(만약 사용자가 연봉제가 정착되어짐에 따라 연간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고자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법상의 '전차금상쇄(근기법 제28조)'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임)

④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의 질 저하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과가 정해지고 이는 임금, 승진 등에 반영되어 지므로 개인간, 팀간 경쟁은 심화되어질 수밖에 없어 개인의 노동강도는 자연스레 증가하고, 고과평가를 의식한 결과위주의 업무처리로 인해 노동의 질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산업안전보건활동

- 평가 및 개선방향

<교육활동>

1. 산업안전보건일꾼 교육
2. 산업안전보건 국제세미나

<조사활동>

안전보건실태조사

<일상활동>

1. 산재노동자 후원활동
2. 단위노조 작업환경측정 지원

평가 및 개선방향

97년말 IMF사태이후 자본과 지배권력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 고용불안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은 또다시 경제성장에 밀려 값싼 비용으로 치부되어 정체와 후퇴를 거듭해왔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이유로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단협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어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지난 1년간 연맹 산업안전보건활동은 고용안정, 체불임금 정산, 부당노동행위 대응 등 절박한 처지와 조건에 집중된 대응 및 지원활동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제기하기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지 못하였다.

단,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전개하여 이에 대한 단위노조 차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국제금속노련과 금속산업연맹이 공동으로 안전보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여론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입문한 단위노조 담당간부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단위노조간 연대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단위노조 안전보건일꾼 교육을 실시하였다.

뿐만아니라 현장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안전보건활동의 기초로 삼기위한 작업환경측정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은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측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진행되었다.

99년도는 그 동안 노동조합 역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이지 못했던 산재노동자 지원활동을 연맹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였다. 지역본부의 추천을 받아 모두 16명의 산재조합원에게 연말에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1년간 연맹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과거의 일률적이었던 교육중심의 활동을 탈피하여 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부각시키고 지원하는 입체적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먼저, 경제위기이후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중요성이 퇴색하면서 중심부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아직까지도 산재예방측면보다는 재해보상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 역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맹의 산업안전활동은 2000년도 역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주체마련을 위한 조직활동의 과제와 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99 산업안전보건 입문 교육

- (1) 일 시: 1999. 8. 31 ~ 9. 2
- (2) 장 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3) 참석인원: 총 33개 노조에 47명 (별지 참조)
- (4) 목 적:
 - ▶ 단위노조 산안간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산안활동의 기초 제공
 - ▶ 산재예방을 위한 연맹활동의 일환으로 금속산업의 유해위험요소 습득
 -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방향을 모색 및 공유하는 기회 제공
 - ▶ 단위노조간의 산안활동 교류 및 연대의 기회마련
- (5) 일 정:

8월31일	13:30 ~ 14:00	등록
	14:00 ~ 14:30	개강식
	14:30 ~ 16:30	(강의1)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산재추방운동연합 박정순 실장
	16:30 ~ 18:00	(강의2) 산재보상의 실제와 관련법 해설
		- 홍익노무법인 박천조 노무사
	18:00 ~ 19:30	석식
	19:30 ~ 21:00	단결의 밤 - 연맹 문광주 부위원장
9월 1일	7:00 ~ 7:30	기상 및 세면
	7:30 ~ 8:00	아침식사
	8:00 ~ 8:30	교육준비
	9:00 ~ 10:00	자기소개 및 단위노조 안전보건활동 발표
	10:00 ~ 12:00	현대전자 방문 견학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5:30	(강의3) 안전·보호구 취급 및 사용 - 3M
	15:30 ~ 16:30	(강의4) 노총의 산업안전보건활동과 방향
		-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이인제 본부장
	16:30 ~ 18:00	(토론) 금속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와 노조활동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분임토의
9월 2일	9:00 ~ 11:00	분임토의 발표 및 전체토의
	11:00 ~ 12:00	평가 및 증강식
	12:00 ~ 13:00	점심식사

교육생명단

노 조 명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한국철강	부위원장	김봉운	경남 창원시 신촌동 70	0551)296-8798
	산업안전부장	표갑도	경남 창원시 신촌동 70	0551)231-2917
동양철관 충주	부지부장	이명식	충주시 교현2동 623-24	0441)853-3131
대부기공	조사통계부장	권순덕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12-2	0561)746-9491
	대의원	김경한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12-2	0561)746-9491
두원중공업	사무국장	오삼석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650	0593)851-2191
대일공업	부위원장	김용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216	052)264-8460
적고 김해	산업안전부장	김순호	경남 김해군 진영읍 죽곡리 1-4	0525)342-5478
LG전자 오산	조직부장	최홍수	경기 오산시 원4동 99	0339)374-2294
범양냉방	복지후생부장	양승구	경기 군포시 금정동 689-4	0343)452-5701
두산포장제관	산업안전부장	정수환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8-1	0336)639-3314
	복지부장	박재한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8-1	0336)639-3314
대한전선 영주	산업안전부장	황태석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2-11 4/4	0572)630-7460
	선전홍보부장	손성호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2-11 4/4	0572)630-7460
동유물산	교육부장	김인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꽃무늬a 101-603	0446)878-4476
대우전자 구미	안전부장	김강률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8	0546)467-7961
	안전차장	장세현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8	0546)467-7961
	안전차장	심경석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8	0546)467-7961
로움코리아	부위원장	강승규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42-2	02)939-3437
	산업안전부장	조영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42-2	02)939-3340
세아제강	복지부장	유두운	포항 장성동 대림골든빌107-1602	0562)271-4390
LG산전 서울	쟁의차장	김성원	서울 영등포 문래동 한중B 5층	02)2006-3575
성광벤드	산업안전부장	조증래	부산 사하구 신평동 520	051)203-5728
한보부산제강소	안전부장	남원선부	부산 사하구 구평동 90	051)262-3707
	복지부장	김유현	부산 사하구 구평동 90	051)262-3707
대우전자 광주	산업안전부장	고재수	광주 광산구 신가동 874-6	062)950-8961
삼화제관	여성복지부장	박광석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2	0333)665-4088
	회계감사	원유택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2	0333)665-4088
LG산전 인천	산업안전부장	조국현	인천 남구 주안동 1385-1	032)870-5062
	부지부장	임윤기	인천 남구 주안동 1385-1	032)870-5062
집팩코리아	산업안전부장	곽동학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산136-1	0336)639-8996-8
	산업안전차장	김미현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산136-1	0336)639-8996-8
한국시그네텍스	여성부장	지순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2	02)3661-6619
	복지부장	김춘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2	02)3661-6619
새론오토모티브	사무국장	장재성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천리306-1	0417)560-4688

동원금속	산업안전부장	정우열	충남 천안시 성정동 97-6	0418)530-3198
LG산전 천안	산업안전부장	김용선	충남 천안군 목천면 삼성리 181	0417)550-8162
한국열교환기 전주	산업안전부장	이동필	전북 정읍시 하북동 2공단	011-651-3887
로케트전기	산업안전부장	김동현	광주 북구 양산동 758	062)571-5951
화신	산업안전부장	김명수	경북 영천시 언하동 412	0563)330-5251
대한전선 안양	산업안전차장	김중식	안양 동안구 부흥동 은하수@307-1002	0343)422-5166
대한전선 시흥	산업안전차장	김종식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19	02)890-9307
대한전선 안산	산업안전부장	엄세종	경기 안산시 월티동 516-3	0345)490-5291
대선조선	산업안전부장	배창호	부산 영도구 봉래동 4가 12	051)416-4824
	총무부장	임금택	부산 영도구 봉래동 4가 12	051)416-4824
풍산	산업안전부장	김태준	울산 남구 선암동 풍산사택 2-605	052)266-1652
	산업안전국장	오길상	울산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611	052)239-0091

2 산업안전보건 국제세미나

- (1) 주 제 :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
 (2) 일 정 : 2000년 3월 29일(수)~31일(금), 2박3일
 (3) 장 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서초구 양재 소재 ☎5269-323)

(4) 진행배경

- ☞ 95년도 IMF에서 제안한 한국 양금속조직 공동사업으로 여성워크샵, 산업안전세미나가 제안되었음
- ☞ 여성워크샵은 97년 개최되었으나 산업안전세미나는 98년, 99년 개최기로 하였다가 계속 연기되어 2000년 3월에 이르러 개최되게 되었음

(5) 목적

- ☞ 금속 양조직간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을 전개
- ☞ 경제위기이후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후퇴, 정채등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
- ☞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정책(구조조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영향과 구구제연대 모색

(6) 참가국가

147 지난 1999년 2월 한국(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측에서 참가를 요구한 국가는 스웨덴, 독일, 덴마크, 영국, 브라질이었으나

148 세미나에 참석한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등 2개국이며,

149 해외 참석자: IMF 국제국장(셀렉슨),
스웨덴 2명(국제부장, 안전부장/야콥슨, 린든),
덴마크 안전부장(브라이시만) 등 총 4명

(7) 한국측 참석자

150 양 금속조직 산하 단위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간부 (조직당 10명씩 총 20명),

우리연맹 참석자 명단

노조명	직책	성명	노조명	직책	성명
연합철강	산안부장	정상봉	기아특수강	명예감독관	하헌준
대선조선	명예감독관	배창호	LG오티스	산안부장	김성용
대우전자	산안부장	고재수	새론오토모티브	명예감독관	장재성
한국노총	전문위원	이미원	화신	명예감독관	윤영필
			금속연맹	산업안전국장	정문주

(8) 프로그램:

3/28 (화)

17:00~18:00 준비모임 (연맹 / 조직 참석자 세미나 안내)

18:00~19:00 저녁식사

19:00 숙소이동

3/29 (수)

10:00~11:00 개회식 (각 조직 대표 연설 및 참가자 소개)

11:00~11:30 발제1) 고용안정투쟁 집중시기에 노동자 건강권 확보투쟁 방안 (덴마크)

11:30~12:30 질의응답

12:30~14:00 점심식사

14:00~14:30 발제2) 구조조정으로 작업장에서 위축되어 가는 산업안전보건 예방
사업 강화를 위한 노조 전략 (스웨덴)

14:30~15:30 질의응답
 15:30~16:00 휴식 (coffee time)
 16:00~16:30 발제3) 구조조정과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와 자본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변화 (한국)
 16:30~17:30 질의응답
 18:00 환영만찬

3/30 (목)

09:00~12:00 종합토론1) 작업장에서 위축되어 가는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노조 전략
 12:00~14:00 점심식사
 14:00~17:30 종합토론2) 고용안정 투쟁 집중시기에 노동자 건강권 확보투쟁 방안
 18:00 송별만찬

3/31 (금)

10:00~11:00 공동결의문 채택과 기념촬영 (폐회)

◎전체사회: IMF 본부 참석간부

세계 금속노동자의 건강권, 생명권 확보를 위한 공동결의문

국제금속연맹(IMF) 산업안전보건세미나 개최에 즈음하여

지금 전세계는 신자유주의를 기치로한 자본의 초국화, 국제화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민중들은 굴종과 억압의 삶을 강요받고 있다. 이른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신자유주의노선은 정글의 법칙에 따른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을 촉진시켜가고 있으며, '세계화의 덫'은 빈부격차를 확대시켜 20:80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삶은 더욱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또한 땅끝까지 추락하고 있다. 20세기가 전쟁과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과 인간존엄의 시대였다라면 21세기는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통제와 착취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리가 지배권력의 국가논리나 전체주의에 밀려 방황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소중히 다루어져야할 노동자의 건강권, 생명권이 또다시 자본논리에 밀려 생산을 위한 값싼 비용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국제금속노련 2000만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권리쟁취와 세계의 진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대와 단결의 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자본에 대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배권력과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고용불안, 임금감소, 건강권 및 생명권의 침해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오늘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세미나 참석자들은 세계 평화와 자유, 평등한 21세기, 새천년, 새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우리는 자본과 노동을 종속적 관계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대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확대하기 위하여 연대와 단결의 장을 넓히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1. 권력과 자본가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1. 지배권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1. 금속연맹과 금속산업연맹은 공동교육사업을 비롯한 각종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확대시켜 나간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이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보장되도록 적극 투쟁하며 양연맹은 법에 조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

2000년 3월 31일

국제금속연맹 산업안전보건세미나 참석자 일동

< 조사 활동 >

1.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1) 취지와 목적

중대재해 및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노총과 연맹이 중점관리·지원(안전보건 실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과 개선, 안전 점검 등)하므로서 사업장내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강화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 중대재해 및 산재 다발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파악 및 지원
- ▶ IMF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부도,워크아웃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활동 지원
- ▶ IMF를 전후로한 사업장내 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함
- ▶ 노총과 연맹의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활동 강화
- ▶ 작업환경측정 등 일상적인 현장지원활동에 대한 매개고리 마련

(2) 일시: 8월 18(水)~21일(土)

(3) 방문조직 선정기준

산재발생 빈도가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내 사업장(조선,철강 사업장 중심)과 부도, 워크아웃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함

(4) 방문지역 및 사업장

부산: 한보부산제강소, 강남, 대선조선, 한국주철관

경남: 한일제관

충남: 세론오토모티브(부도), 동양철관(워크아웃)

방문일정

18(수)	19(목)	20(금)	26(목)
대선조선	한보부산제강소 강남	한 국 주 철 관 한 일 제 관	세론오토모티브 동양철관

(5) 방문내용: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조사 및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

① 면접조사내용 (별첨 조사지 참조)

■ IMF를 전후로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조의 대응과 전략은?

※ 면접조사는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간부 또는 위원장, 사무국장 등과 진행하며 조사지 별도 준비하고, 방문노조에서는 건강진단 종합결과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규정을 준비하여야 함

② 작업장 안전 점검

해당 노조 담당자, 노총 산안본부, 연맹 실무자가 동행하여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함
(안전보건 종합 점검표 준비)

(6) 방문자

노총 산업안전본부 윤여건 위원 등
금속연맹 교육선전국장 정문주

(7)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서 (경제위기와 노동자의 건강)

노조명:

조합원수:

주생산품:

1.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변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산업안전보건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 귀 동지께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중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모두 서술해 주십시오. (예)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환자 강제퇴원 조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축소, 안전·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축소·폐지

2) IMF이후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변화가 노동자 건강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본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경제위기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의 인원조정이 단행되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노동조합활동도 고용안정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IMF를 겪으면서 최근 2~3년동안에 회사의 안전보건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또는 다른업무와 병행토록 함

2) 회사의 안전보건상의 변화가 있은후 산재(공상포함)발생은 어떻습니까?

<연도별 산재발생추이>

1997 1998 1999. 7월말현재까지

3) 귀 동지께서는 회사의 안전보건상의 변화가 노동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변화 및 현황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은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활동으로서 80년대 말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이후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차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말 구제금융사태를 겪으면서 노조활동의 중심이 '고용안정'으로 맞춰지면서 '산업안전보건'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귀 노조의 활동중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우선도를 매긴다면 IMF이전(97년 11월 이전) 노조활동의 우선순위는?

()→()→()→()→()→()→()→()

① 임금인상 ② 고용안정 확보 ③ 노동시간단축

④ 경영참가 ⑤ 산업안전보건 ⑥ 정치활동

⑦ 복지향상 ⑧ 교육,훈련 ⑨ 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통합

⑩기타()

2) 현재 귀 노조활동의 우선순위는?

()→()→()→()→()→()→()→()

3)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향후 노조활동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

4) 귀노조의 산업안전보건 사업 1년 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과 액수는?

()%, ()원

〈일상활동〉

1. 산재노동자 후원활동

(1) 취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작으나마 복지사업 이익중 일부를 지원하여 따뜻한 격려와 정성을 불어넣고 동지애를 싹트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총 3,100,000원(올해 복지사업본부에서 출연 가능한 액수)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심사를 거쳐 추천된 산재조합원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함
(추후, 복지사업 성과가 높을 경우 추가지원도 가능함)

(3) 지원대상 선정원칙

- 현재 산재를 입어 요양 치료중에 있는 가맹노조의 조합원
- 장해등급, 부양가족 규모, 재산정도, 소득 수준(장해급여 감안)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조합원을 우선 지원함

(4) 심사방법

- ▶ 각 지역본부별로 별도의 협의를 거친 뒤 지원대상 선정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한 뒤
- ▶ 연말에 산재조합원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함

(5) 산재조합원 현황 및 지원자 보고

- ▶ 지역본부는 해당지역내 산재조합원 현황과 지원자 내역을 연맹으로 11월 30일까지 별첨 보고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 ▶ 보고 직후 지원금액을 지역본부에 전달함

(6) 위문·지원시기:

지역본부 자체에서 결정 가급적 연말 (성탄절이나 연말에)

(7) 산재조합원 지원자 현황

지역	노조명	성명	요양기간	장해부위 및 상태	지원금액
전남	화천기공	이재형	99.8.2~현재	눈망막박위(과열)	20만원
인천	삼성공업	임광순	99.6.25~현재	3,4,5번 수지 절단	20만원
	청우공업	이국주	99.8.28~11.30	4,5번수지 제1관절 1/2절단	20만원
	도투락	이유순	98.11.6~현재		20만원
울산	풍산	안두희	99.11.17~현재	손가락 절단	20만원
	고려아연	김도한	99.2 ~현재	눈동자화상	20만원
	LG-nikko동제련	김부열	99.9~현재	허리디스크	20만원
	진도	조영환	97. ~현재	허리요추	20만원
	동희산업	김석근	99.12.17~현재	허리디스크	20만원
	동희산업	차갑석	99.10~현재	갈비뼈3골절	10만원
전북	기아특수강	이기연	98.11.20~현재		20만원
충남	환영철강	김동구	99.6~현재	악성늑막종양	20만원
	동일알미늄	이찬규	98.5.29~현재	급성복막염, 골반골절, 대장파열, 동맥손상 등	20만원
	새론오토모티브	양윤모	98.12.10~현재	우측 두 개골 함몰, 시력장애	20만원
	화승공조	구교일	97.2.28~5.28	손가락 약지중지 마디끝 절단	20만원
	윤영	최규남	99.12.26~	허리디스크	20만원

(8) 기금전달 방법

지원자 수가 많은 울산본부는 직접 방문하여 본부에 전달하고, 인천본부의 경우도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직접 방문 전달토록 함. 이외 지역의 경우 온라인 계좌이체로 전달함

■ 인천본부 (3명)

27일 오후 18시부터

지역본부에서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인천금속 송년회때 직접전달하길 희망함

■ 울산본부 (5명)

28일 지역본부 방문하여 전달함 (병원 방문 14~15시)

■ 전남본부 (1명)

27일까지 입금 (계좌번호: 광주은행 100-107-305988 김웅표)

■ 충남본부 (5명)

(계좌번호: 농협 483810-51-000205 유기준)

■ 전북본부 (1명)

(계좌번호: 주택은행 752202-93-117993 유동원)

2 단위노조 작업환경측정 지원

(1) 기 간: 연중

(2) 정기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 연합철강, 대우전자 광주, 구로, 구미, 인천, 주안, 특산공장
 대우전자부품, 한국번디오산, 광주, 시그네틱스, 적고, 한보철강
 기아특수강, 경신전선, 동신평강 등

(3) 사업장별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지역	노조명	측정대상물질
경기	한국번디 오산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부산	적고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전남	한국번디 광주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충남	경신전선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경기	동신평강 기흥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포항	동신평강 포항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전남	서울차체 광주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전남	서울차체 하남	소음
전북	기아특수강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부산	연합철강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서울	시그네틱스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부산	한보철강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전남	대우전자 광주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인천	대우전자 인천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인천	대우전자 주안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서울	대우전자 구로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구미	대우전자 구미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구미	대우전자 특산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특화물

교육선전활동

○평가와 개선방향

1.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2. 한국노총중앙교육원 위탁교육
3. 단위노조 임원교육
4. 단위노조 상집간부교육
5.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교육지원
6. 정보통신교육
7. 전국노동조합대표자대회
8. 단위노조 교섭위원,쟁의부장 교육

평가 및 개선방향

교육선전활동은 노동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공유하고 훈련시켜 단결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선전활동은 노조활동중 일상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교육대상과 주체에 따라 그 수준과 내용을 달리 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지난 1년간 교육선전국에서는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단위노조 임원교육, 단위노조 상집간부교육, 정보통신교육, 전국노동조합대표자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노총중앙교육원 위탁교육, 단위노조 및 지역본부 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99년도에 실시한 교육은 그 대상주체의 폭이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연맹 임원,의장을 대상으로하는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단위노조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원교육, 단위노조 상집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집간부교육, 가맹노조 전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노동조합대표자대회가 그 교육수혜대상을 달리했다.

또한, 정보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교육을 개최하여 현장간부의 정보마인드를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연맹의 교육선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집행 예산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추진이 불안정하다. 외부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는한 실제로 교육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99년도 노조운동의 과제로 제기되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등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못했다는 한계적인 측면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향후 교육선전활동에 있어 주요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배치, 중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장간의 차별성있는 분할교육 등이 반영되어야 할 줄로 사료된다. 더불어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계획성있는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

1.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1) 목적

구제금융사태이후 실질임금의 하락과 고용불안은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운동이 침체와 후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현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 **조직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조직에 전파하므로서 **새로운 조직운동의 상을 확립**하고자 함

2) 장 소: 수안보 한화콘도

3) 일 시: 1999. 7.8(목) ~ 9(금)

4) 참가대상: 연맹 임원, 지역본부 임원 및 상근간부, 연맹 상근 집행위원

5) 일정표

7월 8일	11:00 ~ 11:30	등록 및 방배정
	11:30 ~ 12:00	개강식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강의1)경제현실과 노사단결의 중요성 - 노동교육원 원장
	14:00 ~ 15:00	(강의2)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방향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 특강
	15:00 ~ 18:00	조별 분임토의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조별 분임토의(계속)
7월 9일	8:00 ~ 8:30	기상 및 세면
	8:30 ~ 9:00	아침식사
	9:00 ~ 11:00	분임토의 발표 및 전체토의
	11:00 ~ 12:00	(강의3) 노동운동의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활동 -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해산

6) 분임조 구성 및 토론 주제

<제 1 분임>

(연맹) 정창영 부위원장, 이진우 조직본부장, 장석춘 부위원장(엘지전자 위원장)
박병용 부위원장(대창단조 위원장), 강영철 부위원장(엘지반도체 위원장)
(서울)김형식(대한전선 시흥지부장), 유재봉(청우공업 위원장)
(대구경북)김무호 의장 (포항)강학중 의장 (인천)박창옥 부의장, (전남)김용표 의장
(울산)김우배 의장 (안산)조재천 사무국장,
(부산)최창대부의장, 권동재 부의장, 정운국 부의장

토론 주제1) 상하조직내 역할과 강화 방안

사회: 정창영 부위원장 발제: 이진우 본부장

<제 2 분임>

(연맹)최용길 지도위원, 이병균 사무처장, 박현미 홍보부장,
김영철 부위원장(노충 여주이천지부장), 도정복 부위원장(엘지전선 위원장),
(서울)신성균 의장, 정해광(롯데전자 위원장) (대구경북)장지태 지도위원
(충남)강한우 의장, (부산)황대선 부의장, 문정도 부의장, (전북)정한수 사무국장,
(포항)권택봉 부의장 (인천)김재업 부의장 (울산)조동형 부의장 (안산)이병욱 의장

토론 주제2) 산별노조 건설의 가능성과 이행방안

사회: 이병균 사무처장 발제: 박현미 홍보부장

<제 3 분임>

(연맹)김순호 부위원장, 윤창렬 정책본부장, 김홍룡 노사대책국장,
황창배 부위원장(인천노총 의장), (서울)서창호 교육부장, 서갑순(한국특수공구 위원장)
(대경)김춘중 부위원장 (부산)차윤환 부의장, 변진섭 부의장, 양재권부의장
(포항)백종부 포항노총지부장, (인천) 손종홍 의장, 김현섭 기획실장 (울산)장수길회계감사
박광원 부위원장(대덕전자 위원장), (경기)하영일 의장, 김만재 부위원장(현대전자 위원장)

토론 주제3) 조직대상(사무관리직)확대와 무노조 기업의 접근방법

사회: 김순호 부위원장 발제: 서창호 서울본부 교육부장

<제 4 분임>

(연맹)문광주 부위원장, 정문주 교육국장, 허원 부위원장(챗팩코리아 위원장),
최혜경 회계감사(한국중천 위원장), 지수식 부위원장(삼영전자 위원장),
변재환 부위원장(엘지 엘씨디 위원장) (서울)김중화(한국음향 위원장)
(대구경북)서운배 사무국장 (부산)이형연 부의장, 이재섭 사무국장,
(포항)양성종 사무국장 (인천)허규선 교육부장 (울산)문성일 회계감사

토론 주제4)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사회: 문광주 부위원장 발제: 정문주 교육국장

7) 토론결과

주제1) 상하조직내 역할과 강화 방안

현황:상급단체의 권한이 부실하며 재정구조 취약하다. 기업별 조직체계와 관계있다. 또한 현재 간부중심의 노동운동이 되고 있는데 자기훈련노력이나 간부자체의 역량도 부족하다. 조직의 관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임단투에 매몰되는 활동도 고쳐야 한다.

과제:재정자립문제 큰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다. 조합비 징수방법 등도 검토. 지방에서도 규모있는 대회 개최해서 지방조직 활성화에 기여. 지역본부 활성화 통해 지역본부에서 뭔가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의원배정도 단사까지 확대해야. 정보교류 통해 참여의 폭 넓어질 것. 산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단사에서는 맹비남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복수노조에도 대비해야. 대표자체육대회 등 통해 연대교류 확대하자

주제2) 산별조직 건설가능성과 이행방안

산별노조 장애물은 노조간부 자신

산별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노조간부들 자신이라고 지적됐다.'산별이 되면 내 자리는?' 이 의문과 함께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산별전환을 내심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간부 스스로가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산별은 요원한 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노동운동의 대의상 산별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변여건을 들먹이며 산별이 어렵지 않겠느냐, 혹은 많은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자신있게' 강조하면서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는 물론 조합원들이 산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다. 조합원 의식수준이 낮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그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간부자신들조차 산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좀 알고 있는 간부들조차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 또한 많지 않았다.

연맹 또한 산별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우리 금속노동자들을 위한 혹은 한국실정에 맞는 산별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어야 할 것인지 연맹차원에서 산별관련 정책을 내놓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산별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 되는 데서 나아가 조합원이나 간부들을 상대로 산별에 대한 정확한 내용 특히 단점들도 솔직하게 알려주고 교육시켜 나갈것이 주문됐다.

주제3) 조직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직 확대대상은 사무관리직, 비정규직, 미노조 사업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기존 노조규약에서 단협에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사무관리직이 들어올 경우 조직력 약화나 내부분열 등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다. 그러나 사측과 충분한 협의하에 인사관리체계, 임금체계(예;단일호봉제) 등을 정비해 조합원칙에 근거해 운영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청, 도급업체, 소사장제의 조직화는 원청 등 사측의 방해가 심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역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지역내 연대투쟁을 통해 성과물을 쟁취한다고 해도 해마다 재계약하는 입장에서 다음해에 원청 등 사측이 계약을 파기하면 실직할 우려가 높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정치세력화와 제도개선투쟁뿐이라고 지적됐다.

무노조기업의 조직화는 대기업의 경우 지역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소기업은 대상 인원이 적어 전임자 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우며 더욱이 사측은 물론 노동자들조차 노조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소조직은 지역차원에서 조직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전임자 임금과 노조활동보장은 노조결성시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직확대시 문제점

① 사무관리직의 경우: 기존 노조규약에서 단협에 조합원 범위 제한

현장중심의 노조운동인데 조직력약화나 내부분열우려. 갈등요인 잠재 사측과 충분한 협의로 회사, 인사관리체계, 임금체계(예;단일호봉제) 등 정비, 조합원칙에 근거해 운영하면 가능할 것.

② 하청, 도급업체, 소사장제

사측이 하청업체 ..

소사장제나 도급업체, 소사장제 등은 지역노조 전환통해 가능.

지역내 연대투쟁 해마다 재계약, 투쟁으로 마무리해도 다음해에 계약파기하면 실직.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정치세력화와 제도개선투쟁이다.

③무노조기업

대기업, 지역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소기업은 대상인원이 적어 전임자 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사측은 물론 노동자들도 노조필요성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소조직을 조직화하는 방법은 지역노조식으로 활성화시키자. 전임자 임금은 노조결성시 단체협약에 노조활동시간 확보

지역이 구심이 돼서 조직확대해야. 사실상 지역본부가 제역할 하기 힘든 상황. 조직확대는 조직운동의 원칙이다.

주제4)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방안

조직을 하략에 대한 대안은 기업노조 중심의 조직화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 다양한 노동자 집단별 조직화

① 기업노조 중심 조직화 시각의 극복

- 현재 조합원이 아닌 다양한 노동자들의 특성

노조 유무: 무노조 기업의 노동자

고용형태: 비정규 노동자

기업규모: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산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노동자

직종: 일반 사무직, 판매 영업직, 단순노무직

여성 * 연령: 청년층?

- 이들의 중복되지 않는 규모는 약 1,100만명(조직 노동자를 150만으로 잡을 때). 그러나 이들이 비 조합원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공통성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조직화는 기업노조 중심의 조직화가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방식이어야 함.

② 조직 대상의 확대

비정규 노동자의 속성 -> 조직사업에서 고려할 점

▲ 취업과 실업의 중간형태 및 반복 ->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혹은 가계 보조 소득-> 경제투쟁<제도개선투쟁의 필요성

▲ 기업이 아니라 지역>업종별 편제 -> 지역별 조직단위의 필요성

▲ 다양한 업종, 직종, 연령, 학력 ->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편제

▲ 다양한 임금 및 근로조건 -> 법률 구제 사업의 필요성

▲ 자생적 조직 생성 및 유지 곤란 -> 위로부터의 조직화

▲ 군소조직으로 사회적 영향력 결여 -> 조직통합 등 규모의 경제 필요

③ 실질적 조직 사업의 수행주체

-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 ▲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사업 -+
- ▲ 경제투쟁과 제도개선투쟁
- ▲ 지역별 조직사업
- ▲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편제 --> 노조 상급단체
- ▲ 법률 구제 사업
- ▲ 위로부터의 조직화
- ▲ 조직통합 등 규모의 경제 -+

④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시험적 모색

- ▲ 고용안정센터 설립-노사.정 취업알선망 및 직업훈련기관 연계
- 고용안정센터는 우선 한국노총 중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성과발견시 각 지역, 연맹단위로 확산시켜 나감
- ▲ 사이버 노조설립 지원: 직종, 업종, 지역, 기업노조 설립 지원 및 해당연맹 산하조직화
- ▲ 정규직 노동자 감소→비정규직으로 대체
노동조합 대응지침 마련(단협: 1) 비정규직을 일정기간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2) 외주,하도급시 노조와 합의
3)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인원 유지)
- ▲ 타겟사업장 설정하여 집중관리, 지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목표사업장을 설정한후 연맹 집중지도후 성과 발견시 전조직에 전파
- ▲ 지역노조 건설:
 - 현재 지역노조는 자생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건설일용노조, 제화노조)
 - 조직확대등 한계로 항시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상급단체(연맹, 지역본부)차원의 계획과 지도 관리를 통해 건설
- ▲ 이미 조직화된 노조내에서 여성노동자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도입
 - 가부장적 유교문화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할당제 (정부 공무원 고용할당제 30%)를 도입함
 -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내에서 먼저 교육시 30% 여성할당, 여성임원 선정, 대의원 할당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임

2.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위탁교육

1) 교육명 : 정기노조간부 교육

2)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교육기간: 3박4일

4) 목적

- ① 새천년에 부응할수 있는 노조간부 역할 인식의 제고
- ② 자율적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과 민주적 노사관행 정착화
- ③ 노동운동의 이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정예간부 육성
- ④ 노조간부의 자질향상과 지도력 개발로 건전한 노동운동의 토착화

5) 교육대상: 단위노조 신임간부 및 신규노조 대의원 이상

6) 교육일정표

기별	교육기간	배정인원	금속참석자	전체참석자
제 327기	1999. 4.27~4.30	50명	16	
제 328기	1999. 5.11~5.14	50명	17	61
제 329기	1999. 5.25~5.28	50명	16	58
제 330기	1999. 6.8~ 6.11	50명	21	100
제 331기	1999. 6.22~6.25	50명	24	107
제 332기	1999. 7. 6~7. 9	50명	29	150
제 333기	1999. 8.24~8.27	50명	41	111
제 334기	1999. 9. 7~9.11	50명	37	107
제 335기	1999. 9.14~9.17	50명	21	76
제 336기	1999.10.12~10.15	50명	39	131

7) 참고사항

- ① 지급품: 교재, 노트, 가방, 필기도구, 노총팻지, 단체사진 등
- ② 대여품: 연수복
- ③ 지참물: 간소복, 운동화, 세민도구, 체육복, 증명사진 1매
- ④ 교육참가비: 1인당 3만원

8) 교육과목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 / 노조간부의 자세 / 단체교섭의 전략과 기법 / 화의진행법 / 임금과 사회복지 /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해설 /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 / 노동문화 /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와 기업 경영분석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등

3. 단위노조 임원교육

1) 교육 취지

구제금융사태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급격한 조직률 감소는 노동운동을 침체와 후퇴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음. 특히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와 함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는 기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새로운 대안과 활동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현장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노조 임원으로 하여금 조직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대응을 모색하고 금속산업내 업종과 지역을 초월하는 공동체로서 연대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일 정: 1999년 10월 27(수) 11:00시 ~ 29일(금) 13:00시 (2박3일)

3) 장 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4) 교육내용

일정 시 간	10/27(수)	10/28(목)	10/29(금)
07:00~08:00		●●●●●● 아침식사 ●●●●●●	
08:00~08:50		●●●●●● 교육준비 ●●●●●●	
09:00~10:00		노동가요 배우기	그룹토론결과 발표, 종합토론
10:00~11:00		<강의3> 99임단투 특징과 과제 이원보 소장	
11:00~12:00	참가자 접수, 방배정	<강의4> 최근 노동관계법 해설	평가 및 수료식
12:00~13:00	●●●●●●●●●● 점 심 식 사 ●●●●●●●●●●		
13:00~14:00	개강식	하종강 소장 <강의4>계속	해산
14:00~15:00	<강의1> 한국노총 운동방향	<주제강의>노조 조직률 하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하대 윤진호 교수	
15:00~16:00	<강의2> 조승혁 목사	<그룹토론> 조직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16:00~17:00	참가자 소개		
17:00~18:00			
18:00~19:00	●●●●●● 저 녁 식 사 ●●●●●●		
19:00~20:00	단결의 밤	노동가요, 율동 배우기	
20:00~21:00		연대의 밤	
21:00~22:00	세면후 휴식		

5) 참 가 자: 단위노조 임원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감사 등)

참석자 현황표 참조

6) 예 산: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지원, 교육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7) 참석자 현황: 33개 사업장의 55명

노 조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금용기계	위원장	이상만	053)351-3081~7
	수석부위원장	권영보	"
	사무국장	이성관	"
	부위원장	김성범	"
남일전지	위원장	장 용	0331)232-0271
효림산업	위원장	김선호	011)809-0438
한국열교환기	지부장	정병택	0681)531-0188
	사무국장	백남태	"
동일제강	위원장	김원환	017)710-6374
삼협산업	위원장	박하성	018)503-4485
	사무국장	김형수	011)9596-0023
세방전지	지부장	조희권	017)604-4451
화천기어	위원장	김수복	011)9611-6800
신영금속	위원장	이수연	016)540-5120
	부위원장	김근수	016)529-5166
	조직부장	박호준	011)818-6383
칩팩코리아	사무국장	이상진	011)704-5283
	회계감사	김상곤	018)410-9587
대성셀텍	위원장	김한성	0431)273-6365
한국알미늄	위원장	강하석	019)495-3554
평화발레오	사무국장	최상수	053)589-9170
한국파워트레인	부위원장	임무택	053)583-4921
대한전선	부지부장	황기복	0343)422-5166
	조직부장	장병용	"
미주제강	위원장	손창두	032)866-5418
	사무국장	전광영	"
풍산	사무국장	김종철	052)231-9022
	사무장	이경호	"
대림통상	위원장	이영득	032)577-9072
천기제강	위원장	이은정	0661)752-2262
	사무국장	이상목	"

노 조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동양강철	위원장	오기순	011)9809-2085
	수석부위원장	구자관	011)458-9983
	사무국장	김현연	017)412-2085
대성전선	위원장	최경천	011)753-9288
맥슨전자	위원장	최종철	0431)261-1247
	사무국장	이진동	jcchoi@maxon.co.kr
동성금속	위원장	권순광	0414)742-8446
국제기계	위원장	김선중	0475)730-1212
	부위원장	서영도	"
	후생복지부장	정재연	"
대한제당	사무국장	박영석	032)770-1411
	조직부장	홍용화	"
금강공업	위원장	김종수	052)255-5470
대성정기	위원장	이규열	011)815-9743
	부위원장	장진호	"
	사무국장	김종구	"
삼화제관	부위원장	이행복	0333)665-4088
	부위원장	김하현	"
	사무국장	권오식	"
한국알프스	위원장	강대선	062)950-2040
사이스이천열병합	사무국장	김윤식	0336)631-5106
적고	부위원장	김미선	0525)342-5478
	사무국장	전정희	"
LG전선	위원장	도정복	0343)428-4551

4. 단위노조 상집간부교육

1) 교육 취지

단위노조 상집간부란, 각 부서(또는 국,실)부차장들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대신해 업무를 집행하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결국, 상집간부가 제역할을 충실히 하는 조직은 왕성한 활동과 함께 현장조직의 강화로 이어짐

본 교육은 경험이 많지않은 단위노조 상집간부들에게 각 부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인시킴으로서 활동범주와 세부방식 등의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는 있음

2) 일 정: 1999년 11월 24(수) 10:00시 ~ 26일(금) 13:00시 (2박3일)

3) 장 소: 롯데연수원

4) 참 가 자: 단위노조 상집간부 - 참석자 현황표 참조
(조직, 노사대책,쟁의, 조사통계, 홍보, 교육등 각 담당간부)

5) 일 정 표

11월 24일(水)

11:30~12:00	접수 및 방배정
12:30~13:30	점심식사
13:30~14:00	개강식
14:00~15:00	노동정세와 운동방향 (유재섭 연맹 위원장)
15:00~17:00	쟁점 노동관계법 해설 (노동교육원 선임 강사)
17:00~18:00	IMF(국제금융노련)의 소개와 활동 (IMF 동아시아 사무소장)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자기소개

11월 25일(木)

09:00~09:40	금속연맹 산별노조 추진계획 설명 (최종은 기획부장)
09:50~11:00	독일의 산별노조 현황과 특징 (황기돈 박사)
11:10~12:00	충남본부 부서별 연석회의 사례발표 (충남본부 관계자)
12:00~13:00	점심식사
13:00~18:00	부서별 시간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부서별 시간
20:00~21:00	단결의 시간

11월 26일(金)

09:00~11:00	노동자가 알아야할 경영분석 (윤종훈 회계사)
11:00~11:30	평가
11:30~12:00	종강식
12:00~13:00	점심식사 후 해산

6) 참석자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1	로움코리아	교선부장	이경화	02-8182-768
2	로움코리아	조사통계부장	윤길운	"
3	현대전자	조직부장	노형선	0336-630-4050
4	현대전자	조사통계부장	이인용	"
5	현대전자	편집차장	안주영	"
6	현대전자	문화부장	주현자	"
7	칩팩코리아	조직부장	김성현	0336-639-8995
8	칩팩코리아	쟁의부장	신진호	"
9	칩팩코리아	홍보부장	정영춘	"
10	칩팩코리아	조직차장	최호용	"
11	평화오일셀	조직부장	김형기	053-610-9279
12	세신	조직부장	김상고	"
13	두레에어메탈	교육홍보부장	김용각	0345-491-2211
14	두레에어메탈	조직부장	황선수	"
15	국제종합기계	사무국장	한상대	0475-733-8678
16	국제종합기계	조사통계부장	김세열	"
17	국제종합기계	조직차장	김용주	"
18	국제종합기계	교육부장	김규옥	"
19	국제종합기계	법규부장	차호영	"
20	한국열교환기	교육부장	최동하	0681-531-0770
21	풍성전기	선전부장	정귀임	02-3408-0821
22	풍성전기	여성부장	김은승	"
23	풍성전기	교육부장	김원태	"
24	남양공업	교육부장	윤여규	0345-494-2221
25	남양공업	조직부장	방제공	"
26	한국열교환기	조직부장	박국찬	"
27	FAG한화베어링전주지부	사무장	신동관	0652-210-5702
28	FAG한화베어링전주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준수	"
29	FAG한화베어링전주지부	교육부장	이윤택	"
30	동양강철	교육부장	박명우	042-605-8200
31	동양강철	법규부장	한상우	"
32	동양강철	안전부장	이형근	"
33	동양강철	청년부장	신의철	"
34	동양강철	조직부장	태기섭	"
35	동양강철	기획부장	류경구	"
36	동양강철	조사통계부장	임성택	"
37	금용기계	노사대책부장	한병희	053-351-3081
38	금용기계	문화부장	홍성도	"
39	동아정기	체육부장	홍석일	0334-672-2464
40	동아정기	교육부장	엄진수	"
41	LG전자	교선부장	유상기	0546-460-3852
42	LG전자	조사통계부장	변시환	"
43	LG전자	조직부장	최호찬	"
44	극동전선	부위원장	신충기	0434-530-2007
45	극동전선	조사부장	남상봉	"

번호	노동조합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46	한국파워트레인	조사부장	강봉구	053-584-3010
47	남양금속	조사통계부장	강중구	053-610-7600
48	남양금속	교육부장	임종규	"
49	대덕산업	산안부장	한영길	0345-481-8051
50	대덕산업	조직차장	고용남	"
51	대덕산업	여성부장	문옥순	"
52	범양냉방공업	부위원장	장용식	0343-452-5701
53	범양냉방공업	홍보부장	김천수	"
54	범양냉방공업	홍보부장	조용석	"
55	범양냉방공업	홍보부장	한용순	"
56	한일제관	조사통계부장	최오목	0331-222-2576
57	한일제관	편집부장	오성수	"
58	남일전지	위원장	강용	0331-232-0271
59	경원산업	조직부장	박영현	0339-374-4417
60	경원산업	교선부장	김진덕	"
61	LG산전	조사통계부장	한귀동	0431-261-6191
62	LG산전	후생복지부장	홍덕기	"
63	LG산전	조직부장	박일균	"
64	대한전선	사무장	이태수	0345-490-5291
65	대한전선	쟁의부장	차오현	02-802-5186
66	대한전선	교육부장	정봉환	"
67	대한전선	조직부장	윤병건	"
68	대농중공업	사무국장	박찬훈	0431-272-5845
69	대농중공업	후생복지부장	최재석	"
70	대농중공업	교육홍보부장	김병두	"
71	한성실업	조사통계부장	임채룡	0458-333-9370
72	한성실업	체육부장	양승호	"
73	한성실업	대의원	이봉태	"
74	두레에어메탈	편집부장	한태수	0551-261-3606
75	두레에어메탈	조직부장	지구환	"
76	두레에어메탈	조사통계부장	차계성	"
77	희성전선	조직부장	임승철	0652)212-1971
78	희성전선	조사통계부장	조원철	"
79	금강공업	조직부장	정용태	052-255-5300
80	금강공업	쟁의부장	황대영	"
81	동희산업	부위원장	김중학	052-277-0903
82	동희산업	편집부장	장오환	"
83	동희산업	조직차장	백철현	"
84	동희산업	대의원	정한욱	"
85	동희산업	대의원	이상진	"
86	동희산업	대의원	윤양희	"

번호	노동조합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87	삼화제관	조사통계부장	이우석	0333)665-4083
88	삼화제관	복지부장	박광석	"
89	로움코리아	조직부장	전병수	042-9393-437
90	로움코리아	교선부장	권화실	"
91	맥슨전자	조직부장	정남석	0431-261-1114
92	맥슨전자	문체부장	황정봉	"
93	맥슨전자	여성부장	홍미선	"
94	맥슨전자	홍보부장	박선옥	"
95	맥슨전자	조사부장	임은정	"
96	한국번디	조직부장	김선택	0333)663-1802
97	한국번디	후생복지부장	강영일	"
98	삼영전자	조직부장	황호근	0342-740-2369
99	삼영전자	교육부장	장재욱	"
100	삼영전자	법규부장	장기택	"
101	삼영전자	조사부장	백정협	0342-740-2369
102	도투락	교육선전부장	이운길	032-321-7407
103	대우전자	문체부장	이상민	0546-467-7961
104	대우전자	쟁의부장	김동성	"
105	부산주공	조직부장	박노성	051-327-3469
106	풍산금속	문화국장	김래용	052-231-9033
107	풍산금속	쟁의부장	최병원	"
108	화신공업	쟁의부장	정찬일	032-581-7141
109	경신공업	조직부장	조호덕	0561-776-9816
110	경신공업	조사통계부장	임동호	"
111	대우전자	법규부장	최호선	032-880-5079
112	대우전자	쟁의부장	김기천	"
113	대우전자	조사부장	이회현	"
114	삼주기계	부위원장	이중화	052-264-0511
115	삼주기계	회계감사	박재명	"
116	삼주기계	총무부장	전형빈	"
117	대우통신	사무국장	오명석	032-580-3191
118	대우통신	사무장	홍승선	032-690-5191
119	동성금속	위원장	권순광	0414-742-8426
120	동성금속	부위원장	김경태	"
121	기아특수강	교육선전부장	모복환	0654-460-8481
122	기아특수강	교육선전실장	원수연	"
123	기아특수강	조직2차장	안창민	"
124	기아특수강	조직실장	오양석	"
125	동호전기	조직부장	장욱선	0591-758-8811
126	동호전기	홍보부장	최미향	"

5.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교육지원

지역 \ 월별	1999 4월	5	6	7	8	9	10	11	12	2000 1월	2	3	계
서 울	2	3					2	1	2			4	14
경 기	2	1		1		3		3		1		3	14
인 천	3				1			3		1		1	9
안 산					2		1			1	2	3	9
충 남							1				1		2
충 북												2	2
대 전						1							1
전 남				1								1	2
전 북					1								1
대구경북	2	1					2	2				1	8
구 미	2	1			1							1	5
포 향					1								1
부 산	1	1					2	2				1	7
울 산													
경 남													
강 원													
계	12	7		2	6	4	8	11	2	3	3	17	75

6. 정보통신교육

1) 시기: 1999년 10월 5일, 7일

2) 장소 : 서울 강남 천리안 전산실습장, LG전자 구미1공장 PC교육장

일 정	10월 5일(화)	10월 7일(목)
대상권역	수도권, 충청중부권	영남, 호남권
대상지역	서울, 경기, 인천, 안산시흥, 강원, 충청북,대전,전남북	대구경북, 구미, 포항, 부산, 경남, 울산, 전남북
교육장소	나우누리 교육장 (서울 방배동 소재)	LG전자 구미1공장 PC교육장 (경북 구미 소재)

3) 목적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아직도 정보화에 뒤쳐져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노동운동을 도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컴퓨터를 통한 노조의 정보관리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조간부 및 실무자들에게 「PC통신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정보마인드를 고양하고 연맹산하 조직간의 원활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둠.

4) 당면과제

-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간부에 대한 정보바인드 구축 및 컴퓨터 이용법 전파
- ▶노동조합활동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2000년초 까지 15개 시도지역본부 네트워크 구축, 2000년말 까지 가맹노조중 1/3이상 가입)
- ▶정보화를 위한 연맹의 지도활동 강화 (지방본부별 교육기회 제공, 정보활동 강화)

5) 교육참가 인원: 총 45명 (서울22명 / 구미 23명)

6) 지도내용

- ▶연맹 정보화 추진과정과 현황, 계획 발표
- ▶노동조합의 정보통신 운동이 제기되는 배경과 중요성 공유
- ▶노동관련 정보탐색 요령 (인터넷 노동관련 사이트, PC통신 노동관련 정보)

7) 향후 연맹방침 및 과제

- ▶현재 PC통신 위주의 네트워크를 대중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마인드를 전조직에 전파하고,
- ▶컴퓨터 이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 ▶2000년말까지는 전조직의 1/3(최소한 100개 이상의 노동조합, 현재는 5대본부, 25개 단위노조)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하여 각 지역본부별로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실시함

7. 전국노동조합대표자대회

1) 취지

99년 5월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으로서 규모·지역·업종에 관계없이 금속연맹 단위사업장 대표자가 모두 모이는 대참여의 장을 형성하고, 새천년 금속연맹의 운동방향(임단투, 산별노조, 조직확대 및 강화 등)에 대하여 공유, 결의하므로서 조직 대단결과 투쟁 의지를 높이며, 강고한 금속대오를 대내외 과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목표

- 2000년 조직확대전략(산별노조, 조직강화 및 확대) 공유 및 결의
- 2000년 임투전략 공유 및 결의
- 새천년 노동자의 역할과 역사의식 고취
- 금속노조 대단결을 위한 결의 및 총화의 장 마련

3) 시기: 2000년 2월 18일 (금)

4) 장소: 구미 노동복지회관

5) 참석자: 단위사업장 대표자(노조 위원장, 지부장), 지역본부 의장 및 상근자, 연맹간부
총 420여명 참석

7) 세부일정

11시까지	집결
10:30~11:00	여는마당 (문예패 공연 - 노래, 율동패 공연)
11:00~12:00	대중강연 (새천년 노동자가 주인으로, 강사: 박노해 섭외중)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5:30	문예패 공연 (풍물패 길놀이 공연) 전국노동조합대표자대회
15:30~16:30	금속노동자 대동한마당 및 폐회

8) 대표자대회 준비일정

1999. 5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국노조대표자대회 개최 결의
12월 8일	지역본부 의장 및 임원연석회의에서 대표자대회 계획 공유 및 결의
12월30일	연맹에서는 대표자대회 핵심3대과제에 대한 토론헌자료를 제작하여 산하노조에 배부
2000. 1.6~2.2	대표자대회 핵심3대과제를 위한 지역토론회 전개 (6안산, 11인천, 13충북, 17대전, 18경남, 19울산, 21대구경북, 25전남, 26경기, 27대기업, 2.2포항)

- ※ 2000년 1월과 2월초까지 각 지역마다 핵심3대과제를 토론하고
각 노조는 상집간부, 대의원급 이상으로 토론을 전개하여
이를 지역에서 수합, 총화함
- 2월 8일 지역본부의장 및 임원연석회의, 중앙위원회개최하여
지역토론결과를 총화하고 연맹은 이를 2000년도 운동방향으로 설정함
또한 대회 준비 최종점검함
- 2월 18일 마침내 역사적인 전국금속노조대표자대회를 구미에서 개최함

9) 3대 핵심과제 토론자료집 제작 배부

- ① 배부시기: 1999. 12. 30
- ② 대 상: 전체 가맹노조당 5부씩
- ③ 목차

위원장 인사말 - 지금 우리는 왜 현장에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가

토론의 방법

조직확대 및 강화방안

현황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감소요인

인원수별 조합원 현황

토론과제

조직강화방안(예)

2000년 임단투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요약분

들어가며

현시기 공동교섭·투쟁이 제기되는 이유와 필요성

단체교섭의 유형

99임단투 평가

교섭의 여러가지 방안

공동투쟁 세부방안

교섭권 위임의 방법

토론주제

④ 인사말

지금 우리는 왜 현장에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재섭

언제나 불의에 민감하며 정의에 용감했던 금속 대표자 동지여러분!

여의도에서 서울역에서 그리고 명당성당에서 차가운 칼바람을 꿰뚫고 외쳤던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총선에서 심판하자!" 96년 노동악법 철폐투쟁에 이어 99년 또다시 동투(冬鬪)를 전개하면서 우리 금속노동자가 보여준 뜨거운 투쟁의 대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속 조합원 동지여러분!

신세기 새천년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20세기말 자본의 상업주의가 '밀레니엄 페스티벌'을 기치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홀으며 새천년을 장미빛 희망으로 묘사하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백만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뿌리채 뽑히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레니엄 잔치는 21세기가 노동자서민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절대왕국으로 들어서고 있는 서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1세기 희망은 자본이나 지배권력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있으며 실천을 통해 새세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철의 단결로 희망의 21세기를 열어갈 금속 조합원 동지여러분!

새천년은 강철같은 금속노동자가 앞장서서 희망을 전파하고 승리하는 자주의 시대로 열어젖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맹은 먼저 새천년 금속연맹의 운동방향을 결정하고 규모·지역·업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되는 대참여의 강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국노동조합대표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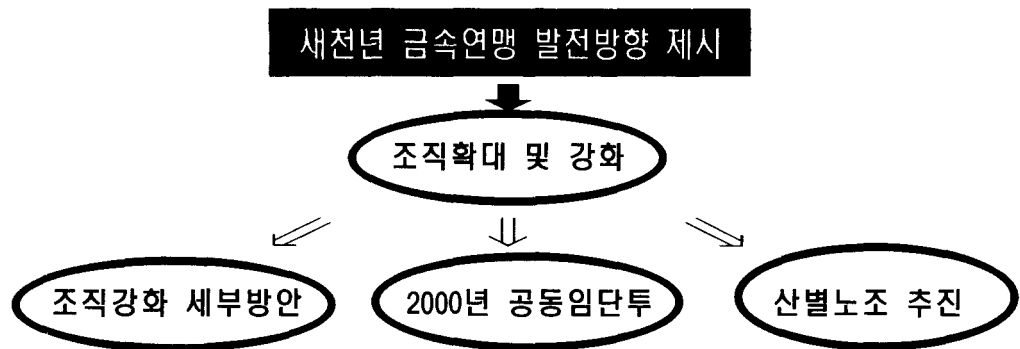
이번 전국노동조합대표자대회는 단위사업장의 대표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3만명의 금속노동자의 지혜를 모아내는 대중적인 참여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맹에서는 1월부터 2월초까지 지역본부와 단위사업장의 왕성한 현장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토론과제로 ▲조직강화 및 확대방안, ▲산별노조 건설방안, ▲2000년도 임단투 전략수립 방안 등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토론과제들은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조직강화 및 확대의 기본틀거리에서 세부방안을 ▲조직강화, ▲산별노조 건설, ▲임단투전략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토론을 할 때는 단위노조의 경우 내의원, 상집간부 이상이 참여하고 이를 노보나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본부 토론은 연맹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토론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니 단위사업장 대표자 이상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2000년도가 장미빛 꿈으로 신기루를 쫓는 자본의 지배문화에 종속되어 노동의 희망이 종식되어 버리는 불행한 한세기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토론문화의 정착과 이를 통한 금속노동자의 대단결 그리고 새천년의 운동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시작하는 2000년의 새해아침을 기대하며 동지여러분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금속연맹도 일대혁신 일대 도약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약속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30일



⑤ 내용 요약분

토론방법

토론하기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토론하면 딱딱하고 하기 힘든 소위 학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해가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자본주의문화는 노동자는 생산에만 전념하면 되고 토론은 학식있는 교수나 박사들이 하는 것처럼 왜곡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론은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에 빠질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노동조합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진로와 방향을 먼저 조합원들과 현장토론을 거치고 조합간부들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이만큼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혹자들은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백전백승의 비결을 백성과 군사들에게 분임토의를 시켜 이결과를 전략과 전술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지경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토론이 어색하고 매끄럽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연맹은 아래와 같이 토론의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연맹 교육국으로 문의하시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토론을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준비부터

토론대상자(단위노조: 상집간부, 대의원급 이상간부, 지역본부: 대표자급이상 간부)들에게 본 자료를 2~3일전 배부합니다.

토론대상자들은 본 자료집을 열심히 읽고 정리합니다.

자료집을 읽을때는 토론주제를 먼저 영두해두고 본다면 좀더 효과적 토론이 될 것입니다.

두울, 토론할때

▲조직강화 및 확대방안, ▲산별노조 이행방안, ▲2000임단투 전략수립방안 등에 대해 나눠 이야기합니다

큰 토론과제중 각 내용에 대한 토론 주제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각 주제마다 발제자를 정하고 발제후 그 주제에 대해 토의합니다

토론결과는 서기를 정해서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세엣, 토론결과는 단위노조는 지역본부로, 지역본부는 연맹으로 총화합니다
 토론된 결과는 조합노보,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알리고,
 지역본부에서 토론할때 단위노조 토론결과를 밝히고,
 지역본부는 연맹 총화자리에서 다시 밝혀 대중적인 토론의 장을 형성합니다.

2000임투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제안서 요약

1. 들어가며	
2. 현시기 공동교섭·투쟁이 제기되는 이유와 당위성	
3. 단체교섭의 유형	
4. 99임단투 평가	2000임투 교섭전략 수립에 대한 배경과 알아야할 지식 정리
1) 성과와 문제점	
2) 임투가 남긴 향후 과제	↑

5. 교섭의 여러가지 방안	↓
1) 기업별 교섭을 초월하는 교섭형태 두가지	2000임투의 교섭 방안
① 업종단위 중앙교섭	
② 지역별 공동교섭	
2) 집단, 공동교섭시 요구안 및 구체적인 상	
6. 공동교섭 세부방안	
① 공동투쟁 전개과정	
② 공동투쟁시 구체적인 상	
7. 교섭권 위임방법	

1. 토론을 제기하게된 배경

- IM이후 2년동안 실질임금의 감소와 고용불안으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이 위태로움
- 국가차원의 구조조정 여파가 개별기업의 임금, 고용문제를 낳는데 노동조합은 과거방식 (기업별 교섭)으로 대응하고 있음
- 새해 역시 구조조정을 필두로한 자본과 지배권력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며
-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가들의 고정관념과 기업 이기주의가 극복되어야 함
- 과감한 혁신을 통해 노동운동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 노조 간부부터 먼저 결의,다짐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왕성한 현장토론과 대중활동이 요구됨

2. 교섭전략에 있어 공동교섭,투쟁이 제기되는 이유

- 총노동차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수 있는 유력한 수단
- 산별노조 전환의 밑거름이자 시발점

- 기업별 노조의 교섭력을 극대화시켜 공동투쟁전선을 형성
- 상급단체 결의사항이자 노동악법 철폐투쟁의 일환
- 분산된 기업별 교섭은 연맹 지원역량이 분산시키고 감당하기 어려움

3. 단체교섭 유형

-기업별 교섭, -통일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4. 99임투평가

① 성과:

- 수세기에서 공세기로 국면전환 기여
- 일정한 성과쟁취 (98양보교섭 결과 원상회복,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협약 등)
- 부분적인 지역별 공동교섭 및 공동투쟁을 통해 조직간 연대 강화
-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결합 진전 (임투와 총파업투쟁: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문제점:

- 교섭의 양극화 현상
- 공동교섭 투쟁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부족
- 간부중심의 임단투 전개

③ 향후과제

-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제시, - 임단투 목표의 재설정
- 현장조직력 강화, - 교섭권 위임전술의 발전
- 공동사업의 일상화, - 산별노조 전환 적극추진
- 총파업, 정치투쟁에 대한 대비,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재점검

5. 교섭의 여러 가지 방안

① 기업별 교섭을 초월하는 교섭형태 두가지

- 업종단위 중앙교섭: 결의가능한 업종을 조직하여 집단 또는 통일교섭 구사
- 지역별 공동교섭: 기타 조직은 지역별 공동교섭 전술을 구사

② 집단,공동교섭시 요구안 및 구체적인 상

▲ 요구전에 위임하며, 요구안은 통일

모범안 작성은

요구의 정당성: 정세상황과 연맹, 업종·지역본부 투쟁방향, 단위사업장의 정당성

구체적인 요구안: 단위사업장 임금실정에 맞게하고 연맹 요구안 기본○○%·○○○○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결의안 첨부: 업종·지역본부 차원의 공동투쟁 결의서와 모든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의 서명을 첨부함

6. 공동투쟁 세부방안

- ① 공동투쟁 전개과정: 시기집중 방안으로서 공동교섭이 어려운 지역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 ② 공동투쟁의 구체적인 상

▲ 각 시기는 **요구안 제출: 2월말, 조정신청: 3월 20일 경, 쟁의행위 결의: 3월말,**
단체행동 돌입: 4월초~중순, 타결 4월15일 경

7. 교섭권 위임의 방법

- 지역본부 의견기구 결의후 단위노조별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서 결의
(교섭권 위임은 일반결의, 사업주 통보, 지역본부에 신고)
-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안 확정이전에 위임
- 교섭권 위임전 조합원에 대한 대중적인 교섭, 선전홍보 실시

8. 단위노조 교섭위원,쟁의부장 교육

1) 교육 취지 및 목적

IMF사태이후 2년간 임금동결, 삭감, 반납 등 노동자의 일방적 고통전담을 원상회복하고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 정상적인 경제지표 등을 감안할 때 2000년도 임단투는 적극적인 투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금속연맹은 단위노조의 2000년 임단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시 핵심간부들인 교섭위원, 쟁의부장을 대상으로 임투에 관한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함.

- 2000년도 연맹 임투전략에 대한 대중적인 공유
- 단위노조 임단투 활동 지원
- 단위노조 간부역량 증대 및 배가
- 2000년도 임금인상 투쟁 의지를 증대
- 2000년도 임투 방향 수립

2) 일 정: 2000년 3월 14(화) ~ 16일(목) (2박3일)

3) 장 소: 충남 도고 토비스 콘도 (구 포시즌 콘도)

4) 참 가 자: 단위노조 교섭위원, 쟁의부장 등 총 136명

6) 일 정 표

3월 14일(화)	
13:00~14:00	접수 및 방배정
14:00~14:30	개강식
14:30~15:30	2000년 금속연맹 운동방향 (연맹 위원장 유재섭)
15:30~18:00	쟁점 노동관계법 해설 (노동교육원 최영우 박사)
18:00~19:00	저녁식사
19:00~20:30	자기소개

3월 15일(수)

- 09:00~11:00 2000임금정세와 노동계 대응전략 및 요구안 작성법
(교육선전국장 정문주)
- 11:00~12:00 공동교섭 공동투쟁의 방향과 과제 (한성실업 안성환 위원장)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노동자가 알아야할 경영분석 (노기연 서영주 연구위원)
- 16:00~18:00 나눔교육 (교섭위원과 쟁의부장을 나누어 진행)
교섭위원: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노사대책본부장 김홍룡)
쟁의부장: 선전선동의 이해와 실제 (교육선전국장 정문주)
- 18:00~19:00 저녁식사
- 19:00~20:00 나눔교육 계속
- 20:00~21:00 단결의 시간

3월 16일(목)

- 09:00~11:00 평가 및 총화
- 11:00~11:30 종강식
- 11:30~12:30 점심식사후 해산

7) 평가내용

① 성과

- 2000년도 임단투의 투쟁지침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장 형성
- 지역간 연대활동 고취를 위한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유, 결의
- 단사 임투의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방도 확립, 임투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도움이 됨
-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 인식
- 경영분석의 필요성 이해
- 간부의 자세 및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됨

② 문제점

- 준비과정에서 장소변경(여주 노총교육원→토비스 콘도)에 따른 혼란 초래
- 교육생 인원 과다로 인하여 생활질서 및 교육효과 감소
- 교육시기가 다소 지연되어 단사 지원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상각됨

③ 개선방안

가. 비중을 두거나 새로 추가되어야 할 교육

비중을 두거나 새로 추가할 교육의 순서는 경영분석이 가장 많았음(아래 중요순위)

- (1) 경영분석
- (2) 노동문화교육
- (3) 선전선동의 이해와 실제
- (4) 모의 단체교섭

- (5)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 (6) 체육활동
- (7) 산별노조의 이해와 건설방안
임금정세와 대응전략
- (9) 노동법 해설
- (10) 조사통계 기법
- (11) 한국노동운동사

나. 삭제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교육

-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70~80년대 수준을 2000년대로 올려야, 내용이 빈약함)
- 위원장의 개인신상 발언
- 노동문화교육의 내용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

다. 연맹 건의사항

- 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의식강화
- 지역별로 구분지어서 교육이 열렸으면...
- 공동교섭 공동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가 이어지길..
- 전문적인 교육의 장을 열고 기회를 확대하여야...
- 부서부장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길...

8) 강의평가

강의과목	강사	평가점수	주문사항
2000년 연맹 운동방향	유재섭	68.9 (D ⁺)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구체적 내용이 필요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시길... -금속연맹의 전개운동이 미비하다
쟁점 노동관계법 해설	최영우	83.4 (B ⁻)	
임금정세와 대응전략	정문주	85.5 (B ⁺)	
노동자가 알아야할 경영분석	서영주	89.9 (B ⁺)	-시간 배정을 더늘려야 함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김홍룡	81.7 (B ⁻)	-평소 알고있는 상식수준의 내용이 많음 -70~80년대 수준을 2000년대로 올려야...

홍 보 활 동

○평가와 개선방향

- I. 기관지 금속연대 발행
- II. 홍보담당자 회의 개최
- III. 홍보선전교육 실시
- IV.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워크숍 실시
- V. 지역소토론회 개최
- VI. 기타 선전홍보활동
- VII. 연간 홍보물 발간

○ 평가 및 개선방안

1. 총평

99년 회계연도의 경우 홍보부에서는 기관지 발행사업과 함께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2차례의 홍보담당자 회의와 1차례의 홍보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홍보담당자들간의 정보교류와 연대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홍보담당간부들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비상근자들이라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업은 홍보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금년의 경우 이를 토대로 지역별 통신원 제도를 출범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기관지 금속연대의 현장성은 물론 나아가서 연맹의 현장성 강화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98, 99년에 각각 한번씩 실시한 지역소토론회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그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노조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됨으로써 연맹의 현장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지역간부들의 의식향상과 연맹에의 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업은 연맹의 적극적인 관심속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관지 발행사업

99년 4월호부터 「금속연대」로 발행되고 있는 금속연대는 편집체제 개편과 외부필자 활용 등으로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성 측면에서 보강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지역본부와 연맹의 정보소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통신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아나가는 할 것이다.

3. 홍보담당자회의와 워크숍

연맹설립 이래 홍보담당자 모임이 제대로 구성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홍보담당자회의나 워크숍을 실시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1, 2차 회의와 워크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더욱이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향후 이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4. 홍보선전교육

홍보선전활동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2,3일간의 교육을 실시할 때 고민되는 것은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할까 하는 점이다. 금년의 경우 글쓰기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현장간부들이 글쓰기를 너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응은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짧으면서 교육 실시기간과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았다. 향후 연맹이 이같은 요구들을 적절하게 수용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I . 기관지 「금속연대」 발행

■ 판형 : 대판

■ 발행부수 : 1만부

■ 발행실적 : 1999년 4월 20일 제162호

5월 31일 제163호

7월 26일 제164호

9월 15일 제165호

11월 5일 제166호

12월 17일 제167호

2000년 1월 21일 제168호

3월 9일 제169호

II .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회의

1. 목적

효과적인 홍보선전활동의 방안모색과 홍보담당자들간의 지역네트워크 형성

2. 참석대상

각 지역본부의 홍보담당자, 홍보부(국)장, 교육선전부(국)장, 사무국장(홍보담당을 하는 경우), 지역본부 여직원, 단사노조 홍보담당자 등

3. 토의안건

- 1) 홍보선전활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
- 2) 홍보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 3) 홍보선전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 4) 글쓰기 모임 구성 건의
- 5) 기타 현안

< 전국지역본부 홍보담당자 1차 회의 >

▶ 일시 및 장소 1999년 10월 20일 14시 / 노충충남본부 5층강당

▶ 참석지역 9개 지역 11명 (연맹 참석자 포함 13명)

대전(세아중기 윤인수 위원장), 안산시흥(신명전기 이명재위원장), 광주전남(세방전지 조희권), 서울(지역본부 서창호 사무차장/한국시그네틱스 류은주 위원장), 대구경북(화신테크 손민호 위원장), 부산(강남 선태선 교선부장), 충남(지역본부 이유숙 총무부장/새론오토모티브 정동식 교육부장), 인천(도투락 김현섭 위원장), 경기(퍼시픽콘트롤즈 장현국 위원장) * 연맹참석자:문광주 부위원장, 박현미 홍보부장

▶ 주요 안건

- 안건 1 홍보선전활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안건 2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형성
- 안건 3 홍보선전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 회의 결과

홍보선전활동은 소식지, 노보 제작 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조직활동 자체가 홍보선전활동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화 한통하거나 만나면서 단사에 무슨일이 일어났는가 관심을 갖고 사실을 알고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상 조직관리의 출발점이자 유력한 현장성 강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아래 위의 안건을 논의한 결과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 홍보담당자 지역별모임 구성

- 참석자들이 지역으로 돌아가 욕심부리지 않고 최소한 2-3개 노조라도 엮어보기로 함. 참여대상은 글쓰기를 해본적이 없어도, 홍보선전활동을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홍보선전활동에 열의와 관심만 있으면 가능. 다음 회의에는 함께 참여 유도기로 함.
- 지역에서 홍보담당자들의 모임이 구성됐을 때 연맹에서 처음부터 결합해 적극 지원 해주기로 함.
- 연맹주최 홍보담당자 정기모임 구축을 통해 지역모임 관리기로 함.

2. 여직원 역할 강화

- 여직원을 단순히 사무실 비서 역할에 머물게 하지 말고 활동가로서의 역할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위(차장, 부장 등)를 부여하고 역할도 주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

- 전국지역본부 모두 홍보선전담당 상근자들은 전무한 상태. 몇몇 상황이 좋은 경우 여직원과 사무국장이 있는 정도. 비상근인 홍보담당간부들에게 그 지역의 홍보선전일을 전적으로 맡겨 놓는 것은 불가능. 여직원과 홍보담당간부의 일상적인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여직원 역할에 대한 교육필요성 대두

3. 지역본부 홍보담당자와 지역본부 여직원 회의 개최

11월 17일 지역본부 홍보담당자들과 지역본부 여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연맹 및 지역본부의 홍보활동 활성화 나아가 조직활동강화 방안을 모색기로 함.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 제시됨.

-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홍보담당간부들의 개인연락망 파악 및 홍보담당간부와 지역본부 여직원의 일상적인 연락체계 구축, 노보 혹은 소식지 교환 체계 구축
- 홍보선전교육은 글쓰기와 소식지(A4 크기) 발행을 위한 컴퓨터 편집 교육을 실시
- 빠른 정보획득과 연락망 구축을 위해 지역본부 모두 자체 통신 ID 갖도록 독려

▶ 추후 일정

홍보선전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오는 11월17일(수) 오후 2시 연맹에서 제2차 회의를 갖기로 함. 이날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해 오기로 함.

1. 지역별노보 및 소식지 발행 실태 파악
2. 지역에서 관심있는 사업장 파악 지역별 모임 구성 시도
3. 홍보담당간부들의 개인연락망 파악

▶ 연맹에 대한 건의사항

참석자들은 연맹에서 지역본부에 위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 지역별 홍보담당자 모임 구성 촉구문제 ▲ 여직원 직위부여문제 ▲ 지역본부 통신ID 갖도록 협조공문 보내줄 것을 요구.

< 전국지역본부 홍보담당자 2차회의 >

1. 일시 및 장소 1999년 11월 17일 14시 / 연맹 지하 강당

2. 참석지역 및 노조

서울(7명), 인천(3), 경기(6명), 안산(3명), 전남·광주(2명), 전북(2명), 울산(1명), 포항(2명), 구미(1명/현대반도체노조) 등 9개 지역에서 노조간부와 여직원 등 27명 참석.

* 미참석 지역본부: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 대전, 구미, 경남지역 등 7개 지역

3. 주요안건

(1)안건 1 홍보선전활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

- 노보 및 소식지 제작
- 현장성 강화 사업(조합원 인터뷰, 각종 토론회 등 활용)

(2)안건 2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형성

- 각지역담당자 / 여직원의 역할
- 지역별 모임 구성
- 연맹주최 홍보담당자 정기모임 구축
- 홍보담당간부와 지역본부 여직원의 일상적인 연락체계 구축
- 홍보담당간부들의 개인연락망 파악
- 노보 혹은 소식지 교환 체계 구축

(3)안건 3 지역본부 및 단사노조 홍보담당자 워크숍 제안

4. 회의 결과

■ 회의 논의 내용

▶ 지역별 추진현황

< 안산지역 >

소식지 추진위 5명으로 구성(본부 사무국장/남양공업, 동서기공, 삼목강업, 신명전기) 11월 23일 2차 모임예정됨. 무리하지만 이달말로 제1호 노보제작하기로 결정, 제호

는 '노동 함께 하는 세상'으로, A3로 양면을 복사기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 안산노총의 장, 상담소장, 시흥의장에게 기사부탁. 기사내용/안산지역에는 중소기업 많다. 행사, 선거 위원장이취임식, 신문기사 스크랩, 단사에서 상급단체에 요구할 수있는 부분 등으로 지면 채울 것. 쉽게 시작하자는 데 의견모음.

< 인천지역 >

11월 24일 단위노조상집간부교육부문 중 홍보교육 참석할 예정
3-4곳 정도 노보발행. 교육선전모임 강제로라도 추진할 예정. 조만간 이루어질 것.
대우전자노보 정기발행. 한국샤프는 비정기적으로 사안있을 때 발행.

< 전남지역 >

대표자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생각에서 11월 대표자회의에서 홍보활성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작고 사소한 것으로라도 엮어보자고 논의함. 전남지역 소식지 제작하는 곳 거의 없다. 비상근자가 주로 제작해야 함. 단사의 사무국장이 편집국장을 겸하도록 할 예정. 모임장소 지역본부에서 정기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

< 서울지역 >

서울본부에는 구로지역에 사업장 많다. 현재 사무실유지도 어려운 상황. 재정사업 제대로 한 다음에 논의기로 함. 이를 위해 12월 중에 1일 호프 열 예정. 단사의 행사용품이나 기념품 판매 사업 구상 중. 한국음향노조 김종화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선임돼 활동할 예정.

< 경기지역 >

장현국 퍼시픽콘트롤즈노조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선임. 조만간 위원장 순회간담회 통해 홍보선전의 필요성 제기, 의견수렴해 홍보활동의 활성화 모색할 예정.

< 울산지역 >

풍산노조, 동희산업만이 노보발행. 지역본부 현재 어려운 실정.

< 전북지역 >

FAG 한화베어링 노조 소식지 발행.

< 포항지역 >

소식지 제작예정/

* 건의사항/현장중심의 정책 해달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보나 한전문제를 볼 때 급속히 항상 들러리란 생각이 든다. 21일 집회도 들러리 아니냐.

< 대구경북 > (서면제출)

1.가맹노조 52개사업장 중 35개 사업장에 질의한 결과 현재 노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곳은 1개(평화발레오노조), 전에 노보를 발행했으나 현재 하지 않는 노조는 3개(대철, 동해전장, 평화정공), 그외의 노조에서는 전혀 노보나 소식지 발행을 하고 있지 않음.

2.노보나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담당할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든다고 함. 노보나 소식지가 있으면 좋긴 한데 꼭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지 못함.

3.노보발행 단사

- 평화발레오노조 제호:여명 / 발행시기:96년까지 매년 2회발행, 97년부터 연1회(12월경) 발행. 담당자:교육부장 외 3인정도 / 발행부수:450부 정도 조합원 1인당 1권씩

- 동해전장노조 제호:개벽 / 발행시기:97년까지 매달 발행, IMF이후 노조 재정의 어려움으로 휴간상태. 다시 발행할 의향 있음.

▶ 단사 노보발행 현황

· 기아특수강

노보 용광로 14호까지 발행, 12월 15호 발행계획, 현재 용광로 소식 66호까지 제작, 노보 2천년 맞이하면서 노보명칭 변경 계획, 책자 형태인데 판형계획 분기별 1회발행을 월 1회로 변경계획. 편집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 현대전자 : 두달에 3회 신문판 크기로 제작.

· 칩팩코리아 :2달에 한번발행. 비상근인 홍보부장,차장이 만들. 향후 월 1회 제작예정.

· 현대반도체 : 교육홍보부 2명이 비상근으로 제작. 8면발행. 이전에는 4면발행. 청주지부가 오면서 8면으로 증면. 1-3면 본조소식. 4-6면 구미, 나머지 청주 마지막 조합원소식, 퀴즈 등으로 지면채움. 격월 발행.

· 시그네틱스 : 통권 40호 비상근 7명이 제작하는데 발간되기전 일주일 이상 밤샘작업함. 사진, 만화 게재에도 비중둠.제3회 제작. 분기별 1회정도로 계획. 제호는 하나 보.

· 태양금속 : 94년에 창간호냄. 비상근 조직부장이 월 1회 제작.

· 이화다이어몬드 : 노보제작한 바 없다. 금년 홍보선전교육후 홍보부장이 주축이 돼 홍보팀 7명이 모이고 있다. 현재 모임의 성격 친목위주임. 글쓰기 연습하려고 하는 데 어려움 많음.

- 현대엘리베이터 : 6년전 노보 제작한 바 있다. 천리안에서 자료를 다운받고 조합공시사항 등의 내용으로 소식지 만듦. 햇불 책자 제작 구상중.

- 대우전자서비스노조 : 인터넷 홈페이지로 홍보

▶ 연맹에 대한 건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 연맹 CUG에 각종 노동, 경제관련 기사 올려줄 것. 단사의 경우 각종신문이나 통신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맹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올려줄 경우 소식지나 노보제작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연맹차원에서 한 노조 한 개 ID갖기 운동을 벌여 정보화시대에 대비해라.
- 위원장 행사참여시 단사간부나 조합원 함께 참여하도록 해 후에 조합원에게 알리게 하자. 위원장의 경우 행사 등에 참여했다라도 조합원들과 그러한 이야기를 할 기회나 여유가 별로 없어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또는 신속하게 전할 수 없다.
- 디스켓에 소식지 표본만들어 배포해 주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층을 나눠 교육. 경우에 따라 교육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배울 것이 없다.

▶ 기타사항

- * 여직원직함부여에 대하여
 - 여직원들의 생각 / 직함부여한다고 위원장들이 그렇게 불러줄까. 일하는 것은 좋은데 직함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 타산별과의 형평성 문제.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다.
- * 근로시간 단축문제 : 지역본부부터 단축하고 이야기해야 한다(전남본부사무국장). 현재 지역본부 44시간.

■ 회의 자체 평가

1. 내용상으로는 다소 미흡한 회의였음.
 - 1차 지역본부 홍보선전담당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 향후 계획을 들어보는 정도를 넘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함. 따라서 토의 안건 중 홍보선전활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과 홍보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부분에 대해 1차회의 이상의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함.
 - 그러나 1차회의 이후 몇몇 지역본부에서 본부차원의 소식지 제작 검토 등 홍보활동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파악됨

- 또한 1차회의와 달리 단사차원에서 참석한 홍보담당간부들로부터 단사상황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음.

2. 홍보선전담당자회의 개최 사실 자체에 대해 일단 의미부여 가능.

3. 홍보담당자워크숍을 2000년초에 실시기로 함

참고 > 연맹 및 지역의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연맹홍보부와 지역본부 상근여직원 및 홍보선전담당자의 네트워크 구성 -

1999년 10월 6일 임원지역본부의장연석회의 자료 중에서

△목적

- 지역통신원 제도 구축
- 산하 조합간의 친목도모
- 노동자 연대감 형성 및 제고
- 하부로부터의 조직관리 가능
- 지역본부 여직원의 적극 활용

△방법

- 지역본부 상근 여직원과 지역본부의 홍보담당자를 지역통신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연맹에서는 지역본부 여직원과 홍보담당 간부의 일상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동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성

- 노동운동의 현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전국 500여 사업장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연맹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지역본부가 지역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
- 현실적으로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
- 민주금속의 경우 각지역본부별로 교육선전부장이 상근.
- 우리의 경우 여직원과 현장의 홍보담당간부를 적극 활용해 보는 방안이 현실적임

△구체적인 활동

- 연맹 홍보부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한달동안 지역본부는 물론 산하조직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한다.

- 파악된 내용을 A4용지 반장에 정리해 매달 20일까지 연맹홍보부로 보낸다.
- 사안이 큰 경우 연맹 홍보부로 취재협조를 요청한다.

△기타 참조

- 연맹으로 통보된 내용들은 연맹 기관지 금속연대에 고정적으로 게재한다.
이를 위해 연맹 기관지는 지역본부 동정난을 고정적으로 마련한다.
- 지역본부의장이나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실현되지 않을 것

△참고

- 10월 20일경 홍보담당자 회의를 거쳐 홍보활성화 방안과 홍보선전교육 등에 관한 의 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III. 홍보선전담당교육

1. 교육목적

- 1)노조에서 선전홍보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 2)노조의 선전홍보담당자의 실무능력 키우기 위함
- 3)어렵다고만 느끼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줌
- 4)타노조의 홍보선전활동 경험을 공유로 보다 효과적인 선전홍보활동을 전개하게 함
- 5)노동자간의 연대의식과 친목도모

2. 교육실시 방법 및 대상

- 1)교육일시 : 2000년 3월 22일(수)-24일(금)
- 2)참가대상 : 단위노조 및 지부의 홍보선전 및 노보편집 담당자 - 57명 참석
- 3)교육장소 : 한국노동교육원(경기도 광주 소재)

3. 주요 교육과목 및 강사

홍보선전활동의 의의와 노보발행(박현미/연맹홍보부장), 컴퓨터로 배우는 PC통신과 인터넷 통한 선전활동(한상범/워크시티 기획영업팀장), 쟁점 노동관계법(최영우/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언론과 기자의 세계(오상석/한겨레신문 기자), 글쓰기 강의 및 실습(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보기좋은 편집(김형선/한겨레신문 기자), 16대 총선과 노동자의 역할(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분임토의:사업장별 홍보선전 실태 등

IV. 금속노련 산하 노조 홍보담당자 워크숍

- 시기 : 2000년 1월 18일 - 19일
- 장소 : 단양 관광호텔 (1박2일)
- 대상 : 지역본부 홍보담당자 / 여직원 / 단사 홍보담당자 - 30여명 참석
- 교육 프로그램
 - 특강 : 최근 노동정세와 노동계의 대응전략 / 이정식(노총 정책기획국장)
 - 강좌 : 노동계 쟁점과 노동법 강의 / 최영우(한국노동교육원 노동법 교수)
글쓰기 강의 및 실습 / 박현미(연맹 홍보부장)
전국노조대표자대회 토론회 설명 / 정문주(연맹 교육국장)

V. 지역소통회 실시

■ 수도권지역 소토론회 < 현장을 가다 > ■

- 1) 제목 < 2천년대 노동조합의 과제 >
- 2) 일시 및 장소 : 1999년 12월 7일 오후 2시-6시(4시간) / 연맹 지하강당
- 3) 패널 구성 사회 : 연맹 이병균 사무처장
발표자 : 노중기(한신대 교수) / 김종각(노총정책2국장)
지역본부의장 경기 하영일 의장 / 인천 손종홍 의장/ 안산 이병욱 의장
종합토론자 : 김진태(엘코코리아 노조위원장)
류승택(남양금속 노조위원장)
도정복(엘지전선 노조위원장)
오인상(삼성공업 노조위원장)
류은주(한국시그네틱스 노조위원장)
- 4) 토론회 내용
 - 개별발표 : 현노동정세분석과 2천년대 노동조합의 과제

--- 노중기(한신대 교수) / 김종각(한국노총 정책2국장) 20분정도씩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본부의 과제

--- 서울, 경기, 인천, 안산(지역본부의장 / 1인당 10분씩)

- 종합토의 주제 : 최근 노조의 고민과 조합원들의 상태
현단계 노동조합의 과제와 실천방안
지역본부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내년 노사관계 전망

6) 진행방식

우선, '현노동정세분석과 2천년대 노동조합의 과제'란 주제로 노중기교수와 김종각국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본다.

두 번째, '그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본부의 과제'에 관해 대상 지역본부의장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

세 번째, 종합토의는 단사위원장들이 이야기한다. 이때 사회자가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 단사노조위원장들이 이야기하게끔 돌아가면서 물어본다.

네 번째, 참관노조간부들과 패널구성자들이 개별발제물과 종합토의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어본다.

VI. 기타 선전홍보활동

1. 금속노련 속보 발행
2. 특보 제작 - 임투특보 / 조세개혁촉구 특보
3. 노동전문 매체 등 주요 언론 홍보
4. 노동관련 전문지 및 가맹노조 노보 수집

VII. 연간홍보물 발간 지원

철강노동자, 이방인 될 수 없다

철강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겠다

앞세로선 10개 철강노조들이 조만간 분회합체 철강산업 구조조정위원회에 철강노조들이 생존권보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의를 갖는데는 충분할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적이 예상된다.

조기화해서 실현할 동안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참여할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분회합체, 인건제, 김원산업, 한국철강 등 전기 4사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 한일철강, 한국제강 등 3개의 부설합체사를 인수할 경우 가로히 다시 일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위원회에 합의한 것이다.

이제 부설 3사 노조는 물론 비록 속한 분회합체 등이 이 같은 방안은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인건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노조들과 올바른 철강구조조정을 제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최근 포월 인건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이에 대응한 철강노조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위해 철강노조들은 각 연맹에 철강노조 구조조정에 공동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키로 결정하고 향후 협회나 산업계와 향후 공동조각을 결정키로 하였다. 3차회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현대강관 노조 회의실에서 1차회의와 2차회의에 참여했던 철강노조들은 다음과 같이 참여부설합체, 한일철강, 연일철강, 한국제강, 김원산업, 인건제, 한국산업, 동서산업, 삼미제강, 기아제강, 세아제강, 현대강관, 한광, 동성철강 등이다.

(관련기사 4면)

한국노총, 노사정위 조건부 탈퇴



▲ 4월 19일 오전 노사정위원회

다정부 투쟁 강행기로...

노총은 4월 9일 오후 2시 긴급총동원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조건부 결정하고, 대정부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노총이 그동안 내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노조간담자 구조지침 보장 등 6대정책 요구사항의 완전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노사정위원회와 자담에 여부는 노사정위원회 5월 15일, 노조간담자 일방적 자담 보장 등에 관한 이행여부를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노총에 제출한 최종안을 보면 ▲노사정위 탈퇴를 조건부 결정하고, 대정부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한다. 이것은 노총이 그동안 내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노조간담자 구조지침 보장 등 6대정책 요구사항의 완전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노사정위원회와 자담에 여부는 노사정위원회 5월 15일, 노조간담자 일방적 자담 보장 등에 관한 이행여부를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5개월간의 긴 투쟁...

미려산업 노조 위원장 특집

평생전을 둘러싼 미려산업노조가 지난 4월 위원장 김지현 위원 특집 특집 내용으로 노사간 국익한 합의를 이뤘다. 이것은 작년 11월 미려산업 노조(위원장 김원환)가 설립한 이후 위원장 해고, 조합원 부당징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회사측에 맞서 연맹, 송남노동, 주원노조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5개월간의 연대투쟁이 일궈낸 성과이다.



금속결핵

임단투를 앞둔 노조에 바란다



김대현(연대) 정책과 교수

임단투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올해 임단투는 10만명 이상 1년 이상 계속되는 임단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개선은 아직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과 노동조합에 따른 임금과 고용불안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을 노조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하고

성공 전복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을 해나감으로써 고질적인 임금인하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경영자들에게도 제3자가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다.

‘죽은 수처’ 제시못하게

올해 임단투의 주요과제는 고용불안과 해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협상은 고용관계에 따라 가변적일 수도 있다. 고용과 임금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일정한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조정의 연계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노조가 임단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노조가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해 근로시간 추산과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다면 조합원들은 물론 조합상대방들에게도 용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물론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교섭권을 산별, 산공단제로 위임하고 과학적인 교섭을 위해 뒷받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교섭을

먼저 임금협상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관습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동향 또는 시장 요구에 직면한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협상 조항들은 과학적인 상하에 기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임금상승 행위를 강도높게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매우 본색적이고 과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당에 이바지하는 산업의 차별로 실체와 불행의 전방, 노동자와 실질임금 및 생활상 등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수치를 산출하고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섭상대방이 제시하는 통찰 및 시장 논리의 타당성을 예시하고 과학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교섭의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 없는 임단투는 한계

특히 올해 임단투는 산공단제와 건립이 협조하여 실행되도록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온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연초 보편 제시되어 있는 제도개선의 과제는 현상과 거리가 있는 것. 하지만 실행되는 제도개선 없는 임단투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 지평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음을 유감의 일이다. 올해 임단투 과정에서 현상과 각종조치가 건립이 협조하여 노조가 더욱 강화되고 민주화된다면, 그것은 다른 데에 비할 바 없는 귀중한 수확이 될 것이다.

주요기사 소개

1.4

철강산업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2

노총의 5대정책(재무위원회)

3

99년 임단투 특집과 전망

노사정위 탈퇴와 노조의 투쟁방향

금속노련이 '99 금속노동자 의망나누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속산업 살직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연맹이 금속산업 살직자 여러분께 생계비 도울을 주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살직자 여러분은 (공공기관) 김원환, 김원환, 송철주, 김원환)의 직권 여권 추진되는 '99금속노동자 의망나누기' 사업을 여러분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자활대상은 누구입니까?
최근 공조는 조항이었던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현재 자활대상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현재 자활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현재 자활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 자활대상자를 알려주십시오
최근 공조는 조항이었던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현재 자활대상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현재 자활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현재 자활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 자활대상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맹 20일경 지원이 확정된 자활대상자 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현재 자활대상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현재 자활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현재 자활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 자활대상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맹 20일경 지원이 확정된 자활대상자 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현재 자활대상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현재 자활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 현재 자활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활 대상자

기획 특집 **철강산업 구조조정, 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임박해진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양대노조 산하 철강노조들이 공동대처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나온 내용들은 ▲북철단 ▲북철 3차투자를 위한 기고회 ▲실업률 통한 철강구조조정안 통과 여율러 감원선언의 가계수익인 인수안도 노조가 조경 당사자에게 부수 3차 노조의 양행과 기고수익 노조의 양행에 대해 합의보조 구조조정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⑤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월간 산업은 급속한 구조조정의 결과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월간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IMF 체제의 도입 이전부터 장기간에도 가시화 되어 있었으며, IMF는 이러한 상황에 기를 올리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한국의 월간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월간 소비의 부족이다. 월간산업의 경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기본적으로 내수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면 하더라도 월간경제에 대한 수요는 경제성장률

아시아 지역과 고도성장이라는 다른 월간 수요증가와 맞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97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월간 수요의 수직선을 급속히 하락시킴으로써 수요증가라는 다른 타격을 입혔다. 세계적으로도 월간 아시아 지역은 계속 월간 수요의 하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지역이지만, 아시아에서 월간증 수요가 과거처럼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시장 역시 한국 월간증에 대한 미국 월간증의 심한 견제와 가격 경쟁력 등의 문제로 인해 시장확대가 쉽지 않음을 전파했다.

되는 경제력을 상실한 괴판심
을 다시 신하의 경제력으로서 생
산능력을 조장하고, 기업간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경제력
을 재조직하는 것이며, 두 번째
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정리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의 일방적
경쟁합리와 진행**

이와 같은 전략은 기본적으로
두 경쟁 주체와 시장 중심적
합리의 원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결과lich 합리적인 경쟁정책이
아닌 것은 근본적 대응이 불
수 없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해와 같이 정자와 대웅의 차이
 는 매우 비교적 명확한 것이 보
 이며, 또한 노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노자경의 노자어
 어를 보다 정확하게 노자어
 할리하여 대웅에 보다 입장
 분별됨이 있어 왔었다. 다음
 노자어 현재 정음되는 구조조
 정과 어의 실제 개괄 사정론
 의 존재론 이러한 사정론
 수문과 존재론을 확실한 인식
 하고, 사정론, 그리고 정
 제에 대한 노자어정음의 존재
 해와 같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자는 현재 정음
 이 정자와 함께 정음
 국학하기 위해서는 노자
 의 기술과 학의 중요

경정회를 열어타르의 국경에서
고 있다는 주장으로 정치가
위 명예 수차례에 걸쳐 반
를 벌이고 있다. 이는 큰
몇몇 최정각사가 가교회사
수장을 최정각사로 물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자산규모나 총업업수
복수장의 일선에 배치하고
듯이 워크아웃 상태인 광
치는 건 큰 주장을 서술
권과의 일약만에 근거한
조치를 수 있다.
특히 강원도와의 제안
산업은행에 의견을 구해

1. **설립안을 검토**
 2.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3.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4.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5.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6.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7.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8.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9.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10. **설립안**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한글은 음운으로 만든 지어이고
한글은 음운의 수준에서 정교하
기나 설비, 기술, 불필, 재두리
음의 기어와 불리한 장인의 정할
어의 기어와 부설을 초래하
어의 불필을 불필시 유리가 불
국내에서 불필과음으로 구
한글 부설까지 불필부설에
한글이 한 정열을 타개하
음으로 불 불 수 있다. 설비다.
한글은 조는 지난 2월 2일
정열을 조는 한한한한한 한
한한한 한한한한한 한한한한 한
한한한 한한한한한 한한한한 한
한한한 한한한한한 한한한한 한

경기참체로 힐감수요 급감

이렇게 되면 국내 할당 수
는 90년에 물량이 최고로
늘어날 이후 더 이상 압축 평가
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게다가 그동안 할당 건
수 제한은 수확을 지체한 것
으로 수산 부문의 경기 침체
등이므로 할당 수효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있다. 이것이
국 할당사업이 적절하고 있는
근거라는 논거의 하나이다.

두번째는 해외와의 위
협이다. 한국의 할당사업이
전면 철폐하고 있는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 IMF 제 1차 연차, 한국의
할당사업은 완전적인 해외
수출 기작을 통해 국내 수산
물을 안정화 했다. 이러한 배경

잉설비 문제에 시달리고

의 대부분을 수년에 의존한 한국 철강업계를, 특히 전 세계에 걸쳐 철강에 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과 업계를 기술수준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유리하지 않다. 내부의 기술도 업계를 아직까진 보충할 위주의 자부기(自給) 수준에 머물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철강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생산기술의 양적 확대에 비해나지 않아 선진국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술수준과 비교할 때 기술수준이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전련과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철강업계에 있어 최근의 구조조정의 방향은 크게 두

과 노동자간의 협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업 주도와 일방적 다문화이상이 일관되게 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업 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기적으로 경쟁력과 근근이 있는 기술과 노동조합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것은 불균형 발전에 예시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술인력정책이 저변하고 있는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업 주도의 일방적 일방화보다는 정책적 경쟁력과 과감한 조정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책의 동시 추진이라고 하기를 경영 의지

다시금종제주의
연대 모색해야

다문화로 결집한 우리 사회는 국가의 정책, 사회정책과 같은 일반 인권성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집안성의 인정성은 국가정책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이는 곧 집합적 내주의 기원 위에서 성립한다. 집합적 내주의는 소수노출자의 구제책, 배려 유치를 수반에 있고, 이러한 수요의 기원은 주적, 확장시키는 것은 국가 주주의 경제정책 기조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주적 경제정책 파정에 소수의 주요 정책의 참여와 개입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다문화주의는 노조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탄력화 정책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적

는 재경사가 추측이 될
 (Company)을 설립하여 환
 국제간의 실비율 제세 및
 반간거래, 반간거래, 비
 일률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조국적 자본 미국
 을 겪고 있지 않음과 정
 액, 자금지원 활동과 제
 비활동 아니로 자본과
 만중적인 차에 따른 비
 의 과잉투자도 인한 경영
 조조정 대상을 위하고 있
 는 면에서 엄청난 음모

합리시장 행위 위함임

현재 조 부원본인 실비
 비를 받고 있는 합리시장
 대경사들이 경우하고 있
 는 것과 현재의 경영비율
 위장정정음이 인위적일

기교외사(Bridge 교외사) (국)리간 의외매과 하했다 의외매과 하했다	말고하고 의 만고의 있었지만 영성신 다. 자신 지였다.
의 월간 통상마달 의 개원. 특별경정 그러나 5대 책도 아니므로 두월일 열몇사 연간과 정정한 의간사정문두도 라 무이고 있다.	감정신 조-이 진대-이 가 복고 통 조정을 한다 태와 같이 하는 한 속에서 사는 기 의한 구
한 음모가...	

어떤가? 부두는 다름없는
나보다가 지상층의 입장이 이런
것을 조망할 문헌만 자국이 이
국적인 것은 돌음이 되고 경계
선 수 있는 반입으로 절정
이해될수자간에 조건없이
있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위대한 법안에 의한 가교회사
다 공평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것으로 특정한 일련진
제가 바뀔것이다 할 것이다



▲ 3월 20일 경원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1차 열광노동회의

노동배제 경영합리화 반대해야
그러나 현재 기업들이 추진하는 위기관리 방식은 노동조합에 기초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색과는 먼 거리에 있다

전염적이며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 공멸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철강산업의 붕괴는 곧바로 지역 공멸책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 사회적 함의를 지닌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국가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를 갖고 이에 개입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공멸책의 와해와 단단한 연대의 불을 붙여 전시기하는 것은 노조가 취해야

98년 IMF관리체제하에서 처음으로
수요함은 87만톤이다
시간 365일 100%가동시
요. 평균가름을 85%준
다. IMF비상 시국임을 감
지극히 정심적인 수치라
있는 수치가 아닌가? 과잉
압박의 주범인 다른 품목
98년 함유 추경치 현
복수금(44%)와 저조한 조
있다.

품목제조를 비롯한 재

국민부담 가장
않는가?
응답자 1만 887만명.
수치는 정경준 24
인치의 83% 수준이
버겁는가 수치가
한다면 이 수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자도 화와 경험
가들은 어떻게?
43%). 봉장(44%),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봉장
필포는 노
조물과 나
리를 아는
청부는
새민을 추
지고 하는
외로움
는 반영
가 아닌
다 우리
생권권
재를 결코
자 생권권

조조첨대 눈이 멀어 방관자적
일과 특정자벌에 목매들
질강산업 구조조정안을 책각
한다.비논리적인 자본의 원
(주)한진, 한국제강업의 문
제벌 4사의 문제도 알아잡
감 노동자들은 연대안이 우리
적발수 있다는 것도 아래 노
사수하지 않을 것이다.철강 노
사들을 위하여 결사항전의 지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古今」

연대'는 동지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동지들이 참여해 만들어가야 하는 신문입니다.
조합된 동지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갖가지
재해보내주시시오.
문트, 소설 등등... 어떤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기료를 드리겠습니다. (시:3만원 / 기러:5만원)

금속노련 홍보부(02-864-2901/팩스02-864-0457)

「**금속언대**」에서
「**금속위원회**」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단자, 지역본부는 물론 조합원들 또한
알고 싶거나 함께 하고 싶은 분,
우선 광고하고 싶은 일들을 연방 홍보부
402-864-4301 / 팩스 402-864-0457
밀려주시시오.
「**금속언대**」나 연방에 대한 권의사항도
가만히요 해주십시오.
최대한 수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명에서 넥타이핀과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연명 항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한세트 값 7,000원)

- 324 -

고용보장, 노조 승계 쟁점

매각설... 불안한 협정



한겨레지노조가 지난 봄 회사를 임의로 추진하고 있던 열병합발전소의 매각을 반대하며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모으고 있다.

공장대리 문제 가 연방신하의 대
한헌전 영주공주, 서구인들 등에
서 정경으로 농장하고 있다 할 일
적인 대로 공장 대리사 최대정점
은 구성원들의 공동보장이며 노
조와 단결을 그 본래이다

그런데 IMF구제금융을유아 기
구조정책의 일환으로 가업인 인
수.합병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매각문제가 노조인 해방한 정경
으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노
조와 조합원들의 투쟁정도에 따

고 있다. 노조의 조직적인 투쟁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것은 7 때문이다.

연맹 산하의 철타코미노 조는 작년 상반기 현대자동차에 분리 대각을 하고서 고용보장 2년을 약속받았으며 현대자동차당 앞에서 켜지부분인 승객 노조 설립 시 파견 3명을 인정해 주며 3개에는 경영진은 철타코미노에 있지만 투쟁 시 100% 자금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780%를 받

정책 200%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향로급제 직제는 690%에서 84%로 15%가 삭감되었다.

현대 전자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연가비 2천 원의 위로급제에 통상 연급 780%만 현행의 상한치이며 그 외의 문제는 아직 검토중이다.

LG전도체의 경우 현대전자를 따라가면서 위로급제까지 성과급 400%의 위로급 600%를 받았다.

삼정전자에서 비대리인도제를 생산하는 부천공장의 경우 외

—● 대한전선 영주공장 ●—

대한전선 영주공장 노조는 9일 경에 회사가 캐나다의 알칸사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대하사실을 알게 된 조한은 회사측에 단세교섭을 요청했고 대한전선과 맞장구의 교환 끝에 고용보장위원회를 작성했고 그 결과는 안전과 고용보장, 단세협약 및 노조승계였다. 그러나 알칸사를 포함한 '3가'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이 아니다 따라서 알긴산가 이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 없다. 그런데 알긴산가 세계적업 기업으로 자판화시스템에서 앞서 있는데 영주공장에 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고용준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현재 타사 매각사례 등을 조사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서구산업에서는 메카닉이 떠돌고 있어 조합원들이 고용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구산업은 같은 3월 부도가 나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조합원 중 노년층 모두가 회사 청산하를 위해 노정되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통한 회사 청산하는 제3자매각이란 소문

—● 서구사원 ●—

이 나들면서 골짜기가 윗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노조는 7월 20일 현재 입실에서 현의 중언 서구산업의 향후 진로를 즉각 공개할 것과 기업의 지립경쟁을 위해 노력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보강, 법정공리를 통해 지립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99금속 고위 지도자 세미나 본임토의 요약

다음은 '조적운동의 일대도역과 전진'을 거쳐 7월 8-9일 열린 99급속고위지도자 세미나에서 가졌던 본업토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노조가 벌 자기형식 정식

- 상아포직내 역합과 강화방안

현재 상급단체의 권력이 부실해져
재정구조도 취약하다고 지적됐다.
것은 기업별 조직체제와 관계있다
향후 산업체제 조전원화가 한 단계
견을 못했다 현재 간부 대표자
의 노동운동이 되고 있는데 자기관
노력이 간부자제의 역량도 부
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직의 권
화가 진행되고 있어 자기혁신이
이 필요하며 임원주 중심의 노
동도 바뀌어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향후 재정자립문제를 해결해야
나 어려움도 조립비 징수방면
검토돼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규모있는 대학을 개편하고 부울활성화시켜 그 밑으로 농촌마을을 확대하고 있다. 또 차세력화와 관련 정치교육과 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대의원 배정도 확대해 참여 넓히고 대표 자체 확대 회 해 연대 교류를 확대 하자는 나왔다

한편 하우 복수노조시대에 들어 향후 단에서는 종비대 협조조가 있다는 방침도

방에서
 지역은
 느끼는
 능자정
 함께 긴
 별로 특
 있었다
 의 복을
 등을 통
 체안도
 도 대비
 부에 적
 었다

산별노조 장애물은 노조간부 자신

- 산별조직 건설가동성과 이행방안

산별전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조간부를 자신이 고지자했다. 법이 되면 내리는 것이 의의였다. 그러나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별 전환을 내심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유 노조간부 스스로가 의식을 품지 않는다는 산별을 요원한 것을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노동운동의 이상 산별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주변이전을 들먹여 산별이 어떤 일겠냐고, 혹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늠하지 않겠느냐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는
한인들이 신병에 대해 알 수
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
다. 조국립 의식수준이 낮다
고 물어보면서도 그 수준을 높
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건부지신들
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
우도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자도 구비적으로 고만하고 있
는 것만 같지 않았다. 연병 또한
필요할 때면 강조하면서서도
연 병은 거의 자제하지 못
지 않았다.

조작운동의 일대역력 전진

우리 근속노련
국심정에 맞춘
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연명
전북에 내놓고
소장이 제기된
기도 했다.

또한 신별이
아아기되든 때
간부들을 상대로
내용 쪽이 단전
강공을 신리

산별로 전환되어야

- 비평규직 조직화방안

비정규직이 조직화되지 않는 요
로 사측의 비정규직 선호와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임금 불이 지적됐다.
또한 정규직이 퇴직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지
불안, 세대간의 갈등, 기업별노조
한계 농도아들라 지적됐다
이에 향후 홍보효과가 뛰어나기
메스컴을 통해 조직화 사업을 권
아 한다. 대안적용, 무한대, 무한대

현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
는 대기업의 경우 노조가 노조
기업에 하청을 수 있도록 노력하
는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근근적으로 문제해결은
별노조에서는 안되며 산별노조로
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중론이
다. 또한 현재 정규직이 비정규직
으로 바뀌고 있다.

로 전
창을
있는
해야

기업
환되
였다
작화

특 사업을 추진해 나

지

조직 확대대상은 사무

역차원에서 조직화를
- 조직학대의 문제

노직운동의 일대도역의 전전 을 주제로 토론된 결과 산별노조체제로의 전전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률교육세미나 개최의의와 향후과제

조직

은근 자제가 침묵과 후회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조직문화 함양에서 대안 중지를 도입하고 강연에서 개제인 이 세마리는 확연한 두 번째에서 조직문화를 되찾고 더 접근하는 첫 번째에서 되찾고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결과로 총회에서 각자가 갖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여 서로 존중하심일수록 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강제가 처음인 조직문화를 함양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은 변인이라든가 문제해결 수준에 머물러있어 대안에서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이같은 많은 양을 통해 세마리에서 조직문화를 함양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 할 때 이후에는 더욱 구체화해서 진행할것에 확연한

이제 연평에서는 일찍이으로는 하반기가부터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을 돌면서 각 단위로도 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조직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등을 집약해 낼 예정이다.

또한 이 내용들을 2002년 1월로 예정해 있는 전국노조대표자대회에 부처 할후 연명의 조직운동 방향과 정책들을 한꺼번에 모두룰 수 있도록 한의회 총지부(12) 제1회

지역차원에서 조직화됨

- 조직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 그러나 지역적 연대투쟁을 통한 성공률을 증진한다고 해도 얼마다 계약하는 일임에서 다음에도 임차인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 십약십배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관리직이 들어올 경우 조직력 와
내부분열 등 갈등요인이 잠재되
는 우려가 지녔었다. 그러나 사측
본래 협의의하에 인사관리체계, 임
금(매 단임호봉제) 등을 정비해
적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조직화는 대기업일
수 지역차원에서 할다가 용이하지
고 소기업은 대졸인원이 적어 활용
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어려우며 더욱이 사측은 물론 노조

2. **조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3. **조직의 사회적 책임**
 4. **조직의 유연성**
 5. **조직의 혁신성**
 6. **조직의 투명성**
 7. **조직의 다양성**
 8. **조직의 지속가능성**
 9.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10. **조직의 사회적 책임**
 11. **조직의 사회적 책임**
 12. **조직의 사회적 책임**
 13. **조직의 사회적 책임**
 14. **조직의 사회적 책임**
 15. **조직의 사회적 책임**
 16. **조직의 사회적 책임**
 17. **조직의 사회적 책임**
 18. **조직의 사회적 책임**
 19. **조직의 사회적 책임**
 20. **조직의 사회적 책임**
 21. **조직의 사회적 책임**
 22. **조직의 사회적 책임**
 23. **조직의 사회적 책임**
 24. **조직의 사회적 책임**
 25. **조직의 사회적 책임**
 26. **조직의 사회적 책임**
 27. **조직의 사회적 책임**
 28. **조직의 사회적 책임**
 29. **조직의 사회적 책임**
 30. **조직의 사회적 책임**
 31. **조직의 사회적 책임**
 32. **조직의 사회적 책임**
 33. **조직의 사회적 책임**
 34. **조직의 사회적 책임**
 35. **조직의 사회적 책임**
 36. **조직의 사회적 책임**
 37. **조직의 사회적 책임**
 38. **조직의 사회적 책임**
 39. **조직의 사회적 책임**
 40. **조직의 사회적 책임**
 41. **조직의 사회적 책임**
 42. **조직의 사회적 책임**
 43. **조직의 사회적 책임**
 44. **조직의 사회적 책임**
 45. **조직의 사회적 책임**
 46. **조직의 사회적 책임**
 47. **조직의 사회적 책임**
 48. **조직의 사회적 책임**
 49. **조직의 사회적 책임**
 50. **조직의 사회적 책임**
 51. **조직의 사회적 책임**
 52. **조직의 사회적 책임**
 53. **조직의 사회적 책임**
 54. **조직의 사회적 책임**
 55. **조직의 사회적 책임**
 56. **조직의 사회적 책임**
 57. **조직의 사회적 책임**
 58. **조직의 사회적 책임**
 59. **조직의 사회적 책임**
 60. **조직의 사회적 책임**
 61. **조직의 사회적 책임**
 62. **조직의 사회적 책임**
 63. **조직의 사회적 책임**
 64. **조직의 사회적 책임**
 65. **조직의 사회적 책임**
 66. **조직의 사회적 책임**
 67. **조직의 사회적 책임**
 68. **조직의 사회적 책임**
 69. **조직의 사회적 책임**
 70. **조직의 사회적 책임**
 71. **조직의 사회적 책임**
 72. **조직의 사회적 책임**
 73. **조직의 사회적 책임**
 74. **조직의 사회적 책임**
 75. **조직의 사회적 책임**
 76. **조직의 사회적 책임**
 77. **조직의 사회적 책임**
 78. **조직의 사회적 책임**
 79. **조직의 사회적 책임**
 80. **조직의 사회적 책임**
 81. **조직의 사회적 책임**
 82. **조직의 사회적 책임**
 83. **조직의 사회적 책임**
 84. **조직의 사회적 책임**
 85. **조직의 사회적 책임**
 86. **조직의 사회적 책임**
 87. **조직의 사회적 책임**
 88. **조직의 사회적 책임**
 89. **조직의 사회적 책임**
 90. **조직의 사회적 책임**
 91. **조직의 사회적 책임**
 92. **조직의 사회적 책임**
 93. **조직의 사회적 책임**
 94. **조직의 사회적 책임**
 95. **조직의 사회적 책임**
 96. **조직의 사회적 책임**
 97. **조직의 사회적 책임**
 98. **조직의 사회적 책임**
 99. **조직의 사회적 책임**
 100. **조직의 사회적 책임**

지곡금송노루조남재맹 正統金

노총, 정책연합 파기와 대정권 투쟁 선언



▲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자, 시민의 배신자' 국회의원들의 정부 규탄대회

노총이 정책연합 파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무너지는 파란가래가 낀 7일부의 시련과 국민회의 총경쟁자 합의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 사법권 투쟁을 선언하며 국민회의 고압적합법화 대책 아임과 총파업 내내 총파업 및 집단적 총파업을 계획할 필요성,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12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인상 위원장은 주 5일제 주40시간 노동제, 확보 노조심각과 임금차별성 분담금지출에 실패한 확보 및 분담노동자의 근로조건 50%로 감축을 위한 국민회의 입장에서 8일째 총파업을 해왔으나 정부가 탄압을 가하는 등 투쟁을 위한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합동투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회 고압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 중앙광장을 비롯한 전국각지구를 광산 일대 동시다발 합동집회 17일 시한부총파업과 23일 자정 총파업 및 10년대대규모집회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에서는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우리의 요구를 수습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여당후보 낙선운동과 입법부에서의 총파업투쟁 및 정당파도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도 밝혔다.

노총, 임시대회에서 총파업 결의

‘얼굴없는’ 박인상 위원장의 인사말에 분위기 숙연해져

노총은 지난 12월 9일 노조총연합회 회의가 내내 노조심각자 분배 해결 등을 위한 총파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17일 1차 시한부총파업, 23일 1차 총파업, 23일 전국동시다발집회를 재확인하는 등 강력한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노총은 12월 10일 오후 2시 노총장실에서 ‘임시총파업’ 국민회의 입장에서 5일째 총파업을 중인 관례로 어금남 부위원장 주재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여의도 노조중앙에서 국민회의 중앙집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후 국민회의 당사실에서 숙개된 임시대회는 박인상 위원장 규탄대회로 이어졌다. 이 규탄대회에서 박인상위원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회의 당사인 농성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얼굴을 보이지 못한 채’ 두시간여 크를 이용해 인사말을 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여기서 “자화 초형의물건에 만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나”며 행정권을 규탄하고 “어려운 것은 버리고 회담의 용기를 쓴 것은 동지들의 뜨거운 격려와 투쟁의지”라 밝혔다. 아울러 “슬기의 그날까지 투쟁계획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줄 것과 각 지역으로 돌아가 투쟁의 선봉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투쟁의 결과를 가지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67명(총대의원 676명) 등 조합원 1천여

12월 17일 노총의 총파업투쟁 지침

1. 사전 총파업 투쟁 결의
노총 산하 전조직은 15일까지 임시총회 개최 총파업투쟁 결의, 상급단체 보고한다
2. 총파업투쟁 프로그램
총파업투쟁을 결의한 사업장은 17일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동안 집합을 중단하고, 산하부 경고요청에 불응,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1부: 집회(13:00 ~ 14:30)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 시민 기한 집합을 정한 규약 노동자 대표회를 실시
2) 2부: 연대행진 집회(14:30 ~ 16:00)
연진 1호 집대중점 노동행진 지지 여부
연진 2호: 한국노총 투쟁 지지 여부
(투표율지 2가지 사전에 준비)
- 3) 3부: 노동자, 시민 배신자 규탄 서약식
(16:00 ~ 17:00)
전체 조합원이 집행부에서 조합원 수첩을 사전에 준비한 사석에서 자화 사명하고 불응

서약서

성명 총파업투
주 소
주인명(조합원)

앞의 발언은 내내 총파업 투쟁을 위한 노조총연합회를 지지하고, 노조, 시민, 여당후보 낙선운동과 한국노총이 총파업투쟁에 따라 2000년 총선에서 반드시 집합을 정할 것을 서약한다

서약서 총파업투쟁 선언



▲ 노동자를 위한 '국민의 손길' 2100 여가하는 '노동자국민회의'를 간담이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연맹 6일부터 철야농성 농성장 격려방문 잇따라

연맹총연합회는 유재성위원장이 국민회의 당사에서 박인상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노총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연맹위원장은 철야농성에 돌입한 것이 부정부패정권임을 타탄해내고 철야농성이 진정된 후 드디어 노조의 격려방문이다. 이따로 고 있다. 7일에는 서울본부에서 배

한바스를 받고, 한국시그네처스, 열코퍼레이션에서 열한바스를 갖고 새천년노조에서 농성장을 격려방문했다. 8일에는 신원주 노조에서, 조화현 21명, 10일에 15 배대전다. 한창전, 기아배수 및 노조에서 농사수 등을 사들고 농성장을 찾았다. 한편 전국 신하 노조에서는 격려방문을 해오는 조화현을 받고 있어 주은 거점에 따르면 마흔과 함께 투쟁의 열기를 전해주고 있다.

연맹 산하 노조 투쟁대열 정비에 한창

총회에서 파업 작전투표를 실시한 결과, 생활산업, LG산실빌딩, 천성, 화성전선, 전주공과, 한성산업, 남양공업 노조가 파업요청을 비롯해 10여개 조합은 13일부터 국민회의 문서를 잠자, 항의농성기로 결정하고 인천본부 13일 국민회의 당사 앞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 투쟁의 대열 정비에 비할까 하고 있다.

충남본부의 경우 산하 33개 사업장은 총회를 개최기로 결의해 13일 오전 현재 두원공조, 화성공조, 수산정원, 수산복합, 동원정원 등 사업장이, 충북본부의 경우 산하 15



▲ 연맹에서 지난 6일 열린 일련지배본부위원장회의에서는 노총의 총파업투쟁 지침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권에 보내는 5대 요구사항

1. 노조심각자 임금지급은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항 ▲국민회의 자민권 약속사항 ▲노조총연합회 서약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으로 저율성을 즉각 보장하라
2.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주40시간, 주6일노동제를 반드시 도입하라
3. 공공, 금융, 운수, 제조업 등 전산업에 걸친 탈빈곤 정책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4. 산업현장의 '한반' 인 단제합의항을 강제하고 부당하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라
5. 국민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위기를 몰아넣는 전직, 가스산업 분할 해도매를 즉각 중단하라

투쟁 경과 및 계획

12/7	노총위원장 기자회견, 철야농성 발언	12/14	국민회의 총대 고압
12/6~11	간담회노조 총회개회 촉구	12/15	간조지 총대농성 결의
12/9	아양총재와의 간담회	12/16	철야농성 1차 총파업투쟁 결의
12/9~11	간담회노조 총회개회	12/17	1차 '한반' 총파업투쟁 1차간담회
12/10	한반총대대표자 및 시민의배분, 의정 연석회	12/18 12/22	연대행진 집회 및 철야농성 국민회의대회를
12/13~16	국회 여당 및 입법 집회	12/23	2차 총파업 10년 대총파업

노총 3단계 투쟁, 막을 열다

노총이 1월 7일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총선투쟁 추진계획의 확정을 시작으로 3단계투쟁의 포탄을 열었다. 노총은 이날 8층강당에서 노총집행부와 전국 27개산업위원회 16개 시도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총선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했다.

아날 제6차집행부는 조합원의 여론수렴과 자세를 고려하여 결정된 후 164층선 후보보명가 및 평가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당선률과 낙선운동의 전개기준이 될 평가기준은 5가지로 청노동계후보(30선), 개혁적인 후보(15선), 깨끗한 후보(15선), 당선가능하다(10선), 재후진후보(10선)로 100명만이었다.

또한 노총은 총선투쟁으로 크게 사회통합적 갈등완화와 분배적의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 및 인간다운 삶의 실현, 정치개혁 및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아울러 오는 16대총선전까지는 10여, 2002년 대선전 50여, 2004년 청산선출전까지는 100여회의 정치활동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기금은 노총의 정치세력화 계획실현을 위한 경비와 각종선거시 노동계후보 선거 및 정치개혁 지원, 노동 독자 정당 건설기금 축적, 청노동계 후보 후원회 기금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조성방법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모금 및 기부이다.

노총의 이러한 정치자금 기금조성계획은 다자오는 16대 총선투쟁과 함께 노총의 정치세력화 계획실현이란 목적 아래 발표되었다. 더욱이 이 글지되어왔던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에 대한 정치권 정치자금모비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차라 대동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이날 조합원 선거인명부 수집, 각종 조직 총선투쟁에 관한 총선투쟁 선출방법 및 실시기준, 조합원후보자, 중앙정치위원회 규약개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토의되었다.

- ### 총선준비
1. 사회적합력 강화투쟁과 분배정의 실현
 - 사회적조정제도 개혁
 - 세제개혁
 - 실업대책 촉구
 2. 노동기본권보장 및 인간다운 삶의 실현
 - 노동시간 단축
 - 단체협약의 이행강제 및 실효성 확보
 - 공무원 임금지급 보장
 - 노조원직위 단일지급 유지 관련 조항 철폐 및 노사규정 개정 보장
 - 경영개선
 - 여성보호 촉구 및 청노동계의 실현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본법 제정
 3. 정치개혁 및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 부패방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 정치개혁
 - 헌법개정 불합격 반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총선 후보명가 및 평가 기준

일 정	목표(명)	시 한	시행할 1인	시행할 1인	기 준	청노동계	개혁적인	깨끗한	당선가능	재후진	합 계
제16대 총선전	10여	3개월간	1인 1천원	모금	기 준	청노동계	개혁적인	깨끗한	당선가능	재후진	합 계
2002년 대선전	50여	3개월간	1인 5천원	모금	백 점	30여	15선	15선	30여	10선	100선
2004년 청산선출	100여	48개월간	1인 1만	모금							

임단투 + 총선투쟁 = 3단계 투쟁

1월	2월	3월	4월
1월초는 임무총합 실시 1월중은 산별대표자회의 중앙위원회 임금지급 확정	2월초는 노총 대의원대회 신발 임무지급 발표 임무자로 발간 2월중은 임무총합교육	3월초는 단선 임단투 요구 3월중은 임무총합교육의대회 단선 임금교섭 개시 산별단체 위임 및 공동 교섭 전개 3월하순 임무총합 정치활동 강화 지역순회교육	4월중순 조정신청 및 결의 행위 결의 4월하순 임무총합대 5월초는 임무총합대 5월하순 임무총합대 5월하순 임무총합대 5월하순 임무총합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대회

“2천년대 금속연맹의 운동방향, 함께 정하자”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대회는 현장성 강화와 노동자의 연맹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99년 5월 대의원대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한 사항이다. 이번 대회는 근로,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연맹 신하 단위사업장 대표자가 모두 모이는 대참여의 정으로 2천년대 연맹의 운동방향을 공유, 결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 ### 목표
- 2천년 조직확대전환 (산별노조, 조직확대 및 강화) 공유 및 결의
 - 2천년 임무전환 공유 및 결의
 - 새천년 노동자의 역할과 역사적 고취
 - 금속노조 대안결을 위한 결의 및 총회의 장 마련
- ### 일 시
- 2000년 2월 18일 (금)
- ### 장 소
- 경북 구미시민목회관
- ### 참석대상
- 단위사업장 대표자(위원장, 지부장, 지역본부의장 및 상근자, 연맹간부 등)
- ### 참가비
- 1인당 3천원(투쟁조기, 자료집, 음식제공)
- ### 참가지
- 지역본부에서 2월 7일까지 취합해 연맹 조직국으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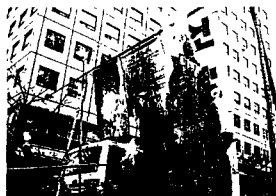
전국금속노동조합총연맹

사진으로 보는 우리의 총파업 투쟁

지난 겨울, 노동의 총파업 투쟁은 노동 역사상 세 번째이다. 노동은 97년 겨울 노동사상 처음으로 노동법개정 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으며 작년 6월 16일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두 번째 총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99년 겨울 노동의 총파업 투쟁경과

- 11 / 15 노동 제3기 노사정위원회 활동중단 선언
- 11 / 21 노동법철폐,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보라매 공원)
- 12 / 6 전경련 회장실 침거 농성 / 노동 국민인상위원회 창설
- 12 / 7, 8, 9, 10, 14 노동자 서민 배신자 김대중정권 규탄 노동자대회
- 12 / 10 총파업투쟁 결의를 위한 전국인사대의원대회 개최
- 12 / 13 국민회의 당사에서 정경련 파기 특별 기자회견
- 12 / 16 정경련의 신고 / 서한부 총파업 결단식
- 12 / 17 노정합의관료 및 배신정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총파업투쟁 실천대회(여의도))
- 12 / 23 2차 총파업 투쟁 실천대회(서울역)
- 12 / 28 5대요구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노동자대회(정부 세종로 참사 후행)



1,2차 총파업투쟁 경의 노동은 12월 10일 전국인사대의원대회를 열어 1,2차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국민회의 당사에서 총파업투쟁인 관 개로 박인상 위원장은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상초우 전경련 회장실 기습침거 노동의 투쟁경과사태 1백여명은 12월 6일 오전 10시40분경 전경련 회장실로 침거, 양국적 정경유착 무비 공개선언을 강 역 규탄하며 5시간에 걸쳐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정경련을 파기한다 노동 국민인상위원회는 12월 13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련과 맺었던 정경연임을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역시 '금속'이다!

지난 겨울투쟁을 시작하면서 연맹 집행부는 노동의 자침에 따라 12월 6일부터 연맹회 관에서, 유체산업위원회는 국민인상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위원장과 국민회의 중앙당 사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의 연맹은 노동의 1, 2단계 투쟁지침에 근거해 산하조직의 총파업 투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면서 금속조직이 수시로 열리는 각종 투쟁집회에 적극 참석토록 독려했다.

그 결과 특히 12월 23일 총파업투쟁실천대회에는 금속노동자들이 집회 연이어를 가둬며 '역시 금속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것은 노동이 단위노조차원에서 선정한 2천년 최초의 모범조직상 3개를 금속이 모두 차지하는 명예로 이어졌다. 기아복수금노조(위원장 이정식), 신한주철노조(위원장 윤우영), 경원산업노조(위원장 김광규)가 그 영광의 주역들이다.

이들은 사업장내 현안문제를 법제로 중앙의 투쟁지침에 따라 작년 12월 17일과 23일 두차례 모두 파업에 돌입했고 대부분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 지난 12월에 발인 5대요구 관철 및 배 신정권규탄 총파업 실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연맹 방송용 차량구입 모금 운동

연맹에서는 각종집회나 투쟁 지향 목적으로 방송용차량과 영리를 구입키로 결의. 3천만원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이 차량 은 또한 금속노동자의 단결과 투쟁력 고취, 각종 집회사 대의 지 및 가우방출,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행사 등의 지원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모금방법은 단위노조 조합원 1인당 500원 이상씩 모금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결정을 작년 투쟁기간인 12월 8일에 발원한 임직, 지역본부위원장연석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투쟁기금 납부현황은?

노동의 투쟁기금은 2000년 1월 14일 현재 1억8천1백8십3만9천2백18원이 걸렸다

우리 연맹의 경우 1월 14일 현재 68개 노조에서 총 1천4백5십1만2천원이 투쟁 기금으로 접수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삼성, 오리엔탈정공, 동보, 삼원산업, 남양공속, 한국아교, 로얄동도, 그랜저, 임진, 삼화전자, 성신, 인도기계, 삼척코리아, 동이건설, 동부제강, 미주제강, 삼척제강, 배신공업사, 동원공속, 동신특강, LG전자, 세일공업, 한보부신, 대성연선, 대성발력, 연철철강, 세아중기, 동성공속, 두원중공업, 동아중기, 세광알미늄, 신원공업, 부산중공업, 신원중공업, 대원건설, 조선산지, 한일류프, 포스코홀스, 우진전자, 동화제강기, 한국가공, 한국산본, 대원기계, 적고강제, 한국카시오, 신원일전기, 금봉기계, 평화산업, 대성조선, 성진산업, 대우전자, 부산정기, 대우중공업, 한국알미늄, 삼양중기, 대우기공, 성영전자, 삼화전자, 동우물산, 국제중합기계, 배순전자, 이세아중합기계, 에넥스, LG산전발전, 대창중기, 한국봉선전자, 대경메로바, 오양공조기 (이상 접수순)

2천년대 운동방향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대표자대회’서 확정



유재선 위원장은 이날 '올해 산업노동절의 큰 반향을 주기 위해 반드시 굳건한 초선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에서는 지난 2월 18일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금년 일단추진책을 '지역단위 공동교섭공동투쟁'으로 제안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2천년대 연명의 운동방향틀을 조직강화 및 확대, 산별노조건설로 확충하였다.

구미시민복지회관(경북구미시 소재)에서 박인상 노총위원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과 연행한 500여 명의 단위로 대표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30분부터 성황리에 열린 이날 대회는 현대반도체노조의 활동패와 주국직장의료보험조합노조의 노래대 합동공연으로 시작했다.

이후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99년 2차례의 총파업에 중심노조인 한·한국노조중앙회의 노조 총연의 박지현 회장이

3대 핵심과제

조직강화 및 확대
산별노조건설
공동임단투

와 대중강연이 있었다. 그러나 원래 예정되었던 '새천년 노동자가 주인으로'란 주제로 강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박인상위원장이 정계 진출에 관한 소신을 밝힌 후 이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2부 행사에서는 연영의 유재섭의원이 대화사를 통해 '우리 금속노련의 새천년을 열어갈 8개 방향은 공중교섭, 공동투쟁을 축으로 한 올해 입부와 조직강화 및 발전전략, 신발노조추진일'을 밝혔다. 아울러 박찬희 "올해 신발노조건설의 큰 방향을 짚기 위해 반드시 굳건한 초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강철같은 연대성으로 똬뚨하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고

또한 이날 3대핵심과제에 대한 토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 1월초부터 지역분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토론에 연명이 적극 결합해 나온 성과물이다. 이후 결의문 채택과 함께 공동의식을 끝으로 대회를 막을 내렸다.

연맹 2천년 임금인상 요구율 13.6%

연명은 2천년 첫째 임금인상요구를 13.6%(기본)로 확정하고 단체협약에서는 고용안정협약체결, 주40시간요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경영참가 등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할임금확보와 IMF경제위기로 인한 임금인상 및 삭감, 노동소득배분의 개선, 2천년 경제성장을 위한가치상승분을 감안하여 나온 물가다 아울러 열종별, 국코별 임금수준의 차이발생을 감안하여 임금상조격이상을 하게 제시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월 8일 오후 3시 연방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2천년 임금정책을 수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외 이날 주요안건으로는 2월 18일 전국대표자대회 개최와 2천년 헌정준비 작업이 수반 들어왔다.



2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연맹의 2천년 임금정책이 확정되었다.

연맹 방송용차량 구입

연맹에서는 지난 2월초 방송용차량으로 뉴필레니엄 스타렉스(현대자동차)를 구입했다.

연명에서는 작년 12월 8일 임원
자문회의인장전조회외에서 각종
집회나 투쟁지원을 목적으로 방
송음차량과 영표를 구입키로 결
의했다 그 후 작년말부터 계속해
서 모금액 3천만원에 불과한 다

위노조 조합원 1인당 500원이
씩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3월 4일 현재 2천5백26

향후 이 차량은 급속노동자의 안전 및 수평적 고취, 각종진화사 업지회 및 가두방송, 지역본부, 단위노조행사 등의 지원에 적극 활용 계획이다

한국 노총
박인상위원장 사퇴
직단체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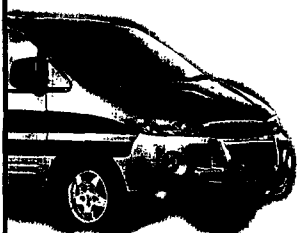
노홍은 지난 2월 21일
 긴급회의조합대표자회
 의를 열어 박인상위원
 장의 사퇴를 공식발표
 하고 이광남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박인상위원장의
 정계진출문제에 따른
 것이다.

삼화실업 신규노조 설립

캔종류를 재조하는 인천의 삼화실업(주)에 2월 12일 노조가 결성됐다. 인천과 아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화실업노조는 조합가입대상자 90여명 정도인데 현재 4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는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돕는 한편 조합원 가입확대작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현분부는 조직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신규노조결성을 강조하면서 삼화실업 노조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금속연맹이
드디어
방송용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연맹 방송용 차량구입을 위한 '3천만원 모음운동'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illegible]

<이상 3월 4일 현재 94개 노조 모금액 2천 5백 26만 6,2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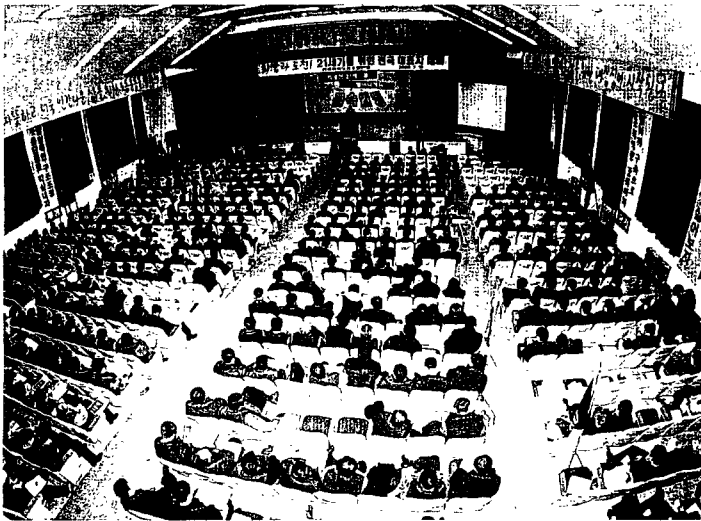
희망과 도전!

21기 위한 전국대표자대회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연맹은 전국의 산하단위 노조대표자들과 함께 21C금속연맹의 운동방향을 확정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진으로 2·18 전국대표자대회를 되돌아 보

면서 우리의 결의를 확인해보자. 참고로 여기에 게재된 사진은 침묵코리아 노조 정영춘 홍보부장이 제공했음을 밝히둔다.
(편집자주)



보다 더욱하고 더욱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운동들 취하여 금속노조대표자들이 한가리에 모였다



결정하고 엄숙하게 대회를 시작하며.



공동고임 연대투쟁으로 1000일투쟁 계획하자!



건설! 산별노조 통합! 금속조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11동 1570-2 TEL:(02)864-2901 FAX:(02)864-0457 ID:FKMTU(나무누리,천리안,하이텔) Internet:fkmtu@daum.co.kr

성명서

제목: 구속수배노동자의 조속한 석방과 정부노동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본연맹은 최근 정부가 금속산업연맹의 문성현위원장을 전격구속하고 그를 비롯한 구속·수배 노동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정부가 과연 노동계와의 진정한 대화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으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노조활동 관련, 구속·수배노동자 문제의 적극 검토는 6·25 노정·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요구함으로써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노동계가 이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변화는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많은 구속·수배노동자의 발생은 노동문제를 공안대책 차원에서 취급했던 잘못된 정부 노동정책의 필연적인 산물이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정기조 운영의 변화와 함께 노정합의를 통해 향후 노동문제는 공안차원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 줄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그 시발점은 문성현위원장 등 구속·수배노동자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준법서약서 요구를 당장 철회하면서 노동계와의 진정한 대화의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 단언한다.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석방은 물론 정부의 전향적인 노동정책 기조 변화와 검찰 등 정부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7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유 제 섭

건설! 산별노조 통합! 금속조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RADE UNIONS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11동 1570-2 TEL: (02)864-2901 FAX: (02)864-0457 ID FKMTU(나무누리, 천리안, 하이텔) Internet: fkmtu@dacom.co.kr

성명서

제목: 무분별한 감청과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우리연맹은 국민의 정부를 자칭하는 현정권 아래서 노조탄압용으로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않으며 13만 전조합원의 이름으로 현정부에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찰이 작년 만도기계 노조의 생존권 사수투쟁과 관련, 노조사무실, 노조간부는 물론 부인, 친지 등의 사적인 통화까지 감청하면서 노조활동을 감시,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부수사기관의 감청, 도청의 오남용 수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한양공영의 경우 검찰 등이 회사간부에게 “명색이 공기업이라는 데서 엄연한 불법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데도 회사에서 방치해 둘 수 있느냐”며 노조간부들을 고소고발토록 압박했으며, 노동부는 공안대책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지하철 노조사태와 관련, 불법행위시 강도높게 대처할 것을 주문해 검찰이 파업지도부의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법 제정 등을 내세우며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신노사문화 창출을 천명하면서 노사관계 발전 운운하는 정부가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돼 왔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공안기관을 앞세워 인권침해와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우리 연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인권국가,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무분별한 감청뿐만 아니라 공안차원의 노사문제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 10.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재섭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 · 니우누리 · 하이텔 FKMTU

1999년 6월23일(수) 제50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노총 6·26일 총파업

노총, 26일 총파업 투쟁 강행

내일(24일) 전국노조대표자대회서 정책연합 파기선언과 반정부투쟁 천명할 것

노총은 22일 오전 10시 노총 회의실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현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선언과 함께 대정부투쟁을 천명하면서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재의하기로 하는 등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노총이 그동안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등을 내용으로 정부와의 교섭을 지속해왔으나 정부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도외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전개될 노총의 향후 투쟁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단행 및 집회 개최, 7월 17일 범국민대회, 8월부터 내년총선체제 등으로 요약된다.

내일(24일) 오후 2시부터 88체육관(강서구 등촌동 소재)에서 각급 단위노조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전국노조대표자대회의 주요안건은 '정책연합파기'와 '6·26총파업' 등이다. 이날 정책연합파기 선언과 함께 반정부투쟁 천명,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재의, 내각총사퇴운동, 사회보험개혁투쟁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총파업이 시작되는 6월 26일 오전에는 단사별로 집회를 갖고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하며 오후에는 중앙 및 지역별로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7월 17일 오후 2시에는 여의도 둔치에서 '헌법유린 김대중정권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어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생존권 박탈, 졸속적인 사회보험통합 문제 등을 쟁점으로 현정권을 위협해 나가기로 하였다.

8월부터는 2천년 총선거획단을 본격 가동시키면서 집권여당을 심판하고 친노동자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노총의 투쟁목적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김대중 정부 국정운영 기조전환 ②파업유도공작 책임자 처벌 및 피해노동자 석방과 원직복직 ③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④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⑤사회안전망 확보 및 사회보험의 민주적 개혁 ⑥산업현장의 불법행위근절 및 단체협약 실효성확보 ⑦노조의 경영참가보장 ⑧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 ⑨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처벌조항 삭제 ⑩임금인상 5.5% 쟁취 등이다.

노총이 정책연합 파기 선언을 결정한 이유

노총이 6·26총파업을 앞두고 오는 24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개최해 50년만의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했던 현 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결정한 것은 김대중정부가 '노동자에게 고통전담, 재벌에게 혜택'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이는 22일 대표자회의에서 내린 김대중정권에 대한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중정권이 노동자이익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재벌특혜와 기만적 사회보험통합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실업 양산, 임금박감, 퇴직금제도 및 근로조건 개악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전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헌법을 유린하면서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급유휴비사건이나 파업유도공작 등을 통해 정부의 비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대도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니우누리·하이텔 FKMTU

1999년 6월23일(수) 제5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노총 6·26일 총파업

노총, 26일 총파업 투쟁 강행

내일(24일) 전국노조대표자대회서 정책연합 파기선언과 반정부투쟁 천명할 것

노총은 22일 오전 10시 노총 회의실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현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선언과 함께 내일 부투쟁을 천명하면서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제의하기로 하는 등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노총이 그동안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등을 내용으로 정부와의 교섭을 지속해왔으나 정부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도외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전개될 노총의 향후 투쟁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단행 및 집회 개최, 7월 17일 범국민대회, 8월부터 내년총선체제 등으로 요약된다.

내일(24일) 오후 2시부터 88체육관(강서구 등촌동 소재)에서 각급 단위노조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전국노조대표자대회의 주요안건은 '정책연합파기'와 '6·26총파업' 등이다. 이날 정책연합파기 선언과 함께 반정부투쟁 천명,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제의, 내각총사퇴운동, 사회보험개혁투쟁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총파업이 시작되는 6월 26일 오전에는 단사별로 집회를 갖고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하며 오후에는 중앙 및 지역별로 집회에 참석토록 하였다.

7월 17일 오후 2시에는 여의도 둔치에서 '헌법유린 김대중정권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어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생존권 박탈, 졸속적인 사회보험통합 문제 등을 쟁점으로 현정권을 위협해 나가기로 하였다.

8월부터는 2천년 총선거획단을 본격 가동시키면서 집권여당을 심판하고 친노동자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노총의 투쟁목적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김대중 정부 국정운영 기조전환 ②파업유도공작 책임자 처벌 및 피해노동자 석방과 원직복직 ③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④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⑤사회안전망 확보 및 사회보험의 민주적 개혁 ⑥산업현장의 불법행위근절 및 단체협약 실효성확보 ⑦노조의 경영참가보장 ⑧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 ⑨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처벌조항 삭제 ⑩임금인상 5.5% 쟁취 등이다.

노총이 정책연합 파기 선언을 결정한 이유

노총이 6·26총파업을 앞두고 오는 24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개최해 50년만의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했던 현 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결정한 것은 김대중정부가 '노동자에게 고통전담, 재벌에게 특혜'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이는 22일 대표자회의에서 내린 김대중정권에 대한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중정권이 노동자이익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재벌특혜와 가만적 사회보험통합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실업 양산, 임금삭감, 퇴직금제도 및 근로조건 개악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전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헌법을 유린하면서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급유희비사건이나 파업유도공작 등을 통해 정부의 비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태도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니우누리·하이텔 FKMTU

1999년 7월 12일(월) 제52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영풍산업노조 파업 등

성진산업노조 전면파업 17일째

사측의 노조와해 공작과 부당징계 철회 및 노조활동보장 등을 요구하며 성진산업노조(위원장 임병우)는 오늘(7일)로 전면파업 및 철야농성 17일째를 맞고 있으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측이 노조측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였다. 즉 노조측이 상여금과 학자금 지급문제로 수원지노위에 신청한 조정을 철회하는 대신 회사측이 노조요구를 수용키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노조는 작년의 경우 임금동결은 물론 학자금 전액반납, 상여금도 600% 중 483%를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을 해왔기에 올해는 상여금과 학자금 등 240만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회사측은 135만원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측은 노조측에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휴면노조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고 게시판에도 공고했다. 회사측은 조합원이었던 직반장 5명과 관리직 사원들을 모아놓고 그같은 내용을 찬반투표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계속 노조를 압박해 들어왔으며 투표에 참여했던 직반장들은 회사측의 강요에 못이겨 조합을 탈퇴하였다.

이에 노조는 노조탄압에 대한 회사측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직반장들의 조합원 재가입과 조퇴 1건 등의 이유로 해고된 부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요구하였다. 대신 상여금지급문제로 수원지노위에 했던 조정신청을 철회한다고 제안하며 상여금과 학자금 지급을 보류하고 연말에 흑자가 날 경우 돌려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회사측이 노조측의 '양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회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조합원들 중에서 5명을 더 직반장에 임명하고 이들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사태는 파업으로까지 발전되었고 연명으로 교섭권이 위임되었다. 성진산업노조의 경우 파업전 조합원은 39명이었으나 현재 10명이 조합을 탈퇴했으며 26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성진산업 파업사태와 관련 연맹은 물론 지역본부, 노총시도지역본부를 비롯해 지역의 단산노조간부들이 조를 편성해 6월 21일부터 철야농성에 동참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성진산업 노조의 파업이 IMF사태를 등에 업은 사측이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연맹은 현재 영풍산업노동자들의 본사 상경투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사장제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어제(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임원지역본부의장회의에서 결정했다. 아울러 산재조합원 지원활동계획과 홍보활동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업무와 향후 각종 교육사업 등 사업보고가 있었다.

신원공업노조 파업 7일째 부당징계·소사장제 철회 요구

안양에 위치한 신원공업노조가 부당징계철회 및 성실한 입단협, 소사장 철회 등을 요구하며 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신원공업노조 조합원 17명중 15명은 지난 5월 7일 '집단적인 무단조퇴'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4월 24일 회사측이 작년에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사업계획안에 상여금을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3년째 계속 동결을 요구하는 내 반발해 토요일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모두 집단조퇴하였던 것이다. 이에 회사측은 13명에게는 시말서 및 경고조치를, 2명에게는 정직 45일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사측은 6월 15일 소사장제를 도입해 환경의 고용불안을 부추겼으며 노조사무실이나 집기비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지키지 않아 조합원들의 감정을 악화시켜왔다.

이에 노조는 7월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회사측의 부당징계 철회와 불공정한 행위,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소사장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맹은 지역본부와 안양중부노총 등과 함께 회사측의 여러조치들이 신규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원천 아래 연대 지원체제를 가동해 철야농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 · 나무누리 · 하이텔 FKMTU

1999년 9월 16일(목) 제53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선일철강 규탄대회 등

악덕기업주 규탄 및 구속 촉구

오늘 오후 2시 부산본부 주최로 노동부 부산북부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 열려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악덕기업주 선일철강의 김태원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부산지역본부 주최로 오늘 오후 2시 노동부 부산북부사무소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일철강부당노동행위 척결 및 김태원회장 구속촉구결의대회'인 오늘 집회를 기점으로 부산지역본부는 연맹, 노총 등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연대하에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의 선일철강은 8월말 노조를 집단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노조탈퇴 당일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인 위원장과 전위원장의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맹, 부산본부 등의 강력한 대응에 밀린 사측은 위원장 등의 체불임금을 9월3일과 어제(15일) 일단 모두 청산하였다.

체불임금 차별지급에서 알 수 있듯이 사측은 매우 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노조탄압을 하고 있는데 임금채불 청산과 소사장제를 미끼로 한 노조탈퇴 협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던 회사측은 조합을 탈퇴하고 소사장제를 실시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하겠다고 밝혀 조합원의 집단탈퇴를 도모했다. 결국 8월말 사측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체불임금 5, 6월분을 지급하면서 소사장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해 조합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27명 중 현재 위원장과 전위원장 등 2명만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다. 이전에는 회사의 중견간부들이 조합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회사가 부도위기상황이니 노조를 해산하면 사주가 부도도 막고 체불임금도 지불할 것'이라며 토론을 주도한 바 있다. 더욱이 몇몇 조합원들은 개인적으로 만나 세룡(선일철강의 방계회사)으로 가 근무하면 체불임금 2개월분을 주겠다고 회유, 협박했다. 이에 현재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조합원과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조치, 전위원장 이병학씨에 대한 부당전직 인사발령과 임금채불 등등 부당노동행위가 수없이 자행되어와 노조의 강한 불만을 사왔다.

한편 연맹에서는 선일철강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총과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반도기계 노조 파업 10일째

체불임금 청산과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오늘로 파업 10일째를 맞고 있는 반도기계노조가 오늘 오후 2시 회사측과 파업후 첫 교섭을 가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노조는 어제(9일) 노동부 소장을 항의방문하고 부천노동문화재에 참사회 반도기계 노동자들 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7일 파업에 돌입한 반도기계 노조는 사측이 '상여금 1100% 정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과 복제비용등의 실액을 삭감하는 대신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임금 8.3%를 인상하겠다'는 안에 반발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93.2%란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16일 현재 반도기계 부천공장과 안산공장의 전조합원이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교섭하고 체불임금을 완전해소할 때까지 변함없이 투쟁할 것"임을 노동자들이 밝히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나우누리·하이텔 FKMTU

1999년 9월21일(화) 제5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반도체 파업 종결

반도체계 노조 20시간 철야교섭 타결

체불임금 청산과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15일간 전면파업 투쟁을 해왔던 반도체계노조가 사측과의 20시간 마라톤교섭 끝에 파업을 종결지었다. 어제(20일) 오전 11시부터 오늘(21일) 아침 7시까지 이어진 줄다리기 철야교섭은 안산공장의 조합원들까지 부천공장에 모여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철야교섭 후 나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들이 8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주요 타결내용은 정기상여금 700% 중 600%는 반납하고 100%는 매년 12월말에 지급하되, 월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로 계산하여 기본급으로 전환지급(99년 9월1일부터)한다는 것이다.

반도체계 노조는 사측이 '상여금 1100% 정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과 복지비용등의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임금 8.3%를 인상하겠다'는 안에 반발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93.2%만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노조와 조합원들은 "체불임금 전액을 삭감하고 단체협약도 못지키겠다. 앞으로 상여금도 못주겠다고 하니 정말 분통터질 일"이라며 파업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반도체노동자들은 노동부를 항의방문하고 부천노동문화제에 참석해 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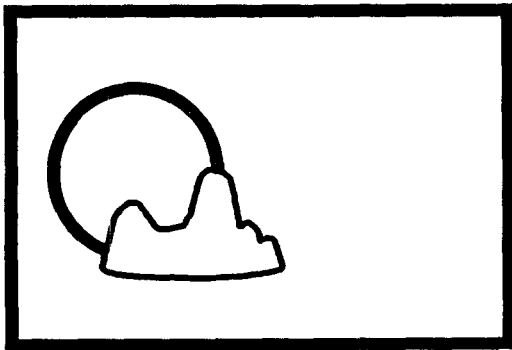
또한 그동안 연맹에서는 김순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홍룡 노사대책국장이 반도체계 투쟁에 함께해 왔다.

한편 반도체계는 IMF체제 이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다 작년 12월 화의 개시 사업장으로 선정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조합원들의 생활고도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대우그룹워크아웃기업 제2차 대책회의, 오는 29일 개최

연맹에서는 오는 9월 29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총 소회의실(6층)에서 '대우그룹워크아웃기업 제2차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우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향후 대응방향 및 방안, 연맹 및 노총의 지원대응방향 및 방안 등을 모색하고 연맹과 노총 차원의 대책위도 구성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는 연맹산하 대우전자, 전자부품, 통신, 서비스, 남양금속 등 그룹 계열사 노조 5개 사업장 노조위원장들과 노조간부를 비롯해 기아특수강의 이정석 노조위원장, 노총의 남일삼 조직강화본부장, 한성태 김상조 교수, 엄성태 대우그룹노조협의회 의장 등이다. 특히 이날 김교수로부터 최근 대우사태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과 노조의 대응방식 등에 대한 견해 등도 들어볼 예정이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짧은 연휴지만 좋은 만남과 기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임직원 일동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FKMTUNO 니우누리FKMTU

1999년 9월30일(목) 제55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대우사태 대책회의 등

양노총차원의 대책위 구성 촉구

대규모 공동집회, 대정부투쟁도 결의

- 대우그룹 워크아웃 사업장 2차 대책회의열려 -

연맹은 제2의 경제위기를 물고올 지도 모를 대우사태의 해결과 관련, 대책위를 만들고 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와 함께 양 노총차원의 대책위 구성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우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조만간 대규모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대정부투쟁도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의 동의서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양노총과 대노협이 공동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어제(29일) 오후 1시부터 연맹 주최로 노총 소회의실(6층)에서 열린 '대우그룹워크아웃사업장 2차 대책회의'는 최근 대우사태와 관련, 대우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향후 대응방향과 연맹 및 노총의 지원대응방향과 대책위 구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 진행은 우선 김상조 교수로부터 최근 대우사태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과 노조의 대응방식 등을 들어본 뒤 대우그룹계열사 노조들의 최근 진행상황과 노조의 대응을 점검해보았다. 이어서 김상조 교수, 노총 등의 견해를 들어보고 향후 연맹, 단사, 노총의 역할 등을 모색해보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연맹의 유재섭위원장을 비롯해 대우전자, 대우전자서비스, 대우통신, 대우전자부품,

남양금속의 노조대표자 및 간부들과 노총의 남일삼 조직강화본부장, 대노협의 염성태의장 및 간부들, 한성대 김상조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대노협의 염성태의장은 대우사태에 대한 대노협의 입장은 대우그룹 해체, 김우중회장 퇴진, 제산환수 등이라 밝히고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결합하면 힘있게 투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이 대우사태의 해결, 나아가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양노총과 대우그룹 산하 전노조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대우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 향후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임상조교수 발언요지 송

김교수는 대우사태의 파괴력은 기존 기아사태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말 문을 연 뒤 대우사태는 국민경제적 위기(금융위기의 재연), 재벌체제 개혁의 문제, 기업구조조정(기업회생)의 문제,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 등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단사차원의 노조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우그룹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아래 단사, 대노협, 연맹, 중앙 사이의 분업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시민단체 및 지역단체와의 긴밀한 연대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시간벌기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대우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PC통신 인터넷교육 실시 10월 5, 7일

연맹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노조의 정보관리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조간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PC통신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노동조합과 정보통신운동, 노동조합관련 정보탐색 요령(인터넷 노동관련 사이트, PC통신 노동관련 정보 등) 등이다. 장소는 수도권과 충청중부권의 경우 천리안 서울교육장(강남소재)이며 영남, 호남권은 LG전자 구미 1공장 PC교육장이나.

임원, 지역본부의장연석회의 개최

10월6일 오후 2시부터 연맹회의실에서 임원, 지역본부의장연석회의가 최근 주요현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다.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 · 나무누리 · 하이텔 FKMTU

1999년 10월7일(목) 제56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영풍산업노조 파업 등

영풍산업노조 본사 상경투쟁 3일째

소사장제요구 거부, 전면파업 8일째, 매일 식발식 이어져...

위장폐업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9월 30일 오후부터 파업투쟁을 벌였던 영풍산업노동자들의 본사상경 천막농성과 식발투쟁이 지난 5일부터 시작돼 3일째를 접어들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5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식발을 했고 매일 식발식이 이루어져 현재 식발한 노동자들이 7명에 이른다. 상경투쟁전날인 4일 노사는 교섭을 가졌으나 이날 회사측은 직장폐업을 철저히 하고 공장의 정상가동을 원한다면 위원장이 소사장제를 말아서하라는 요구를 되풀이해 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영풍산업(주) 노조투쟁의 발단은 회사측이 집요하게 소사장제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시작됐다. 회사측은 소사장제 도입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지난 9월 30일 직장폐업 통보를 해온 것이다. 이에 노조(위원장 이준선)는 회사측의 이번 조치는 경영부진을 이유로 노조를 말살하려는 위장폐업이라 규정하고 30일 오후부터 즉각 파업에 돌입하였다.

영풍산업은 다이아공구류 및 굴창장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인천공장은 그동안 영풍기계(주)로 31년간 존속하다가 올해 7월부터 모체인 영풍산업(주)로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당시 회사는 경영여건의 악화로 기업의 자체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회사합병후 사측에서는 곧바로 전공장의 소사장화 도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소사장제 도입이 어렵게 되자 사측은 소사장제 도입을 철회한 후 곧바로 일방적인 직장폐업을 결정하고 조합에 통보한 것이다.

조합은 그동안 노사교섭 진행중에도 회사의 경영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분간 일터하기 운동과 상여금 100%만남 등 고통분담에 앞장선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연맹과 인천본부는 영풍산업의 투쟁에 초반부터 적극 개입하면서 영풍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인천본부는 영풍산업의 계열사인 영풍건설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악덕기업주 규탄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회사측의 부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연맹은 또한 어제(6일) 열린 임원지역본부의장협의회에서 영풍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기로 하고 향후 노총이나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

연맹, 영풍산업노조 투쟁 적극 지원기로

연맹은 현재 영풍산업노동자들의 본사 상경투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사장제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어제(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임원지역본부의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아울러 산재조합원 지원활동 계획과 홍보활동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업무와 향후 각종 교육사업 등 사업보고가 있었다.

영풍산업노조의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위장폐업 철회 촉구를 요구하며 지난 9월 30일 오후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10월 4일부터 본사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맹과 인천본부 등은 소사장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재조합원 지원의 경우 그동안 복지사업의 성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총 3백만원이며 배정인원은 각 지역본부별로 1명씩이고 지역본부별로 심사를 거쳐 가장 어려운 사정에 있는 조합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연맹과 지역의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연맹을 주축으로 지역본부 상근지역위원과 본부의 교육선전홍보담당간부의 연결망을 구축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공보단인 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제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FKMTUNO 나우누리FKMTU

1999년 10월21일(목) 제5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홍보담당자회의 등

조직, 사람에 대한 관심이 홍보

전국지역본부 홍보담당자회의 20일 열어

연맹에서는 홍보활동의 활성화와 조직활동의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자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홍보담당자 지역별 모임 구성을 적극 지원, 결합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연맹에서 '지역본부 홍보담당자 및 여직원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이것은 홍보담당자들이 거의 비상근이라는 현실에 주목해 지역본부 여직원들과 함께 홍보 및 조직활동을 더불어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효과적인 홍보선전활동의 방안모색과 홍보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10월 20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지역본부 홍보담당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연맹 박현미 홍보부장이 '연맹의 주요 홍보활동 방식과 향후 과제'에 관한 간단한 발제를 시작으로 충남본부 이유숙 총무부장이 충남본부 홍보담당자 회의 및 공동노보 '연대와 전진'의 발행사례, 서울지역본부 서창호 사무차장의 서울지역본부 공동노보 발간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홍보선전활동의 활성화 방안모색, 홍보담당자 네트워크형성, 홍보선전교육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홍보활동이 조직연대나 강화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을 뒷전에 놓고 조직연대가 안된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향후 연맹, 지역본부, 단사를 연결하는 홍보활동의 기본에 충실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더욱이 홍보활동이 단지 노보제작이나 소식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과정 자체가 조직관리이며 현장성 강화방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다음 회의까지 지역별노보 및 소식지 발행실태와 홍보담당간부들의 연락망을 파악하고 지역별 홍보담당자 소모임 구성 등에 대해 좀더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하면서 연맹, 지역본부, 단사를 대상으로 홍보선전활동의 체계화를 꾀하기로 하였다.

외투기업노조간담회

내일(22일) 일러

연맹에서는 내일(22일)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 충남도본부 대강당에서 외투기업현황과 노사관계 특정을 알아보고 IMF 이후 외투기업 현황과 노동조합의 변화, 노동운동의 대응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체간의 연대의 장 비련을 통한 향후 상호교류 및 공동투쟁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세용/에이스 컨설팅 대표)에 대한 발제에 이어 노동연구원 외투기업연구에 대한 계획과 방향(노총 김순희 연구위원), 참가조직의 현안과 향후 교류증진 방안 등이 토의될 예정이다.

단위노조 임원 교육 10월 27일-29일 실시

- 조직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대응 모색기로 -

연맹에서는 노동운동의 수세적 국면을 돌파하고 조직운동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단위노조 임원교육을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2박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급격한 조직감소와 노동운동을 침체와 후퇴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노조 임원으로 하여금 조직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대응을 모색하고 금속산업내 업종과 지역을 초월하는 공동체로서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한국노총의 운동방향(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 99 임단투 특징과 과제(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최근 노동관계법제실(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등이다. 아울러 조직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릇토론, 노동가요 및 율동배우기 등을 예정되어 있다.

* 단위노조임원은 지금 즉시 연맹(02/864-2901)으로 신청바람.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FKMTU 나무누리FKMTU

1999년 12월 7일(수) 제58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노총 국민회의. 철야농성

노총, 현정부와 일대 전면전 선포

박인상위원장 등 산별위원장 국민회의 당사에서 철야농성 돌입

"노총은 현정부와 일대전면전을 선포한다"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은 12월 6일 오후 6시 국민회의 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에 앞서 박인상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산별대표자들은 오후 5시부터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 대행실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주 40시간 관철 등 5대사항을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연맹의 유재섭위원장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회의 당사 철야농성에 전면결합하였다.

이날 박인상위원장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창출한다면서 노조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전임자 임금지급의 금지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실업대란을 극복하자는 우리의 강력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정부여당이 노동자와 한국노총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반노동적 자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현정부와의 전면적인 일대결전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향후 노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17일 4시간 시한부총파업을 전개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12월 23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노총은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진행을 위해 투쟁점검반을 긴급히 구성했다. 10여명 규모로 구성된 투쟁점검반은 투쟁동력 및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총·산별, 어제 전경련 점거농성

"전경련이 망국적인 정경유착로비를 공개선언한 것에 대해 노총은 산별연맹 등 1천2백만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노총은 어제(6일) 전경련 회장실을 점거하고 강력한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노총 투쟁결사대 소속 1백여명의 조합원들이 오전 10시 40분경 여의도 전경련 회관 2층 회장실을 점거, 5시간에 걸쳐 농성을 전개한 것이다.

노총의 이번 농성은 지난 3일 전경련이 "제기업정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종신에서 정치인들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맹에서는 이병균사무처장 등 4명이 참여했다.

노동자 서민의 배신자 국민의 정부 규탄대회

노총이 산별연맹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집회를 열고자 하오니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일시: 12월 7일, 9일 오후 2시
- ▶ 장소: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임원,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연맹의 임원,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이 열릴 계획이다.

- ▶ 일시: 내일(8일) 오후 2시
- ▶ 장소: 연맹 지하 강당
- ▶ 주요안건
 - 노총의 노정합의사항 관철 및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대한 연맹의 방침논의
 - 내년초 전국노조대표자대회 개최
 - 기타현안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FKMTU 니우누리FKMTU

1999년 12월 10일(금) 제5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노총암시대화 등

노총, 임시대회에서 총파업 재확인

‘얼굴없는 박인상위원장 인사말에 분위기 숙연해져

노총이 어제(9일) 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노조전임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중재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17일 1차 시한부총파업, 23일 1일 총파업, 23일 전국동시다발집회를 재확인하는 등 강력한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노총은 오늘(10일) 오후 2시 노총강당에서 박인상위원장이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철야농성 중인 관계로 이광남 부위원장 주재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여의도 노총강당에서 국민회의 중앙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속개된 임시대회는 '배신정권 규탄대회'로 이어졌다.

이 규탄대회에서 박인상위원장은 국민회의 당사에서 '얼굴을 보이지 못한 채' 무선마이크를 이용해 인사말을 했다. 박위원장은 여기서 '투쟁의 결과를 가지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은 동지들의 뜨거운 격려와 투쟁의 지"라 밝히고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계획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줄 것과 각 지역으로 돌아가 투쟁의 선봉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숙연한 분위기속에서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671명 등 조합원 1천여명은 '박인상 박인상'을 외치며 뜨거운 동지애를 보였다.

한편 연맹의 유재섭위원장은 7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철야농성에 합

류, 투쟁의 대열에 적극 참여하면서 산하 조직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노총 집회 연일 열어

국민회의 중앙당사 철야농성 5일째 '노동자, 서민의 배신자 국민회의 정부 규탄대회'가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연일 열리고 있다.

노총은 7일과 8일에 이어 어제(9일)에도 오후 2시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주40시간노동제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보장 ▲단체협약실효성확보 등 5개항의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노총 박인상위원장과 연맹의 유재섭위원장 등 산별대표자들

은 6일부터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5대요구사항 수용을 주장하며 10일 현재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노사정위 공익안 반대한다

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안'이 전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어제(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익안은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합의로 전임자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내놓았다.

연맹의 철야농성장 격려방문 잇따라

연맹은 노총의 지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연맹위원장실에 스티치포를 깔아 투쟁본부상황실을 마련했다. 철야농성이 이틀째 진행된 7일 저녁 서울본부에서 배 한박스를 갖고 한국시그네트스노조 류은주 위원장, 엘코코리아노조 김진태위원장, 세진전자노조의 윤복현 사무국장이 격려방문하였다. 8일에는 신한주철노조 윤무영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조합원이 음료수 5박스를 갖고 철야농성장을 찾아왔고 전국 산하노조에서는 격려전화를 해오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주고 있다.

연맹산하 노조 투쟁대열 정비에 한창

총회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경원산업과 LG산선은 파업결의를 마쳤으며 남양공업(10일), 회성전선 전주공장(10일), FAG한화메이링 전주공장(13일)은 총회를 소집해 왔으며, 충남지역본부 산하 35개 사업장은 오늘(10일) 총회소집공고를 내기로 하였다. 기아특수강의 경우 13일 임시대의원대회와 17일 총회를 소집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 · 나무누리 FKMTU

1999년 12월 15일(수) 제60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노총 17일 집회 등

단결투쟁의 깃발을 올리자

17일 여의도 등 전국서 총파업투쟁 실천대회

오는 17일(금) 오후 2시경 '노정 합의의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총파업 투쟁 실천대회'가 전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노총의 이같은 집회 결정은 ▲대선공약 및 6·25 노정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배신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대내외에 과시한다는 목적아래 이루어졌다.

이날 중앙집회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조합원과 그 가족 등 1만여명 규모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역집회의 경우 지역본부별로 2천5백명이상 규모의 집회를 적당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였다.

한편 노총 박인상위원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하면서 8일간의 국민회의 당사 철야농성을 마무리지었다. 그후 노총 8층강당에서 산별대표자들과 5대사항

의 수용을 촉구하며 3일째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산하 노조 투쟁 정비 “착착”

99년 12월 15일 오후 2시 현재 연맹으로 투쟁관련 사항을 접수한 사업장은 84개로 이중 총회 및 대회개최 공고 사업장은 76개이며 이중 정의결의사업장수는 28개이다.

충남본부 35개사업장은 총회를 개최기로 하고 현수막을 전부 부착했으며 인천본부는 어제(13일)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포항본부는 13일 철야 및 국민회의 당사 점거 농성, 서울본부는 13일부터, 부산본부는 어제부터 철야농성 돌입, 충북지역본부 15개 사업장은 현수막 부착과 함께 오늘까지 총회를 마치고로 하였다.

다음은 이미 진행됐거나 진행될 총회나 대회 등 사업장 현황이다.

■ 향후 투쟁계획 ■

- 15일(수) 각조직철야농성돌입
- 16일(목) 정의행위 신고
총파업투쟁 결단식
- 17일(금) 1차시한부 총파업(4시간)
대규모집회(중앙과 지역)
- 18일-22일 여당앞 집회/항의방문
- 23일(목) 2차 총파업투쟁 및 집회

▶파업결의 사업장 LG산전빌딩, 한성실업, 금영실업, 부국철강, 한일튜브, 삼성정밀, 한영알미늄, 화신공업, 미주제강, 동화산업, 대성전선, 대성셀텍, 동유물산, 대농중공업, 세일공업, 대동정비, 회성전선전주지부, 경원산업, 남양공업, 성신, 신한일전기, 두산포장제관, 남양금속, 금용기계, 대동금속, 이수전자, 남선알미늄, 평화산업, 동아건설

▶총회소집 사업장 세진전자, 수산특장, 동일알루미늄, FKL동화, 해인, 구암, 삼신, 윤영, 영풍산업, 후지테크코리아, 신호스틸, 대우전자, 한국야금, 엔텍, 맥스전자, 에넥스, 한국알미늄, 대일오지, 동성금속, 국제종합기계, 두원중공업, 대동기계, 동호전기, 동양강철, 기아특수강, FAG한화배어링전주

▶대의원대회 소집사업장 LG전자 구미 1,2지부, 김해지부, 오산지부, 창원1,2지부, 청주지부, 평택지부, 동양철관, 수산정밀, 포스코홀스, 동원금속, 두원공조, 화승공조, 수산정밀, 동원정공, 진로산업, 칠백코리아, 김창산업, 세왕금속

이외 도투락, 대한제당, 한국히니웰 등은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논의 중 상태다.

투쟁의 열기 한곳으로 모은다!!

12월 15일 현재 1천2백여만원 투쟁기금 접수

12월 15일 현재 금속산하 노조에서 노총과 연맹에 접수한 투쟁기금은 1천2백여만원이다. 사업장명단은 다음과 같다.

적고김해, 삼신, 오리엔탈정공, 동보, 삼원산업, 남양금속, 한국야금, 로알동도, 그린산업, 영진, 삼화전자, 성신, 반도기계, 칠백코리아, 동아건설, 동부제강, 미주제강, 삼화제관, 화신공업사, 동원금속, 동신평강, LG전자, 세일공업, 한보부산, 대성전선, 대성셀텍, 연합철강, 세아중기, 동성금속, 두원중공업, 동아정기, 세광알미늄, 신원공업, 부산주공, 신한주철, 대한전선, 동화계량기, 한국가구, 한국산본, 대원기계, 적고김해, 한국카시오, 신한일전기, 금용기계, 평화산업, 대선조선, 성진산업, 대우전자, 부산정기, 대농중공업, 한국알미늄, 삼양중기, 대부기공 등

연맹 철야농성 10일째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나우누리 FKMTU

1999년 12월 22일(수) 제6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서울역집회 등

노동자 투쟁의 불길 확산

노총, 내일 서울역서 3만여 규모 2차 총파업투쟁 실천대회 가자

지난 17일 3만여 조합원의 열렬한 참여속에 여의도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배신정권 규탄대회가 뜨겁게 치러진 데 이어 내일(23일) 서울역에서 3만여 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노동자의 투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노총은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역광장에서 '5대 요구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2차 총파업투쟁 실천대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할 계획이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대전, 강원지역 조합원 및 가족 등 3만여명이 참여할 이 집회에서 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주5일노동제 쟁취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전력산업 분할매각 중단 등 5대 요구 수용을 재촉할 예정이다.

이에 노총은 산하 조직에 2차 총파업명령서를 통해 "총파업에 돌입한 전조직은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되는 중앙집회 또는 각지역본부별로 개최하는 지역집회에 참석하여 대선공약 및 노정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배신정권을 강력히 규탄"할 것을 지시하면서 "총파업돌입이 불가능한 조직은 이미 시달된 지침에 의거해 조합원총회, 조합원교육 등의 방법으로 집회에 참석하며 버스, 택시는 14시를 기해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경적시위를 전개할 것"을 명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노총은 지난 20일 산별대표자회의 및 지역본부의장, 지부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당초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원천자율성을 쟁취하기 위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천년 입단투 전략은.... 아울러 노총은 2천년 입단투와 관련 ▲5대 요구사항 생략 ▲IMF이후 임금삭감분 원상회복 ▲경기호황에 따른 경영성과 분배 ▲고용안정협약 체결 ▲정치자금기부금지 등을 목표로 ▲고용 임금인상요구를 발표(1월중순) ▲입부사항

실 설치(2월초, 노총 및 산별·지역본부·지역지부) ▲중앙 및 지역 입부승리결의대회(3월초) ▲조경산정(3월중순) ▲쟁의행위 결의(3월말) ▲공동입부 총파업결의(4월초) 등 임금협상 시기를 앞당긴 고율의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선 투쟁은... 또한 내년 총선과 관련 ▲5대 요구 관철을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반개혁적 정치인의 공천봉쇄 및 낙선 ▲망국적 정경유착 척결 ▲독자적 정치세력화 등을 목표로 ▲중앙정치위원회 개최(1월초) ▲망국적 정경유착 척결 노동자대회 개최(1월 중순) ▲반개혁적 후보 낙선운동(1월-3월) ▲16대 총선투쟁방침 발표(2월말) ▲총선투쟁 출정대회 및 낙선운동 대상자 발표(3월말) ▲각지역별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당선(낙선)운동(4월)을 전개하기로 했다.

LG산전빌딩노조 생존권 사수투쟁

고용안정 3년보장, 복리후생제도 즉각 환원, 위보금 즉각 지급 등을 요구하며 LG산전빌딩노조(위원장 최경호)가 조합원 등 1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LG트윈빌딩앞에서 '제2차 매각교섭 완전쟁취 및 생존권 사수 투쟁실천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재섭 연맹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LG산전빌딩노조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LG산전빌딩노조는 LG산전이 빌딩사업부를 미국의 오티스사에 매각하기로 한에 따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편 LG산전빌딩노조 교섭위원들이 20일부터 트윈타워 부회장실에서 철야농성을 3일째 하고 있다.

**** 연맹산하 노조에서 12월 22일 현재 12월 15일 이후에 투쟁기금을 납부한 노조는 다음과 같다.** 조선전재, 한일티브, 삼영전자, 삼화전기, 동유불산, 국제종합기계, 맥슨전자, 아세아종합기계, 에넥스, LG산전빌딩 등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니우누리 FKMTU

1999년 12월 30(목) 제62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산재조합원 지원 등

새천년을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21세기에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노동자권익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위해 더욱 나은 연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연맹 임직원 일동 -

산재조합원에게 동지에 전하다

연맹에서는 재정자립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개해오면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산재조합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원, 따뜻한 겨울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한 산재환자 격려금 지원행사는 28일 울산, 29일 충남, 전남북지역에서 진행됐는데 인천과 울산지역의 경우 연맹에서 직접 방문 전달하였다. 특히 울산의 동희산업 조합원 김석근씨와 차갑석씨의 경우 연맹의 문광주부위원장과 정문주 교육선전실장 등이 병원을 방문해 격려금과 함께 따뜻한 동지애를 전했다.

연맹상상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16명의 조합원들에게 20만원씩(1명은 10만원) 총3백10만원이 지원되었다. 연맹에서는 그간 각지역본부들 통해 ▲현재 산재를 입어 요양 치료중에 있는 가맹노조의 조합원 ▲장해등급, 부양가족 규모, 재산정도, 소득 수준(장해급여 감안)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조합원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대상을 선정토록 해왔다.

그 결과 인천본부 3명, 울산본부 6명, 전남본부 5명, 충남본부 5명, 전북본부 1명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연맹 복지사업본부의 문광주 부위원장은 "향후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많은 금액을 산재조합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산하 조합들이 복지사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단결력과 투쟁력 고취 위한 연맹차량 구입에 청신호 "반짝반짝"

산하 노조에서 연맹의 방송차량 구입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방송차량 구입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연맹에서는 지난 12월 8일 임원지역본부 의장연석회의에서 방송차량을 구입키로 결의하면서 조합원 1인당 500원 이상씩을 모금하기로 한 바 있다. 이것은 ▲금속노동자의 단결력 및 투쟁력 고취 ▲각종 집회시 내열기회 및 가두방송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행사 및 투쟁, 쟁의행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모금전달방법은 연맹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과 은행구좌(평화은행 036-01-0001-187;에금주 금속노련)로 내는 방법이 있다. 마감 시한은 1차 내년 1월 10일, 2차 1월 20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맹 여성국(02-864-2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2월 30일 현재 선일기계, 삼성라디에타, 백슨전자, 전북지역본부, 우진전자, 대창중기, LG산전 서울지부, 동희산업, 화신, 기아특수강, 세진, 직고, 한국중천 노조에서는 이미 연맹에 모금액을 전달했으며 이외 많은 노조에서 모금운동에 관심을 갖고 모금액 납부를 약속한 상태이다.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니우누리 FKMTU

2000년 2월 15일(화) 제63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연맹 전국대표자대회 개최

연맹 전국대표자대회

-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

18일(금) 구미시민복지회관에서 개최
2천년대 연맹의 운동방향, 함께 정하자

□ 3대핵심과제 □

- 조직강화 및 확대방안
- 산별노조 이행방안
- 2천년 임단투전략수립

연맹에서는 2천년대 조직확대전략 공유 및 결의, 2천년
임단투전략 공유 및 결의, 새천년 노동자의 역할과 역사의
식 고취, 금속노조 대단결을 위한 결의 및 총화의 장을 마
련키 위해 오는 18일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대
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미시민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열
릴 이날 대회에는 규모,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연맹산하 500여 단위노조대표자가 참석해 2
천년대 연맹의 운동방향을 공유,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현장성강화와 노동자의 연맹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99년 5월 대의원대
회에서 개최기로 결의된 사항으로 연맹에서는 작년 11월말부터 이 대회를 준비해왔다. 특히
금년 1월초부터 2월초까지 전국대표자대회가 금속노동자 대참여의 마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맹에서 내건 3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지역별토론회를 제안하고 이에 적극 결합해 왔다.

3가지 핵심과제는 조직강화 및 확대방안, 산별노조 이행방안, 2000임단투 전략 수립방안
으로 그동안 이들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그후 각지역별로 토론회결과를
모아 연맹으로 전달했는데 연맹에서 이날 이들 내용을 정리해 대회에서 발표하고 결의할 예
정이다.

◆대회 안내 · 일시 : 2천년 2월 18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북구미시민복지회관

- 참석대상 단위노조 대표자(위원장,지부장), 지역본부의장 및 상근자, 연맹간부 등
- 참가비 1인당 3만원(투쟁조끼, 자료집, 중식 제공)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유재섭 편집인: 이병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02 864-2901. FAX 864-0457
천리안 · 나무누리 FKMTU

2000년 2월 15일(화) 제6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연맹 전국대표자대회 개최

연맹 전국대표자대회

-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

18일(금) 구미시민복지회관에서 개최

2천년대 연맹의 운동방향, 함께 정하자

□ 3대핵심과제 □

- 조직강화 및 확대방안
- 산별노조 이행방안
- 2천년 임단투전략수립

연맹에서는 2천년대 조직확대전략 공유 및 결의, 2천년 임단투전략 공유 및 결의, 새천년 노동자의 역할과 역사의 식 고취, 금속노조 대단결을 위한 결의 및 총화의 장을 마련키 위해 오는 18일 '희망과 도전! 21세기를 위한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미시민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이날 대회에는 규모,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연맹산하 500여 단위노조대표자가 참석해 2천년대 연맹의 운동방향을 공유,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현장성강화와 노동자의 연맹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99년 5월 대의원대회에서 개최키로 결의된 사항으로 연맹에서는 작년 11월말부터 이 대회를 준비해왔다. 특히 금년 1월초부터 2월초까지 전국대표자대회가 금속노동자 대참여의 마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맹에서 내건 3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지역별토론회를 제안하고 이에 적극 결합해 왔다.

3가지 핵심과제는 조직강화 및 확대방안, 산별노조 이행방안, 2000임단투 전략 수립방안으로 그동안 이들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그후 각지역별로 토론결과를 모아 연맹으로 전달했는데 연맹에서 이날 이들 내용을 정리해 대회에서 발표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대회 안내 · 일시: 2천년 2월 18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경북구미시민복지회관

- 참석대상 단위노조 대표자(위원장,지부장), 지역본부의장 및 상근자, 연맹간부 등
- 참가비 1인당 3만원(투쟁조끼, 자료집, 중식 제공)

투명 노동자 지급분통터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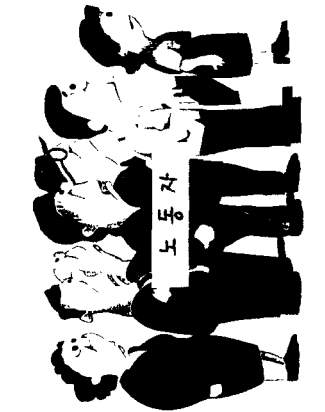
100% 납부 = 바보 탈세 = 정상

국민연금, 노동자만 손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내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타게 되는 사람들은 최고 13%나 줄어든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4월부터 도시지역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되는 과정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을 비롯한 도시지역자들이 월 평균소득을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평균신고소득은 84만원으로 노동자들의 표준소득 월액 144만원에 크게 못미친다. 결국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액이 현재의 144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폭 떨어져 노동자 부담만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노동자 의료보험료 49% 증가?

의료보험료는 노동자들의 경우 내년부터 평균 49% 증가가 예상된다(표1 참조).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그동안 보험료 기준에서 제외되어 왔던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까지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동시에 부과기준으로 되어 있던 지역 의료 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이 부과기준이 됨으로써 부담액은 현재보다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노동자 부담이 왜 이렇게 커지는가? 잘못된 조세제도 때문이다. 투명 지급 노동자들의 소득은 100% 파악해 세금을 물리면서 지역임자들의 소득은 파악도 못해 탈세나 절세를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표2 참조). 더욱이 이제는 정부가 IMF강제위기 이후 기동이나 고충전담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역임자 소득파악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조세행정의 기본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이 관철되도록 조세제도 및 행정체계를 개혁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임자들의 소득파악을 돕아는 방안은 물론 노동자들의 소득이 고소득진보적이나 지역임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소득인정 방지 대책의 즉각 마련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한국노동총과 함께 범국민적인 보험료 거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표1> 일반수직상사 임근노행자 의료보험료 인상추계(1997년 기준)

구	단	평균표준보수월액	총보수직용	보험료인상률
보	수	월	액	
		1,078,139원	1,605,513원	49%인상
부	과	보	월	
		32,344원	48,165원	49%인상

(의료비용 전국직업의료보험비율 적용)

<표2> 경제활동 상태별 소득파악률 (97년 국내정 발표 기준)

구	분	직장인	도시지역자	농어민
소득파악률		100%	22.3%	56.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99년 5월 20일 발행인 : 유재삼

이제, **NO** 라고 답하겠습니다



노총
6·16 총파업
결의

1997 년 12월 3일 어둠과 고통이 시작된 그 치욕스런 날을 우리 노동자들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1999년 5월 현재까지 폭풍앞에 놓인 한국호를 살리자는 '아름다운 일념' 하나로 노동자들은 고통의 최전선에서 굳은 일,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정리해고와 임금동결, 임금삭감, 근로조건 하향변경,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전국 노동현장이 얼룩지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지수는 치솟았고 삶의 질 추락은 바닥을 몰랐습니다.

1999 년 5월 현재 한국경제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한이 일궈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말합니다. 잘라내자, 동결하자, 삭감하자 등등.

노동자는 이제 외치겠습니다. '노우(NO)'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년 임단투 승리와 노총의 6대 정책요구 관철을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습니다.** 97년 개악노동법을 총파업으로 저지했듯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탄압도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노총의 6대 정책요구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인원감축, 불법지침) 철회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조항 삭제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및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 및 법제화

노총의 향후 투쟁계획

- 5월 20-30일 6대 요구 관철과 '99임투승리 위한 결의대회
- 6월 1일 전국동시 조정신청(진행중인 단체교섭 중단)
- 6월 10일 단위노조 파업찬반투표
- 6월 15일 전국동시 쟁의행위 신고
- 6월 16일 전국동시 1차 총파업

※ 위의 내용은 5월 11일 노총 선별 대표자 회의 결의사항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유재섭
발행일 1999년 5월 20일

여성문화활동

목 차

- I. 성차별적 고용조정.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상담창구개설
- II. 여성간부 교육
- III. 전국여성노동자 대회(노총주관)
- IV. 3.8 여성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노총주관)
- V. 회의활동 및 기타활동
- VI. 노동문화 활동
- VII. 연맹 방송차량 모금활동

I .성차별적 고용조정 ,간접차별 , 직장내 성희롱 상담창구 개설

남녀고용평등법이 99. 1.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간접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피해자 상담 및 고소, 고발등을 처리할 상담창구가 4개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한여노협, 여성민우회)공동으로 개설함에 따라 본노련에서도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 성차별적 고용조정,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상담창구에서 하는일

1) 상 담

-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성차별
- 여성의 채용을 기피, 직종별로 분리채용하는 행위
-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에 있어 차별을 두는 행위
-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여 여성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경우(신인사제도에 의한 임금이나 승진차별)
- 가족상황(세대주, 미혼)을 조건으로 특정성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

2) 홍보활동

- 포스터 공동제작하여 단위조합에 배부(4월)
- 리플렛 제작

3) 회의활동

매월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성차별적인 부당해고,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함께 필요할 때에는 피케팅, 법적, 행정적 대응, 대표적인 사업주에 대한 항의등의 지원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1) 상담창구회의(1차)

- ① 일 시 : 1999. 4. 28(10:00)
- ② 장 소 : 한여노협
- ③ 안 건 : - 보건의료노조 생리휴가 미지급 노동부 진정 및 고발건

- 농협 사내부부명퇴와 계약직화된 여성노동자 소송에 관한 건
- 서울지역 도우미노조 결성에 관한 건
- 모성보호에 대한 대책
- 워크샵에 관한 건

2) 제 2 차 회의

- ① 일 시 : 1999. 5. 25 (15:00)
- ② 장 소 : 화학노련
- ③ 안 건 : - 농협 성차별 해고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사항보고
- 국회여성특위 회의 결과보고
- 워크샵에 관한 건

3) 제 3 차 회의

- ① 일 시 : 1999. 6. 28 (14:00)
- ② 장 소 : 민주노총
- ③ 안 건 : - 워크샵에 관한 건

4) 제 4 차 회의

- ① 일 시 : 1999. 7. 28 (10: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 ③ 안 건 : - 민주노총 산전산후 휴가 및 월차휴가 미지급의 건
- 금융노련 9개 시중은행 임단협보고
- 민우회 : 대우건설 28세이상 여성강제 퇴직의 건
(18개월 보상금으로 합의)
- 한국통신 2차명퇴 공고 철회

5) 제 5 차 회의

- ① 일 시 : 1999. 8. 24 (10: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 ③ 안 건 : - 한국노총 국회여성특위 공청회 결과보고
- 공공연맹 현장에서 남자직원이 여직원 구타사건
- 서울대 병원 간호사 구타사건
- 현대중기 : 경찰청 성희롱 사건 법적 대응기로 함.

6) 제 6 차 회의

- ① 일 시 : 1999. 9. 29 (14: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 ③ 안 건 : - 에너지 관리공단 승진관계 건
- 사무노련 여성조합원 먼거리로 인사발령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건

7) 제 7 차 회의

- ① 일 시 : 1999. 11. 9 (10: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 ③ 안 건 : - 대우자동차 성희롱에 관한 건(여직원회 문제제시)
- 한국노총 국회 여성특위 공청회 참여 여부건(11/24일)
- LG전선 전여성부장 인사발령 건

8) 제 8 차 회의

- ① 일 시 : 1999. 11. 29 (10:00)
- ② 장 소 : 한국노총
- ③ 안 건 : - 화학노련 성희롱에 관한 건
- 농협관련 재판에 진행상황 설명

II. 여성간부 교육

1. 교육 목적

- 1) 여성노동운동방향 모색 및 여성간부의 역할
- 2) 여성간부의 책임의식 고양과 자세 확립
- 3) 여성노동관련법을 통한 고용평등 실현 확립
- 4) 노동조합간의 연대 및 협력구축

2. 교육일정 및 장소, 참석인원

- 1) 교육일정 : 1999. 9. 15 - 17(2 박 3 일)
- 2) 교육장소 : 한국노동교육 연수원
- 3) 참석인원 : 금속노련 삼원산업 위원장외 35명, 화학노련 35명

3. 주관 : 금속, 화학노련 공동주관

4. 교육내용

- 1) 21C 무한 경쟁의 모습(60분)
- 2) 여성노동관련법 해설 (120분)
- 3) 비디오 상영(성희롱관련) (30분)
- 4)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120분)
- 5)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및 간부의 역할 (120분)
- 6) 현장 사례발표 (100분)
- 7) 현장방문 (150분)
- 8) 그룹토의 및 발표 (180분)
- 9) 단결의 시간 (120분)

5. 분임토의 내용

제 1 조 : 분임원 15명

주제 : 노동조합내 여성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

- 1) 책임감을 가지자
- 2) 중간간부(대의원, 상집간부) 언어전달 확실하게 하자
- 3) 의식 개혁 필요
- 4) 노조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 5) 얻은것보다 손해 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조합원)
- 6) 현실을 너무 모른다

<해결방안>

- 1) 조합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자
- 2) 타조직에 적극적인 관심필요
- 3) 월간지, 잡지, 신문등을 진열(노동조합내)
- 4) 조합사무실 금연(환경개선)
- 5) 무조건 참여, 개인시간 투자

<활동범위>

- 1) 노래패, 풍물대, 율동패(선동문화)
- 2) 씨름활동(조합원만의 소모임)
먹자모임, 소주모임 → 인원 5-6명정도

제 2 조 : 분임원 15명

주제 : 노동조합 간부의 자세

- 1) 간부는 다재다능해야 한다.
- 2)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 3) 조합원을 많이 만나자
- 4) 집행부를 중심으로 간부들이 일치단결하자
- 5) 각종의사결정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다.
- 6) 간부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자
- 7) 조합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자

제 3 조 : 분임원 15명

주제 : 노동조합내 여성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

- 1) 여성관심 부족
- 2) 조직내 갈등

<원인>

- 1) 여성간부의 기피현상
- 2) 의견존중 미흡
- 3) 이기심
- 4) 가부장적인 조합활동
- 5) 조합원의 참여부족
- 6) 여성간부의 잦은 변동
- 7) 여성의식화 부족

<해결방안>

- 1) 적극적인 교육유도
- 2) 직책 임용에 다변화

- 3) 인재발굴
- 4) 다채로운 행사추진(단결)
- 5) 간부들의 단합대회

<결론>

다양한 교육과 정보교환으로 의지력, 단결력, 추진력을 향상시켜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킨다.

제 4 조 : 분임원 15명

주제 : 노동조합 간부의 자세

1) 조합원들의 교육의식 부족

- 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행하자
- ② 체계적인 교육실행 되도록 홍보활동의 책임을 갖자
- ③ 단체협약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갖자

2) 남.녀 신분격차, 노노갈등

- ① 여성간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
- ②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행화에 노력하자
- ③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자
- ④ 남성들에 가부장적인 생각을 우리 스스로 깨자
- ⑤ 임금격차를 동등하게 요구하자
- ⑥ 복지 후생등을 동등하게 요구하자

3) 현집행부와 전집행부에 연결고리 뿌리가 필요하다.

- ① 서로간의 불신을 버리고 사측이 노력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② 집행부 교체시, 각 사업은 계속이어서 추진한다.
- ③ 현집행부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에게 배경, 지식 전달
- ④ 뿌리 의식 중요

4) 간부와 조합원들간에 신뢰성 회복

- ① 간부교육의 의미를 깨우치게 한다.
- ② 조합원을 위해 간부화됨에 책임을 갖자
- ③ 조직내에 도움이 되는 간부활동을 하자
- ④ 회사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나누자(정기적인 모임)
- ⑤ 간부로서 스스로 의욕을 다져 나간다.

< 개사곡 >

제 1 조 - 아빠의 청춘

이 세상에 여자마음 다 같은 마음
노사화합 잘되라고 번창하라고
행동으로 밀어주는 여성동진대
여성이라 차별하며 욕하지마라
아직까지 여성에겐 희망이 있다.
평등임금, 고용안정, 여성의 희망
금속, 화학, 여성의 승리
<구호> 여성동지 하나되어 성희롱을 끝장내자

제 2 조 - 단결의 II

노동조합 이끌어 가자
노동조합 여성동지여
노동해방 그날을 향해
노동해방 함께 달리자
<구호> 성희롱이 웬말이나 꺾떨이는 물러가라

제 3 조 - 여성해방

풀어져있던 - 여성간부들 -
내가울면 오뉴월에 서리가 온다
구사대 물리쳐도 이겨내고
직장내 성희롱 물리친다
영덩이 만지지마 슬 - 적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운다
바보, 빠리 빠리 당할래
바보, 빠리 빠리 당하지마
여성 해방오면 웃음꽃 핀다.

<구호> 뭉치자, 뭉치자, 하나되어 !
깨불자, 깨불자, 의식개혁 !

제 4 조 - 직장은 요지경

직장은 요지경 성차별 속이다

미스김은 미스김으로 살고

미스리는 미스리로 산다

야야 애들아! 여자는 이름없나

여기도 남자 저기도 남자 남자만 판치나 !

여자가 살면 7-8십 남자보다 오래산다

정신차려라

여자들이 뭉친다. 여자들이 뭉친다

<구호>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 우리는 거부한다.

6. '99 여성간부 교육평가서

◆ '99 여성간부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평가서를 작성하였음.

1. 교육에 대한 전체평가 ?

1) 21C 무한 경쟁의 모습(강사:김성무교육원 원장)

① 좋았다.(10명) ② 보통이다(33명) ③ 나빴다(14명)

2) 여성관계법 해설(강사:김엘림 여성개발원 책임연구위원)

① 좋았다(31명) ② 보통이다(26명) ③ 나빴다

▶ 일상 노동법의 대한 설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예를 들어 이해가 쉬웠다.

▶ 헌법과 현실에 되어지는 관행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노력 하련다

▶ 어려운 법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3)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할 것인가?(강사 : 문강분 노무사)

① 좋았다 (36명) ② 보통이다(21명) ③ 나빴다

▶ 무엇이 성희롱이며 해결방안에 대한 뚜렷한 주체의식 생김

▶ 쉽게 강의해서 조직에 돌아가 전달 교육을 하겠다.

4)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및 간부의 역할(강사 : 김근화 여성인력자원금고 이사장)

① 좋았다 (34명) ② 보통이다(23명) ③ 나빴다

▶ 여성간부로서 자긍심과 능력개발의 중요성 느낌

- ▶ 여성으로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었다.
- ▶ 다시듣고 싶은 강의임

5) 현장사례발표(강사 : 문춘화 화학노련 부위원장)

- ▶ 현장감이 있어서 산 교육이 된 것 같다.
- ▶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
- ▶ 적극적인 활동 감명받고 조합활동의 적극 참여기로 결심
- ▶ 우리의 현실이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존경스럽다.

6) 단결의 밤 및 분임토의(강사 : 최웅길 금속노련 지도위원)

① 좋았다.(34명) ② 보통이다(23명) ③ 나빴다.

- ▶ 화학, 금속노련이 함께하는 연대교육이어서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단결의 밤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이 좋았다.
- ▶ 율동을 많이 배워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 ▶ 분임토의를 통해 동지애를 느낄수 있었다.

2. 교육일정에 관하여

① 짧다(7명) ② 길다(5명) ③ 알맞다(45명)

3.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오시겠습니까?

① 예(56명) ② 아니오(1명)

4. 본 과정에 관한 건의 사항 및 개선방안

- ▶ 노동관계법과 성희롱의 대한 강의 시간이 짧음.
- ▶ 현장에서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토의
- ▶ 분임토의 시간을 늘려주고 노동가를 배웠으면 좋겠다.
- ▶ 여성간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교육부탁
- ▶ 교육장소 불편함(숙소, 방음장치 미흡, 부대시설이용에로등)
- ▶ 교육시간 잘 지켜줄것과 아침시간 운동을 했으면 함.

5. 화학노련 및 금속노련에 꼭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 여성간부 교육기회를 년 2-3회 요청.
- ▶ 노동운동 발전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화학, 금속노련이 되길
- ▶ 이번과 같은 연대차원에 교육기회가 더 많이 필요함

- ▶ 지방에 있는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청함.
- ▶ 연대차원에 공동교육이 좋았다. 다른 산별과도 폭넓은 연대교육필요
- ▶ 조직간에 정보교환을 할수 있는 시간부족, 대화할수 있는 시간 늘려줄 것을 요청

III.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 한국노총주관 -

1. 대회의 목적

- 1) 사회전반에 걸쳐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시킴
- 2)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의조직화를 통한 단결된 힘과 역량을 결집함.
- 3) 남녀 평등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사슬로건

고용안정, 조직확대, 모성보호

3. 행사명 : 평등실현을 위한 '99여성노동자대회

- 1) 일시 : 1999 년 10월 27일(14:00)
- 2) 장소 : 한국노총 대강당
- 3) 참석자 : 로움코리아 위원장 외 109명
- 4) 표창 : 대상 한국시그네틱스 위원장 류은주
- 5) 지원 : 칩팩코리아 어울림 울동패

4. 노래가사바꿔 부르기

< 금속노련 참가곡:여성노동자의 노래(원곡 : 철의노동자)>

여성동지 하나되어 인간다운 세상만드세
불공정한 이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 가세
고용차별 성차별을 단결로서 박살내자
남녀평등 참세상만이 정의로운 세상일세
투쟁속에 피어나는 꽃 남녀평등 세상일세
참세상은 평등세상 우리모두 열어가세
아 - 밝은 미래 평등의 세상 남녀함께 이룬세상
남녀 평등 정의의 세상 너와 나 너와 나 여성노동자

결 의 문

IMF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의 칼날이 온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참담한 현실앞에서 목놓아 울어야 했다. 사용자들은 어떠한 명분과 사전협의도 없이 무원칙하게 여성노동자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전환의 재물로 바쳤다. 여기에 정부는 사용자들의 이러한 악질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조장, 방조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임시직으로 전락하여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은 경제위기의 긴터널을 지나 본격적인 경기활성화의 기틀을 다졌다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온국민의 고통분담으로 맺은 소중한 과실의 성과는 극소수 가진자들만의 잔치판으로 돌변하여 또다시 우리를 소외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파괴하는 반여성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더 이상 소수의 가진자와 정부정책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며 오늘 '99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피 끓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금지조항에 대한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ILO협약 제171호를 즉각 비준하라.
1. 정부는 사용자가 자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성차별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1. 정부는 실직 가장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혜택을 즉각 확대하라.
1. 사용자는 비정규직화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즉각 보장하라.
1. 사용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무원칙한 해고, 비정규직 전환, 임금삭감등 직장내 성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우리는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 요구를 정부와 사용자가 또다시 무시한다면 전체 노동자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여 묵묵히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신규조직의 확대강화에 전력 노력한다.

1999년 10월 27일

평등실현을 위한 '99년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일동

IV.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1. 행사명 : 3·8 세계여성의날 92주년 기념
(조직확대와 평등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2. 슬로건 : 여성노동자가 있어 21세기가 존재한다.
3. 대회이슈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모성보호의 사회화
비정규직 및 미조직 여성조직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4. 대회일시 : 2000년 3월 8일 (14:00)
5. 대회장소 :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회관
6. 참석인원 : 동양사 위원장외 102명
※ 칩팩코리아 어울림 울동패 노동가 울동 지원

결 의 문

오늘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조직확대와 평등실현을 위한 가열찬 투쟁을 선언한다.

경제위기의 미명하에 자행된 탈법적인 여성 우선해고와 임금삭감의 고리를 끊고 무참하게 짓밟힌 평생평등노동권의 회복을 위한 힘찬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모성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하여 성차별을 극복하고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92년 전 노동권과 결사의자유를 외친 선배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차별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주40시간 주5일 노동제를 기필코 쟁취한다.
1.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을 극복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쟁취한다.
1.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기조에 맞서 여성노동자에 노동법 규정을 유지하고, 모성 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1. 우리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및 미조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한다.
1.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가해지는 성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생평등노동권을 확보한다.

2000년 3월 8일

조직확대와 평등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V. 회의활동 및 기타활동

1. 노총 여성국 회의

- 일 시 : 1999. 7. 14 (10:00)
-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 제7차 세계여성회의 결과에 관한 건
- ILO 지원 4개권역 여성간부 교육수련회 결과에 관한 건
-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 관련 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

2.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 관련 워크숍

- 일 시 : 1999. 7. 15 (10:30)
- 장 소 : 기독교회관 902호
- 주제발표 : - 여성관련법 주요 요구안 설명
- 국제동향 및 여성노동 관련법에 관한 건

3. 노총 여성국 회의

- 일 시 : 1999. 8. 26 (14:00)
-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관련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의 여성과 18세 미만의 아동과 야간·휴일근무 금지조항 완화조치에 관한 대책
 -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공동투쟁의 건

4. '99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실무위원회의

- 일 시 : 1999. 9. 13 (10:00)
- 장 소 : 노총 6층회의실
- 안 건 :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2부행사에 관한사항
 - 2부행사와 관련한 각종 물품만들기
 - 노래가사바꿔 부르기에 관한 건

5. '99 남녀 고용평등의 달 기념

- 일 시 : 1999. 10. 8 (10:30)
- 장 소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0층
- 주 관 : 한국노총, 노동부, 한국경총
- 표 창 : 한국중천노동조합 위원장 최해경 국무총리상

6. '99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실무위원회의

- 일 시 : 1999. 10. 11 (14:00)
- 장 소 : 한국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관한 사항
 - 모범조합원 표창관계
 - 2부행사와 관련한 각종물품만들기
 - 인원동원
 - 후원광고
 - 노가바 만들기

7. 노총 여성국회의

- 일 시 : 1999. 10. 15 (14:00)
- 장 소 : 노총 6층회의실
- 안 건 : - '99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관한 건
 - 노동부(여성정책과)와의 간담회 건

8. 노동부 근로 여성정책과의 간담회

- 일 시 : 1999. 10. 21 (11:00)
- 장 소 : 노동부(과천종합청사)
- 안 건 : 현장의 고용차별 사례 및 각종차별사례에 관한 건

9. 중장년 여성실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1999. 11. 3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제 : - 여성실업자 구직구인 동향분석
- 여성실업자 사례발표
- 상담사례를 통해 본 실업대책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방안
- 여성실업자와 실업대책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방안
- 여성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 및 개선방안

10. 노총 여성국 회의

- 일 시 : 1999. 11. 12 (10시)
- 장 소 : 한국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 '99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종합평가의 건
- 토론회 개최의 건
(여성고용위기와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 관련건)

11.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여성노동관련 토론회

- 일 시 : 1999. 11. 12 (14시)
- 장 소 : 한국생산성본부
- 주제발표 : 노동의 유연성과 빈곤의 여성화

12. 여성고용위기와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 토론회

1) 목적

최근의 남녀평등의식의 확산과 여성고용의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아직도 IMF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고용의 형태가 비정규직 상태로 머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및 실업대책 그리고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일 시 : 1999년 11월 25일 (14시 30분)

3) 장 소 : 한국노총 8층강당

- 4) 발 제 : - 경제위기 이후 여성실업 실태와 정부의 실업대책
-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
- 5) 토 론 : - 정부실업대책 향후계획
- 여성실업과 정부 실업대책 및 조직화 방안 검토
- 금융 비정규직 노동자현황과 조직화 계획

13. 노총 여성국회의

- 일 시 : 2000. 1. 18 (15:00)
- 장 소 : 노총 6층회의실
- 안 건 :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관련 건
- 2000년 여성사업계획에 관한 건

14. 노총 여성국회의

- 일 시 : 2000. 2. 16 (14:00)
-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관련 건

VI. 노동문화활동

1.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1) 목적

노동문화 활동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고 닫힌 마음들을 열수 있도록 해주며 단결력 및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지간에 민음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해 주며 노동문화 활동을 통해 발표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갖게하고 단위노조 조합원들에게 노동가 및 율동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2) 교육일시 및 장소

- ① 일 시 : 1999. 12. 2 - 12. 3(1박 2일)
- ② 장 소 : 노총중앙 교육원
- ③ 참석인원 : 69 명

3) 교육내용

- ① 현장활동에서의 노동문화의 중요성 및 이해
- ② 노동가 및 율동지도 방법
- ③ 공동체 놀이 및 촛불의식
- ④ 그룹별 토의 및 율동 만들기
- ⑤ 사업장 율동패 공연(칩팩코리아 노동조합)

4) 교육평가

교육전반에 걸쳐 느낀점은 대체적으로 좋았다. 노동가와 율동을 활발하게 하다보니 동지애를 느꼈다. 또한 율동을 통하여 노동자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지고 노동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타회사의 율동 공연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나 정보교환시간이 부족했다. 또 교육인원에 비해 장소가 비좁고 의자를 움직일수 없어 게임 및 율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교육시간이 짧아 너무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동지들의 모습이 좋았고 시간이 짧아 새로운 노래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으며 노동가 및 율동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것도 아쉽다. 교육과정에 관한 건의사항 및 개선방은 교육장 셔틀버스운행, 율동자료나 노동가테입 사업장에 발송, 교육일정을 느려 이론교육을 병행했으면 하고 프로그램 다양하게 조합별, 지역별로 인원배정에 균형을 이루었으며 율동을 잘하는 조합과 그러하지 못한 조합과 교류, 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지역본부별로 교육, 남녀비율을 맞추어 주었으면하고 꼭 노동자를 대변하는 상급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기간도 좀더 길게 하여 자세하고 확실하게 배울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교육횟수도 늘려서 새로운 율동과 노동가를 많이 보급했으면 한다.

2. 노동가테이프 제4집 제작

1) 목 적

문화활동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노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노동가는 우리의 소리 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며 단결과 동지에 그리고 언제 어느때나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노래,결의를 하나로 묶어 단결력을 고취시켜주고 있다. 그리하여 조합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노동가테이프를 제작하였음.

2) 테이프수록곡

앞 면	뒷 면
1. 세상을 바꾸자 2. 정리해고 분쇄가 3. 노동탄압 분쇄가 4. 바위처럼 5. 또다시 앞으로 6. 서울에서 평양까지 7. 사람이 태어나 8. 희망의 노래 9. 다시 떠나는 날 10. 일이 필요해	1. 내일의 노래 2. 정리해고 박살가 3. 강 4. 전진의 노래 5. 우리의 내일 6. 곳곳하게 7. 가자 노동해방 8. 불나비 9. 바로 그 한 사람이 10. 동지

3) 테이프제작 수량 : 1000개

3. '99년도 노동절 기념 노동문화제

- 1) 일 시 : 1999. 5. 1
- 2) 장 소 : KBS 88체육관
- 3) 표 창 : 금상 - 칩팩코리아노동조합 어울림 율동패
(참가곡 - 한국노총 진군가)

동상 - 한국시그네틱스노동조합 하나로 율동패
(참가곡 - 세상을 바꾸자)

단결상 - 현대전자노동조합 햇새벽
(참가곡 - 승리의 역사 진군의 역사)

4. 노동악법 철폐, 노동시간 단축 및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 1) 일 시 : 1999. 11. 21
- 2) 장 소 : 보라매 공원
- 3) 지 원 : 칩팩코리아노동조합 어울림 율동패 노동가율동지원
5. 노정합의 관철 및 배신정권 규탄 2차 총파업 투쟁실천대회
 - 1) 일 시 : 1999. 11. 23
 - 2) 장 소 : 서울역 광장
 - 3) 지 원 : 칩팩코리아노동조합 어울림율동패 노동가율동지원

VII. 연맹방송차량 모금

1. 방송차량 사용목적

- 금속노동자의 단결력 및 투쟁력 고취
- 각종집회시 대열지휘 및 가두방송
-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행사 및 투쟁, 쟁의행위 지원

2. 모금방법

단위노조 조합원 모금운동으로 조합원 1인당 500원이상씩 모금을 전개하였다.

3. 모금현황

별첨

4. 연맹 방송차량 모금 수입지출내역

2000 년 4월 10일 현재

수 입		지 출	
103개 사업장	26,738,220	차량비	14,735,000
		인지대	38,040
		등록세	966,550
		차량부착사다리외	440,000
		자동차보험	682,250
		스피커리프트제작	750,000
		앰프셀트	4,000,000
		스피커커브	30,000
		전력인입코드	25,000
		지지대 수리	10,000
		자석명판	50,000
		은행 수수료	1200
	26,738,220		21,728,040
		잔 액 :	5,010,180

금속노련 차량지원금 접수현황

번호	조 합 명	대표자	금 액	지 역
1	LG전선노동조합	도 정 복	1,000,000	경기
2	신한일전기노동조합	박 영 집	225,000	경기
3	성신노동조합	유 진 화	150,000	경기
4	신한주철노동조합	윤 무 영	150,000	경기
5	선일기계노동조합	이 원 섭	55,000	경기
6	칩팩코리아노동조합	허 원	500,000	경기
7	우진전자노동조합	전 경 준	50,000	경기
8	현대전자노동조합	장 경 재	3,000,000	경기
9	FAG한화베어링노동조합	장 준 영	300,000	경남
10	한국중천노동조합	최 해 경	250,000	경남
11	세원중공업노동조합	허 영 환	200,000	경남
12	두원중공업노동조합	정 진 용	135,000	경남
13	적고노동조합	조 정 기	100,000	경남
14	한국산본노동조합	이 행 철	100,000	경남
15	한국시티즌노동조합	최 정 호	100,000	경남
16	한국카시오노동조합	이 선 중	75,000	경남
17	대동정비노동조합	백 운 효	45,000	경남
18	양산지역지부		300,000	경남
19	서울차체창원지부	조 현 봉	28,000	경남
20	현대반도체노동조합	강 영 철	2,000,000	구미
21	LG필립스노동조합	변 재 환	1,000,000	구미
22	LG마이크로닉스노동조합	김 동 의	100,000	구미
23	동양강철노동조합	오 기 순	100,000	대전
24	한보철강노동조합	최 창 대	1,000,000	부산
25	조선선재노동조합	김 용 호	150,820	부산
26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	권 동 재	100,000	부산
27	연합철강노동조합	강 진 호	1,000,000	부산
28	세진아키텍노동조합	양 윤 석	20,000	부산
29	LG전자노동조합	장 석 춘	4,000,000	서울
30	세진전자노동조합	문 광 주	500,000	서울
31	시그네틱스노동조합	유 은 주	200,000	서울
32	대우전자서비스노동조합	오 태 곤	250,000	서울
33	대한전선노동조합	신 향 철	500,000	서울
	합 계		17,683,820	

번호	조 합 명	대표자	금 액	지 역
34	쌍용동해산기노동조합	김 영 옥	45,000	강원
35	LG산전서울지부	김 성 수	200,000	서울
36	한국음향노동조합	김 종 화	50,000	서울
37	동아건설노동조합	김 상 수	179,500	서울
38	평화산업노동조합	신 석 곤	250,000	대구.경북
39	화신노동조합	윤 승 오	150,000	대구.경북
40	영진노동조합	권 태 훈	50,000	대구.경북
41	동해전장노동조합	정 한 근	100,000	대구.경북
42	삼목강업노동조합	박 용 국	35,000	안산.시흥
43	세광알미늄노동조합	장 영 기	60,000	안산.시흥
44	서구산업노동조합 안산지부	오 세 광	100,000	안산.시흥
45	오양공조기노동조합	조 재 천	38,000	안산.시흥
46	동희산업노동조합	장 수 길	200,000	울산
47	신호스틸노동조합	박 창 옥	145,000	인천
48	미주제강노동조합	손 창 두	50,000	인천
49	전북지역본부		500,000	전북
50	기아특수강노동조합	이 정 석	1,000,000	전북
51	한국열교환기노조 정읍지부	정 병 택	35,000	전북
52	한성실업노동조합	안 성 환	119,000	충남
53	포스코홀스노동조합	이 승 재	320,000	충남
54	맥슨전자노동조합	최 종 철	50,000	충북
55	한국야금노동조합	왕 용 호	60,000	충북
56	한국알미늄노동조합	강 하 석	33,800	충북
57	IMF(국제금속노련)		550,600	
58	흥화공업노동조합	장 세 중	100,000	포항
59	동성철강노동조합	양 성 용	38,000	포항
60	세아제강노동조합	권 택 봉	100,000	포항
61	범아엔지니어링노동조합	강 호 광	10,000	포항
62	세아특수강노동조합	김 병 수	50,000	포항
63	한국주철관노동조합 포항지부	손 병 만	27,500	포항
64	그린산업노동조합	안 진 수	200,000	포항
65	세일공업노동조합	백 기 형	35,000	경남
66	동보노동조합	최 화 영	20,000	인천
67	대우전자노동조합	김 수 도	1,000,000	서울
68	한국열교환기노동조합	최 용 만	26,000	경기
	합 계		5,927,400	

번호	조 합 명	대표자	금 액	지 역
69	대성전선노동조합	최 경 천	200,000	충북
70	국제전기노동조합	김 종 화	100,000	경기
71	화천기공노동조합	송 웅 규	50,000	광주전남
72	한국알프스노동조합	강 대 선	50,000	"
73	하남전자노동조합	박 기 출	30,000	"
74	LG정밀노동조합	최 병 배	50,000	"
75	서울차체노동조합	국 동 현	50,000	"
76	세방전지노동조합	조 희 권	50,000	"
77	서진산업노동조합	문 성 동	30,000	"
78	화천기어노동조합	김 수 복	30,000	"
79	한국번디노동조합	고 주 선	30,000	"
80	로케트전기노동조합	남 규 현	50,000	"
81	금동조명노동조합	김 선 진	50,000	"
82	아룽기공노동조합	정 홍 원	30,000	"
83	한국신광전자노동조합	유 영 수	30,000	"
84	천기제강노동조합	이 은 정	30,000	"
85	부국산업노동조합	김 동 인	30,000	"
86	태양금속노동조합	이 병 욱	500,000	안산.시흥
87	삼양중기노동조합	김 성 수	60,000	경기
88	삼립산업노동조합	이 복 교	100,000	대구.경북
89	청우공업노동조합	유 제 봉	30,000	인천
90	도투락인천노동조합	김 현 섭	173,000	인천
91	LG정보통신노동조합	이 규 성	200,000	구미
92	삼신노동조합	강 한 우	40,000	충남
93	화승공조노동조합	최 중 석	35,000	충남
94	우일정밀노동조합	정 평 원	100,000	인천
95	KEP전자노동조합	이 병 원	200,000	서울
96	조선선재노동조합	이 창 호	30,000	포항
97	포철산기노동조합	김 형 중	14,000	포항
98	대농중공업노동조합	이 관 희	50,000	충북
99	한국쌍신전기노동조합	유 재 순	60,000	충남
100	대성셀텍노동조합	김 한 성	70,000	충북
101	동부제강노동조합	강 창 영	500,000	서울
102	에넥스노동조합	정 운 석	50,000	충북
103	대창중기노동조합	이 규 대	25,000	부산
			3,127,000	
	합 계		26,738,220	

정 치 활 동

목 차

- I. 각종회의활동 및 업무추진현황
- II.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 III. 한국노총 선거운동지침

I . 회의활동 및 업무추진현황

1. '정치개혁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공청회
 - 일 시 : 1999. 4. 14 (10시)
 - 장 소 : 한국노총 8층 대강당
 - 주 제 : 정치개혁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2. 정치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9. 4. 20 (14시)
 - 장 소 : 한국노총 6층 회의실
 - 내 용 : 1999년 한국노총 정치활동 세부실행계획 수립
3. 회원조합, 지역본부 정치담당자 간담회
 - 일 시 : 1999. 5. 28 (11: 00)
 - 장 소 : 한국노총 6층 회의실
 - 안 건 : 한국노총 2000년 총선전략 세부사업추진에 따른 사항
4. 회원조합, 지역본부 정치담당자 워크샵
 - 일 시 : 1999. 7. 14 - 15 (1박 2일)
 - 장 소 : 여주 중앙교육원
 - 안 건 : - 2000 년 총선전략 세부사업 추진방안
- 조합원주소록 확보
- 기타토의
5. 정치개혁 대토론회
 - 일 시 : 1999. 9. 17 (14:00)
 - 장 소 : 한국노총 8층 대강당
 - 안 건 : -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
- 정치개혁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시민의 참여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6. 중앙정치위원회

- 일 시 : 2000. 1. 7 14: 00
- 장 소 : 한국노총 8층 대강당
- 안 건 : - 조합원 선거인 명부 수집에 관한 건
 - 각급조직 총선체제 구축에 관한 건
 - 총선후보 평가 및 평가기준에 관한 건
 - 한국노총 총선 공약에 관한 건
 - 한국노총 총선 후보 심사기준 및 선출방법에 관한 건
 - 정치활동기금 조성에 관한 건
 - 조합원 여론 조사에 관한 건
 - 중앙정치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기타토의사항

7. 한국노총 조합원 정치의식 조사

- 일 시 : 2000. 1. 11 - 1. 15
- 대 상 : 한국노총 조합원 2000명
- 목 적 : - IMF 2년 김대중정부 집권 2년의시기속에서 조합원들의 현재 정세 인식을 파악함.
 - 김대중 정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를 파악함.
 - 한국노총 총선 전략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와 실천의지를 파악함.

8. 한나라당과의 정책간담회

- 일 시 : 2000. 1. 24 (10: 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9. 금권선거, 정경유착 경제5단체 규탄 노동자대회

- 일 시 : 2000. 2. 14 (14:00)
- 대 상 : 전경련 회관 앞
- 참석인원 : 경인지역 노조간부 500여명
- 목 적 : - 전경련의 금권, 타락선거 음모규탄
 - 금권선거 방지를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개혁을 이룩함.

10. 제 7 차 중앙정치위원회

- 일 시 : 2000. 2. 15 (11: 00)
- 장 소 : 한국노총 8층대강당
- 안 건 : - 당락운동 대상평가
 - 한국노총 총선 후보 심사
 - 정당평가(안) 확정
 - 총선투쟁 세부 일정 확정
 - 기타토의 사항

11. 제 8 차 중앙정치 위원회

- 일 시 : 2000. 3. 6 (11:00)
- 대 상 : 한국노총 8층대강당
- 안 건 : - 총선투쟁일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당선운동 세부지침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

12. 제 16대 총선 노총출신 지역출마자 지구당 격려 방문

- 일 시 : 2000. 4. 3 - 4. 8
- 대 상 : 한국노총출신 지역출마자 5명
(조한천, 조성준, 이강희, 김문수, 박종근)
- 내 용 : 조직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당선될수 있도록 격려

II.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안내

[일 러 두 기]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단체와 다를 것이 없는 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 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입후보준 비행위, 선거운동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 또는 업무 상의 행위, 의례적·사교상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나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때에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음.

※ 덧붙임2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의 한계에 관한 운용기준 참조

노동조합활동 관련 선거법 운용기준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

선거기간중에 노동조합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위노동조합과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말함.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제외됨.

○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범외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공무원노동조합(교원노동조합 포함. 이하 같음)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음.

2. 노동조합의 선거운동범위

가. 지지후보자 결정 및 통지행위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는 것은 조합내부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 노동조합이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조합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합의 의사를 알리고 이에 따르도록 단순히 권유·협력할 것을 당부하거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조합규약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하여 개

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허용사례예시 》

- 노동조합이 조합원중에서 입후보할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속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모집하는 행위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
- 소속조합원에게 안내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게시판에 후보자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첨부하는 행위
- 다만,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함)에서 제한·금지하는 규제의 적용을 받음.

※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기관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선전·반대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에 해당될 것이며, 통상적·정기적인 발행주기·수량·면수·배부범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및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 위반되는 탈법적인 인쇄물 내지 통상방법외의 배부 등에 해당될 것임.

나. 선거대책기구 등 선거운동기구 설치행위

노동조합의 기구·조직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음.

《 허용사례예시 》

노동조합사무소를 선거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와의 공동선거운동

노동조합이 정당 또는 다른 노동조합과 연합·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합 또는 공동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

라.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선거기간중에 노동조합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공선법의 제한·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을 것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 공선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허용사례예시 》

○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에 노동조합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지지·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후보자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에 연설원·사회자·대담·토론자로 참여하여 노동조합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법사례예시 》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명으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이나 애드벌룬·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중 노동조합의 명의로 단합대회·향우회·야유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의 한계에 관한 운용기준

(2000.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다음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의 표시로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주장을 개진하거나, 그러한 정책에 동조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직접 거명하지 아니하고 지지·반대한다는 일반적 논평을 하는 행위

나. 단체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거명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공표하는 행위

다. 단체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지지·반대하는 후보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 정당에만 통지하는 행위

라. 단체가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2.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단체가 낙선운동·공천반대운동 등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여 공표하는 행위

Ⅲ. 한국노총 선거운동 지침

1. 기본원칙

-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당선운동 대상자로确定的한 지역구 후보자(이하 '지지후보'라 한다)의 당선운동에 주력
-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조직 총동원
- 여건이 가능한 각급조직에서는 정치자금 지원
- 산별연맹의 지역조직은 한국노총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당선운동과 합류
- 선거법 준수

2. 선거운동 방향

1) 선거지원반 설치

- 노총 시도본부 및 지역지부에 지지후보의 '선거지원반' 설치(설치일자는 각급조직의 사정에 따라 결정)
- 상근간부 및 단위노조 대표자를 중심으로 선거지원반 운영
- 각급조직의 모든 선거운동은 선거지원반을 통해 전개
- 선거지원반의 모든 활동은 지지후보의 선거사무소와 협의하여 결정

2) 조직동원

-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거리유세에 전조직 동원
- 제1차 한국노총 조직동원의 날(4월 2일)
- 제2차 한국노총 조직동원의 날(4월 9일)
- * 지정된 날자에 조직동원이 어려운 경우나 합동연설회가 없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변경

- 전조직동원시 청중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질서유지
- 전조직동원시 노조 깃발을 동원할 경우 일반청중의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자제

3) 지지결의대회 개최

- 지역본부, 지역지부, 단위노조 명의로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결의대회' 개최(옥내)
- 각급조직의 사정에 따라 추진
- 독자적인 대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지역본부에서 일괄 개최

4) 시장유세

- 시도지역본부 및 지역지부별로 매일 저녁 5시 - 7시까지 채래식시장 홍보활동 전개(지지후보의 홍보물 배포)
- 1일 5명으로 팀 구성
- 1일 1개 시장 전담(해당 지역구의 시장이 3개인 경우 3일에 한번씩 홍보활동)
- 시장유세의 경우 시장상인과 손님들의 반감을 사지않기 위해 복장 및 언어사용에 유념해야 함

5) 정치자금 지원

- 조직적인 당선운동의 전개를 위해 각급조직별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정치자금을 지지후보에 지원
- 가급적 조합원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조합원 1인당 정치자금을 걷는 방법 또는 노동조합의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함

6) 홍보활동

- 조합원 구전(口傳)활동 전개
- * 시도본부 및 지역지부의 선거지원반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 1인당 선거구민 10명에게

한국노총의 지지후보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 각급조직(단위노조 포함)의 기관지, 특보 등을 제작하여 조합원이 지지후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7) 자원봉사활동

- 지지후보의 지역구별로 10명씩 자원봉사자로 등록
- 지지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 지원
- 홍보물 배포, 거리유세, 합동연설회 등 지원

8) 사이버(Cyber) 선거운동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조직 및 조합원은 사이버 선거운동 전개
- 지지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직적으로 지지의 글을 올려 홍보

9) 투표참가운동

- 기권방지운동 캠페인 전개
 - * 일시, 장소 등은 각급조직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선거운동 기간동안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피켓, 별도의 유인물 배포 등이 제한되어 노동조합의 총선참여가 과시되지 않는바, 각급조직별로 대대적인 '선거참여캠페인'을 전개하여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알리고 조직역량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함
- 선거당일 야유회, 체육대회 등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3. 선거운동시 유의사항

1)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활동시 유의사항(3월 27일까지)

- 후보자와 해당지역 조합원(유권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현행법에 저촉됨.
- 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매체 등이 주관하고, 각 정당의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공동토론회에 참여하여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와 당선운동 계획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함(이때 당선운동 대상자를 거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2) 선거운동 기간중의 유의사항(3월 28일 이후)

① 선거운동 지원

-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으나, 기존의 노조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로 제공할 수 있음.

② 시민단체와의 선거운동 연대

- 2000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시민단체와 선거운동 연대는 가능함
-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 2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등)와는 선거운동을 같이 할 수 없음.

③ 홍보활동

- 지지후보에 대한 홍보활동시 통상적으로 노조가 발행하는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
- 별도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플랭카드 등을 제작하여 옥외에 설치하는 것

은 법률에 저촉됨.

- 옥외에서 별도의 집회를 통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결의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저촉됨.

3) 일반 사항

-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 지지후보의 선거운동 일정에 차질이 가지않도록 주의
-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감안하여 선거구민의 반감을 사지않도록 복장 및 홍보활동에 주의를 기울임
- 조직동원시 질서를 유지하고 모범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통제
- 선거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각급조직의 모든 선거운동은 자체경비로 충당 (자원봉사)